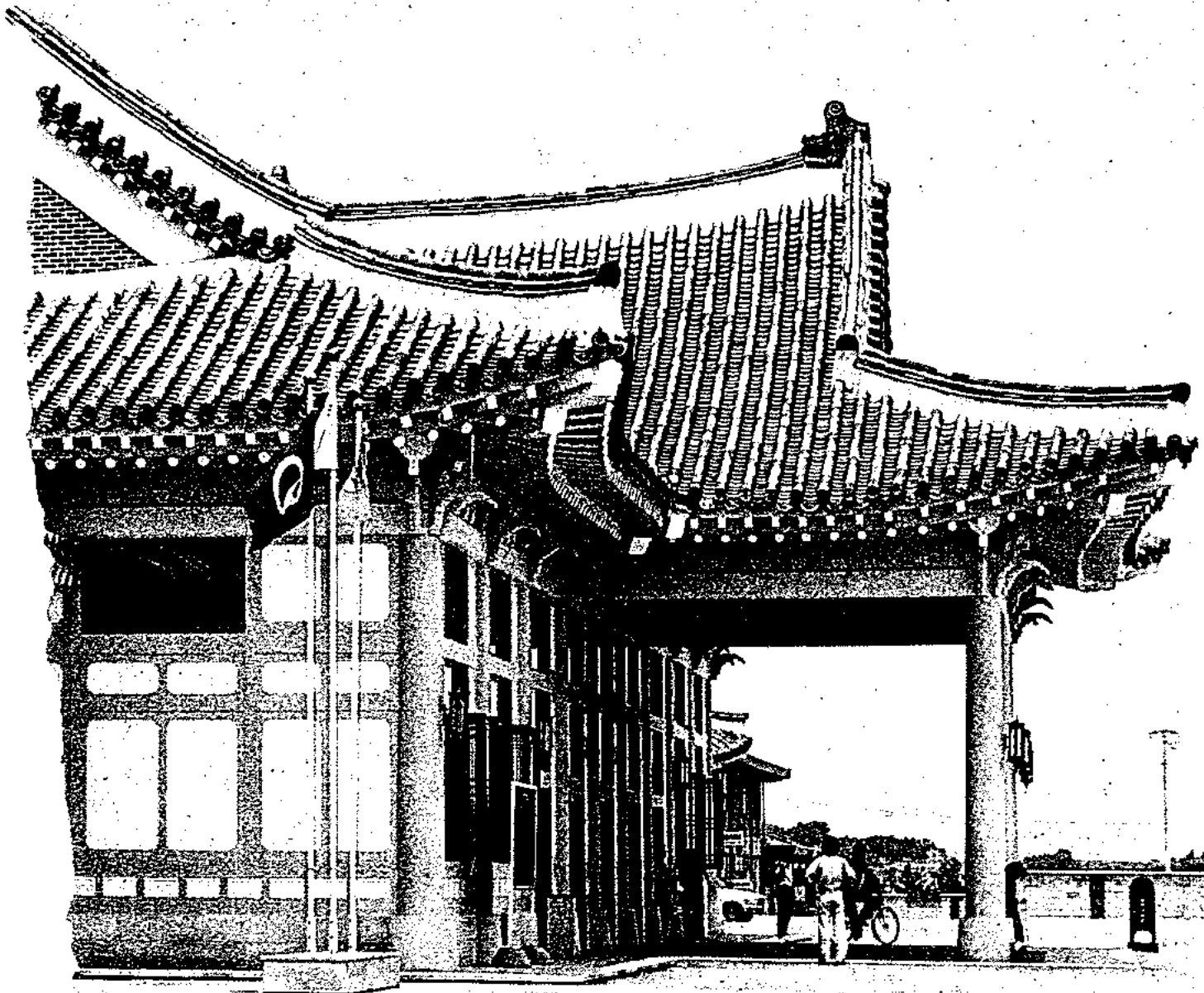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創刊於 1945年 10月 1日 第 100 號 1981年 7月 1日 第 100 號

1981 7



〈발명특허 제7983호〉

값싼 초호화 고급내장재

특 장

- 강한, 내화, 내수성으로 빗음, 보온 등 효과가 다양함.
- 공해나 독성이 전혀 없고, 공기 가거나 벗겨지지 않고, 변색이 없음.
- 벽면이 자연스러운 요철을 형성하고 질감이 좋아 습기, 벽지의 광면성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없애고, 방음의 효과가 큼.
- 시공에 있어 조배공정이 필요치 않아 전 문기 또는 숙련공이 필요없고 재료의 손실이 없음.
- 거조후 단단한 파락이 형성되어 마모가 없으며 습기에 강함.
- 폴레 벽지와 같은 이음새가 없기때문에 실내전체가 한장의 섬유지로 이루어진것 같이 보여 안정되고 아늑한 분위기를 형성함.
- 우당과 분타일 또는 조각모양의 판체, 자연스러운 무늬와 요철로 일체의 벽이 형성되며 골재나 워버면과의 뛰어난 밀착력으로 화재발생시 쉽게 정화되지 않는 내화성을 지님.
- 보통은 특수주문에 의해 생산된 정착체이므로 공해가 일체없고 오랜기간 그 원형을 보전하고 가격이 저렴함.

施工方法

- ① 벽면에 기름이나 물이 들어 있는,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바를것.
- ② 보통에 돌봉된 유약을 물과 함께 섞을것.
- ③ 물의 양은 미정하기때 좋은 반죽형머가 단두로 서서히 주입하며 충분히 섞어줄것.
- ④ 반죽한후 약30분쯤 경과 후에 시공할것.
- ⑤ 시공후 반죽이 남으면 반죽상태에서는 오랜기간 놓아둔 후 다시 쓸수 없으므로 적당량을 선택하여 재료의 손실을 줄일것.

耐水
耐火
防音
保温



百忍企業株式会社
BAEKIN ENTERPRISE CO., LTD.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 산75-6

☎ (52) 1651 (555) 5076 (상단8/D2층)

공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7-42 ☎ 444. 0506





表紙説明 / 全州駅舎
設計 / 慎武賊・撮影 / 李揆賛

月刊 建築士

U.D.C. 69 / 72 (054-2) : 0612 (519)

目次

通巻148号 **1981. 7**

論壇 / 建築家と社会的責任	2
特輯 / 意見과 対策을 알아본다.	14
— 大型工事設計엔지니어링・建築士보조원 確保문제 —	

論説・論文 / 建築士の提言	金知徳	19
建築디자인은 使用者편에서 있는가	趙大成	22
住宅各部의 標準寸数와 單位平面	尹道根	25
韓式 大木作制度 概説	趙勝元・趙英武	33
太陽熱住宅의 액티브시스템	劉承圭	39
Alvar Aalto의 作品에 대한 小考	潘好鎔	43

元老建築家 探訪 / 張起仁	46
----------------	----

會員作品 /		49
■ 全州駅舎	・(주) 서한건축	愼武賊..... 50
■ 서울國立墓地顯忠館	・국보건설단	姜奉辰..... 52
■ 남대문빌딩 계획안	・도시건축	李起範..... 54
(釜山直轄市 支部編)		
■ 부산市 女性會館	・삼광건축	安鍾煥..... 56
■ 부산國際호텔	・서강건축	金伸宰..... 58
■ 부산 성문도 치과병원 및 보육원	・엄태우・김동희설계	嚴泰佑..... 60
■ 창원 한빛교회	・극동설계사	安日成..... 61
■ 김씨 주택	・럭키설계사	曹元植..... 62

支部巡訪 (釜山直轄市 支部 編)	63
-------------------	----

☐ 協會記事	3	☐ 建築界뉴스	10
☐ 主要建築設計 (6월)	11	☐ 7月の 인터뷰	18
☐ 月刊 建築情報	68	☐ 建築行政相談	74
☐ 質疑・応答	77	☐ 會員動靜	96

資料・統計 /	☐ 건축사 법 시행령중 개정령	79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9
	☐ 政府勞賃單価	85
	☐ 全国 建築許可 統計	95

海外作品	88
------	----

・ A + U

☐ 発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便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2, 723-4287, 724-1045
☐ 發行人 兼 編輯人 具 玟 會 ☐ 登録番号 第1-1251 ☐ 登録 1967.3.23
☐ 發行 1981.7.1 ☐ 非売品 ☐ 印刷人 郭 得 龍 / 三文印刷所 / 261-7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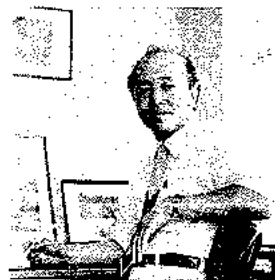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148호
구입년월일	1981. 7
대한건축사협회 釜山直轄市支部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員	金奉勲
"	吳昌熙
"	尹道根
"	尹鳳源
"	李文輔
"	張錫雄
"	洪淳寅
"	黃一仁

建築家와 社會的責任

大韓建築士協會 理事 金正澈
(株) 正林建築 代表理事



□ 社會의 建築的 興件

우리는 20世紀 後半에 살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5個年計劃을 통해 “라인江의 奇蹟”이 아닌 “漢江 邊의 飛躍”을 成就하므로 消費가 美德으로 알 程度로 物質의 豐饒時代를 맞이했다.

우리가 使用할 수 있는 수많은 材料, 工法과 各種技術情報 및 資料等은 國內의 範圍를 넘어서 온 世界가 一日生活圈에 捲려짐에 따라 想像을 초월한 量的膨脹을 가져왔다. 우리가 關係하는 Project에 있어서도 그 Scale(規模)의 擴大는 日益 增大의 추세에 있다. 몇천坪의 建物이면 그것이 어떤 用途, 어떤 特質의 建物이든 큰 規模의 建築物로 建築家들을 흥분케하고 喜悅이 넘치게 했던 일이 바로 몇그제 같은 錯覺을 하게 한다.

近年에는 數萬坪의 建物들이 우리 建築家들의 손에 依하여 計劃되고 建立되어 大型建物의 機能을 잘 消化하면서 都市環境속에 創作的 構成要素로 人間의 삶에 이바지하고 있는 例를 흔하게 볼 수 있다.

Scale의 擴大는 規模뿐만 아니라 그 内容에 있어서 複雜한 性能의 確保와 수없이 많은 要素들로 構成되기 때문에 이의 完璧한 解決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勞力과 精誠을 쏟아야만 한다.

建築은 原來가 社會的인 것이다. 그리고 人間은 個的이건 集團的이건 複雜한 生物로써 변화무쌍한 慾求를 가졌으며, 이 또한 建築家들에게 아주 어려운 問題의 解決을 要求해 오게 된다.

이에 反해 建築主, 또는 社會의 建築活動에 對한 理解는 그 水準을 의심할 程度이며, 外國의 建築 文化的 興件과 比較하여 볼때 너무도 懸隔함을 다시한번 歎息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러한 兩者의 認識의 差異나 興件의 不備를 忍耐하면서 積極的인 姿勢로 文化的啓蒙을 게을리하지 않고, 當面하고 있는 現實의 興件을 克服하면서 責任을 다하는 일만이 우리 建築家들의 役割인 것이다.

□ 建築家의 役割

時代에 따라 建築의 活動이나 建築家의 役割도 變해왔고 여러 分野의 技術者의 協力이 必要하게 된것은 歷史的 事實이다.

量과 scale의 擴大, 그리고 經濟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建物이 선다는 것은 社會와 어떤式으로든지 連關을 가지며 都市의 集團속에 存在할때 都市環境속에 그것은 都市를 構成하는 環境의 要素中の 하나 인 것이다. 即 規範도 있어야하고 秩序와 道德도 지켜야 한다.

建築을 個體로 볼때도 그 建築을 構成하는 要素는 Hard한 것에서Soft한 要素까지 헤아릴 수 없는 内容으로 構成되어 있다. 個體의 内容과 그 構成은 個人에 個性이 있듯이 其建物 나름대로의 用途와 建物主의 要求나 기호에 따라 處理되어도 무방 할 것이다.

그러나 建物은 内部 空間만이 存在意義가 있는 實像만이 아니라, 周圍와 더불어 環境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社會의 公共物로서의 意義가 더 커진다.

建築家は 都市에 建物을 세우고 형태를 부여하며 우리 文化의 極致에 이르는 幸福하고 아름다운 都市를 만드는 偉大한 職分을 가졌다.

우리는 先人들이 이룩한 모든 유산을 보고 배우며 當代에 産業 技術의 모든 것을 알고 研究하여 現代 社會가 要請하는 높은 技術水準의 達成을 위하여 建築의 創造의 技術을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 複雜하고도 多樣한

모든 要求들이 가장 完璧하게 이루어 지도록 建物主의 內的인 要求와 문제들을 解決하고 外的으로는 社會의 모든 人間이 사랑하고 아끼는 周圍와 環境을 우리가 만든다는 矜持와 姿勢를 갖고 創作活動을 해야한다. 建築家は 언제나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過去가 이룩한 모든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觀察하고 未來가 우리들에게 期待하는 것들을 予測하며 純粹하고도 희생적인 精神으로 建築에 임해야 한다.

建築家が 얼마나 過去를 아끼고 藝術을 사랑하고 活動하는가를 社會가 認識할 때 우리의 社會的인 地位는 마련되며 建築活動의 여건이 부여되는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建築家의 순수한 良識과 責任있는 行動이 重要한 것이다.

建築家の 義務를 외면하고 우리의 立場과 權利만을 내세울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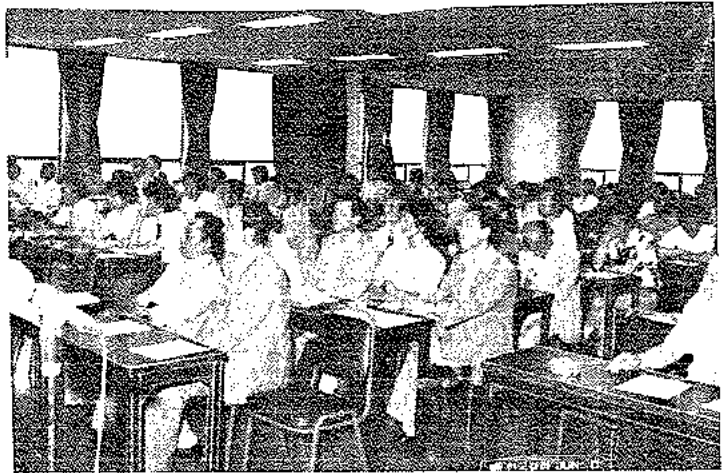
□ 바른 建築活動

建築은 손끝만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社會를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의 情緒의 生活과 未來環境을 위하여 윤택한 條件을 더 確保케 하려는 “人生”에 바탕을 둔 努力이며 올바른 建築을 하려는 眞實하고 겸손한 마음의 實踐이어야 한다.

社會는 우리에게 冷酷하리만큼 徹底하고 많은 要求를 하는 廣義의 Client 이므로 우리의 藝術的 文化的 經驗과 探究의으로 技術의 연마를 다하여 都市와 環境造成에 寄與하고 아름답고 값진 建築文化를 創造하는 活動만이 우리에게 要求되고 있다.

(*)

納稅組合 公聽會 열어 서울支部會員 150여명 참석



納稅組合결성에 따른 公聽會가 지난달 19일 市内 종근당빌딩대강당에서 열렸다.

본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서울支部소속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金沂瓚稅務士의 배경설명 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본회가 그동안 회원들의 稅務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을 해소키위해 추진해오던 納稅組合結成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조합결성에 앞서 會員들의 理解를 돕기위한 것이었다.

공청회에 앞서 具琬會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시 기임을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기위

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의 물이해로 稅率이 높다고 지적하고 과중한 稅金으로 會員들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節稅方案으로 納稅組合 結成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任仁燦사무처장의 組合結成에 따른 그간의 과정을 說明,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金沂瓚씨는 納稅組合制度에 관해 설명하면서 특히 그 목적에 대해 ① 自進申告納付의 유도 ② 稅務마찰의 감소 ③ 租稅負擔感완화 ④ 동업자간 納稅權衡유지등을 강조하고 組合加入에 따른

特惠로는 ①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frac{10}{100}$ 을 控除 받으며 ② 所得標準率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율의 $\frac{10}{100}$ 낮은率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納稅組合을 통하여 납부한 세액의 10%를 國家로부터 交付金으로 받으며 組合을 이 교부금 만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加入동의서도 함께 받았는데 참석한 회원들은 조합의 필요성을 이해했으며 우선 서울지부 會員을 中心으로한 조합결성이 이루어진후 점차적으로 各支部組合結成이 될것으로 보인다.

9 회 理事會 개최

제 9 회 이사회가 지난달 11일본 회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琬會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會議에서는 開會辭에 이어 前會회의록승인과 主要業務報告, 附議안 전 順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업무보고내용은 會員福祉年金청산결과를 비롯해서 新規職員 채용, 會員海外여행 추진 予算세입세출 現況, 予算執行現況, 納稅組合結成 추진사항등이 보고되었다.

그밖에 附議案件으로 경기지부 富川分所長직무대리 정춘성씨 승



인의 진을 비롯해서 6월분에 산배 정액 승인 전등 모두 11개 의안이 논의 되었다.

주요의안에 대한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京畿支部 富川分所長 職務代

理 정춘성씨 선임=지난 4월21일자로 사임한 한태희씨후임에 次期同支部 總會때까지 정춘성씨가 分所長職務를 맡도록 승인했다.

△淨化추진 中央協議會委員 선임=건설부 81년도 정화운동추진

協會消息

계획에 의거 中央協會를 구성키로 하고 자문위원성격으로해서 5명정도를 會長이 선임토록했다. 본協會의 任務는 ①不實設計 및 고질적인 부조리제거 ②不實監理 방지 ③會員間 不當 경쟁 규제방안 검토 實施 ④自律淨化 과제선정 및 추진 ⑤ 기타 淨化사항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 우수建築資材 展示會 = 7월중에 實施키로 하되 資材메이커가 自律적으로 運營하도록 결의.

△ 海外시찰단파견 = 會員의 자질 향상과 外國建築文化에 대한 識見을 넓히기 위한 해외시찰단 파견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次期理事會에 제출토록 했다.

△ 會員作品展示會 = 會員의 創

作活動의 진작과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기하고 아울러 금년도 協會大賞選定을 겸한 전시회 개최건은 施行方法등을 중합검토해서 추진키로 의결했다.

그밖에 本誌 편집위원인 이문보 교수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7월 3일에 공로패를 수여키로 결의했다.

세 번째 支部長會議 열어 福祉年金청산위원회도

올들어 세번째 支部長회의와 두번째 福祉年金清算委員會가 동시에 지난 3일 본회 會議室에서 있었다.

主要業務보고를 비롯해서 복지연금청산, 協會運營, 경기부양방안, 納稅納合결성에 관한 사항등을 論議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具琬會會長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時期에 처해 있다고 전제하고 “공동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自求策이 강구되어야하며 各支部를 求心點으로 해서 會員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會議에서 主要業務報告가운데 우수건축자재展示會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이 논의된데 이어 부의 안전치리로 들어갔다.

부의안전 가운데 福祉年金 잔여이자추가 발생분에 대한 처리의견은 추가발생된 利子를 協會세입으로 처리키로 의결한데 이어 會운영에 있어서는 경북·경기지방에서 大邱市와 仁川市가 각각 직할시로 昇格됨에 따라 行政구역의 변경으로 支部運營上 생기는 제반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 件은 次期理事會에서 다시 다루기로하고 建設部의 有權해석에 따라 독립支部개설여하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기타사항으로는 景氣浮揚策이 논의된데 이어 會員의 稅務부담 減少와 節稅方案으로 추진되고 있는 納稅組合결성방안과 가설건축물圖書申告의 件등이 論議되었다.



本部·支部 連席會議

本會 및 支部任員 連席會議가 지난 6월 22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연석회의에는 具琬會회장을 비롯한 任員과 서울支部 任員등이 참석, 당면문제등을 協議했다.

이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서울支部 納稅組合結成에 따른 제반사

향으로 본회가 現在까지 추진한 사항을 各會員에게 알리고 조속한 組合結成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했다.

다.

그밖에 신문지상에 공모된 현상 設計公募廣告件은 이에 따른 發注

현의 理解를 돕고 會員들의 업무 추진을 위해 韓國建築設計競技 運營委에 회부하도록 했다.

충북支部 會員 간담회

具會長 · 支部會員과 함께

具玠會會長은 지난 8일 충북支部를 訪問하고 會員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吳世炯支部長을 비롯한 全會員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具會長은 “우리 會員들이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時期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協同團結아래 공동보조를 취하는 路만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協會運營전반에 관한 사항과 會員의 업무 위축에 대비한 自求策강구등

이 논의 된데 이어 最近 協會가 추진하고 있는 納稅組合結成문제 를 비롯해서 會員權益신장에 관한 幅 넓은 意見교환이 있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도내 각지에 있는 會員들이 모두 참석해서 協會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들 회원들은 간담회에 결하여 ① 젊은 建築士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② 福祉年金制度의 부활 ③ 1·2級의 一元化 ④ 建築士間의 作品비방근절등을 會長에게 건의 하기도했다.

建築技術 教育 실시

7. 20일부터 전회원

建築物의 設計 및 施工技術의 향상과 表準化등에 의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本會 建築研究委員會결정에 따른 地域別 순회교육일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 일정 및 장소=7.20일 대전시 민회관(충남 충북회원) 7.21일 전남건축사회관(전남 전북회원) 7.23일 부산은행빌딩동지점(부산·경북·경남·제주회원) 7.27일 한양대학교강당(서울·경기·강원회원)

△ 강사 및 시간계획=1교시(오전) 10~12시 50분 “건축물의 단열재시공”(중앙대 신현식 교수) 2교시(오후) 2~4시 50분 “건축물의 모둘”(한양대 김진일 교수)

自律淨化 추진위원회 개최

업무평가 및 추진계획수립

自律淨化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본회會議室에서 개최되었다.

2·4分期 淨化業務평가 및 請託배격운동의 실천화를 위해 열린 이날 委員會에는 具玠會會長을委員長으로 해서 朴成圭副委員長과 安箕泰, 朴來運, 尹 鉦, 康晋參, 吳顯煜, 金希洙委員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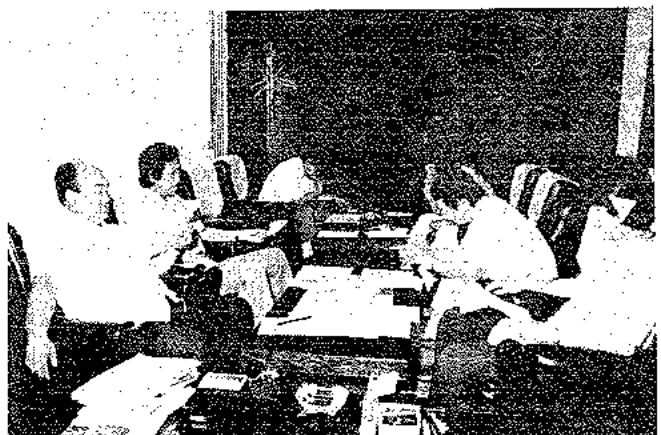
同期 淨化業務평가의 공동과제로는 ① 질서개념의 體質化 ② 분수 지키기 ③ 健全生活저해행위조절 ④ 不信풍조퇴치 ⑤ 倫理이념의 生活化 등이며 自体과제로는 ① 幹部

要員의 정예화 ② 不遇이웃돕기 ③ 명량한 職場분위기조성 ④ 근점節約의 生活化 ⑤ 부당넘평근절 ⑥ 工事監理불성실단속 등이다.

한편 主要淨化推進실적으로는 各支部別로 實施한 거리질서 캠페인, 정신교육실시, 토론 및 간담회와 불우이웃돕기, 自然保護캠페인 처

民봉사(농촌일손돕기, 민원상담) 등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이날 會議에서는 請託배격 2단계 추진계획도 樹立되었는데, 청탁발생요인을 根源的으로 除去하고 의식구조의 개혁을 통한 運動의 定着化를 목적으로해서 실천사항으로 ① 청탁요인의 除去 ②



표어부착 ③안하고 안반기의 생활화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敎育 및 제동활동으로 月1회씩 기관장의 훈화실시와 간부직에 대한 敎育실시, 정기간행물에 의한 弘報, 순회敎育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委員會에서는 본 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보다 內實을 기하기 위해 決議文과 口號를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

〈決議文〉

1. 우리는 새로운 時代의 建築文化創造者로서 긍지와 使命感을 갖고 淨化運動에 앞장선다.

2. 우리는 法과 秩序를 遵守하고 公益을 保護하며 맡은바 職分을 충실히 수행하여 참신한 建築士像을 定立한다.

3.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不正과 不腐를 배격하고 참신한 建築士로서 새國家指標인 民主福祉

國家의 礎石이 된다.

4. 우리는 誠實한 設計와 監理業務를 철저히하여 社會로부터 신뢰받는 建築士像을 具現한다.

〈口號〉

1. 우리는 새마음 새뜻으로 淨化運動을 충실히 수행하여 正義로운 社會具現에 앞장선다.

2. 우리는 信義로운 和合으로不 信풍조를 배격하고 마음의 淨化로 福祉國家建設에 기수가 된다.

支部別 淨化운동 활발

새로운 秩序확립과 福祉國家建設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汎國民의 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탁배격과 사회정화운동이 深化되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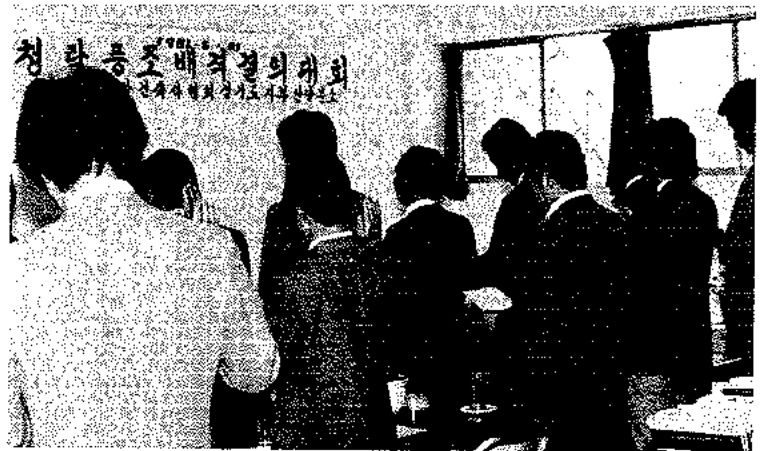
본회 산하 각支部에서도 지난 6월중에 청탁풍조배격과 사회정화운동을 勸進해서 실시, 새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支部 산하 인천, 부천, 성남, 안양分所 소속 회원들은 각각 청탁풍조배격결의대회를 갖고 정의로운 사회구현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인천分所는 5월24일에, 부천은 22일, 성남은 29일, 안양은 28일에 각각 分所事務室에서 모임을 열고 決議文을 채택하는등 새질서정립을 위한 정신무장에 만전을 기했다.

강원도支部는 지난달 12일 간사회의에서 청탁에 대한 사례와 이의 근절을 위한 會員 및 支部任職員의 기강확립을 강화하는 정신敎育을 실시했다.

이 敎育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탁과 法規를 위반하는 청탁, 會員간의 이간행위등을 근절키 위해 각자가 올바른 자세로 맡은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支部는 6월10일에 관내 각分所에 청탁배격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시공문을 보내고 청탁사례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했다.

청탁사례로는 ①미비된 도서 류 신고접수 ②業務와 관련된 금품수수 ③부당한 人事청탁 ④二重受託행위 ⑤명의대여 ⑥덤핑행위 ⑦불실시공 ⑧품위손상행위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支部에서는 任員과 職員敎育을 각각 실시하는데 이어 同運動의 實生活化를 유도하기도 했다.

6월11일에는 임원, 17일에는직원에 대해 청탁사례와 이의 근절에 각자가 노력할것을 강조하는 敎育을 실시했으며 20일에는 오찬을 결한 간담회에 회원 부부를 초청해서 사회정화의 생활화에 적극참여해줄것을 당부했다.

전북支部도 지난달 15일부터 17

일까지 3일간 관내 회원設計事務所를 순회 방문해서 비위會員사무소 實態調査와 병행, 會員 및 건축사보들에게 새 時代 새 秩序 定立에 앞장서기 위해 정화운동에 계속 自律의로 참여토록 했다. 이번 순회敎育에는 모두 98명이 참여했다.

자연보호캠페인 활발

본회 및 각지부별로 실시

농촌 일손돕기와 자연보호 캠페인에 본회를 비롯, 각 지부회원들이 勸進해서 참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본회는 지난 28일 具琬會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임직원이 강원도 청평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일요일을 이용해서 벌인 이날 캠페인에서 주변 산야에 널려있는 각종 오물등을 수거 깨끗한 자연

보호에 담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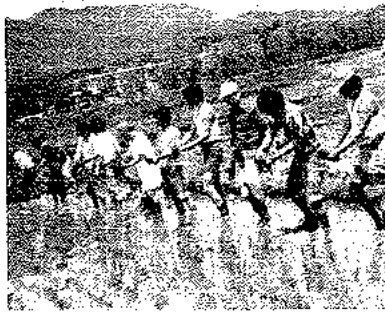
농촌 일손도와 모내기지원 경기·경북지부등

한편 경기도지부와 경북 지부회원들도 자연보호를 비롯한 바쁜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모내기에 참가 값진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경기도 지부소속산하 仁川分所 소속회원 27명은 지난달 2일 인천시 남구 동촌동에서 농촌 일손돕기운동에 참가, 1천 6백여명의논에 모내기를 한메이여 외정부分所 회원38명은 13일에 도봉산 일대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여 깨끗한山野가꾸기에 앞장섰다.

또 경북지부는 산업시찰을 겸한 자연보호운동을 1박 2일에 걸쳐 실시했다. 동지부 회원 및 직원91명은 지난달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진안, 구례, 순천, 광주, 창원공단등을 돌며 자연보호 캠페인 및 산업시찰을 했다.

한편 17일에는 대구시 동구 신평동에서 1백여명의 회원 및 직원들이 모내기에 참가 3천여명의논에 모를 심었다.



放送통해 協會 弘報 任處長, 주택상담출연

본회 任仁赫사무처장은 TV 및 라디오 放送에 출연, 協會弘報를 겸한 建築相談을 통해 建築에 대한 일반의 理解를 도왔다.

任처장은 지난달 22일과 26일 KBS 라디오 1과 4 방송에 각각 출연해서 장마철에 대비한 주택유지관리를 비롯해서 질병에 따른 내부기능저하등에 대해 대담방송을 한데 이어 23일에는 MBC-TV "안녕하십니까"에 출연해서 주택상담을 했다.

또 지난 9일 아침에는 KBS 제 3방송에 출연해서 建築法에 대한 解説을 통해 日照權과 人間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 이에 관계되는 民法과 제반 법규에 대해 상세히 해설을 곁들여 協會弘報는 물론 建築에 대한 一般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충남支部 마을金庫설립

충남지부소속 회원들이 마을金庫를 만들고 지난 15일 創立總會를 가졌다.

同支部소속 會員가운데 大田지구 建築士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이 마을金庫창립총회에는 본회 具琬會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인들이 대거 참석 그 뜻을 깊게했다.

具會長은 이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느때 보라도 어려운 시기에 協同團結의 귀감이 되어준 大田지구 會員들의 努力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마을金庫는 일반 여신업무는 물론 會員間의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 건전한 건축사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改正法規假製分배포

本회는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발간배포한 건축관계법령집 가운데 改正 및 新設된 建築法施行令과 建築法施行規則을 새로마련, 소속 會員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7월중에 배포할 이번 假製分은 지난 80년 11월12일 大統領令 제 10062호로 공포된 建築法施行令과 80년 12월22일에 바뀐 建築法施行規則(建設部令 279호)으로 약 1백

여면에 달한다.

아울러 本會는 앞으로도 계속관 제법규가 개정될때마다 會員業務를 능동적으로 돕기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日建築士會 초청으로 경기支部一部會員向日

경기支部소속 會員으로 구성된 건축기술연구단이 지난달 25일부터 18일간 日本을 방문했다.

日本建築士會 초청으로 出國한 동支部소속회원 8명은 韓日間の 建築技術교換을 비롯한 태양열건축의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관계기관의 見學을 위해 25일에 김

協會消息

포공함을 출발했다.

「오이다게」日本建築士會 회장의 특별초청으로 18일간 日本에 체류한 이들 회원들은 새로운 건축기

술습득과 일본전역의 각종 건축물을 아울러 둘러보고 지난 9일 귀국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명호 △박봉술 △이석구 △최승국 △이상정 △최승원 △김용만 △신현수

建設의 날 記念式

제 1회 建設의 날 記念式이 지난 18일 世宗文化會館에서 열렸다 이날 記念式에는 全斗煥 大統領을 비롯 경제부처장관과 3천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편 全대통령은 致辭를 통해 「内實을 갖추지 못한 걸치레 工事는 자원의 낭비이며, 또 社会的 不信의 씨앗이 되는 것인만큼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과제에 비추어 不實公사의 추방은 건설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본회 具琬

會회장은 建設部長官초청으로 참석했다.

李文輔교수 공로패전달

本誌 편찬위원

本誌 編纂委員인 李文輔교수(東國大)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지난 3일 具琬會회장은 支部長會議석상에서 오는 8월부터 海外研修를 위해 出國하는 李教授가 그동안 本會 會誌인 建築士誌 편찬위원으로 本誌 發刊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치하하고 그동안의 공로를 적은 공로패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住宅特輯作品 모집

9月号에 原色으로 掲載

會員의 創作의욕을 고취시키고 本誌의 質的向上을 꾀하기 위한 시도로 单独住宅設計作品特輯號發刊 계획에 따른 作品을 널리 募集한다.

本誌가 9月号특집계획의 일환으로 모집하는 住宅編 會員作品모집요강은 3年以内に 준공된 것으로 본지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중 1~2점씩 응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는 8월10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특집作品은 앞서가는 韓國建築의 면모를 国内뿐만아니라 外國에도 본지를 통해 소개되기 때문에 會員別 선전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본지는 주택특집호를 계기로 편집면모를 새롭게해서 응모작품에

대해서는 1作品 2面씩 편집키로

했고 특히 作品效果를 높이기위해 作品全景사진을 原色으로 印刷키로 했다. (자세한 응모요령은 P.96 참조)

우수建築資材 전시회

총27개업체참가, 3개월간

立体전시로 수요자 이해도와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각종 建築資材 가운데 部門別로 가장 우수하다고 認定된 製品만을 한자리에 모아 一般需要者들에게선을보인다.

本會가 새로운 企圖으로 우수건축자재만을 일반에게 권장하고 아울러 업계의 生産의욕을 높혀 建築의 質的向上을 도모하고자 벌이는 이번 「優秀建築資材展示會」는 이미 資材메이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수요자들에게도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本회가 主管하고 建設부와 動力資源部, 그리고 서울市 후원으로 7월22일부터 장장 3個月間에 걸쳐 展示되는 이번 展示會는 특히 그 전시방법에서 종래의 平面的 제품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立体的 전시방법을 채택, 제품의 특징은 물론 施工方法까지를 視聽覺機材를 동원해서 製品에 대한 一般의 理解幅을 최대로 넓혀준다.

총 27개업체(특별출품업체 2개사 포함)가 출품하는 이번 전시회

를 위해 본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生産業체의 의견을 最大한 반영하여 세밀한 計劃을 수립, ①出品業체選定 ②審査委員會 構成 ③優秀製品選定 ④展示場工事등을 추진하고 7월15일 現在 마무리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展示會는 出品業체가 소요經費를 節減하고 自社製品의 効率的인 宣傳효과를 높이기 위해 出品業체가 스스로 運営委員會를 구성해서 展示會에 따른 제반사항을 處理토록 했다.

展示館규모는 제 1전시장과 제 2전시장으로 나뉘어 있고 특히 제 2전시장에는 소형무대를 신설해서 시청각기재를 동원, 제품의 특성등을 심도있게 소개토록했다.

한편 展示運營委는 장기간에 걸친 전시회를 一般需要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弘報計劃을 수립하고 TV를 비롯한 라디오, 신문등 全매스컴 媒體를 동원해서 우수제품에 대한 一般의 관심을 북돋기로 했다.

아울러 3개월간의 展示가 끝나

면 輸出品중 가장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포상하기로 했다.

審査委員會구성 輸出品材 비공개심사

한편 본회는 이번전시회에 輸出品 優秀제품들을 選定하기 위해 사계 권위자로 구성된 審査委員會를 따로 만들어 일반이 믿고 使用할 수 있는 우수資材 鑒選에 着점을 맞췄다.

따라서 지난 1일에는 資材 심사 위원회를 소집하고 輸出品申請업체의 製品審査를 실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제품심사는 各社가 제출한 제품에 대한 각종자료와 샘플을 정밀분석 해서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具琬會(本會 會長) △安箕泰(本회 총무이사) △朴來運(本회 이사) △韓奎峯(建設部建築管理官)

△崔鍾武(서울市建築局長)△張起仁(삼성전속代表) △金枝泰(本회 서울市 支部長) △李丞雨(綜合建築代表)

展示運營委員會구성 自体運營으로 경비절감

한편 3일에는 이번 展示會를自治的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輸出品업체 전체회의를 열고 運營委員會를 構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회에 따른 운영관리 지침 및 규약을 마련하고 모든 소요경비 사용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의하는등 3개월간에 걸친 전시에 만전을 기했다.

운영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주)대룡 △총무간사=코리아파트사 △간사= 한국스래트(주) 한양목재공업(주) △감사=주일산업사 △위원=(주)럭키, 오리표 싱크, 삼익토건, 한국유리, 태원물산.

자 재 전 시 참 가 업 체 명 단

업 체 명	輸 出 品 材 명	업 체 명	輸 出 品 材 명
금구 공업사	창호용 테일	주일산업사	나부늬 콘크리트 문틀
대림 통상	위생도기	천광요업	외장 타일
(주) 대 룡	우레아폼	코리아파트사	도아록크
대전루평화학	아스팔트 펠트	태원물산(주)	석고 프라스터
도광산업(주)	데코타일	한국 스래트(주)	내외 장재
동서산업(주)	배장타일	한국 진카드	스라이딩 창호
동성 보일러	보 일 러	한국유리공업(주)	판유리, 복층유리
(주) 럭 키	모노륨, PVC파이프	한비산업(주)	포리 우레 탄폼
로알 TOTO금속	수전금구류	(주) 한 성	고압벽돌
삼익토건(주)	경량단열콘크리트	한양공업	철계창호류, 조명기구등
서영산업	파이프헝가	한양목재공업	창호 부문
서진유리	유 리 타 일	안 건 사	전속모형, 부시도 조감도
철성공업(주)	아스팔트 루핑	우양개발(주)	고압화장벽돌
(주) 오리표 씽크	주 방 씽 크		

새 技術士 82명 발표

建築施工과 土木施工분야에 技術士 82명이 새로 탄생했다

지난 2월과 6월에 韓國技術檢定公團이 주관한 81년도 해외검정 技術士 合格者 名單이 지난 6월29일에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海外검정은 해외취업 기술자들의 사기기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中東지역에서 실시한것으로 △建築시공 46명 △土木시공 36명이 合格됐다.

技術검정 合格者 발표

建設관련직 종305명

韓國技術檢定公團은 지난 5월24일에 실시한 國家技術資格검정 19회 기술사 필기시험 合格者 명단을 발표했다.

모두 3백 5명으로 발표된 이번 기술자격검정합격자중 △土木施工 98명 △土木構造 5명 △建築構造 2명 △建築設備 12명 △上下水道 7명 △建設安全 1명 △消防設備 2명 △造景 2명 △電氣安全 1명 △建設機械 1명등으로 밝혀진다.

윌터·그로피우스 作品展

西獨의 世界的인 建築家 「윌터·크로피우스」의 作品展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世宗文化會館에서 열렸다.

韓國建築家協會와 獨逸文化院공동주최로 열린 設計作品展示會에는 모두 68점의 作品이 선보여 건축계의 관심을 끌었다.

뉴욕所在 謁謁아메리칸 윌드 빌딩을 設計한바 있는 「윌터·그로피우스」의 作品展에는 연일 많은 觀客이 찾아들었다.

구름가設計作品展

신세계서 12일간 열어

구름가건축도시연구소(대표 姜錫元·本會 會員)가 設計作品 展示會를 연다.

오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市內 新世界百貨店 5층 展示場에서 막을 여는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22점의 作品이 선을 보이는데 이중 國內作品은 14점이며 그밖에 國外作品 8점이 출품된다.

建築學會세미나 개최

大韓建築學會는 세미나를 열고在美 建築會社 기술자의 강연을 들었다.

同 學會 건축구조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건축회사 기술자인 유행상박사를 초청, ACI의 최근동향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大邱·仁川직 할시 昇格

住宅局長등 人事개편

지난 7월 1일을 기해 大邱市와 仁川市가 직할시로 昇格됨에 따라 人事이동이 있었다.

특히 두 직할시의 建築관계 책임자중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등에 대한 인사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邱直割市=□주택국장:宋仁壽 □도시계획국장:金守鎬 □건설국장:徐昌均.

△仁川直割市=□도시계획국장:徐守伯 □건설국장:梁聖煥.

建協 支部長 유임 많아

黃부지부장은 한양공대를 거쳐 고대경영대학원을 修了한후 서울市교우위원회 시설과에서 근무한

후 僑一토건 건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후 성일건설을 설립,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청년회의소 활동을 활발히했고, 국무총리표창을 비롯 財務部長官표창 등을 받았다.

한편 建協 충북支部도 금년도 1회 임시총회를 열고 表在範 支部長을 유임시켰다.

지난 75년 제 8대 건협충북지부장에 피선된바 있는 表씨는 9대와 10대등 3대째 支部長에 머무르고 있는 忠北의 대표적인 건축인으로 꼽히고 있다.

建築人親善골프大會

각 친목회별로 개최

建築人 親睦會(회장 金敬煥)는 6월13일에 68회 月例경기를 가졌다. 오산카트리 클럽에서 가진 이번 월례경기에는 모두 17명이 참석했으며 이날의 우승은 李永洙회원에게 돌아갔다.

漢建골프親睦會(회장 김종옥)는 지난 6월23일 판악컨트리클럽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가졌다.

본회 具琬會회장을 비롯한 26명이 참석한 이날 경기에서 영예의 우승을 주만중會員이 차지했다.

建友會(회장 愼武賊)도 지난 6월20일 제 1회 대회를 가졌다.

모두 27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우승에는 최문남, 준우승에는 강의식씨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同會는 오는 18일에 제 2회 친선경기를 오산 카트리클럽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弘緣會(회장 이용하)도 지난 6월27일 도고컨트리클럽에서 친목골프大會를 가졌다.

이날 大會에는 특히 원로건축인 嚴德紋씨를 초청, 15명의 會員들이 다투온 기량을 펼쳤다. 이날 영예의 우승점은 민영백씨가 차지했다.

主要建築設計(6월)

道谷洞에 事務室 건물 新築

朴金永(서라벌건축)設計

서울 江南區 道谷洞142-10 所在 地 740.16㎡에 延面積 1,623㎡ 규모의 事務室 建물이 新築될 予定이다. 地下 1층 地上 3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物の 容積率은 219.36%로 서라벌 건축연구소 朴金永會員이 設計했다.

墨洞에 近隣생활 施設

鄭南朝(삼성합동건축)設計

서울 東大門區 墨洞234의 4 所在 地 681㎡에 建築面積 311㎡ 延面積 1,286㎡ 규모의 近隣生活施設이 新築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物の 容積率은 188.87%로 삼성합동건축연구소 鄭南朝會員이 設計했다.

道谷洞에 店舖사무실 新築

尹元錫(미건합동건축)設計

서울 江南區 道谷洞126-2 所在 地 549.4㎡에 延面積 1,105㎡ 규모의 店舖 및 事務室 建물이 新築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物の 容積率은 201.22%로 미건합동건축연구소 尹元錫會員이 設計했다.

監理會재단, 孔德洞에 教會 신축

李光容(동신건축종합)設計

재단법인 基督教大韓監理會維持財團은 서울 麻浦區 孔德洞 11의 243에 延面積 2,174.17㎡ 규모의 教會建물을 建立할 予定이다. 地下 1층 地上 4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立되는데 동신건축종합설계사무소 李光容會員이 設計했다.

論峴洞에 事務室用 건물 新築

洪性昌(대명합동건축)設計

서울 江南區 論峴洞205의 7에 延面積 1,181㎡ 규모의 事務室 建물이 新築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物の 容積率은 195.68%로 대명합동건축기술공단 洪性昌會員이 設計했다.

上溪洞에 聯立주택 5棟建立

第一合同建築이 設計

부일開苑은 서울 城北區 上溪洞193의 5~7 필지 所在 地 5,036㎡에 延面積 3,800㎡ 규모의 聯立住宅이 建立될 計劃이다. 地下 1층 地上 2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物 5棟으로 第一合同建築事務所가 設計했다.

洪城에 地上 4층 寄宿舍 신축

李海星(이건축)設計

洪城職業訓練院은 忠南 洪城郡 洪城邑 南長里 344의 4에 延面積 5,371㎡ 규모로 寄宿舍를 新築한다. 地上 4층 철근콘크리트로 容積率은 49.69%로 (株) 이건축 李海星會員이 設計했다.

호서學園, 天安에 學校建物建立

姜哲求(동우건축)設計

學校法人 호서學園은 天安市 安樓洞山120의 1所在 地 150,983㎡에 延面積 2,957㎡ 규모로 學校建物(事務室 및 講堂)을 新築한다. 地上 3층 철근콘크리트로 容積率 6.81%로 동우건축설계사무소 姜哲求會員이 設計.

裡里에 地上下 9층 百貨店건립

方奎祥(세진건축)設計

裡里市 仁洞1가 58所在 地 1,063.2㎡에 延面積 5,877.98㎡ 규모로 百貨店이 新築된다. 地上 8층 地下 1층 철근콘크리트로 建物の 容積率 405.06%로 세진건축 方奎祥會員이 設計를 맡았다.

面牧洞에 聯立주택 建立계획

이재희(삼원합동)設計

서울 東大門區 面牧洞727-335所在 地 1,441㎡에 延面積 1,916㎡의 규모로 聯立住宅이 建立된다. 建築面積 479㎡ 容積率 99.68% 철근콘크리트로 建立될 예정인데 삼원합동설계사무소 이재희會員이 設計했다.

鶴洞에 聯立주택 2개棟 신축

김태석(영신건축)設計

서울 江南區 鶴洞98의 7所在 地 1,355㎡에 延面積 1,477㎡ 규모로 聯立住宅이 建立된다. 2개棟 철근콘크리트로 容積率 78.98%로 영신건축연구소 김태석회원인 設計했다.

延 2 천340㎡ 規模 연립住宅건립

安秉倫(홍일건축)設計

서울 東大門區 長安洞202의 4所在 地 1,863㎡에 建築面積 569㎡ 延面積 2,340㎡ 규모로 聯立住宅이 建立된다. 이 建物は 容積率 91.7%로 철근콘크리트로이며 홍일건축기술공사 安秉倫會員이 設計했다.

大峙洞에 大學교사 2棟신축

金仁錫(종합환경)設計

韓國大學校는 江南區 大峙洞1104-1,2外 2筆地의 地 38,253坪에 建坪 2,154坪 延建坪 9,085坪 규모로 學校建物 2棟을 建立한다. 容積率 23.75%로 종합환경연구소 金仁錫會員이 設計했다.

신인運輸, 整備공장 建立계획

梁元永(동방합동건축)設計

신인運輸(株)은 서울 九老區 加里峰洞 535-4外 12필지 7,299.6㎡의 地에 建坪 1,146坪 延建坪 2,268坪 규모로 事務室 및 整備工場을 建立한다. 容積率 31.07%로 동방합동건축설계사무소 양원영회원인 設計.

主要建築設計(6월)

月溪洞에 地上 3층 店舖신축

朴祥秀(세종건축)設計

서울시 道峰區 月溪洞70-6, 67-5所在 垆地 1,190坪에 建坪 591坪 延建坪 2,582坪 규모로 地上 3層 店舖가 建立된다. 容積率 217.01%로 세종건축기술팀 朴祥秀會員이 設計했다.

木洞에 商業用 건물 新築 계획

金洞銀(오성합동건축)設計

서울시 江西區 木洞 111-9외 4필지 所在 垆地 1,066坪에 建坪 551坪 延建坪 2,582坪 규모로 店舖 沐浴湯 旅館等 用途의 建물이 新築予定이다. 容積率 226.38%로 오성합동건축 金洞銀會員이 設計했다.

南陽주택, 江西區에 聯立주택 建設

趙東殷(조흥건축)設計

南陽住宅開發은 서울시 江西區 傍花洞270의 1외 6필지에 聯立住宅을 建立한다. 垆地 6,063m²에 6개棟(延建築面積 6,167m²)을 新築予定인데 조흥건축기술팀 趙東殷會員이 容積率 79.1%로 設計했다.

九老區에 3층規模의 聯立住宅建立

呂燦壽(현대건축합동)設計

서울시 九老區 高尺洞52所在 垆地 12,876m²에 建築面積 3,680m² 延面積 14,439m² 규모로 聯立住宅이 建立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鉄筋콘크리트造로 容積率 79.66%로 현대건축합동설계사무소 呂燦壽會員이 設計했다.

大林洞에 近隣생활施設 新築

閔泳俊(서광건축)設計

서울시 永登浦區 大林洞 993외57所在 垆地 693m²에 延建築面積 1,391m² 규모로 近隣生活施設이 新築된다. 地下 1층 地上 5층 鉄筋콘크리트造로 容積率 200.5%로 서광건축 연구소 閔泳俊會員이 設計.

三立食品, 倉庫用 건물 新築

李榮鉉(합동한국조형)設計

三立食品工業(株)는 서울시 九老區 加里峰洞152~21에 倉庫用 建물을 新築한다. 垆地 3,128.9m² 建坪 645.6m² 延建坪 1,291m² 규모의 地下 1층 地上 1층 鉄筋콘크리트造로 합동한국조형건축연구소 李榮鉉會員이 容積率 41.26%로 設計.

三成洞에 沐浴湯 · 여관建物신축

韓永源(영동제일합동)設計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47-4所在 垆地 815.4m²에 建坪 延建坪 1,359m² 규모로 沐浴湯 旅館等 建물이 新築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容積率 166.7%로 영동제일합동건축사무소 韓永源會員이 設計했다.

淸潭洞에 聯立住宅 새로 建立

閔秀榮(중앙합동건축)設計

서울시 江南區 淸潭洞 305-8,9所在 垆地 969,475m²에 建坪 301.38m² 延建坪 1,205.52m² 규모의 聯立住宅이 建立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煉瓦造로 容積率 99.55%로 중앙합동 건축공사 閔秀榮會員이 設計했다.

面牧洞에 아파트商街 新築

金 榮(광성합동)設計

광성住宅開發(株)은 서울시 東大門區 面牧洞 1049~492 筆地에 아파트商街를 建立한다. 垆地 7,392,715m²에 建坪 1,476.81m² 延建坪 8,242.56m² 철근콘크리트조로 容積率 102.285%로 광성합동건축사 金 榮會員이 設計했다.

敦義洞에 商街 건물 新築 계획

高允植(현대건축)設計

서울시 鍾路區 敦義洞 41~1외 5筆地에 近隣生活施設 用 建물이 세워진다. 垆地 495.4m²에 建坪 220.4m² 延建坪 1,458m² 地下 1층 地上 5층으로 容積率 204.33%로 현대건축 합동설계사무소 高允植會員이 設計.

正修직업訓練所 실습장新築

韓鍾彦(금성건축)設計

正修職業訓練所는 서울시 龍山區 普光洞 238 所在 垆地 25,385m²에 建坪 709.75m² 延建坪 1,284.5m² 규모로 簡易実習場을 建立한다. 이 実習場은 容積率 42.53%로 금성건축 연구소 韓鍾彦會員이 設計했다.

驛三洞에 여관용建物 신축

林慶模(남성종합건축)設計

서울시 江南區 驛三洞 山21-1 所在 垆地 659.40m²에 建坪 328.75m² 延建坪 1,579m² 규모로 旅館等 近隣生活施設用 建물이 新築된다. 鉄筋콘크리트조로 建立되는데 容積率 239.5%로 남성종합건축 林慶模會員이 設計.

事務室用建物 478m² 規模신축

宋寅昌(신라건축)設計

서울시 東大門區 長安洞 91-2에 事務室用途의 建물이 新築된다. 垆地 1,108m² 建坪 478m² 延建坪 1,821m²의 地下 1층 地上 3층 屋塔 1층 규모로 容積率 164%로 신라건축연구소 宋寅昌會員이 設計.

貞陵洞에 近隣생활施設用 건물

李彰敎(조양합동건축)設計

서울시 城北區 貞陵洞 284-11에 近隣生活施設用 建물이 세워진다. 垆地 442,915m²에 建築面積 1,200.44m² 규모의 鉄筋콘크리트조로 容積率 226.3%로 조양합동건축연구소 李彰敎會員이 設計했다.

三成동 聯立주택 新築계획

閔秀榮(중앙합동건축)設計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46-29(나) 所在 垜地 3,377.22㎡에 建築面積 605.40㎡ 延面積 2,383.20㎡ 규모로 聯立住宅이 新築된다. 地下 1층 地上 3층 棟瓦造로 容積率 60.16%로 중앙합동건축공사 閔秀榮會員이 設計했다.

吉洞에 商業用 건물 建立계획

李福榮(경남건축)設計

서울시 江南區 吉洞 348-2에 近隣生活施設 및 事務室用 建物이 新築된다. 垜地 1,141.12㎡에 建築面積 1,909.20㎡ 규모로 철근콘크리트조로 建物の 容積率 167.31%로 경남건축 李福榮會員이 設計했다.

論峴동에 聯立주택 2棟신축

林鍾烈(삼우합동)設計

서울시 江南區 論峴동 7~8에 聯立住宅 2棟이 新築된다. 이 聯立住宅은 垜地 1천158.63㎡에 建坪 374.76㎡ 延建坪 1천499.04㎡의 地下 1層 地上 3層 組積造로 建立되는데 삼우合同建築設計事務所 林鍾烈會員이 容積率 97.03%로 設計했다.

禾谷동에 聯立주택 建立계획

俞承濤(세화건축)設計

서울시 江西區 禾谷洞 山96~3에 聯立住宅 2棟이 新築된다. 이 聯立住宅은 垜地 2천159.075㎡에 建坪 691.28㎡ 延建坪 2천765㎡의 鉄筋콘크리트造로 建立되는데 세화建築 俞承濤會員이 容積率 96.05%로 設計했다.

龍頭동에 事務室用 건물 新築

李相連(삼화건축)設計

서울시 東大門區 竜頭洞 253~208, 209, 211, 212, 213에 近隣生活施設 및 事務室이 新築된다. 이 建物은 垜地 476.6㎡에 建坪 236.53㎡, 延建坪 1천56.62㎡의 地下 1層 地上 3層 規模로 建立되는데 삼화建築 李相連會員이 容積率 221.6%로 設計했다.

新吉洞에 聯立주택 建立계획

趙永樂(대흥건축합동기술)設計

서울시 永登浦區 新吉洞99番地에 聯立住宅이 新築된다. 이 聯立住宅은 垜地 1천426.90㎡에 面積 471.37㎡, 建築面積 1천949.18㎡ 規模의 鉄筋콘크리트 및 組積造로 建立되는데 대흥建築合同技術公社 趙永樂會員이 容積率 99.09%로 設計했다.

大峴동에 商業用 건물 建立계획

高允植(현대건축)設計

서울시 西大門區 大峴洞 27~15外 4筆地에 販賣施設 및 近隣生活施設用 建物이 新築된다. 이 建物은 垜地 681.542㎡에 建坪 338.8㎡ 延建坪 2천202.54㎡ 規模의 鉄筋콘크리트造로

建立되는데 現代建築設計事務所 高允植會員이 容積率 323.9%로 設計했다.

吉洞에 近隣生活施設用 건물

崔竜禎(태평건축)設計

서울시 江東區 吉洞459의 3, 5, 6에 近隣生活施設 및 業務施設用 建物이 新築된다.

이 建物은 垜地 2천170.98㎡에 建坪 888.485㎡ 延建坪 5천992.78㎡ 規模의 鉄筋콘크리트造로 建立되는데 태평建築研究所 崔竜禎會員이 容積率 276%로 設計했다.

新月동에 聯立주택 新築계획

柳判烈(삼영종합)設計

서울시 江西區 新月洞582~3外 3筆地에 地下 1층 地上 3층 規模의 鉄筋콘크리트 및 棟瓦造 聯立住宅이 建立된다.

이 聯立住宅은 垜地 912.78㎡에 建築面積 306.36㎡ 延建築面積 1천175.70㎡로 建立되며 삼영綜合建築 柳判烈會員이 容積率 96.6%로 設計했다.

驛三동에 事務室用 건물建立

韓昌鎭((주)한정건축)設計

삼한合纖株式會社는 서울시 江南區 驛三洞 81~2에 事務室 및 店舖用 建物을 新築한다.

이 建物은 垜地 519.24㎡에 建築面積 306.51㎡, 延建築面積 1천809.005㎡ 規模의 地下 1층 地上 6층 鉄筋콘크리트造로 建立되는데 容積率 337.59%로(株)한정建築 韓昌鎭會員이 設計했다.

長安동에 延 1천175㎡ 연립住宅

趙卓均(광진건축)設計

서울시 東大門區 長安洞 235~19-20 垜地에 聯立住宅이 新築된다.

이 聯立住宅은 垜地 935.12㎡, 建坪 294.84㎡, 延建坪 1천175.04㎡ 規模의 棟瓦造로 建立되는데 광진建築技術公社 趙卓均會員이 容積率 94%로 設計했다.

九宜동에 敎會 건물을 新築

李伯吉(합동종합)設計

동원敎會는 서울시 城東區 九宜洞 236~1에 敎會를 新築한다.

이 敎會는 垜地 1천20.40㎡에 建築面積 495.68㎡, 延建築面積 2천84.18㎡ 規模의 鉄筋콘크리트造로 建立되는데 合同綜合技術公社 李伯吉會員이 容積率 141.49%로 設計했다.

江西區 木洞에 聯立住宅 新築

金聖會(동방합동)設計

서울시 江西區 木洞 409~289에 地下 1層 地上 2層의 聯立住宅이 組積造로 新築된다.

이 聯立住宅은 垜地 2천863.24㎡에 建築面積 852.40㎡, 延建築面積 3천409.50㎡ 規模로 建立되는데 동방合同建築設計事務所 金聖會會員이 容積率 89.60%로 設計했다.

意見과 對策을 알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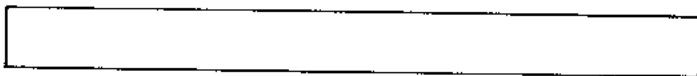
大型工事 設計에 대한 엔지니어링문제 · 建築士보조원 確保에 대한 문제를 中心으로



／참석자／ ◎ 사회 / 具 琬 會 (本會會長)

- | | |
|------------------|-------------------|
| □金正澈 (주·정림건축 대표) | □宋鶴旆 (삼성건축 대표) |
| □金大植 (김건축연구소 대표) | □金琪碩 (아담건축 대표) |
| □張錫雄 (아도무건축 대표) | □洪淳寅 (대우건축 대표) |
| □金 麟 (가전건축 대표) | □金希洙 (현신건축 대표) |
| □徐千植 (삼일건축 대표) | □姜哲求 (주·서울건축 대표) |
| □尹泰雄 (동인건축 대표) | □金仁錫 (종합환경연구소 대표) |

／無順／



다음은 本誌가 特輯主題로 選定한 大型工事設計에 對한 엔지니어링문제와 建築士보조원 確保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한懇談會 內容을 옮긴 것이다.

지난 2일 本會 會長室에서 具琬會 會長사회로 進행된 이날 座談會는 選定主題가 建築士의 權益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參席會員들의 폭넓은 意見 교환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主題가 비단 建築士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 전반까지 建築 文化創造이라는 觀點에서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主題라는 점에서 政策 當局의 各별한 배려가 기대되고 있다.

첫번째 주제가운데 國內 大型工事 던키베이스 發注에 따른 設計受注문제는 이에 관한 시행령이 지난 80년 11월에 特례규정으로 시행됨에 따라 30억이상의 工事 및 그 이하의 工事라도 特定工事는 던키베이스에 의해 發注토록 됨으로 해서 建築士의 업무가 위축됨은 물론 건축의 創作性 내지 藝術性이 無視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建築士의 실망이 없어짐은 불문이고 나아가 建築文化창달이 現制度下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實情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制度自体의 모순점과 運用上의 탄력성부여가 關鍵으로 남아있다.

두번째 主題인 보조원문제는 이들에 대한 認識不足과 건축敎育 및 建築士試驗制度上의 不合理가 設計事務所의 보조원不足사태를 惹起케 했다고 지적돼 이의 根本的 해결 方案의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の 현안문제점에 관한 衆智를 모아 協會次元에서 解決할 수 있는 方案모색을 위해 座談會를 가졌다.

(편집자)

“「턴키 베이스」自体는 좋으나 그 運用이 큰 문제 시험 합격 후 設計事務所 거쳐야 開業할 수 있도록”

1 大型工事 設計에 대한 엔지니어링 문제

□ 會長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어떤 公式의인 모임이라기 보다, 공동 운명체로서 우리모두가 当面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폭 넓은 意見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問題가운데 오늘은 우선 大型工事設計에 對한 엔지니어링 문제와 建築士보조원확 보에 대한 문제를 큰 主題로 해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主題에 연관된 사항으로 國內大型工事「턴키 베이스」發注에 따른 設計受注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김대식 「턴키베이스」에 의한 工事に 직접참여한 경험 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턴키」自体에는 좋은점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實情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죠. 따라서 設計가 아무리 좋아도 Cost 上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設計自体는 아무것도 아닌걸로 되더군요.

우선 硯회사와의 경쟁에서 單價上의 경쟁이 거의 不可能해요. 예를들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등의 單價에 있어 우리가 넣은것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 工事を 發注하는 쪽에서 비싼걸로 하겠습니까?

□ 김정철 「턴키베이스」에 관한 제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政府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제도를 만든것은 施工會社의 技術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형편상 시기적으로 이르고 따라서 「턴키베이스」에 대한 개념마저도 잘못된식된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다가는 모든 建築工事を 그런 식으로 하게 하는 방안도 나오겠나 이겁니다. 建築文化내지 藝術性을 理解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큰 문제인것 같아요.

□ 김대식 그래요. 設計者 나름대로의 作品이 될수가 없더군요. 大型會社와의 경쟁도 되지 않지만 發注處(當局)의 자세도 큰 문제입니다. 設計고 뒤고간에 우선 Low Cost 몇개를 낙찰대상으로 뽑아 놓고,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짝 것,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다음 짝것 식으로 價格이 發注의 우선 基準이 되니까 建築의 藝術性이라든가, 文化云云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落札圈內에 들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設計를 생각 하는 식이 되니까 나름대로의 作品이 전혀 나올수가 없게 됩니다.

□ 우리 實情에는 時機尙早 - 与件未備

□ 서천식 제값을 받고 한다면 「턴키베이스」야 말로 더 없이 좋은 방법이겠음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로 또 「턴키」로 해서 모두 주느냐하면 결국 모두 파트별로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技術축적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市廳과 住公에서 한 것을 경험삼아 우리 建築士들이 어떤 方案을 提示해야 할 줄 압니다. 그대도 지나간다면 큰 會社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는다는 결론이죠. 당국은 당장 일하기가 편하니까 成功的인 것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단결해서 組織의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겁니다.

□ 김대식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試行錯誤를 인정되고 할 때 우리의 意見을 제시해도 늦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턴키 베이스」自体가 꼭 그런것만은 아니죠. 外國에서는 오래전부터 實施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會長 지난 2월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元老建築人들과 많은 對話를 나섰으나 역시 結論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협회次元에서 衆論을 모아 當局에 어떤 方案을 제시 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 김정철 「턴키 베이스」 자체의 장단점은 현재로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人間과 관련된 工事 즉 創作物은 결코 「턴키 베이스」로는 안된다는 것을 認識시키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고 봅니다.

일단 當局에서 施行한것인 이상 弛제는 철회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政策의 向方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制度는 좋으나 運用이 문제가 됩니다. 30억원 이상의 工事は 「턴키」로 하려는 意識을 막아야 합니다.

□ 김린 이런 추세로 간다면 建築士들이 모두 建設 會社에 屬屬미를 잡히고 마는 형편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現實에 참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을 떠나서 技術開發이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김대식 設計는 주어진 條件에 따라 創作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순수한 의미의 創作은 現實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制度의 시행 방법을 좀더 탄력성있게 運用될 수 있도록 協會次元에서 主務官署와 조정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줄 압니다.

□ 創作性 무시되는 「턴키베이스」

□김정철 당국자도 創作物에는 이의 適用이 어렵다는 것을 認定하더군요. 다만 「프랜트」인 경우는 「턴키 베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外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창작 물과 「프랜트」가 분리돼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국도 알고 있으나 執行部署에서는 이런저런 거 따지기 귀찮고 하나씩 그냥 편한대로 시행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制度自体보다는 一次的으로 運用 方法을 전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송학조 區分이 돼서 部分的으로 結論을 내려 적극적으로 当局과 얘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會長 여러분들의 意見을 集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建築士의 업무위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 가운데 現 設計事務所의 엔지니어링 受注대세 문제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김정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會長 네, 우리가 영세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파트를 못두는게 아닙니다? 設計사무소의 大型化가 先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석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허다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全体建築人들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독단적인 見解인지는 몰라도 建築士들이 엔지니어링까지 꼭해야 합니까?

□會長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 意見을 교환해서 어떤 共通分母를 찾자는 것이죠. 어떤 길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송학조 協會次元에서 施策마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次元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강철구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방법도 색이 필요합니다.

□김인석 業務限界만을 협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規制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또 큰일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셔야 하겠죠.

□김린 맞습니다. 일을 빼앗기다 보면 한이 없죠.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의 변태를 막아야 되고요.

□會長 制度的인 장치도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단결할 때 우리의 權益이 자연히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턴키베이스」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링 문제는 끝을 내고, 다음 主題로 話題를 바꾸겠습니다.

② 建築士 補助員 확보에 대한 문제

□會長 보조원 확보문제는 未久에 다칠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고심해본 경험 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말씀 좀 나누시죠.

□김희수 네, 보조원 확보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제 경우에는 한꺼번에 4명이 나간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한마디로 키워놓으면 與件이 좋은 建設會社로 빠져버립니다. 장학금지급이라든가 그밖에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검토돼야 할 겁니다.

□김정철 따지자면 敎育制度부터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會社에는 약 160여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敎育을 시켜 일할만하면 가버리고 말아요. 일년이면 몇십명씩 도망갑니다.

특히 우리 會社는 每年 8개 대학에 公文을 보내서 資質이 좋은 학생들을 實習生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약 40명씩을 실습시킵니다. 그들을 우리 會社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建築이라는 것, 또 建築士가 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어느정도 심어주는 데도 必要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들에게 어떤 使命感을 심어주는 作業이 중요 합니다. 그런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졸업생들이 建設회사로만 가는 것이 現實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죠.

□장석웅 네, 보조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좋지 않아요. 명칭도 “보조사”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고요. 건축사 보라는 공식명칭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길고요.

□ 장기적 안목으로 政策배려 시급

□송학조 우리 사무소는 번두리여서 그런지 보조사 구하기도 꽤 힘들어요. 資質을 갖춘사람 잡기가 어렵고, 더구나 設計事務所에는 큰 建設會社에 당장 취직이 안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잠깐있다가 간다는 생각이 틀에 박혔어요. 그들에게 特惠를 주는 制度가 마련돼야 합니다.

□김정철 認識의 幅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우리의 門戶를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關係요로에 있는 建築人들도 우리 協會 會員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말입니다.

□會長 開業하지 않은 建築人들도 準會員으로해서 迎入하는 문제는 이미 研究중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특히 넓



한다는 뜻에서도...

□김대식 特惠라고 까지야 할것없지만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方法은 꼭 必要합니다. 하다못해 医料保險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장석웅 根本的으로 그들의 思考方式을 새롭게해서 設計事務所에 오는 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여기게 하려면, 우리도 최소한의 投資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輩出源인 學校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자주 만나고 또 교육의 방향을 유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것은 어느 개인보다는 協會에서 事業性을 띄고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겁니다. 또 주택이라든가 기본적인 디자인展에는 학생들을 참여케 해서 입상자에게만 다만 얼마라도 장학금을 지급케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設計事務所가 당장은 建設會社보다 與件이 좋지는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建築家가 되려면 이곳을 거쳐야 한다는 긍지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런 事業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試驗制度 개선해서 實技 비중높혀야

□김린 이런 方法도 可能할 것 같아요. 「인턴」 制度 같은것 말입니다. 일정한 期間동안 設計事務所에 근무해야 만이 建築士 試驗에 응시할 수 있는 資格을 부여하는... 選擇과 制約이 동시에 있어야 할겁니다. 그밖에 各種 보상 制度를 마련하는 등 말입니다. 「인턴」 制度는 시험제도를 개방하되 실기 부문을 強化해서 꼭 設計事務所에서 일정기간 익혀야 가능토록 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김희수 「인턴」보다는 「레지던트」 코스를 뒤서 試驗合格 후 2~3년간 設計事務所에 근무해야 만이 開業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會長 여러분들이 보조사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있는 것을 자세하게 「리포트」로 作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會誌에도 게재하고요.

한마디로 產學協同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教育은 教育대로 法은 法대로 또 現實은 現實대로 제각기 돌아가

니까 많은 모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없는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工高나 工專 나온 친구들이 大學 나온 현장 감독을 앞에 두고 監理하는 현상이 만연 될 겁니다. 지금도 工高나 工專 나온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은 設計事務所에 안와요, 大學 출신은 물론이고요. 그러니 現場에서 이런 「헤프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 현상이 곧 옵니다. 이런것은 政策的인 次元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죠.

□ 김희수 大學卒業生들이 設計事務所에 오도록하기 위해서는 역시 試驗을 開放하고 그 다음에 設計事務所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 강구가 돼야 합니다.

□장석웅 시험제도도 강화하고 특히 설계시험을 강화해서 實技를 익히지 않고는 안 되게 해야 합니다.

□김희수 制度的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特典을 베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편이 닿지는 않겠지만 外國여행을 시키는 방안등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서천식 가까운 外國여행은 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철 外國여행 같은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야 어렵겠죠. 그러나 컨테스트 같은 것을 열어 당선자에게 단체에서 外國여행을 시키는 방안등이 고려되어야 할겁니다. 우선 그들에게 대우를 해줘야하겠지요.

□會長 네, 여러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意見을 나눈 大型工事 턴키베이스 문제나 보조원 문제등은 우리가 当面한 우리의 문제고 더구나 우리의 存立내지 生存과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対策이 강구돼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 協會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政策에 반영해서 우리의 權益옹호를 위해 일을 해 보려고 오랜시간 여러분들과 對話를 가졌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점으로 해서 어떤 結論보다는 여러분의 中心意見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으며 이점을 깊이 파악해서 협회가 추진해 나가는 모든 事業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깨비와 호랑이의 집”

에밀레博物館長 趙子庸氏



鬼虎堂一. 에밀레博物館의 堂무다. 착하고 가난한 사람에겐 하루아침에 큰부자가 되도록 금은보화를 안기고 심술고약한 이에겐 무서운 방망이를 휘두르는 개주를 가지고 있고, 어느때 으스름 달밤에 느닷없이 나타나 동네장정과 밤새도록 씨름판을 벌이던 우리네 벗 도깨비와 군업하고 무서운쪽 보다는 밍지않은 말썽을 골잘 피우는 개구장이 같은 호랑이를 전국방방곡곡에서 온통 불러 모아 정성껏 매접하는 곳이 金補空巷이 그리 멀지 않은 江西區 登村洞 아트막한 산아래 조용히 누워있다. 박물관 이름처럼 “에밀레....”하는 餘韻을 울리며—.

“民俗民芸品의 종류나 형태는 워낙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 특히, 民畵 가운데서도 도깨비하고 호랑이 그림을 모았습니다. 도깨비는 심술꾼인 동시에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바로잡게 해 주는 감시꾼 노릇을 해주죠. 또 호랑이는 에로부터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다 우리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물입니다. 그리고 기막힌 해학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堂무도 도깨비와 호랑이집이라고 했습니다.”

建築家 趙子庸氏, 아니 이전 民俗學者로 一家를 이루고있는 趙館長의 도깨비와 호랑이 「사랑論」이다. 물론 에밀레博物館에 도깨비와 호랑이만 보여있는건 아니다. 어느결에 프라스틱, 전자·전기제품등 삭막한 現代利器에 자리를 빼앗긴 우리네 숨결과 体温이 스민 각종 民芸品이 함께 있다. “처음에는기와를 모으기시작했죠. 한 20여년전 일겁니다. 경주, 부여 옛 都邑을 다니면서 나올만한 곳은 다 파헤쳤습니다. 기와조각 모으는데 미치면 세월가는 줄 모릅니다.

약 만여점됩니다.

그후에는 그림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역시 이런 민예품, 민속품들을 수집하다가 보니까 다시 건축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다시 建築으로 되돌아왔고, 요즈음 民家(韓屋)의 再現作業을 구상중이라고. 특히 얼마전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무려 2백50년전에 지은 집을, 발견해서 그걸 그대로 박물관 뜰에다 옮겨다 놓으려고 했으나 許可가 안나온다고 웃는다.

“국립박물관에서는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고 구청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허가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시 짓지도 못하고 구석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안 趙館長은 財源도 마련하고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우수성을 세계市場(?)에 소개하기 위해 장장 5년여의 旅程에 올랐었다고. 그때가 지난 75년도—. 미국은 물론 구라와 능지에서 공연(?)을 벌였다. 등장인물은 물론 도깨비, 호랑이등 우리만의 그것들이었다.

미국 「오클랜드」에서의 展示에서는 손수 韓屋 세채를 짓고 거기에 맞게 각종 民芸品을 전시해서 성공적인 文化「쇼」를 보여줬다고한다. 특히 정성을 들인것은 한옥의 우수성을 그네들에게 보이기위한 作業이었다.

“애 美國展示에 신경을 썼나하면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舍衆國 아닙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우수한 文化가 되거든요. 상당한 好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하나, 한옥은 짓기가 워

짜다로운것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모두 순수한 「핸드·메이드」 인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만 제맛이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한옥이 좋아도 한낱 유물적 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옥도 격식에 맞고, 기계화에 의해 量産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 건축인마을 세우

함께 모여살았으면...

세계 건축사에서 한국건축이 인정을 받으려면 현대건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고유의 건축을 가지고 겨루면 틀림없이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렇게 5년간 「호랑이 사절단」을 이끌고 美國각지를 떠돌다가 그쪽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주소를 둔 재단법인 민중연합으로 세계 각국과 민족민예를 소개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있다. 내년부터는 재정면에서 다소 나아질것 같아 한숨 놓인다고 밝힌다. 그때도 趙館長의 마음 한구석엔 그 아름답고, 소박하고, 애뜻한 우리네 분신인 民芸品을 우리손, 우리돈으로 버섯이 자람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서려있었다.

“芸術人材처럼 建築家의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모여살았으면 해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건축물인 한옥으로 집을 짓고 모여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建築家의인 늬음막의 소망을 담담히 말하는 建築家 趙子庸氏—.

별부임없이 아래윗층에 벌여놓은 「우리의 조각」들을 쓰다듬으며 얘기하는 그 표정이 워 밝다.

建築士の提言

金 知 徳

(삼화합동건축설계사무소)

다음은 본회회원인 筆者가 寄稿한 提言을 옮긴 것이다.

筆者는 이 글에서 現在 우리나라 建築士들이 勉하고 있는 現實과 이에 비친 제반문제점들을 銳利하게 解剖하고 自求策을 위한 方向을 提示했다. 會員諸位의 깊은 共感이 기대된다.

/ 편집자 /

□ 폭넓은 海外로 눈돌려야

韓國의 모든 建築設計事務所의 實態는 經濟的인 与件으로 因하여 지금 계속되는 設計事務 축소와 運營面에 곤란을 받고 있는 점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自然資源이 充足하지 못한 나라에서 일찌기 많은 建築人을 排出한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되어, 筆者는, 今番 여러나라의 建築士活動을 一見할 기회를 갖고, 現在 設計事務所를 運營하고 있는 同僚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建築設計에 多年間 從事하여 온 모든 建築設計 要員은 앞으로 海外設計에 눈을 돌릴때가 왔다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世界 各國 設計業에 從事하고 있는 建築士들 中에서도 海外業務에 밝지 못하고, 海外設計에 관심을 갖지 않는 建築士들이 있다면, 韓國의 建築士도 그 하나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國力이 伸長되고, 海外 建設業으로 세계 競合에 跳戰하고 있는 韓國의 建設施工 能力에 比하여, 建築設計業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 設計事務所의 能力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힘을 합치고 能力을 합하면 그 設計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作業일지라도 能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外國에 나가보면 수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韓國人으로서는 充分히 解決할 수 있는 設計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힘들어 受注한 工事中 거의 設計部分이 外國에 再用役되고 있습니다.

建築設計 業中에서 아주귀한 것들도 全部 外國 用役會社에게 맡긴다면, 이는 우리의 國庫 損失이 아닐수 없습니다.

外國에 나아가서 海外工事を 受注하고 있는 韓國의 建設 會社에 比해서 用役 設計에 從事할 수 있는 設計事務所의 숫자는 과연 몇개 會社나 될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用役 設計의 許可 限度가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後日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海外에 建設業者만 受注를 위하여 進出し킬것이 아니라 設計要員도 進出 시킬수 있는 機會를 주는 制度도 아울러 마련할 段階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資金支援을 위한 制度마련 필요

둘째,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여러가지 与件상으로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建築 設計事務所에 무엇인가 열심히 生業에 從事할 수 있는 資金을 支援 받을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設計事務所의 職員은 全部 精神的인 勞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精神的인 勞動을 하고 있는 建築家에게 우선 生活에 對한 安定이 없이는 世界進出이고 作品活動이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建築設計業界에는 眞正 世界舞台에 설 專門 建築設計 要員을 너무 養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大學校에서도, 高等學校 建築教育에서도 建築設計에 對한 國際的 水準의 教育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學校에서 優秀한 博士님과 教授님 밑에서 정말로 감각놀랄 建築 實力을 修鍊한 優秀한 建築學徒가 社會에 나와서 實務에 從事하게 된 後로는 거의 全部가 建設會社의 見積要員이나 建設 現場의 技術者로 從事하게 되는 事例을 자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問題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요즘 서울 시내에는 814개의 開業 設計事務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이 없어서 設計 作業을 못하는 事務所

가 散在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일수록 國內에 일감이 없으면 國外로의 進出을 할 필요가 絶對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國內設計事務所의 現在狀況은 國外設計를 맡긴다해도 척척 해낼 事務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커다란 問題點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人材養成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國際水準級에 달하는 建築設計 要員을 恒時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外國에 進出할 建設業체로 부터 受注한 建築設計를 무난히 소화할 人材養成에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읍니다.

미국의 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가 처음으로 탄생 했던 1960년, 도대체 環境關係 基本圖書가 어떻게 作成되고 基本되는 設計로서의 작성 요령등을 몰라서 設計 方式을 研究하는 부서를 두어서 따로 研究하게 하고 示方書 基本 圖書등을 연구 檢討하여 全國의 關係人에 수십만부를 배포하여 기본적인 正確한 方式을 政府 次元이나 協會 次元에서 習得, 研究, 指導하여 많은 關係人을 도와 世界市場에 進出하고 있는 事實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研究 檢討하고 分析하는 일을 繼續하여 發展시켜나가고 있는 實情입니다. 제가 부러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을 官이 主導하여 發展시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矛盾點부터 指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政府 關係人도 協會 關係人도 모두 염려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中小企業에도 해당안된 設計事務所

우리나라 設計事務所……

평당 幾千원이면 집한채 設計할 수 있고 許可 받을수 있는 곳으로, 일부 인식되기도 하여 지금 우리의 設計事務所를 國際的인 水準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無限한 時間과 努力이 投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設計事務所에도 繼續 發展할 要素를 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設計事務所에서 많은 人材를 養成하여 그 次元의 設計까지도 할 수 있는 技術者가 되면 建設会社에서 스카웃 해 가버리고, 스카웃 된 우리 設計要員은 그 때부터 設計業보다는 見續 및 建設 施工 技術分野의 能力含養에 精神을 쏟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優秀한 頭腦가 設計業務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안시 해왔고 누구 하나 設計事務所가 國家的 次元의 外貨獲得에 기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設計를 하고, 施工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施工 方式을 研究 檢討하여 世界市場에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國威宣揚에도 貢獻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最近에 中小企業銀行과 國民銀行에 設計事務所 職員俸給이 밀려서 中小企業의 資金을 融資 받을수 있을까 하고 訪問, 支店의 책임자되시는 분들과 對話를 나눈 일이 있었읍니다. 130여가지 業種의 企業融資 分類중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精神的으로 優秀한 일을 해야 하며, 無限한 可能性을 가진 設計事務所의 金融支援 惠沢은 한군데도 없었읍니다.

美國, 日本 등지에서는 設計業에 從事하는 職業人에게는 擔保나 기타 까다로운 條件없이 銀行에서 運營資金을 支援하고 있으며 이 運營資金이 充分히 支給되므로 因해서 設計에 從事할 優秀한 人材를 建設業체나 기타 職種에 빼앗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組織이 完全히 整理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한마디로 부럽고 또 부러운 制度로 생각됩니다. 극도로 惡化된 建築景氣에서 많은 建築設計事務所가 同苦同樂하여 數年을 함께 일했던 人材와 親知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転職을 하게 되는, 現在의 構造는 정말로 再考해야 될것입니다.

이점 감안할때 우리는 強力한 財政的 뒷받침을 할수 있는 金融支援의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制度的 裝置가 있다면 우리도 研究 開發할 餘裕와, 先進 諸國의 優秀한 研究 論文을 導入하여 檢討, 分析할 時間的 餘裕도 있고, 外國의 建築技術을 익힐수 있는 能力있는 技術者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融의 支援없이 매일 매일일감을 얻기 위해서 東奔西走 뛰어 다니는 設計事務所의 所長, 일이 없어 給料를 못줘서 苦悶하고 있는 所長, 事務室의 運營資金이 없고고생했던 同僚職員을 내보내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서 한숨쉬는 設計事務所 所長의 心情을 달랠수 있는 길이란, 무엇보다도 運營資金의 制度的 補完이 제일 急先務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廻해있는 가장 甚刻한 點이라고 생각됩니다.

□ 海外設計에 참여할 기회 많이 줘야

셋째, 海外設計의 參與 機會를 달라는 것입니다. 海外에서 고생하고 있는 海外建設会社의 施工圖, 일괄 도급 工事의 참여, 見續物量의 조사보고, 해외설계의 基本 패턴研究 등등 우리가 海外에서 많은 工事を 受注해 오는 만큼 실질적으로 設計補完을 要求하도록 준비된 海外建築設計의 種類는 많다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外國의 施工圖 提出方式이 달라서 어느 工事は 設計圖書의 實質的補完 없이는 아예 施工을 할 수 없도록 規定된 外國의 工事は 정말로 설계사무소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껏 海外 用役에 눈을 돌려 活動할 수 있도록 우리

韓國의 建築事務所는 機會를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能力이 없어서가 아니라 機會가 없어서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의 建築士가 中東에 進出한 建設分野의 뒤를 이어 일차적으로 必要한 圖書를 만들고 準備할 수 있도록 行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랜트, 공장등의 巨大한 技術人이 動員되는 그런것이 아닌 오피스, 하우스, 스쿨, 마아케팅, 데파트먼트등 우리가 할 수 있는 分野를 開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進出의 門戶를 開放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에서도 海外 門戶를 꼭 닫아 걸고 決코 갈수없고, 할수 없는 번곳의 物件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每年 大學校 建築科程을 履修한 卒業者數가 一千餘名이 넘고 있으나 이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한 건축기술을 실지 사회에서 使用할 制度的인 作業場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海外의 設計란 한국 건축설계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바가 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克服하고 익혀 닦아야 우리가 앞으로 繼續發展할 수 있는 進路가 展開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개업 建築士는 現行法으로 規定되어 있는 바에 依하면 海外일은 조그마한 어느것도 直接設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할 수 있어도 建設業체의 1개 設計部署長으로 作業할 수 밖에 없으며 海外 用役業체 登錄制度도 嚴格한 규정에 의한 統制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世界旅行의 自由化까지 부르짖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建築設計 事務所에도 協會 次元에서 設計事務所까지의 強力한 조인트 벤추얼의 오피스를 構成해서 海外것등을 順次的으로 設計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構成을 해야 하며 能力있는 設計事務所에는 海外 建築設計 문호를 더 넓혀서 作業에 前進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現行次元에서의 일단 계속 임하게 되므로, 建築士란 職業은 許可業務에 從事만 하는 類型의 職業人이 되며 용역 등록을 필한 한국과학 기술 용역업체가 海外 建築의 모든것까지 分担, 우리의 일할 자리를 못갖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海外 用役登錄은 전체 회원수 중에서 3인 내지 4인의 設計事務所 만이 登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建築人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한 토크 프로젝트가 外國의 用役會社에 의뢰되어 進行되고 있으며, 그 用役비란 國內 建築人이 상상 못할 엄청난 액수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우기 國內技術人의 習得을 위해 海外용역회사와 조인트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 다녔고기도 했으나 이 外國會社와 韓國의 國內 조그만 設計 會社와의 조인트벤처얼의 기회를 주는 法的인 절차의 까다로움이란, 말 할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점도 建築에 관한 조인트벤처얼의 문호도 開放, 外國人이 우리와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건축사 사무소에 주워지도록 주선하여주는 특례를 갖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設計事務所란, 원래 작은 건축사 설계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은 자율적으로 설계자 자신이 스스로 개척 개발하여 나가도록 自由로운 제도를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外國의 建築設計 方式은 스스로 수년간 연구하고 또 實行하여보고 또 검토 분석하여 보고 난 다음 設計 메뉴얼로 그 정의의 한계를 發表 明文化 시킨 作業으로 협동하고, 作業하면, 많은 技術을 習得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 關係法規 改正 시급하다.

海外 용역면허를 얻기위한 규정과 申請書를 보면 정말로 建築設計를 종신 職業으로 삼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은 한빈도 참여의 기회를 얻을수 없는 조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작은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建築士事務所는 일생동안 海外設計란 次元의 一聯의 職業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每 設計件마다 海外建設業체의 下請 베이스의 設計에 參與할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작은 設計나마 獨自的으로 遂行할 法的措置란 없을 것입니다. 筆者는 設計事務所 스스로도 受注하여 活動할수 있도록 外國人과 建築物 設計에 관한 協同으로 作業할수 있도록 設計事務所에만은 機會를 賦與해도 된다고 主張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海外建設業체가 토크 베이스로 入札하고자 하는 매 프로젝트마다 그 全部를 海外의 英國, 美國, 獨逸, 佛蘭西 등의 用役業체에 繼續해서 作業을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入札 參加後 落札이 될지 아닐지도 모를 토크 프로젝트의 텐더에 숫한 外貨를 消費하는것은 當然하나 이것은 全部 우리나라에서 將次는 우리가 해야할 業務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建築士法, 技術士法, 建設業法, 海外用役 免許法 기술용역법 등은 全部 開業建築士에게는 지극히 독자적인 면으로는 活動 不可한 경우가 되며 이점에 대하여서는 협회 관계인도 더 研究 檢討한 必要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위의 제안을 드렸음니다만, 우리나라도 建築士가 스스로 海外 建築用役設計受注 및 그 참여에 차츰 눈돌릴 시기가 되어 있다고 提案을 드리며 이 提案에 더욱 拍車를 加한 制度的 裝置를 大韓建築士協會는 協會대로 研究 檢討하고 개업 건축사는 각자가 자기의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며, 관계 당국은 당국대로 分析實行할수 있는 檢討가 必要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提案하는 바입니다. (*)

建築디자인은 使用者 편에 서 있는가— 만인 建築論

趙 大 成

(成均館大 建築工學科 教授)

“건축가의 상식은 사용자의 상식이 아니다.”

N. L. Prak, The Visual Perception of
the Built Environment에서

건축가는 건축주를 위해서 설계(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신의 예술적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계하고 있는 모순도 적지 않다. 건축주가 다행히 여유도 있고 건축가와 뜻(호흡)이 잘 맞으면 건축가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쉬운 일도 흔한 일도 아니다. 둘이 뜻이 잘 맞는다 해도 계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가의 수준(mentality)이 문제된다. 물론 이 수준의 기준도 문제이다. Giedion은 일찍이 건축발전의 3대요소로 건축대가(수준 높은 건축가), 건축대가를 이해하는 양식 있는 건축주, 그리고 젊은 세대(수준의 시대착오 탈피)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건축환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해진 대중사회(mass society)에서 사용자 그룹(user group)을 제쳐놓고 건축을 논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환경디자인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한다.

옛부터 건축이란 전통적으로 신을 위하고 임금을 위하고 귀족을 위한 것이었다. 실상 일반 시민들(서민들)의 건물은 건축가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당당한 지붕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게 된다. ‘그의 모든 거주인들은 모두 왕이요 신이었다’”라고 불란서의 위대한 시인이며 극작가인 Corneille는 건축의 귀족적 초인간 스케일을 찬양하였지만 이같은 프라이드(pride)를 정말 시민들이 갖았을까 또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물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또 현대건축 운동 초기의 비엔나 학교의 주역 Otto Wagner는 “예술가는 대중이 좋아하는 것 말고 대중이 좋아해야만 하는 것을 창조 해야 한다”는 피테의 격언을 신봉하였지만 건축가가 과연 대중이 꼭 좋아해야 할 것을 알만치 또 주장할 만치 오늘의 다원사회(plural society)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이다. 흔히 건축가나 건축주들이 엘리트의 입장에서 자기네가 많이 보고 경험했다는 상업주의적 자량의 노출증(?)에서 어디 가보니까 무엇이 좋더라. 이런 것 있는 것 아느냐, 이걸 한번 보여주자는 식으로 건물을 실제 사용할 여러 사람들

의 건축환경을 자기것으로 독점한다면 건축의 예고이즘이 아니겠는가? 한편 건축주가 개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공공단체, 기업 등 조직체 일때 건축가와 건축주와의 개인적 친근한 대화의 융통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건축가는 주어진 예산과 스케줄, 형식과 절차에 얽매인 조직화의 메카니즘이 강요하는 기준과 목표와 씨름하는 테크노크랫(Technocrat)으로 착각하게 된다. 예술적 창조성이니 사용자를 위한 사회적 도덕성이니 골치아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이같은 건축의 테크노크랫을 오히려 속편하게 생각하는 건축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건축의 예고이즘이니 테크노크랫이니 좀 외람되게 불러본 것은 건축을 사용자의 입장에서(user-oriented) 다루어야 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물론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을 미리 알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변화가 더 빨라지고 개방될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건물은 아직 멀쩡해도 벌써 쓸모가 없는 건물을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적응력은 워낙 탁월하니 다 적응하게 마련이라는 논리와 사용자 형편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설계과정에서 사용자는 더욱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Robert Sommer (미국대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Personal Space의 저자)는 오늘의 건축을 감옥 건축이라고 말한다. 즉 주어진 환경(건축가, 건축주, 건축산업의 취향이나 기술주의, 임의적인 법 기준들, 이익 우선의 경제심리 혹은 카다로그식 사무적 편이주의 등에 의해)을 뜻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주자(건물사용자)가 자기환경을 어떻게 고칠수 없는 간헐 상태 즉 선택부재의 건축인 것이다. 예전데 소위 현대식 사무실이라는 건물이 불박이 전면유리나 천정에 가득 채워진 형광 조명 등은 씨스택의 주어진 환경이어서 사용자의 개인적 형편에 적합한 환경변경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다. 혼자 사용할 때(혼자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음) 자기의 책상만을 위한 조명이나 신선한 바깥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일이 쉽지가 않다. 옛날 건물에서는 사용자가 자기의 소환경을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융통성이 가능해서 더 좋다고 하는 UW 대학의 어떤 건축과 교수의 말이 늘 잊혀지지 않는다. Peter Blake (미국의 건축평론가, Form Follows Fiasco—근대건축은 왜 실패하였

는가 의 저자)도 오늘날 훌륭한 건축환경을 옛날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많이 볼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즘처럼 각박한 경제환경에서 선진국조차 옛 건물들을 모조리 헐고 새 건물 만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의 재생 (Rehabilitation 또는 Renovation) 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반응도 좋은것 같다. 옛날의 건축물은 무언가 여유(건축가나 건축주의 에고이스트적 환상이 아닌 사용자의 다양한 기대를 허용하는 여유라고 할까)가 있었기에 오늘에도 새로운 사용 요구에 개조 적응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의 상업주의적 혹은 조직화된 테크노크랫 식의 빈틈없는(?) 프로그램과 규격화의 미니멈 디자인에 의해 건축은 지금도 숨통이 막히는데 앞으로의 변화 적응의 여유란 더욱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less is more" 의 논리는 때로는(더욱더)진부한 것 (less is a bore)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훌륭한 건축은 어떤 것일까?

건축가가 건축의 사용자를 맘에 두고 설계한 환경으로서의 건축 즉 사용자를 의식하는 건축이 아닐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맘에 두고" (Constance Perin)의 환경디자인 저서 With Man in Mind) 하는 건축일 것이다. 이제 몇가지 아이디어들을 아래에 소개 풀이해보므로 건축설계나 건축비평 좀더 일반적으로 건축대화에서 건축가와 사용자가 상식이 서로 통하는 만인의 건축을 기대한다.

1. AIA상과 P/A상

P/A상은 미국의 저명한 건축잡지 Progressive Architecture에서 매년 우수한 건축설계작품에 시상하는 것으로 매년 P/A 1월호에 소개되며 금년이 28번째가 된다. AIA상과 대조적으로 이것은 건물의 설계안을(실제로 설계 계약이 된것) 심사해서 건물을 짓기전에 주는것이다. 처음에는 건축디자인 부문만 주던것이 지금은 도시 디자인 부문과 연구 (Research) 부문이 추가되고 있다. 이것은 건축의 환경적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또 P/A 상은 건물이 실제 지어졌을 때를 미리 예상 평가하는 것이므로 설계작품의 표현방식 혹은 건축의 이미지 전달의 시대적 감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AIA상은 미국건축학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건축작품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매년 새건물에 시상하는 AIA Honour Award (예전엔 1980년도상은 412개 신청 건물중 13개를 선정시상했음)와 25~35년의 오랜 세월 사용과 비판을 훌륭히 견디어낸 작품을 매년 하나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25-Year Award(예전엔 1980년도엔 SOM의 Bunshaft 의 Lever House로 선정) 등이 있다.)

아무튼 AIA상은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보고 사용의 경험을 거친후에 상을 주는 것이므로 비교적 사용자 그룹

혹은 시민적 일반여론을 의식하고 또 유도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의미가 클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건축관에 기울고 있는 실정이며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경험 평가의 객관적 조사나 심사과정에서 이들을 참여 시키는 문제들이 큰 논쟁점이 아닐 수 없다. P/A상의 심사는 건물짓기 전이므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비평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심사기준을 작품성보다 타당성 즉 디자인의 사용자확인 분석등 과정적 프로그램을 중요시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지향하고 있다. P/A상을 받은 건물이 10여년 지나는 동안 여러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건축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그 당시 심사위원들의 건축 평가의 수준이 확인되는 건축비평 개발에 큰 의미를 준다고 할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에 평가하는 P/A상과 지은 후에 평가하는 AIA상과 같이 2방향적 상호보완의 그리고 Feedback 평가가 계속 개방되고, 축적된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건축을 보는 눈 뿐 아니라 건축가와 사용자와의 상식을 같이하는 건축대화의 언어를 나눌수 있게 할 것이다.

2. Support

Support 개념은 화란의 Eindhoven 공대 건축과의 N. J. Habraken교수(1975년 이후 MIT 건축과장)가 1961년 책으로 펴낸것을 1972년 Architectural Press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고 같은해 미국서 Prager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후 이 Support아이디어는 1974년 그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발표된 것을 1976년 영문판으로 MIT출판사에 의해 Variations: The Systematic Design of Support란 표제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복사판으로 꽤 보급이 된것으로 안다.

Support란 여자적(如字的) 의미 보다는 지주(支柱)가 건물의 가장 기본 구조체이고 지주들 사이의 훨씬 뚫린 자유로운 공간을 변화하는 건축용도(사용)에 적응하는 융통성을 줄수 있다는 의미로 특별히 아파트 공급의 양산체제를 위한 조립식 건축에서 문제되는 규격화된 비 선택적 생활공간을 거주자(사용자)들의 변화하는 건축환경 요구(특별히 평면의 수정 혹은 공간배열의 신축성)에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 기본 구조체를 말한다. Eindhoven 지역의 공영집합주택들을 여러군데 조사해본 결과 10여년이 지나면 주택들이 거주인의 여러가지 생활방식이나 형편에 따라 당초의 설계를 많이 변형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변경되지 않고있는 공간요소가 무엇이고 또 관찰에 나타난대로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변화 적응되는 디자인(치수 혹은 모듈, 모양등)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

C. Alexander는 그의 Pattern Language에서 시장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논하면서 Peru Lima시의 한 시장을 예로 들고있다. 이것은 기둥의 나열에 불과한 단순한 공

간에 불과하지만 기둥과 기둥사이 공간에 상점들이 자유롭게 첨가 성장 변화 적응하고 있어 시장환경과 사용자가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기둥만 서있는 사무실 건축 공간에서 다양한 사무실 배치를 효과적으로 가능케하는 기둥간격의 Module이 중요한 뜻도 바로 이 Support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도시성장 적응에 효과적 형태인 격자형 (gridiron Pattern)도 도시차원의 Support이다. 좀 구체적인 예로 도시와 같이 환경의 변화 성장이 언제나 예상되는 대학 캠퍼스 디자인의 경우 독일의 백림 자유대학(Candilis, Josic과 Woods의 현상설계 당선작)의 격자형 개념도 Support 개념으로 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도시건설은 말할것도 없이 건축도 규모가 커지면 예산 등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디자인 프로그램도 건축내용의 불확실성으로 유동적 경향을 갖게 된다.

공사기간이 길다보면 새로운 요구의 개입과 시행착오의 발견등으로 당초의 프로그램은 수정을 요하게 되고 설계 변경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와같은 경우 완전한 설계란 처음부터 가능한 것도 아니고 기대할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건축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맞추는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조정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매우 빌딩의 경우 이 건물은 당초에는 교통부빌딩으로 준공을 보지못한채 오랜 동안 방치상태의 것을 대우가 인수해서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매우빌딩이 잘 됐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건축이란 이렇게 지으면서 혹은 이력저력 꾸며 가면서 무언가 당초에 예상못했던 하나의 건축을 이룰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역설적으로 완전한 계획이나 디자인을 기대하는것 보다 불확실한 변화 요구에의 적응이 공사 진행 중에도 모 공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건축 시스템을 기대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계획의 개념이 청사진 혹은 완성품(end product)으로서의 계획 (Plan) 자체보다 과정 (Process) 으로서의 계획 (Planning) 을 지향 하듯이 건축의 Support 개념도 작품으로서의 건축보다 생활로서의 건축 다시말해 사용자와 호흡을 같이하는 건축을 지향하는 것이라.

3. Pattern Language

언어에는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은 지역에 따라 또 시대

에 따라 변화한다. 즉 장소성과 시간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언어 패턴은 생활의 문화적 배경을 갖는다. 말이 다르고 표현의 뉴앙스를 달리하면서도 인간 언어세계에 예나 지금이나 되풀이 사용되는 언어 패턴을 볼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 직관적 기본요구와 문화생활에서 오는 발전적 경험요구이다. 우리는 남의 떡이 크다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앞집 잔디가 푸르다는 표현이 있다. 뉴앙스는 다르지만 언어의 심리기능을 같이하고 있다. 인간이 영위하는 물리환경 세계에도 언어패턴에 비유될수 있는 환경패턴이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오랜 경험을 통해 되풀이되는 만인의 환경요구이다. 주택이라는 환경언어를 구사함에 있어 거실의 환경 단어를 빼놓을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청”이라는 패턴으로 서양에서는 “Living Room”이라는 패턴으로 나타난다. “연립주택”은 서구에서 보편화된 환경언어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줄행랑”은 환경언어로서 보편화에 아직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만인의 경험을 함께하지 못하였고 되풀이 되지못한 것이다. Christopher Alexander(미국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 건축과 교수)는 그의 저서 A Pattern Language에서 253개의 환경패턴 언어를 전개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지역계획 스케일의 “독립지역”(Independent Region)서 부터 마지막으로 실내 장식 스케일의 자기 생활의 물건들”(Things from your life)까지 다루고 있다. 그는 Pattern Language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되풀이 사용되고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3가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이 패턴언어의 아이디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점,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배열의 범위, 셋째로 이 아이디어의 재활용이 기대되는 내용의 범위이다. 그러므로 그는 각 패턴언어를 생기게한 문제점들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 이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함께 경험을 되풀이하므로 이루어진 해결패턴을 관찰서술하고 이 해결패턴의 공간배열 즉 디자인 패턴을 제시하고 끝으로 이 패턴 언어와 연관되는 다른 패턴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흔히들 건축가들은 자기들만의 전문언어로 건축환경 패턴을 구사하므로 사용자의 환경언어가 되지못해 결국 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경험을 함께 나눈 그래서 만인이 공감하는 건축환경의 단어와 어휘를 많이 가짐으로 더 풍성한 환경을 구사할 수 있는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건축가의 상식과 사용자의 상식이 서로 통하게 되는것이다. (*)

住宅各部의 標準寸數와 單位平面

(I)

尹道根

(弘益大建築工學科 教授)

〈目次〉

- I. 序論
- II. 住宅各部位의 寸數調査分析
- III. 住宅單位平面의 室別寸數調査分析
- IV. 住宅各部位의 標準寸數 設定
- V. 住宅各室의 適正寸數設定
- VI. 住宅單位平面의 標準化 作成
- VII. 結論

I. 序論

住宅의 建設費를 低廉化하고 良質의 주택을 短期間에 공급하여야 함은 오늘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要求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住宅 各部位의 標準寸數 設定과 單位平面의 標準이 先行되어야 하며, 주택建設의 工業化에 의한 大量生産體制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本論은 그에 대한 일환으로 주택의 工業化에 基本이 되는 住宅設計上의 基準을 設定하고 單位平面을 標準化 함으로서 주택건설의 体系性을 갖추는데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각 住宅 建設業체에서 建設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등의 各部位寸數와 單位平面에 대한 室別寸數를 調査分析하여 理論值 및 MC에 의한 標準值를 設定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活用한 각 住宅類型의 体系的인 單位平面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單位平面의 標準作成은 앞으로 주택의 質的 向上과 slum化의 방지를 위해서도 현실정에 적합된 計劃基準을 피하고 加급적 open system方式에 의한 MC를 의거 하도록 試圖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單位平面의 효율성 문제에서 애로가 있음을 감안하여 closed system을 병행한 단위평면의 標準案作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 住宅 各部位의 寸數調査分析

住宅 各部位의 標準寸數 및 單位平面의 표준안은 住宅 生産의 工業化를 전제로 한 우리의 住居樣式, 소득수준, 표준체위등을 參考하여 作成하도록 하였으며 MC에 關한 國內 研究資料를 활용 可能限 모둠화 및 單純化 한다.

이러한 研究의 범위에 對하여 各 주택 類型別로 1977년 말에서 1979년 및 1980년에 建設된 一般 住宅 建設業체의 아파트 106棟, 住宅公社 아파트 62棟, 연립주택 41棟등 단독

주택(건설부 표준설계도 포함) 31棟등 總 240棟의 광범위 한 調査를 對象으로 하였다.

1) 層高

① 아파트의 層高는 2,515mm~2,976mm로 분포되어 있으며, 其中 2,850mm가 全体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一般 的으로 2,600mm 内外는 P.C판 널을, 2,700mm~2,850mm 는 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립주택은 2,550mm~3,050mm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2,700mm와 2,800mm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平均値는 2,782mm로 2,800mm에 가깝다.

③ 단독주택은 2,900mm에서 3,400mm에 걸쳐 있으나 지 붕높이는 지붕材料 및 경사에 따라서 4,125mm에서 5,525mm 에 이르는 것도 있다. 層高는 주로 3,000mm에서 3,300mm에 분포되어 있다.

2) 천장고 및 천장속 깊이

① 아파트는 2,100mm~2,555mm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 분이 2,300mm 内外인 2,296mm~2,365mm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천장속 깊이는 45mm~546mm로서 주로 300mm, 400mm, 450mm 등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② 연립주택은 2,100mm~2,450mm에 이르고 있으며 2,350mm 정도가 가장 많다. 平均値는 2,255mm로 標準편차에 의 거한 평균치는 2,300mm이다.

천장속 깊이는 반자가 없는 경우의 100mm에서 450mm에 이르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로 300mm내지 400mm가 가 장 많다. 平均値는 324.72mm로 350mm 정도가 된다.

③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부 2,400mm로 單純化 되어 있 다. 천장속 깊이는, 調査對象의 住宅 지붕이 트러스 構造 로 평보에 바로 반자들을 한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3) 바닥 높이

① 아파트의 바닥높이는 100mm가 27.36%, 150mm가 44.34%에 해당되고 있으며 대부분 130mm나 150mm가 一 般化되어 있어 거의 單純化되어 있다.

② 연립주택의 바닥높이(마루바닥)는 150mm와 200mm , 그리고 300mm가 가장 많았다. 대체적으로 아파트와 同一 하게 볼 수 있다.

③단독주택은 대부분 1층은 600mm 정도이며 현관홀에 서의 바닥높이(마루바닥)는 200mm로 單純化되어 있다.

4) 窓台높이

① 아파트의窓台높이는 100mm~1,500mm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事項으로區分할 수 있다. 即, 居室 前面窓, 寢室窓, 浴室 및 부엌窓 등으로 조사대상은 침실을 위주로 하였다.

침실창 역시 전면에 발코니와 선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一般的으로 발코니가 없는 경우 1,100mm를 상회하는窓台높이가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코니와 선룸이 있는 경우는 100mm~500mm의 분포가 33%를 나타내고 있다.

② 연립주택의 경우는 대개南向한寢室에서 높이를基準으로 하였을 때 350mm에서 1,100mm에 이르고 있다. 平均的인 치수는 800mm 정도로, 前面에 발코니가 없는 경우에는 1,100mm의 것도 있다. 그러나 2,3층의 연립주택에서 전락방지를 고려한 치수는 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적은 치수였다.

③ 단독주택은南向한寢室에서의 높이로서 調査結果는 700mm~800mm(방 바닥에서 높이)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보다는 전락 및 추락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5) 처마깊이

① 아파트의 처마깊이는 300mm~1,600mm의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1,200mm가 28%를 1,350mm가 17.31%를 1,500mm가 14.43%의順位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따라서는 발코니와 복도의 폭과 相關性을 갖고 있었다.

② 연립주택의 처마깊이는 발코니가 없는 경우 400mm~1,000mm에 이르고 있으며, 1,200mm 이상인 것은 발코니가 있는 경우였다.

③ 단독주택은 평슬래브 지붕인 경우의 1,000mm를 제외하고는 주로 600mm로 되어 있으나 900mm로 된 것도 있었다.

6) 반침깊이

① 아파트의 반침은 101個의 調査對象中 63개 아파트만이設置되어 있을 뿐 62.38%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침이 있는 경우는 500mm~800mm로서 63%가 700mm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연립주택은 41종의 조사대상중에서 4개소만이 600mm~700mm의 반침깊이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연립주택이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이 700mm 정도였으나, 平面計劃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設置된 치수인 900mm도 있으나 이 경우는 平面 전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었다.

7) 階段(共用)

① 아파트의 階段은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개정 1980.6.2 건설부령)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최근의 아파트에서는 비교적 통일되어 있다. 階段의 폭은 1,300mm 이상이 대부분이며, 1,950mm에 이르는 것도 3개소나 있었으

며, 1개소가 未達인 것도 발견되었다.

段너비는 240mm~330mm에 분포되어 있으나 86%가 260mm 이상의法規에 따르고 있으며, 240mm~250mm 인 것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段높이는 특히層高와 關連性을 갖고 있어 각각 140mm~203.5mm에 이르고 있으나法規值인 180mm以下에 해당하는 것은 77% 정도였다.

계단참의 유효폭은 1,200mm(壁中心으로는 1,400mm) 이상으로서, 26.75%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폭은 1,000mm~3,000mm로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1,400mm~1,500mm内外였다. 계단난간 높이는 全体의 67.2%가 900mm를 나타내고 있어 適合性을 이루고 있다.

② 연립주택의 階段幅은 1,050mm~1,500mm에 이르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200mm에서 1,300mm의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것은 연립주택 1家口만이 使用이 아닌 2~4가구가 사용하는 共用階段이다. 平均値 1,300mm는 壁中心線의 치수로 유효폭 1,200mm를 만족하고 있다. 階段참 폭은 900mm~1,520mm에 이르고 있으며 平均値는 1,178mm 정도이므로 표준편차에 의한 평균치수는 1,200mm 정도이나 共用계단의 경우法規定치수의 유효폭 1,300mm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상당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段높이는 150mm~200mm로서 180mm内外가 가장 많아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나 200mm이상인 것도 발견되었다.

단 너비는 250mm~260mm로單純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규칙에 의한 260mm는 66.67% 정도이다.

계단난간 높이는 970mm로 아파트보다 높은數値로 나타났다. 발코니 난간 높이 치수는 안정치수인 1,100mm가 全体의 87%였다.

8) 玄關 폭

① 아파트의 玄關幅은 1,000mm~1,700mm에 이르고 있어 73.5%가法規定寸數인 1,400mm를 상회하고 있다.

② 연립주택은 1,000mm~1,500mm에 분포되어, 1,200mm와 1,400mm가 가장 많았다. 平均치수는 1,231mm内外로 빈도수가 가장 많은 1,200mm와 일치하고 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신장등의設置를 고려한 1,400mm의 玄關幅도 상당수가 있었으나 1,000mm도 발견되었다.

③ 단독주택의 현관폭은 1,500mm로, 아파트의 1,400mm보다 넓은寸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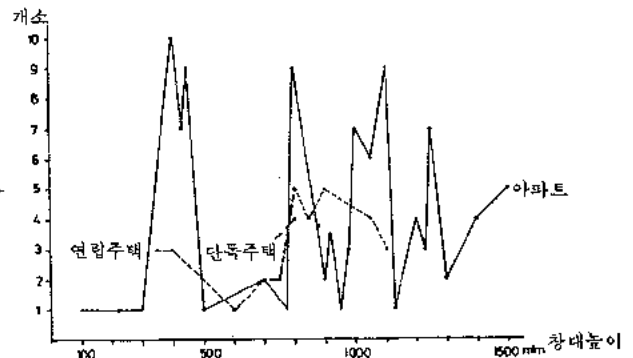
III. 住宅單位平面 室別 寸數 調査分析

調査對象의 單位平面에 대한 치수조사는 규모에 따라 10坪미만의 규모, 11~15坪규모, 16~20坪 규모, 21~25坪 규모, 등으로區分하여 각각 주택공사와 一般建設業체에서 건설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등으로區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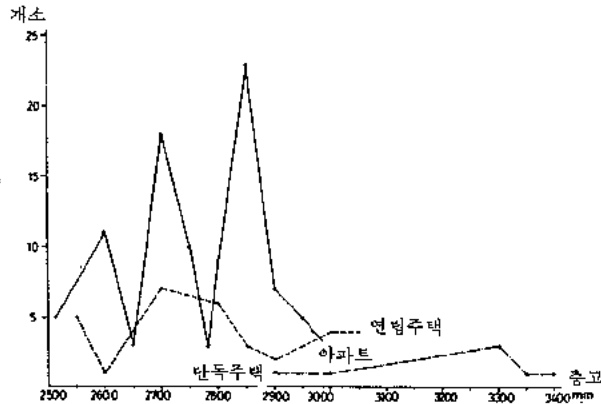
1) 單位 平面의 幅과 깊이(WXD)

현행 아파트의 폭(W)과 깊이(D)는 11~15坪인 경우 6~8m×5~8m, 16~20坪인 경우 8~10m×6~9m, 21~25坪인 경우 7~10m×7~10m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10m 以内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外國의 設計에 比하여 너무나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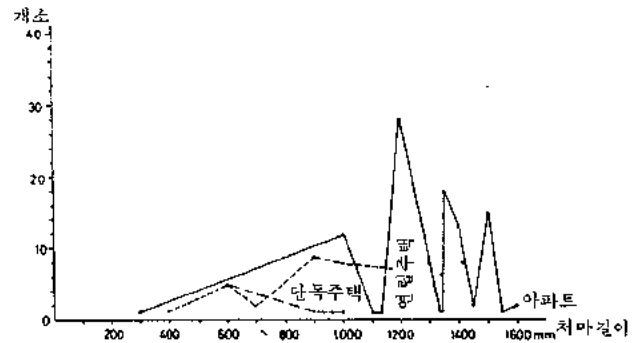
연립주택의 폭과 깊이는 11~15坪인 경우 6~8m×7~8m, 16~20坪인 경우 6~9m×7~8.5m, 21~25坪인 경우,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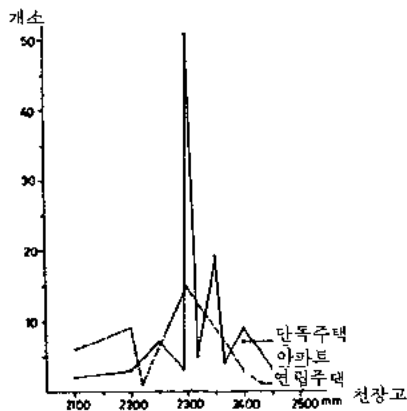
〈그림 4〉 주택 창대높이의 調査比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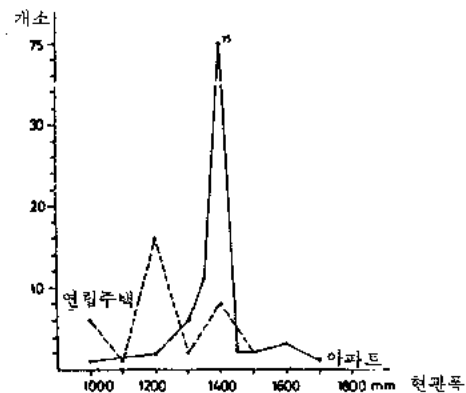
〈그림 1〉 주택 층고의 調査比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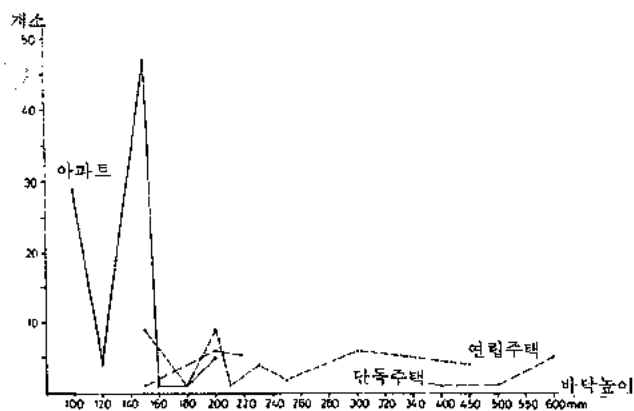
〈그림 5〉 주택 처마깊이의 調査比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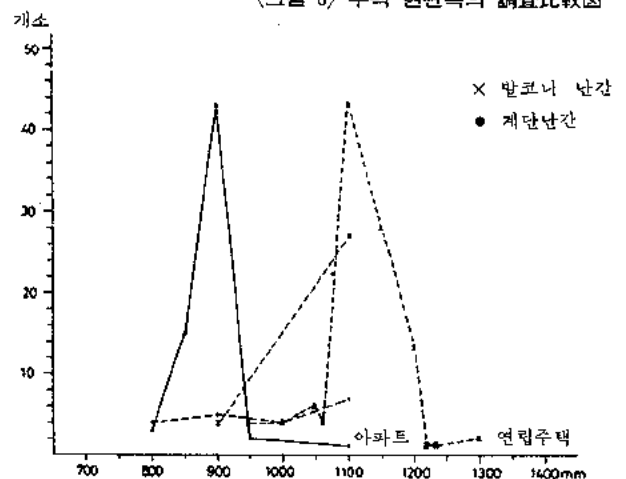
〈그림 2〉 주택 천장고의 調査比較圖



〈그림 6〉 주택 현관폭의 調査比較圖



〈그림 3〉 주택 바닥높이의 調査比較圖



〈그림 7〉 주택 階段, 발코니 난간의 높이 調査比較圖

~10.5m×8~9.5m등으로 분포되어 역시 10m以内가 대부분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은 幅과 깊이가 거의 같게 된 것임을 알수 있다.

단독주택의 1家口에 대한 폭과 깊이는 平均的으로 11~15坪 규모일때 8,192mm×5,602mm로서 깊이는 5~6m内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의 面積에 따라서 前面幅이 달라지고 있다. 16~20坪 규모일때는 폭 6m에서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1~25坪 규모에서는 깊이 8~9m, 폭 9.5~11.5m로, 面積에 따라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居室

아파트의 居室크기는 11~15坪규모에서 2.5~3m×2.5~4m (住公), 3~4m×3m (一般業体)이며, 거실 面積의 平均値는 9㎡이다. 16~20坪의 경우는 3m×3~4m (주공), 3~4m×3~3.5m (일반업체)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面積平均値는 11㎡였다.

21~25坪의 경우는 3~3.5m×3~4m (주공), 3.5m~5m×3~4m로서 面積平均値는 11.6㎡~14.15㎡이다.

연립주택의 거실 최소폭은 상당수가 법규정치인 3m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1~20坪 규모에서 많았으며 21~25坪 규모에서는 3m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居室크기의 분포는 11~15坪~2.3~3.3m×2.8m×3.5m, 面積平均値 8㎡를 16~20坪~2~3.3m×3~3.9m, 面積平均치 8.8㎡를, 21~25坪~3~3.6m×3.6~6m, 面積平均치 13㎡를 나타내고 있다.

단독주택의 11~15坪 규모에서는 2.4~3.6m×2.7~3.6m, 面積平均치 8.6㎡, 16~20坪~2.4~3.3m×3~4.8m, 面積平均치 9.37㎡, 21~25坪~3.3~4.2m×3.3~5m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平均的인 室크기로 볼때 4,300mm×3,586mm로서 面積은 15㎡에 이르고 있다.

3) 寢室

寢室은 種類에 따라서 A.B.C.D로 區分하고 住宅 규모별로 調査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분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아파트의 寢室

寢室A에서:

-11~15坪 규모인 경우 2.4~3.3m×3~4m (주공) 3~4.5m×3~3.6m (일반업체), 面積 10~11㎡, -16~20坪 규모인 경우 2.7~3.6m×3.3~4.2m (주공) 3.6~4m×3~3.6m (일반업체), 面積 11~13㎡, -21~25坪 규모인 경우 3~3.3m×3.6~5m (주공) 3.6~4.8m×3~4.2m (일반업체) 面積 14㎡,

寢室 B에서:

-11~15坪 규모인 경우 2.1~3m×2.4~3.6m (주공) 2.4~4.2m×2.4~3m (일반업체) 面積 7.6~8.1㎡, -16~20坪 규모인 경우, 2~3m×3~3.3m (주공) 2.4~3.6m×2.4~3m (일반업체), 面積 7.6~8.1㎡ (11~15坪의 규모와 同...)

-21~25坪 규모인 경우, 2.7~3m×3~4m (주공) 2.4~

4.2m×2.1~3.3m, 面積 10㎡,

寢室C에서:

-11~15坪 규모일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0坪 규모에서는 주공에서 상당수가 室幅이 2.1m에도 未達되었으며 一般業体에서는 없었다.

室크기는 2m内外×2.4~3m (주공), 2.4~3.3m×2.4~2.7 (일반업체), 面積은 각각 6㎡~7㎡이다. -21~25坪 규모인 경우 2.2~2.7m×2.7~3.9m 面積 7.2~8.0㎡로 나타났다.

② 연립주택의 寢室

寢室A에서는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았다. -11~15坪 규모인 경우 2.9~3.6m ×3~4.5m, 面積平均値 10.5㎡,

-16~20坪 규모인 경우, 2.7~3.9m×3.5~4.5m 面積平均値 12.7㎡,

-21~25坪 규모인 경우 3.2~3.9m×3.6~4.6m, 面積平均値 15.6㎡로 나타났다.

寢室B에서:

-11~15坪 규모인 경우 2.1~3.2m×3~4.2m, 面積平均値 7.2㎡,

-16~20坪 규모인 경우 2.2~3.3m×2.7~4m, 面積平均値 8.4㎡,

-21~25坪 규모인 경우, 2.7~3.3m×2.7~4.2m 面積平均値 10.3㎡로 나타났다.

寢室C에서:

-11~15坪 규모인 경우 2.2~2.4m×2.4~2.6m 面積平均値 5.75㎡,

-16~20坪 규모인 경우 2~2.5m×2.5~2.8m, 面積平均値 5.9㎡,

-21~25坪 규모인 경우 2.1~2.7m×2.7~3.5m 面積平均値 7.5㎡로 나타났다.

③ 단독주택의 寢室

寢室 A에서는 11~15坪 규모의 경우 2.3~3.3m×2.7~3.9m에 분포되어 있으며, 平均的인 室치수는 3.383×2.776mm로 面積은 9.4㎡이다. 16~20坪 규모에서는 3~3.6m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으며 平均的인 室치수는 3.654×3.050mm로 面積은 11.145㎡이다. 21~25坪 규모에서는 3.3~3.9×4~5m에 걸쳐 분포되고 있으며 平均的인 室치는 3.514×4.450mm, 面積 15.64㎡로 나타났다.

寢室 B에서는 11~15坪 규모인 경우, 2~2.7m×2.7~3.6m, 平均的 室크기 3,211×2,484mm, 面積 788㎡, 16~20坪 규모인 경우 2.4~2.7m×3.0~4.0m, 平均的 室크기 2,531×3,293mm 面積 8.3㎡로 11~15坪 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 21~25坪 규모에서는 2.7~3.3m×3.6~4.8m, 平均的인 室크기 3,079×4,114mm, 面積 12.66㎡로 증가되었다.

寢室C에서는 11~15坪 규모에서 平均的으로 2,235×2,845mm, 面積 6.35㎡, 16~20坪규모에서 2,432×2,895mm, 面積 7.0㎡, 21~25坪 규모에서 2,757×3,278mm, 面積 9

m² 정도가 된다.

寢室D의 경우는 11~20坪 규모에서 최소 室크기인 2.1m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寢室의 크기로서는 부적합하다. 21~25坪 규모에서는 平均 2,300×3,000mm로서 面積은 6.9m²였다.

4) 부엌

아파트에서 부엌만을 둔(식당을 겸용하지 않은)경우 일반업체보다 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많았다. 11~15坪 규모에서는 2m 内外×2.4~3.3m의 분포였으며, 面積은 5m²로 나타났다. 16~20坪 규모는 2.1~2.4m×2.4~3.2m(주공)의 室크기로 面積은 6.3m² 정도이다. 일반 업체의 아파트 경우는 몇몇 아파트만이 해당되었으나 平均의인 室크기는 2.43m×1.98m, 室面積 4.8m² 정도로 주공의 경우보다 적었다. 21~25坪 규모에서는 부엌만 있는 경우 극소수의 아파트만이 해당되었고 平均의인 室크기는 3.27m×2.4m로 室面積 7.8m² 정도였다.

연립주택에서 부엌만 있는 형은 영세화된 연립주택의 결과로서 부엌에 대한 施設이 불비하였다. 室面積은 規模에 관계없이 6m²内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即 11~15坪 규모인 경우 2.1~2.7m×2.3~3.6m, 面積平均値 6m², 16~20坪 규모인 경우 1.5~2.8m×2.2~3m 面積 平均値 5.8m²(11~15坪형 주택보다 오히려 0.2m²가 적었다) 21~25坪 규모인 경우 2.1~2.7m×2.7~3.3m, 面積平均値 6.7m²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단독주택에서 11~15坪 규모일 때는 대부분 2m×3m에 분포되어 있으며 平均寸數는 2,105×3,038mm, 面積 6.4m²로 나타났다. 16~20坪 규모일 때는 2.4m 内外×3.6~4.8m, 平均치수 2,401mm×3,713mm, 面積 8.9m² 정도가 된다. 21~25坪 규모에서는 부엌만 있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平均치수는 2,300mm×3,000mm, 面積6.9m²로서 오히려 16~20坪 규모의 주택보다도 낮았다.

5) 부엌+식당

아파트의 부엌+식당 形式은 주공의 아파트보다 일반업체가 建設한 아파트에서 많은 수로 나타났다. 11~15坪 규모에서는 전설업체의 경우 2.1~4.5m×2~4m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平均의인 室크기는 3.16m×2.95m, 面積 9.26m²였다. 16~20坪 규모에서 2.4~4.8m×1.5~3.6m 面積 8.75m², 21~25坪 규모에서 2.4~5.2m×2~3.3m, 面積9.5²로 분포되어 있다.

연립주택에서는 11~15坪-2.3m×3m, =6.9m², 16~20坪-2~2.7m×2.7~3.2m=7.9m², 21~25坪-2.7~2.9m×3~3.9m=9.5m²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단독 주택에서는 20坪以下の 規模에서는 없었으며 21~25坪규모일 때 상당수가 부엌+식당이 設置되었다. 이에 대한 平均의인 室크기는 2,900mm×4,200mm로서 面積은 12.18m²가 되고 있다.

6) 浴室

아파트의 浴室은 一般建設業체가 施工한 경우 같은 분포에서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공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는 각기 크기가 달랐다.

11~15坪-1.46~1.65m×2.1~2.21m=3~3.65m²,

16~20坪-2.21m×1.7m=3.7~3.8m²,

21~25坪-2.4~2.6m×1.7~1.9m=4.3~4.5m², 平均의 분포로서 4.3m² 정도인 1.8m×2.4m가 浴室의 크기였다.

연립주택은 3.2m²에서 4.5m²의 面積으로 이루어져 있다. 即 11~15坪-1.2~1.8m×1.8~2.4m=3.2m², 16~20坪-1.5~1.8m×2.1~3m=3.8m², 21~25坪-1.5~2.0m×2.4~2.7m=4.4m²등으로 浴室의 크기는 規模에 따라 0.6m²(5坪 증가基準) 증가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11~15坪-1.457m×2.380m=3.467m², 16~20坪 規模에서는 거의 치수가 일치하고 있어 쉽게 單純化가 될 수 있는 部位로서 平均의인 치수는 2,090mm×2,631mm로 面積은 5.5m²가 되며, 21~25坪 규모에서는 오히려 16~20坪규모에서 보다 적은 치수인 1.714m×2.574m의 치수로 4.3m²의 面積으로 나타났다.

7) 多用途室

아파트에서의 다용도실은 부엌에서 더스트 슈트로 통하는 곳에 設置하여 空間活用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 싱크, 저장시설등을 合理的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調査된 室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1~15坪-2.3~2.6m×1.18~1.24m=2.8~3.1m², 16~20坪-1.25m×1.5~6m=1.875~7.5m², 21~25坪-1.14~1.15m×2.25~4.26m=2.5~4.9m²등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에서는 11~15坪 規模일 때 4.4m², 16~20坪 規模일 때 3.68m², 21~25坪 規模일 때 2.04m²로 분포되어, 住宅面積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었다. 단독주택에서는 多用途室이 設置되지 않는다.

8) 收納空間

아파트의 수납공간은 11~15坪 規模일 때 1.22~1.97m², 16~20坪 規模일 때 1.5~2.3m², 21~25坪 規模일 때 1.5m²의 크기였다.

연립주택에서는 11~15坪-2.7m², 16~20坪-1.9m², 21~25坪-2.86m²등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에서는 각각 平均 1.08m², 1.62m², 4.732m²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9) 玄關臺

아파트의 玄關홀은 주공의 경우, 幅 1.2~1.3m, 깊이 0.9~1m 정도였으며, 일반전설업체는 幅 1.4m로 통일되었고, 깊이는 1.2m~1.3m로 나타나 있다. 面積은 1.1~1.3m²(주공), 1.65~1.92m²(업체)로 規模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립주택의 玄關홀은 각각 幅 1.200~1.360mm, 깊이는 1m 内外에서 분포되어 있다. 即, 11~15坪-1.24m×1.0m=1.24m², 16~20坪-1.25m×1.02m=1.28m², 21~25

坪-1.367m×1.208m=1.65m²였다.

단독주택은 玄關幅 1.15~1.2m에서 비교적單純化되어 있으며, 길이는 0.9~1.1m内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面積은 각각 1.07m², 1.344m², 1.32m²로 住宅의 크기에關係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10) 발코니

아파트의 발코니 幅은 1.2m, 1.4m, 1.6m로 길이는規模에 따라, 11~20坪規模에서 3.5m, 21~25坪規模에서 4m 정도였으며,面積은 각각 4.4m², 5m², 6.5m²(주공)였으나 일반업체의 경우는 길이에 있어서 주공의 아파트보다 길고面積도 컸다.

연립주택은 住宅規模에 관계없이 1.1~1.2m内外에서, 幅이 이루어지며 길이도 각각 달라진다.面積은 5.1m², 6.03m², 4.39m²로規模가 커짐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IV. 住宅 合部位의 標準寸數 設定

1. 아파트 各部位의 標準寸數 設定

1) 層 高

調査에서 2,700mm内外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平均値 2,774mm는 수직모듈 2m로 할 경우, 2,800mm가 抽出된다. 이러한 것은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집합주거 建築의 층高가 26m, 27m, 28m, 와도 관련되는 타당한 수치이며, P.C판을 使用할 경우, 26m도 가능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층高는 2,600mm, (P.C의 경우)보가 있을 경우, 2,800mm, 천장높이(Ch) 2,300mm, 바닥 높이(f), 150~200mm, 천장속길이 350~400mm를 고려한 層의 높이는 고층인 경우의 2,900mm까지도 될 수 있으며, 基準치수 2,800mm에서 가감폭(a)를 100mm로 보면 可能하다. 即, 層高(Hnr)=천장높이(Ch)+바닥높이(f)+천장속길이(c)±가감폭(a)=2,300+150~200+350~400mm±100=2,600mm, 2,700~2,800mm로 設定될 수 있다.

2) 천장고 및 천장속길이

천장高는 대부분이 2,300mm内外로 平均値는 2,315mm로 표준편차에 따른 平均치는 2,300mm가 抽出된다. 이러한 것은 Le Corbusier의 Modulor에서 천장높이로 設定한 2,260mm(Marseille아파트의 경우)以上이 되므로 타당한 수치가 된다.

천장속길이는 調査에서 45mm에서 546mm에 이르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300mm, 450mm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平均치는 350mm정도이므로 350~400mm를 기준치로 설정할 수 있다.

3) 바닥높이

바닥높이는 대부분 150mm에 가장 많은 분포로서 基準寸數는 150mm에서 溫突構造에 依해서 다소 높아질 수 있으므로 150~200mm가 設定될 수 있다. 한편 아파트의 1층

바닥높이는 地下層에 방공대피호나 보이라실 등의 設置를 고려하여 지하실에 채광용 窓을 設置할 수 있도록 1,200~1,500mm정도는 地面에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1층 玄關入口에 管理室을 두어 관리할 경우도 出入人의 관리에 유리하며 1층 바닥의 단열성에도 효과적이다.

4) 窓台높이

창대 높이는 窮室을 기준으로 한 一般的인 平均치수는 850mm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 窓의 位置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① 居室에서 前面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바닥까지 窓이 設置되면 창은 천장고 2,300mm의 범위에서 2,100~2,300mm로, 窓台높이(Wh^o)는 없을 수도 있다.

② 寢室에서 前面에 발코니나, 선롬이 있는 경우는 침실에서 앉은 상태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이 540mm를 감안하여 窓台높이(Wh^o)는 창높이를 2,100~1,800mm로가 상하면 200~500mm가 設定될 수 있다.

③ 前面에 발코니가 없는 窮室의 창대높이(Wh^o)는 창높이 1,200~1,300mm를 고려한 1,000~1,100mm가 設定된다. 창대높이 1,100mm는 전락방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치수이다.

④ 復道측에 면한 부엌의 창대높이(Wh^o)은 싱크, 調理台 作業面의 높이 800mm를 고려한 200~300mm를 가산한 1,000~1,100mm를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窓의 크기는 창측의 벽찬장 설치 여부에 따라 1,200~1,300mm나 600~700mm의 窓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복도측에 면한 浴室에서의 창대높이(Wh^o)는 욕실 천장 높이 2,100mm以上을 고려한 창크기를 600mm정도 하면 1,500mm이상 가능하다.

(5) 처마깊이

아파트의 처마 길이는 발코니나 복도의 설치 여부에 따라 변한다. 調査에 依한 처마깊이는 1,200mm, 1,350mm, 1,500mm에 분포되어 있어 1,200~1,500mm를 기준치수로 설정할 수 있다.

6) 반침 깊이

반침의 조사는 대부분 壁體中心에서 700mm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700mm를 기준치수로 설정하면 안목치수를 제외한 600mm정도가 되므로 최소의 수납폭이 된다.

7) 階段(共用)

아파트의 階段幅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의 아파트는 통일되어 있다. 調査된 계단폭은 1,400mm로 유효폭 1,200mm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外國의 공영주택이나 프랑스의 아파트에서는 계단실폭 2,400mm로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치 보다 적은 실정이다.

계단의 유효폭 및 MC를 고려한 계단실폭을 2,700mm로 설정하였다. 단너비는 調査에서 260mm以上, 平均値 270mm정도였다. 단 높이는 180mm以下인 것이 77%로 平均置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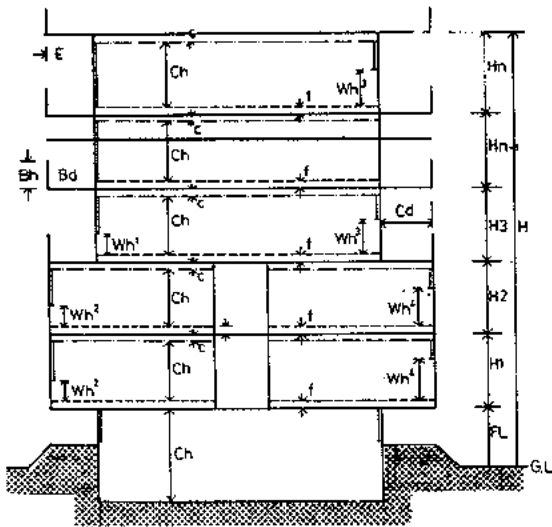
6,58mm를 고려하면 단 높이가 180mm이하, 단 너비 260mm以上으로 設定할 수 있다.

계단참의 유효폭은 1,400mm에서 1,500mm内外이므로 基準値는 1,400mm以上으로 하면 유효폭 1,300mm정도를 만족할 수 있다. 계단난간은 900mm, 발코니난간은 1,100mm以上이. 대부분이 였으므로 그대로 각각 900mm, 1,100mm가 設定된다.

8) 玄關幅

현관폭은 법규정치인 1,400mm를 상회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평균치 1,392mm로 표준편차에 따르면 1,400mm가 기준치수로 設定된다. 그러나 수평모듈 3M에 적용시키면 1,500mm가 要求된다.

이상에서 各部位의 標準寸數 設定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 8) 및 <표 1>과 같다.



<그림 8> 아파트 主要部位의 基準圖

2. 연립주택 各部位의 標準寸數 設定

1) 層 高

연립주택의 층고는 調査에서 平均 2,800mm로 나타남을 감안하면 基準寸數는 P. C로 建設할 경우 2,600mm와 2,800mm가 設定된다.

2) 천장고 및 천장속길이

천장고는 規定値인 2,300mm가 가장 많았으며, 平均値 2,255mm로서 2,300mm가 設定된다. 따라서 調査에서와 같이 천장속길이는 300~400mm 内에서 基準치수로 設定될 수 있다.

3) 바닥높이

바닥높이는 대부분 150mm, 200mm, 300mm에서 분포되어 있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50~200mm정도가 設定될 수 있다. 또한 1층의 바닥높이는 600mm로 설정하여 온돌구조와 방습 및 雨水 등을 고려한다.

4) 窓台높이

南向한 寢室의 窓台높이는 調査된 內容을 考慮하여 다

<표 1> 아파트 主要部位의 基準寸數(案)

部 位 名	略號	基 準 寸 數(案)
層 高	Hn	2,600 (P. C 판으로 건설할 경우) 2,700~2,800
천 장 높 이	Ch	2,300 (規定値)
천장속길이	C	350~400
바 닥 높 이	f	150~200 (玄關홀에서 마루바닥까지)
1층바닥높이	FL	1,200~1,500
窓 台 높 이	Wh'	200~500 (寢室前面에 발코니 있는 경우)
窓 台 높 이	Wh'	1,000~1,100 (寢室前面에 발코니 없는 경우)
窓 台 높 이	Wh'	1000 ~1,100 (부엌에서의 窓台높이)
窓 台 높 이	Wh'	1,500 (浴室에서의 窓台높이)
처 마 길 이	E	1,200~1,500
階 段 幅		1,350 (유효폭 1,200 以上)
階 段 참 폭		1,300 以上
段 높 이		180 内外
段 너 비		260 以上
玄 關 幅		1,400~1,500
발 코 니 幅	Bd	1,200~1,500
발코니난간높이	Bh	1,100 以上 (規定値)
屋上난간높이		1,100 以上 (規定値)
復 道 幅	Cd	1,400 以上 (편복도인 경우)

음과 같이 設定될 수 있었다.

① 寢室 前面에 발코니가 있는 경우, 아파트와 同一한 200~500mm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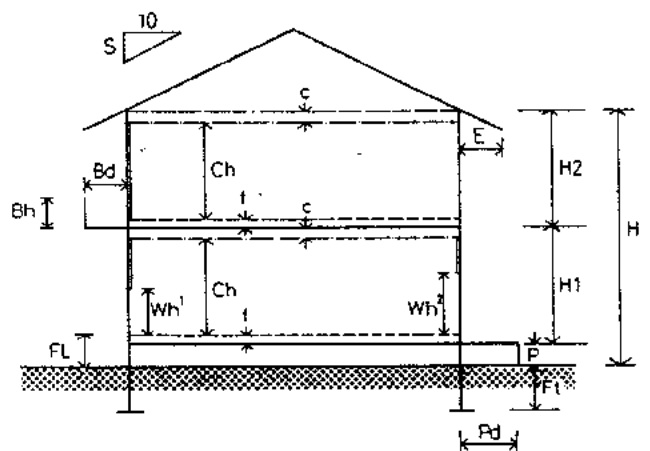
② 前面에 발코니가 없는 경우는 800mm로 設定한다.

③ 부엌의 窓台높이는 아파트와 同一한 1,000~1,100mm를 기준치수로 설정한다.

④ 기타의 경우는 아파트의 기준치수에 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처마길이

調査에 依하면 平均 900mm가 抽出되었다. 이와같은 치수는 실내환경문제와 立面構成에 있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9> 연립주택 主要部位의 基準圖

〈표 2〉 연립주택 主要部位의 基準寸數(案)

部 位 名	略號	基 準 寸 數
層 高	Hn	2,600 (P. C의 경우), 2,800
천 장 높 이	Ch	2,300
천 장 속 깊 이	C	300~350
바 닥 높 이	f	150~200
1 층바닥높이	FL	600
玄 關 幅		아파트에 준함
현관바닥높이	P	450
현관바닥깊이	Pd	1,200 이상
계 단 폭		1,000~1,200 (유효폭)
계 단 참 폭		1,000~1,200 (단높이, 단너비, 아파트에 준함)
발 코 니 폭	Bd	1,200~1,500
발코니난간높이		아파트에 준함
窓 台 높 이	Wh'	800 (前面에 발코니 없는 경우)
窓 台 높 이	Wh'	1,000~1,100 (부엌에서) (기타는 아파트에 준함)
처 마 길 이	E	9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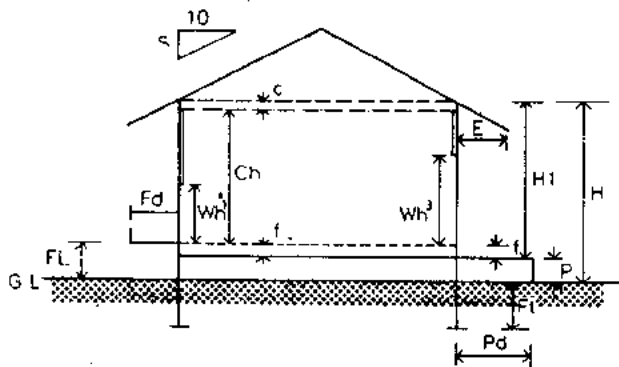


그림 10 单独住宅主要部位 基準圖

6) 반침깊이

조사된 반침깊이는 600mm, 700mm에서 분포되어 있으나 최소치 700mm는 유지되어야 한다.

7) 階 段

연립주택의 階段幅은 1,200mm에서 1,300mm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파트 보다는 사용회수가 적음을 감안하여 유효폭 1,000~1,200mm도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設定한 主要部位의 기준치수를 종합하면〈그림 9〉, 〈표 2〉와 같다.

3. 단독주택 各部位의 標準寸數 設定

단독주택의 主要部位의 基準寸數案은 調査된 内容에 依해서 종합한 設定寸數는〈그림 10〉, 〈표 3〉과 같다.

〈표 3〉 단독주택 主要部位의 基準寸數案

部 位 名	略號	基 準 寸 數
層 高	H'	3,000~3,300, 2,600 (P. C의 경우),
	H	2,700~2,900
천 장 높 이	Ch	2,300
바 닥 높 이	f	150~200
1 층바닥높이	FL	600
玄關바닥높이	P	450
玄關바닥깊이	Pd	1,200
窓 台 높 이	Wh'	500~1,100 (前面에 발코니 없는 경우)
窓 台 높 이	Wh'	1,500 (浴室에서) (기타는 아파트에 준함)
처 마 길 이	E	900
뒷마루깊이	Fd	600
뒷마루높이	FL	600

〈*〉

祝

大邱 直轄市 昇格

仁川 直轄市 昇格

韓式 大木作制度 概說

— 包作을 中心으로 하여 —

趙勝元 · 趙英武 *

(株) 空間研究所)

1. 基礎 知識의 必要性

실은 이번「建築士」誌에 韓式 包作의 一式 圖面들을 소개하려고 했으나, 이에 앞서 韓式 大木作制度에 관한 여러가지 基礎 知識들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누구나 알다싶이, 韓式 木造 建築의 營造諸作에는 基作, 石作, 大木作, 小木作, 彫作, 旋作, 鋸作, 瓦作, 泥作, 陶作, 磚作, 彩画作등 여러 가지 各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各作들은 제각기 造作 制度, 功限(일종의 품셈) 制度 및 圖樣 制度를 가지고 있다. 圖面들은 圖樣 制度에 속한 것들이다. 이 圖樣 制度를 理解하려면 최소한 必要한 造作 制度, 특히 名件들과 法式들의 用語들, 그 造作法들을 간단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大木作이란 各作만 해도, 그 안에는 用材法, 立柱法, 造檐法, 擧折法, 包作 制度 등과 같은 特殊한 制度들과 法式들, 拱, 昂, 要頭, 枋, 台拱, 梁, 枋, 柱, 角梁(추녀), 童柱, 搏 또는 棟(도리), 搏風(박공), 複棟(장여), 椽, 連檐(정고대) 등과 같은 各件들의 直接的인 治材 및 造作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大木作은 諸作 중의 한 各作이므로, 度量 制度, 構屋 制度和 그 用材法, 方門平直法, 徑周斜長法, 取正法, 斜取法 등과 같은 한층 더 一般的인 基礎 知識들과도 관련된다. 包作 制度는 大木作에 속하는 한 制度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包作은 構屋等도가 높은 間數가 많은 殿(殿身과 副階), 堂, 廳堂, 亭榭 등에만 採用되어서, 宮闕이나 佛寺의 一部 建物들에만 採用되었다. 이 包作 制度和 包作 圖樣 制度는 다음 機會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2. 一般的인 基礎 知識들

특히 包作과 관련하여, 우선 度量 制度, 構屋 制度和 用材法, 方門平直法, 徑周斜長法, 定功法, 取正法, 定平法, 斜取法 등 一般的인 基礎 知識들을 다루기로 한다.

2-1 度量 制度

과거 營造 度量 制度는 「尺」單位の 十進法을 採用하였다. 「尺」單位는 10厘(毫)를 1分, 10分을 1寸, 10寸을 1尺, 10尺을 1丈으로 삼았다. 여기의 「分」은 材를 等分할 때 사용되는 分材의 「分」과 서로 混同하지 않아야 한다. 營造에 주로 사용했던 「尺」單位는 營造尺이고, 그 길이는 현재 30cm를 1尺으로 삼고 있는 現尺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時代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랐던 것

*筆者 趙勝元씨는 英武씨의 父親으로 建築人家族임.

같다. 흔히 6尺의 길이를 1「間」, 6尺×6尺의 面積을 1「間」또는 1「坪」이라고 불렀다. 度量의 「間」은 構屋의 正面 및 側面의 立柱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間數」의 「間」과 서로 混同하지 않아야 한다. 兩柱 사이의 柱心距離인 「間」의 너비는 建物들마다 제각기 그 長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多包作, 즉 補間包作의 경우에는 兩出拱心距離에 의하여 兩柱의 柱心距離이 左右된다. 만약 補間 拱心距離이 5尺이라고 假定할 경우, 柱心距離은 無補間包作이 5尺, 單補間包作이 10尺, 雙補間包作이 15尺, 三補間包作이 20尺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建物에서도 이 補間 拱心距離이 조금씩 달라지면, 柱心距離이 달라질 것이고 또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이 柱心距離은 椽徑이나 布椽距離에 의하여서도 左右된다. 왜냐하면 柱上 또는 柱梁結構線上에 布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尺」과 「分」이나 「間」은 경우에 따라 二重의인 言語使用을 混同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韓式 大木作은 어떤 寸數 制度의 엄격한 制約을 받고 있지 않다.

2-2 構屋 制度和 그 用材法

그러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韓式 構屋 制度는 어떠하며 또 그 用材法은 어떠한가? 누구나 世宗大王 13年(1431年)에 制定한 住宅條例가 身分 階級에 따라 構屋의 最大間數 및 棟數, 「間」의 最大 柱心距離 및 柱徑……등을 制度化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住宅 建築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宮闕 및 官衙의 構屋制度和 그 用材法을 成文化 한 文獻資料가 發見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文獻들에 의하면, 宮闕을 지을 적에 적지 않게 中國의 宮闕 構屋制度에 비추어 自律 規制하였다는 부끄러운 事實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과거 우리나라 建築 行爲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中國 建築書가 아마 宋 時代의 李 明仲이 편저한 「營造法式」일지 모른다. 그 第4卷의 大木作 制度 篇에 의하면, 制度는 모두 材로써 根本을 삼았으며, 材는 八等도가 있고, 屋宇의 大小에 의하여 使用하였다고 한다. 第一等材는 너비 9寸에 두께 6寸, 두께를 10等분한 6「分」으로써 1材分 즉 1「分」을 삼고, 殿身9~11「間」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만약 副階並殿이면, 副階檐屋의 材는 殿身보다 一等度を 減하였다. 또 하나 引用 한다면, 第三等材는 너비 7寸 5分에 두께 5寸, 5「分」으로써 1「分」을 삼고, 殿身 3間, 殿 5間, 堂 7間에 使用

하였다고 한다. 누구나 서울 景福宮의 正殿인 勤政殿의 副階檐屋이 正面 5間, 殿身이 正面 退 5間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宋時代의 包作構屋의 最大 正面間數가 副階11間과 殿身 9間, 通殿 11間이었던 것 같고, 最大 側面間數가 6間이었던 것 같다. 한가지 用材法에서 注意할 것은 「契」이란 것인데, 이 「契」는 各 材의 너비 6分에 해당하며, 「材」에 加契하는 補足材의 寸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工」 또는 「공」의 寸數에서는 따로 「契」를 두지 않고 「材+契」의 寸數로 使用한 것 같다. 흔히 包作에서는 이 「材」가 出供(제공)과 列供(첨차)의 基準寸數가 된다. 이 出供은 대개 補足材가 되고, 이 列供은 單材가 되기도 한다. 材(木材가 아닌 基準寸數)는 그 材의 너비를 15等分하여 그 10等分으로써 그 材의 두께로 삼는다. 무릇 屋宇의 高低, 名件들의 長短과 曲直, 擧折의 曲率, 規矩尺의 測量과 먹줄치는 法은 모두 用材의 分材를 基準으로 삼는 法이다. 다시 말하지만 各 材에 있어서, 寸을 나눈 「分」은 寸 單位의 分數이고, 材를 나눈 「分」은 材의 分數이다. 材의 大小는 屋宇의 大小에 따라서 定해져야 하며 또 大木作의 各 名件의 選材와 治材는 모두 材의 分數로써 行하여진다.

2-3 方圓平直法

무릇 構屋의 諸作制度는 모두 方圓平直을 기준으로 삼는다. 方은 直角正方, 圓周, 平은 水平正橫, 直은 秤줄 垂直을 뜻한다. 方은 曲尺과 같은 規矩正方器, 圓은 그림쇠와 같은 規矩正圓器, 平은 水盤器나 水池器와 같은 水平測定器, 直은 水平眞尺이나 眞尺과 같은 垂直測定器를 사용하여 잡는다. 方과 圓은 方圓法과 圓方法 두가지로 그려진다. 方圓法은 正方안에 圓을 그리는 法이고, 圓方法은 圓안에 正方를 그리는 法이다. 稜形, 즉 多角形은 圓方法을 응용하여 먹줄을 쳐서 차례로 治材하게 된다. 正方에서 시작하여 八角形, 十六角形, 三十二角形으로, 正三角形에서 시작하여 正六角形, 十二角形, 正二十四角形으로 잡아 圓이 된다.

2-4 徑周斜長法

徑은 圓의 半徑과 直徑, 方의 方徑, 稜의 稜徑 등, 周는 圓의 圓周, 方의 辺周, 稜의 辺周 등을 뜻한다. 方과 稜에서는, 각 모서리의 辺長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두 꼭지점의 對角線의 길이 즉 斜長이 문제된다. 이런 斜長의 算出法은 包作의 斜出拱(켜제공)의 길이를 계산할 때 應用될 수 있다. 徑周斜長은 다음과 같다: 圓의 直徑 즉 圓徑이 7이면, 그 圓周는 22이다. (圓周率 $\approx$ 3.14); 方徑이 100이면, 그 對角線의 斜長은 141이다. (斜長比 $\approx$ 1.41); 八稜徑이 60이면, 各 辺長은 25, 斜長은 65이다; 六稜徑이 87이면, 辺長이 50, 斜長이 100이다; 圓徑이 100이면, 圓안에 있는 正方의 方徑은 71이다; 正方안에 圓이

있으면, 方徑과 圓徑이 모두 다 1이다. 正方 안에 있는 稜도 方徑이 1이면 稜徑도 1이다.

2-5 定功法

定功은 季節에 따라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功의 限度, 즉 功限을 加減하는 法이다. 여러 가지 雜役의 功限을 雜功, 여러 가지 造作의 功限을 造作功이라 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功限을 一功, 한 품이라고 한다. 一功은 雜役에서는 輕重과 遠近, 造作에서는 材의 大小와 長短에 의하여 그 功限이 제각기 달라진다. 一功을 十等分 한 것이 1分功이다. 夏至는 낮이 길고, 冬至는 낮이 짧다. 그래서 陰歷 4, 5, 6, 7月은 長功, 2, 3, 8, 9月은 中功, 10, 11, 12, 1月은 短功이 된다. 功은 中功을 基準으로 하되, 長功은 1分功을 더하고, 短功은 1分功을 줄이는 法이다. 다시 말해서 中功의 功限을 10等分하여 그 1等分의 功을 加減한다는 것이다.

2-6 取正法

取正은 構室을 正南向으로 坐向시키기 위하여 正南方位를 바로 잡는 法을 뜻한다. 取正은 집터 한 가운데에서 우선 해가 들는 쪽을 살펴서 東方과 西方을 알아내고, 대낮의 日影 즉 해 그림자가 가장 짧아 질 때를 관찰하여, 대강 南方을 알아 낸 다음에, 景表版, 望筒, 水池景表와 같은 方位測定器를 사용하여 正南 方位를 잡게 된다. 과거 日官들은 分度門版中心表木 위에 指南鉄針을 設置하여 正南北의 方位를 測定하는 佩鉄器를 使用하였다고 하며, 또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指南鉄이 生産되었다. 비단 藏風得水의 條件들을 갖춘다는 風水說이나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理, 朝山 및 朝水 등의 條件들을 갖춘다는 地理說 이외에도, 집터나 마을터를 選定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概念이 있었다. 李重煥의 「擇里誌」에 의하면, 아무리 風水나 地理의 條件들을 갖추었다해도, 生活에 유익한 條件 즉 生利가 모자라면 오래 살 수 없고, 生利가 좋더라도 地理가 나쁘면 살 수 없으며, 설사 地理와 生利를 갖추어 좋더라도 人心이 착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 할 것이고, 近處에 볼 만한 山水가 없으면, 性品과 心情 즉 性情을 원만히 할 수 없다고 논하고 있다. 이렇게 自然에 順應하고 또 自然을 活用하여 實利를 追求하는 또 하나의 傾이 坐向法일 것이다. 坐向法은 主된 建物의 正面을 正南向으로 配置하는 法이며, 基壇이나 建物의 이런 坐向을 위해 取正이 必要해진다. 이런 坐向의 取正은 자연히 子午配置軸을 낳게 되고, 複數의 坐向軸은 單列軸, 段狀單列軸, 並列軸, 屈折軸 등을 낳게 된다.

2-7 定平法

定平은 水平正橫, 즉 水平面을 바로 잡는 것을 뜻한다. 定平은 水面을 基準으로 하는 水平器를 使用하여 地面의 高低를 대강 알아 내고, 水面과 坪줄 垂直을 동시에 利用

하는 水平眞尺과 眞尺을 사용하여 地面의 高低와 水平을 잡아 垂直을 얻는다. 木造 架構 構造는 垂直 名件들과 水平 名件들이 骨造軸을 形成하고, 이 垂直 및 水平 名件들의 도움을 받아 斜架 名件들이 添加되어진다. 특히, 立柱의 生起法과 側脚法이 骨造軸線의 生起, 微収와 微出을 야기시킨다고 해도, 그 骨造中心軸線은 垂直과 水平이 基本이 되는 法이다. 또한 柱上包作이나 補間包作의 경우, 이 出拱과 列拱은 각 包作層마다 一定한 水平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定平은 柱礎로 부터 차차 거슬러 올라 간다.

2-8 斜收法

斜収는 城이나 牆의 높이에 따라 下底面에서 부터 上面에 이르기까지 그 築城이나 築牆의 두께를 체감시키는 것을 뜻한다. 斜収 된 上面을 上収面, 下底面과 上収面의 두께의 比를 斜収比라고 한다. 華城城役儀軌의 圖說篇에 나와 있는 城主形의 築城 各圖가 그 당시의 斜収法을 圖說하고 있다. 基壇에도 이런 斜収法이 쓰여 진다. 이러한 石作의 斜収는 大木作의 出拱, 出檐, 추녀와 扇子椽의 生出과 미묘한 均衡美를 造成한다.

3. 韓式 木造瓦家 營造制度의 概說

3-1 木造瓦家の 分類法

과거의 構屋形式들의 主流를 木造 瓦家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木造瓦家が 현재 問題 되고 있는 主流임에는 틀림없다. 包作木造瓦家は 크게 나누어 殿閣樓臺, 廳堂, 廊屋, 亭榭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分類法은 構屋等度, 지붕 骨造의 擧折法에 영향을 미치며, 또 建物 使用主의 身分 및 用途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屋號를 差別하는데에서도 비롯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王이 居處하는 宮闕은 宮殿의 正殿과 寢殿 그리고 闕門을 主空間으로 하는 것이며, 副階並殿, 殿, 堂, 樓, 閣, 廊, 亭, 臺榭, 闕門, 城, 牆, 苑 등으로 構成된다. 그 屋號에 따라 間數의 大小와 材의 大小가 差別되어진 것 같다.

3-2 立柱間數와 平面構成法

平面 間數도 制度的으로 制限되었던 것 같다. 木造 瓦家の 正面 間數는 1~11 또는 13間, 側面 間數는 1~6間이 된다. 間數란 正面과 側面に 처마 기둥 즉 檐柱가 相列한 間數를 말하는 것이며, 또 檐柱의 數와 內柱의 數는 달라지기도 하는데, 內柱가 생략되어 通間이 되기 때문이다. 包作平面은 原則적으로 短形 平面이 된다. 正面 間數는 홀수가 된다. 正面 中央間 즉 平間の 兩柱 즉 두 平柱를 기준으로 하여 左右로 차례로 間數가 늘어나귀기둥 즉 角柱에 이르기 때문이다. 側面 間數는 홀수도 되고 짝수도 된다. 홀수의 경우에는 正面의 경우와 같으나, 짝수의 경우는 側面 中心의 單平柱 또는 單分心高柱를 기준으로 하여 前後로 차례로 間數가 늘어나 角柱에 이른다. 屋內柱를 생략하여 2間 以上の 通梁을 사용하여 通間을 造成

하는 것을 槽 또는 陣이라고 한다. 單層 平屋 平面의 경우, 室內 梁柱를 用途에 따라서 結構하여 알맞은 通間을 만든다. 側面 3間일 때, 屋內에 單高柱만을 相列하면 單槽의 平面이 된다. 側面 4間일 때에는 세가지 通間形式이 생긴다. 前後에 雙高柱를 相列하면, 雙槽, 分心高柱만을 相列하면 分槽, 四方의 檐柱와 나란히 屋內 金高柱를 相列하면 單金槽(外陣)의 平面들이 된다. 側面 6間일 때, 屋內에 二重으로 雙金柱를 相列하면 雙金槽의 平面이 된다.

3-3 屋形式

多層 樓屋은 서울 景福宮의 慶會樓처럼 1~2層의 檐層柱가 垂直으로 된 通樓屋과 勤政殿처럼 樓身이 副階並殿으로 된 副階樓屋의 두가지로 나누인다. 만약 副階의 檐間의 길이가 온 間이면, 殿身의 間數가 左右와 前後에서 각각 1間式 다시 말해서 2間씩 줄어드나, 만약 副階의 檐間의 길이가 半間 즉 退間이고 또 殿身의 檐柱는 檐梁上에 立柱하는 浮檐柱가 되면, 副階나 殿身의 間數는 變함 없으나, 만약 3層 以上の 副階樓屋이면 차례로 半間씩 줄어들게 된다. 이런 式의 單金槽나 雙金槽의 變形이 우리나라 多層 樓屋의 特徵이기도 하며, 이런 경우의 副階檐屋이나 殿身의 左右 및 前後의 檐枋上的 補間包作의 拱心距離에 留意해야 한다. 이런 多層 樓屋의 屋內 空間이 層마다 層棟樓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록 副階層이 있다고 해도 層棟樓 없이 通層樓屋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通層副階樓屋의 屋內에는 대개 寶蓋나 佛像壇이 設置되고 있다. 包作樓屋의 平面形式은 原則적으로 短形이라고 했지만, 理論적으로 方形의 方屋, 六角形이나 八角形의 樓屋, 「ㄱ」字形, 「ㄷ」字形, 「ㄴ」字形의 轉角屋 扇形인 扇屋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때 包作法은 상당히 복잡해 질 것이다.

3-4 梁柱結構方法들-柱首作, 翼拱作, 包作

韓式 大木作에 있어서, 梁柱를 結構하는 方法은 크게 나누어 柱首作 또는 平道里作, 翼工作 또는 翼拱作, 包作 또는 鋪作 등 세가지 方法들이 있다. 柱首作 또는 平道里作은 檐柱의 柱首開口 안에 檐梁頭와 檐枋(檐棟) 頭를 造作, 相交시켜 檐道里(額枋)를 얹어 지붕 骨造를 擧折하는 方法이다. 翼拱作 또는 翼工作은 梁奉과 包作 出拱의 折衷形式과 같은 方法이며, 柱首開口 안에 單拱造와 單拱造上에 다시 出拱한 重拱造 두가지로 擧梁 負棟하는 方法이다. 包作은 出拱(제공)에 列拱(침차)을 包含하여 檐梁을 出頭擧起하여 檐棟(치마도리)을 負棟하는 지붕 架構法들 중의 하나이며, 檐梁은 出拱 重拱數에 比例하여 더 길게 出頭하고 또 더 높게 擧起 되어진다. 기둥이 높으면, 처마가 길어져야 柱脚의 防水가 되고, 처마가 길어져야 基壇의 크기와 더불어 間數의 크기에 따른 形體量과 均衡 있는 形態美를 구성하게 된다.

3-5 立柱法 - 生起, 側脚

기둥이 평柱에서 부터 角柱에 이르기까지 柱身高가 점차 높아 지는 것을 生起(키솟음), 柱首가 微收하고 또 柱脚이 微出하는 것, 즉 立柱가 取出하는 것을 側脚(안솔림)이라고 한다. 무릇 屋內柱들은 모두 檐柱를 基準으로 하여 모두 舉屋勢에 따라 그 高低가 정해지고, 또 外檐柱들은 물론 屋內柱들도 平柱를 基準으로 하여 生起하고 側脚 하는 것이 立柱의 法이다. 그런데 副階並殿이나 副階並樓의 경우에는 副階檐屋의 下檐柱의 높이는 아무리 길어도 間의 너비를 넘지 못한다. 檐柱는 兩平柱로 부터 시작하여 角柱에 이르기까지 間數에 따라 점차 円和하게 生起하고 角柱가 平柱에 比하여 높아진 길이를 生起高라고 한다. 間의 높이가 서로 같지 않으면 적절히 가감한다. 3間이면 2寸, 5間이면 4寸, 7間이면 6寸, 9間이면 8寸, 11間이면 1尺, 13間이면 1尺 2寸이 生起한다. 側脚長은 기둥 높이 1尺마다 正面 1分, 側面 8厘 정도이다. 이럴 경우, 角柱는 거의 추녀 방향으로 안솔림이 된다. 層柱도 이에 準한다.

3-6 우리나라 包作法과 그 包作種類들

包作은 原則적으로 柱心線上에서 舉梁負棟 하는 것이 柱上包作이고, 柱上包作에는 前後의 檐梁頭를 舉起하는 平柱上包作, 左右의 側檐梁頭(丁梁)를 舉起하는 側柱上包作이 있으나, 같은 柱上包作이라 해도, 轉角包作은 舉梁하지 않고 키기둥 즉 角柱心線上에서 前後 및 左右의 두 外出檐棟들만을 相交負棟하게 되고 또 추녀 즉 大角梁이 斜架되어 지는 變形이다. 轉角包作의 경우와같이, 舉梁하지 않고 負棟만 하는 補間包作은 兩柱 사이의 額枋(장방)에 1基를 包坐하면 單補間包作, 2基면 雙補間包作, 3基면 三補間包作, 4基면 四補間包作이 된다. 各包作의 出拱이나 列拱은 相犯하지 않아야 하나, 出目數가 늘어나면, 轉角包作과 次角包作의 出拱이 屋內에서 相交하고 또 列拱이 相連하게 된다. 따라서 補間包作에도 平補間包作과 次角包作의 2種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른바 柱心包作形式일 경우에는 여러 包枋(주부)에 차례로 平柱上包作과 側柱上包作 그리고 轉角包作의 3種을 配列하게 되고, 이른바 多包作形式일 경우에는 平柱上包作, 側柱上包作, 轉角包作, 平補間包作, 次角補間包作의 5種을 차례로 配列하게 된다.

檐梁頭 대신에 檐梁頭를 본따서 造作한 出拱을 包頭拱 또는 鋪頭라고 한다. 要頭와 檐梁頭의 높이가 各 1包層으로 2包層으로 간주되면, 一出拱 一出目を 3包作, 二出拱 二出目を 4包作, 三出拱 三出目を 5包作, 四出拱 四出目を 6包作, 五出拱 五出目を 7包作이라고 하며, 包作은 1出目 씩을 더하여 5出目에서 끝난다. 内外 出目마다 모두 列拱을 重拱하는 것을 全列拱造, 内外 出目端에만 列拱을 重拱하는 것을 單列拱造라고 區分한다. 出拱의 外出目端과 拱心目の 두 出目上에 外出棟과 拱心棟(檐

柱心)을 負棟하는 것을 單出棟包作, 内出目端의 出目上에 또다시 内出棟을 負棟하는 것을 雙出棟包作이라고 區分하게 된다. 雙出棟包作의 경우, 内外 出目數가 같아야 하나, 間數가 적으면 内出目數를 줄이거나 또는 出目數가 많으면 아예 下切棟을 負棟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에서는 内出目數를 外出目數보다 하나 더 높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는 柱三包形式이 따로 있는데, 柱三包作은 外一出目端上에만 單列拱하여 外出棟을 負棟하는 것이며, 内出目은 없다. 包作 名件들에 대한 直接的인 基礎知識은 다음 기회에 包作 圖樣들과 함께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3-7 舉折制度 - 舉室法과 切室法

지붕의 布椽은 각 椽尾가 上架椽(안도리), 각 椽頭가 下架椽에 斜架된다. 布椽斜架하는 水平 길이를 架平長, 垂直 높이를 斜架高라고 한다. 대개 架平長은 6尺을 基準으로 하여 椽經에 따라 加減하지만, 斜架高는 上架椽을 基準으로 하여 차례를 遞減시키게 되며, 棟梁(동도리)의 높이를 舉起高, 平架梁(중량)의 높이를 第1縫切高, 차례로 第2, 第3, 第4의 縫切高를 잡아야 한다. 斜架椽道는 棟心(처마도리 중심)이나 槽心(안도리 중심), 또는 椽心(서까래 중심), 어느 것을 軸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단 包作의 경우에는 그 前後의 檐棟心距離를 基準으로 삼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前後 檐棟心距離를 基準으로 하여, 이 基準線의 分心點上에 棟梁(동도리)의 높이를 잡는 것을 舉屋法, 이 分心點에서 前後로 架平長으로 等切하여, 舉起高를 基準하여 前後의 第1縫切高, 第2, 第3, 第4의 縫切高를 차례로 一定한 比率로 遞減시키는 것을 切屋法이라고 한다. 舉屋法과 切屋法을 통틀어 舉切法이라고 한다. 構屋의 側椽은 그 舉起의 高低와 그 縫切의 円和한 相縫을 決定한 다음에야 비로서 屋內의 梁柱의 高低와 遠近을 알 수 있다. 舉起高는 殿閣樓臺의 경우에는 前後의 檐棟心距離를 三等分하여 그 前後 檐棟의 棟心 水平線상이나 棟背線上에 一等分을 舉起한다. 만약 그 棟心距離가 3丈이면, 舉起高는 1 丈이 된다. 廳堂과 廊屋은 四等分의 一等分을 舉起하되 丈尺이 넘으면 1尺 當 3~8分을 더하고, 또 兩架椽屋은 四等分의 一等分을 起할 뿐이다. 사각 亭榭는 下架를 五等分의 一等分과 上架를 2等分의 一等分, 보통 정자는 十等分의 四等分을 舉起한다. 切屋은 舉起高 每 1尺當 1寸씩을 切下하되, 차례로 半씩 遞減하여 切下한다. 만약 棟心距離가 6丈, 舉起高 2丈이라고 假定 할 경우, 分心點의 前後에 架平長 6尺으로써 切分하면 各各 5切이 되니까, 第一縫切高는 舉起高보다 2尺 切下, 第二縫切高는 第一縫切高보다 1尺 切下, 第三縫切高는 第二縫切高보다 5寸 切下, 第四縫切高는 2.5寸 切下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第一切椽의 勾配는 45°, 第五切椽은 30°보다 약간 적어진다. 切屋 할 때 注意 할 點은 第一縫切은 舉起高와 檐棟

心の傾斜線과의 交点에서 2尺을 切下하고, 그다음 第二縫切은 第一縫切高와 檼棟心과의 경사선과의 交点에서 1尺을 切下해 내려 온다는 点이다. 棟幅이 좁아 無切이면 三架棟 兩架椽屋, 二切이면 五架棟 一重梁 一四架椽屋, 三切이면 七架棟 一三重梁 一六架椽屋, …… 四切이면 九架棟 一五重梁 一八架椽屋이 된다. 만약 梁이 모두 兩頭通梁일 경우, 一切用梁을 三架棟의 平梁(중량), 二切用梁을 五架棟, …… 四切用梁은 九架棟이 되고, 通檐梁은 十一架梁이 된다. 이와 같이 縫切數에 따라서 重梁數와 그 高低와 長短이 달라진다.

3-8 用梁法

흔히 중량, 중량, 대량의 세가지 用梁語法은 三切屋의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융통성 있는 다양한 用語의 語法이 필요해진다. 梁은 負棟出頭하는 쪽을 梁頭, 內柱口나 側梁口에 入柱하는 쪽을 梁尾라고 한다. 雙梁頭이면 通梁, 雙檐梁頭이면 通檐梁이 된다. 單頭單尾이면 退梁이나 步梁이 되는데, 步梁이 1架棟이면 退梁 또는 1架步梁, 2架棟이면 2架步梁, 3架棟이면 3架步梁이 되어 同一한 內高柱口에 入柱하게 된다. 兩尾이면, 牽梁이 되어, 兩柱口에 入柱한다. 構屋의 側面 間數가 늘어나면 立柱法과 用梁法이 다양해진다. 이러한 梁柱의 結構法은 屋內 空間의 用途에 따라 決定한다.

3-9 지붕構造形式들

側梁(중량)과 角梁(추녀)이 개입하면, 지붕 形式은 맞배지붕(正屋), 우진각지붕(四阿屋), 팔작지붕, 샅갓지붕…… 여러가지 形式들도 달라진다. 맞배지붕집은 棟梁의 前後에만 斜架椽道를 擧折하고, 또 도리머리들이 左右兩邊으로 가지런히 出柱한다. 이렇게 棟頭들이 左右兩邊에서 出柱하는 것은 出際, 그 길이를 出際長이라고 하며, 이 出際長은 架椽數가 많아질수록 길어지고, 博風檐 또는 박공처마를 形成한다. 우진각지붕은 棟梁의 前後와 左右 四方에 斜架椽道를 擧折하기 때문에, 네 귀의 對角線心上까지 博頭들이 出際相交하여 이른바 뜰도리가 되고, 그 相交點들을 縫切點으로 하여 角梁(추녀)이 角柱에서부터 각각 棟梁兩端까지 斜架 되어 相續하게 된다. 이렇게 相續된 大小角梁의 兩側面에는 扇子椽尾들이 相接하게 된다. 팔작지붕은 大角梁의 左右에 下架椽道만을 擧折하는 折衷形式이다. 샅갓지붕은 棟梁이 없고, 4, 6, 8, 角平面의 柱心에서부터 角梁이 斜架 相續되어, 그 角梁尾들이 한 꼭지점에 集中 相交하게 된다.

3-10 造檐法

서까래가 各 上下棟에 斜架하되 出柱하거나 또는 檐棟으로 부터 出檐하는 것을 檐(처마)이라고 한다. 檐椽頭(처마 서까래머리)가 出檐한 것을 單檐(단처마), 出檐 길이를 出檐長이라고 하며, 이 出檐長은 椽徑이 클수록 길어진다. 單檐椽頭上에 飛椽(부연)을 얹어 다시 出檐한 것

을 複檐(겹처마)이라고 區分한다. 出檐椽頭들을 서로 잇는 것이 連檐(맥이)이다. 맞배지붕의 경우 出際棟頭와 더불어 나란히 平架出檐한 椽頭들을 連檐한 것이 博風檐(박공처마)이다. 그런데 椽頭의 出檐長은 椽徑의 大小에 따라 그 長短이 달라지고, 또 한편 角梁(추녀)의 梁徑의 大小와 出檐長의 長短으로 말미암아, 椽頭는 대강 次角柱보다 더 안쪽에서 角柱에 이르기까지 점차 밖으로 솟아오르고 또 밖으로 길게 나오게 된다. 밖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生出, 밖으로 길게 나오는 것을 外出이라고 하며, 이 두가지를 통털어 生出이라고 한다. 이러한 生出로 말미암아 생기는 처마 曲線이 連拂曲線 즉 檐曲이고, 이 檐曲은 3次 軌跡이다.

3. 大木作 包作 制度의 概說

3-1 包作의 意味

원래 包作은, 料拱包作이라고 하듯이, 料類와 拱類가 서로 包含하여 外出, 相列, 重拱한다는 意味이다. 拱이 料口의 開口耳 안에 包含하는 것을 包交, 拱이 다시 料底까지 包含하는 것을 通交, 拱끼리 서로 엮힐장- 받들장 開口로서 直交하는 것을 相交, 拱이 料口에서 外出하는 것을 出拱(제공), 出拱은 包料心(柱頭心)에서 30分式(材分) 최대한 150分까지 出目하며 安拱(첨자)하는 開口를 目이나 出目, 目이나 出目마다 安拱하는 것을 全列拱造 内外의 出目端에만 安拱하는 것을 單列拱造, 出目に 安拱 相列하는 것을 列拱이라고 한다. 이 경우 漢文字의 表記法에서 主語가 될 경우와 述語가 될 경우를 잘 分辨해야 한다.

3-2 拱 材

拱의 너비와 두께는 모두 材와 같다. 料耳안에 包含하는 拱은 너비가 一材, 包料底까지 通交하려면 中 4分の 平과 下 8分の 굽의 높이를 합친 10分을 더하게 된다. 出拱의 拱心目이나 出目, 列拱의 兩頭上에 小櫨를 은뜻끗이 하는 것을 布料라고 한다. 만약 拱을 小櫨과 通交하려면, 소로의 中 2分の 平과 下 4分の 굽의 높이를 합친 6分 즉 一契을 더해야 한다. 一材에 一契을 더한 拱材를 補足材라고 한다. 單材이면, 上下 重拱 사이에 一契의 間隙이 벌어진다. 과거에는 單材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으나, 최근에는 補足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3-3 料 類

料類는 크게 包料(柱頭, 櫨料)와 小櫨의 두가지로 나뉜다. 包料는 包作의 基本 坐料이다. 柱上包作과 補間包作의 包料(평주두)는 出拱과 柱心列拱이 二重으로 相交 包含하는 十字開口料가 되지만, 轉角包作의 包料(귀주두)는 斜出拱과 前後 및 左右의 두 壁列拱이 三重으로 相交 包含하기 때문에 十字開口에 斜開口가 追加된 隔口包耳가 된다. 包料는 包作形式에 따라 分제가 된다. 補間包作이면 包料의 布料距離가 가지런해야 하고, 또 間의 額枋(창방)의

길이에 따라 布料數가 달라지며, 설사 間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아도 布料間隙이 1尺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布料間隙은 긴 列拱(대첨차)의 兩頭長 72分을 기준으로 하되, 1尺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긴 列拱의 兩頭長은 대개 材가 6分(寸分)이면 4.32尺, 5分이면 3.6尺, 4分이면 2.88尺 정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布料間隙은 또한 布椽間隙도 아울러 침착해야 한다. 布椽間隙은 기와의 너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殿閣이면 9~9.5寸, 副階 8.5~9寸, 廳堂 8~8.5寸, 廊室 7.5~8寸이 되는 수가 있다. 出拱이 重拱됨에 따라서 列拱도 目마다 重拱하게 되는데, 出拱과 列拱은 小櫨에 의하여 包含 된다. 出拱의 拱心目에 布料하는 小櫨를 拱心小櫨(주심소로) 出拱의 内外 出目上에 布料하는 것을 出目小櫨(交瓦소로, 交梁소로) 列拱의 兩頭上에 布料하는 것을 天秤小櫨(散料, 騎瓦料, 小料)라고 區分한다. 拱心小櫨는 出拱과 壁上 列拱(주심첨차)이 相交包含하는 十字開口四耳, 出目小櫨도 역시 十字開口四耳이나, 單列拱造일 때에는 出拱만이 安拱되는 縱開口兩耳가 되고, 天秤小櫨는 列拱만이 安拱되는 橫開口兩耳, 특히 轉角包作의 拱心小櫨와 出目小櫨는 二重包含材이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無耳平盤小櫨가 된다.

3-4 拱 類

拱類는 크게 나누어 出拱(제공)과 列拱(첨차)으로 區分된다. 平柱上包作일 경우에는 出目拱上에 重拱하는 要頭(좌두)와 더불어 梁頭口가 出拱하는 셈이 된다는 것과 補間包作이나 轉角包作의 경우에는 要頭 대신에 擬似 要頭를 造作한 要頭拱과 梁頭口代身에 擬似梁頭口를 造作한 鋪頭拱이 出拱하게 된다는 것을 注意해야 한다. 그 때문에 要頭와 造口梁頭가 出拱山彌에 包含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注意할 點은 우리나라 包作에서는 包料(주두) 바로 밑에 按草拱이 昂枋과 더불어 柱首口 안에 相交하여 出頭하여 包料와 出拱을 튼튼하게 받쳐 주고 있는데, 이 按草拱은 실은 出拱 山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按草拱은 轉角包作에서는 斜出頭하는 것이 된 것이고, 前後와 左右에서 外出만하는 丁頭按草拱은 從屬의인 것이다. 出拱(제공)은 包料 枋口耳 안에 包含하여 一出拱 또는 一出昂하기 시작하여 차례로 出目(出跳)을 더하게 되는데, 出目長은 각 30分, 出拱이 重拱함에 따라서 1出目式을 더하여 5出目에서 멈춘다. 出拱은 兩卷頭로 造頭되거나 또는 外昂內卷頭로 造昂되기도 한다. 外拱頭가 上昂이면 要頭는 下昂으로 造昂하는 形式, 그리고 外拱頭와 要頭를 모두 下昂으로 造昂하는 形式이 있다. 上昂을 仰舌(양서), 下昂을 牛舌(쇠서)라고 부른다. 包作數에 따라 出拱과 要頭 그리고 鋪頭拱이 重拱된 側樣을 우리나라에서는 山彌라고 한다. 要頭와 鋪頭拱은 出目數에 따라서 出目長을 더하여 주되 그 자체로서는 出目하지 않으며, 2包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内外의 出目數가 똑같은 경우가 드물고, 內出目數가 外出目數보다 1出目を 더한 雙出棟

包作의 경우가 많다. 그런데 內出棟(내포작도리)은 內四出目 이상이면 차례로 屋內樑(안도리)로 轉化하는 것이 구조상 튼튼해 질 것 같다. 列拱은 拱心目이나 内外出目에서 出拱과 相交하여 相列하는 拱材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出目마다 兩卷頭長이 각각 다른 小列拱(소첨차), 大列拱(대첨차), 長列拱(장첨차, 흔히 장여라고 함)의 순서로 重拱하되, 拱心目上과 内外出目端上에만 複棟(장여)을 얹고 負棟하게 되고, 其他 出目上의 列拱은 要頭에서 멈춘다. 장여는 도리를 밀받침하는 複棟 또는 替木을 뜻한다는 것을 注意해야 한다. 그러니까 長列拱은 긴 相連된列拱을 가르키며,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사용된다. 列拱은 拱心目上에 重拱되는 것을 壁拱(주심첨차, 포벽첨차), 内外 出目上에 重拱되는 列拱을 出目列拱, 内外 出目端上에 單拱造가 되어 複棟(장여)을 얹고 負棟하는 列拱을 單拱이라고 한다. 單拱上에 얹는 複棟이 짧은 것을 短장여라고 한다. 列拱은 交角에 이르기까지 相列된다. 이렇게 相列하는 것을 列拱한다고 한다. 次角包作과 轉角包作의 列拱은 變形한다. 次角出拱과 轉角斜出拱은 出目數가 늘어나면 屋內에서 서로 相接하게 되고, 그 內列拱은 서로 相連한다. 이것을 交手拱, 連拱이라고 한다. 반면에 屋外에서는 前後와 左右의 壁拱이 마치 出拱과 같이 造作되어 出目하고, 이 두 壁出拱에 列拱한 것들이 길어져 轉角斜出拱의 列拱이 되는 連拱이 되고만다. 이런 連拱은 한쪽은 列拱 形狀이나 다른쪽은 出拱 形狀으로 造頭된다.

出目들 사이에 생겨나는 間隙의 天障은 안팎 大列拱의 天秤小櫨上에 巡閱板을 걸친다. 拱心壁拱들 사이에 생겨나는 間隙을 메운 것을 包壁이라고 한다. 만약 包作 出目數가 늘어나 內出 構造가 커질 염려가 있으면, 內出目數를 1~2出 줄일 수도 있다. 특히 次角包作과 轉角包作은 서로 相犯하기 쉬워, 交手拱, 連拱이 되고 합쳐 버린다. 樓屋의 上屋包作은 下屋包作보다 一包作을 줄일 수도 있다.

3-5 內包作

屋內的 平面形式이나 梁柱의 配列 形式에 따라, 舉切의 勢에 맞추어 屋內的 梁柱를 包作에 의하여 結構하기도 한다. 이런 屋內包作을 包臺拱 또는 平坐包作이라 할 수 있다.

3-6 其他

현재 料拱類에 속하는 名件들을 頭, 工, 舌, 遮, 大 등 여러 가지 表記法을 사용하고 있다. 包料를 柱頭, 一齊拱을 頭工, 角齊拱을 限大, 上昂을 仰舌(양서), 下昂을 牛舌(쇠서), 列拱을 檐遮, 齊拱을 諸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呼稱은 그 나름대로 慣用語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 속에서는 敘述의 便宜上 약간 다르게 表現한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이 包作法과 包作圖樣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基礎 知識들을 개설하였다. 다음 機會에 다시 包作 圖樣을 소개하겠다. <*>

太陽熱住宅의 액티브시스템

劉 承 圭

(明知大學 建築工學科助敎授)

1. 序 言

1970年代의 全世界的인 에너지과동 이후 世界各國은 에너지確保(Energy Security)問題의 하나로써 代替에너지源인 原子核에너지, 太陽에너지, 風力에너지, 潮力에너지 및 地熱에너지등 모든 活用可能한 에너지의 開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美國 MIT의 WAES(代替에너지 戰略에 관한 研究)에 의하면, 앞으로 1백년 후에는 지구에너지공급의 大部分을 太陽熱로 전환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의 代替에너지源은 原子核에너지와 太陽에너지로 期待되고 있는 바, 原子核에너지의 경우 고도의 技術과 고도의 投資가 뒤따라야 하며 환경보호라는 副作用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太陽에너지만이 開發의 여하에 따라서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無公害의 에너지源이라 할 수 있다.

現在까지 太陽에너지는 그 직접이용분야로서 住宅이나 建物の 暖房이나 冷房, 溫水의 製造, 發電, 蒸溜水製造, 農業 및 工業에의 이용등의 方面으로 研究되어 왔고 이 方面의 開發이 시도되고 있는 바, 現 美國에서는 보잉社를 비롯한 유수의 企業들이 SPS(太陽에너지 우주선)라는 長期的인 太陽熱利用의 계획까지 수립해 보고있는 實情이다.

太陽熱을 住宅이나 建物の 暖房에 利用하는 方法은 그 住宅이나 建物の 暖房에 필요한 에너지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太陽에너지의 熱轉換이나 電氣轉換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太陽熱의 導入方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能動型裝置(Active System)로 이는 太陽에너지의 集熱器와 蓄熱器가 구비되어 있어 日射量이 많을 때 전환된 熱을 비축하였다가 필요할 때 適切히 分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受動型裝置(Passive System)로 이는 集熱器를 使用하지 않고, 太陽熱을 직접 받아들여 自然暖房을 하거나 또는 도입된 熱을 建物の 구조체 部分的으로 흡수시켰다가 日沒후에 서서히 室内로 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패시브시스템은 溫室·南面窓·熱사이폰식(Thermosyphoning)벽이나 지붕·太陽池(Solar Pond)등을 利用하는 方法으로 흐린날씨가 적은 지방이나 學校 및 事務室등과 같이 낮에만 暖房이 요구되는 建物에서 주로 채용되는 방식인 바, 現在의 研究對象과 活用展望은 주로 액티브시스템에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는 住宅의 冷暖房 및 給湯등에 이

용되는 액티브시스템의 構造를 概略적으로 分析해 보고, 또 實際 作動方式을 살펴봄으로써, 太陽熱住宅을 計劃할 때 필요한 액티브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開發方向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액티브 시스템의 構造

액티브시스템은 기능상 集熱(Collecting)·蓄熱(storage)·配熱(distribution)의 3가지 主構成要素로 되어 있는데, 現在의 연구 개발분야는 주로 集熱과 蓄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配熱分野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해오던 기존 暖房시스템을 최대한 活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들 構成要素의 디자인과 기능은 각각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構成要素의 적합성은 地方別氣候條件, 요구되는 성능, 건축적인 요구조건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組合할 수가 있다.

(1) 集熱器(Collector)

集熱器를 大別하면 受光面積과 吸收體面積이 같은 平板集熱器(Flat-plate Collector)와 포물면이나 凹面鏡등으로 太陽光線을 吸收體에 集中시키는 集光集熱器(Concentrating Collector)로 나누어진다. 集光集熱器는 80℃~130℃의 集열온도가 필요한 冷房用이나 흐린날씨가 많은 地方에도 使用할 수 있다는 長점이 있으나 價格이 비싸다. 보통 太陽熱 暖房·給湯에 필요한 온도는 60℃이하이므로 價格이 싸고 構造가 간단한 平板集熱器가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平板集熱器에 대해 說明하고자 한다.

① 平板 集熱器의 構造

平板 集熱器는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 다음과 같은 2가지의 部品이 가장 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

투과체(glazing): 투과체는 太陽光線을 가급적 많이 투과시켜 흡수체(absorber)에서 대류·복사에 의한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흡수체가 오손되는 것을 保護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集熱器의 作動溫度(operating temperature)에 따라 투과체는 2겹 3겹이 될 수 있는데, 투과체의 수가 늘면 集열판의 열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투과율이 저하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투과체의 기능을 좀 더 높으려면 산화인듐(Indium Oxide)나 산

화주석 (Tin Oxide)와 같은 물질을 내부에 코팅 (coating) 하여, 투과율에는 변함이 없고 흡열판에서 반사되는 低温輻射는 코팅된 면에서 다시 흡열판으로 재반사되게하는 選択反射膜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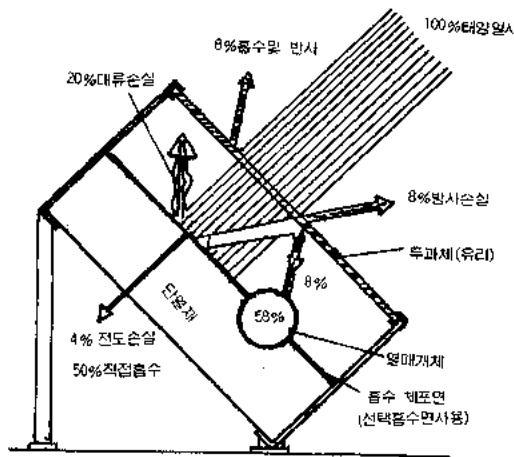


그림 : 평판형 집열기의 개념도

흡수체 (Absorber) : 흡수체는 太陽光線을 熱에너지로 變化시켜 물·공기등의 媒体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는 흡수체의 材料選擇과 表面處理가 가장 重要하다. 흡수체위 材料選擇에서는 효율, 수명각도문제, 내열변화성 (Thermal Fatigue), 부식으로 인한 자제의 물리적 수명단축과 효율적 수명단축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틸 (Stainless Steel), 합성수지등이 쓰이고 있다. 현재는 구리와 알루미늄등의 금속재료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에 는 經濟性을 고려하여 재료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수체의 재료선택 못지 않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면처리가 중요한 바 가장 효율적인 표면처리는 흡수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低温輻射를 최소한으로 막는 반면에 太陽光線의 흡수량에는 조금의 변화도 주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完全黑체에 가까운 吸收率이 100%에 가까운 黑色塗料등이 좋은 것으로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日射吸收率이 높고 低温輻射率이 낮은 선택흡수막 (Selective Surfacecoating)이 개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선택흡수막은 반사율이 큰 金屬基板위에 太陽光線 흡수율이 큰 黑色半導體膜을 입힌 것으로서, 太陽光線은 半導體膜에 있어서 흡수되지만 赤外線領域의 低温輻射率을 적게하도록 처리한 것이다. 이 黑色塗料와 선택흡수막의 선택에 있어서는 흡수체로부터의 放射가 그렇게 크지 않은 低温集熱의 경우에는 黑色塗料의 쪽이 集熱效率이 약간 높아지나, 어느정도의 高温集熱이 요구되는 冷暖房이나 給湯에는 선택흡수막이 集熱效率이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도표는 위에서 설명한 투과체의 갯수와 흡수체의 표면처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집열효율의 증감과 실제로 필요한 集熱量에 어떤 배열이 가장 효율적으로 作動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한가지 예이다.

集熱器에는 위에서 설명한 투과체, 흡수체 이외에도 集熱器뒤쪽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두께의 단열재 (Insulation)가 있다. 이밖에도 흡수체·투과체를 保護하고 集熱器전체를 外力에서 保護하여 支杆材에 힘을 전하는 구실을 하는 외부틀 (Housing)등의 여러가지 補助的인 部品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集熱器의 熱傳達方法

集熱器는 열수송매체에 의하여 空氣集熱器, 流水集熱器, 液体集熱器로 나누어 진다.

空氣集熱器 (Air-type Collector) : Maria Tel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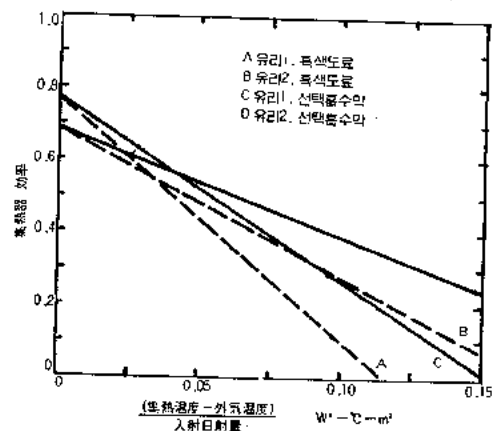


그림 : 집열기 효율

(1948) R. Bliss (1954) George Lof (1957) 등에 의하여 開發되었으며, 流水集熱器 및 液体集熱器와 비교해 볼때 열전도상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동파의 문제가 있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家庭溫水用으로는 流水集熱器보다 效率이 낮다.

流水集熱器 (Water-trickling Collector) : H·Tomason 등에 의하여 開發되었으며 標準建築資材로 많이 쓰인다. 액체동로가 봉쇄된 液体集熱器와 비교한다면 이 開成型集熱器는 흡수체로부터의 물의 증발과 투과체에서의 액화때문에 열효율을 損失하며 흡수체에 의해 받은 반사열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液体集熱器 (Liquid-type Collector) : 熱媒로서 물이나 물과 부동액을 섞은 액체를 사용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集熱器다.

장점은 온수등을 사용할 때 적은 電氣로 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空氣集熱器보다 적은 電氣量으로 蓄熱模式로 作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동파와 부식을 완

전히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蓄熱槽 (Storage)

蓄熱槽은 集熱器에서 얻은 熱量을 冷暖房 및 給湯에 필요할 때까지 저장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化学的인 반응의 이용여하에 따라서 顯熱 蓄熱과 潛熱蓄熱이 있다.

① 顯熱 蓄熱 (Sensible Heat Storage)

蓄熱槽 조각시의 온도 범위에서 相變化 (Phase Change)가 없는 물질을 이용하는 蓄熱方法으로서, 물·不凍液·熱媒等의 액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돌·모래·흙·콘크리트 등의 固体를 利用하는 方法이 있다. 보통 太陽 熱暖房의 경우 熱必要量의 하루나 이틀분을 蓄熱하는 수가 많으며 연면적 100m² 정도의 주택에서는 5~10×10³ Kcal 정도가 되며 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온도차 10deg로 5~10m³의 물蓄熱槽을 자갈을 이용하는 경우 10~30 m³의 容積이 필요하므로 顯熱蓄熱에서는 熱利用效率을 어떻게 높이는가, 설치장소를 어디로 하는가, 개방형인가 밀폐형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蓄熱槽 (Water Storage) : 물은 열용량이 가장 높으며 값이 싸다는 長점이 있으나, 매우 큰 축열탱크를 필요로 하며 전도열의 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과 누출·부식·凍破 등의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자갈 蓄熱槽 (Rock Storage) : 보통 직경 5cm의 자갈을 사용하는 空氣集熱器에 적용되는 公同적인 蓄熱方法이다. 자갈의 크기는 蓄熱槽을 통과하는 공기의 저항, 송풍기나 덕트 (Duct)의 크기, 配熱效率 등에 영향을 미친다.

② 潛熱 蓄熱 (Latent Heat Storage)

결정격자의 변화, 결정수의 變化, 증발, 용해 등과 같이 물질의 相變化 (phase change)에 따라 생기는 潛熱을 蓄熱로 利用하는 것으로서 보통 融解熱을 사용하고 있다. 난방용으로는 몇 가지의 水和鹽이 사용되는데 CaCl₂·6H₂O의 예를 들면 30°~39°의 용해온도와 42kcal/kg의 용해열 밖에 필요하지 않고 또 가격이 저렴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潛熱蓄熱은 蓄熱槽의 크기가 물 蓄熱槽에 비해 약 1/8 정도이고 相變化중 온도가 일정하다는 長점이 있는 반면에 수명이 짧고 물이나 자갈에 비해 高價인 短점이 있다.

(3) 配熱 (Distribution)

蓄熱槽에 지정된 열에너지가 居住空間까지 配熱되는 方法에는 氣體流動式, 液体流動式 2가지가 있는데 配熱方式은 集熱器와 蓄熱槽의 構造에 따라 주로 決定된다.

① 氣體流動式 配熱 (Gas Flow Distribution)

自然對流式 (Natural Convention) : 이 방식은 기계적 장

치의 도움 없이 열구배 (Thermal Gradients)에 의한 공기의 순환운동에 의해서 集熱器나 蓄熱槽로부터의 열은 居住空間에 공급된다. 이 과정은 집열기나 축열조의 형태, 용량, 벽이나 마루의 벤트 (Vent)에 의해 조절된다.

送風式 (Forced Warm-air) : 이 방식이 액티브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 열에너지 配熱을 위한 기계설비와 전기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집열기나 축열조로부터 나온 공기는 덕트 (duct)를 지나 居住空間으로 送風하게 된다. 이 방식은 집열기나 축열조의 형태가 決定要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갈축열조 물축열조는 물론 잠열축열조 모두가 可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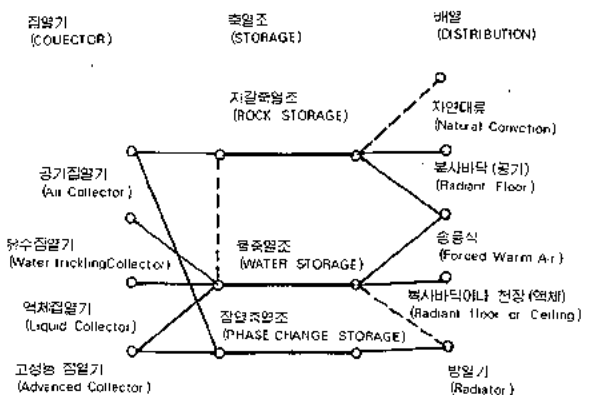
② 液体流動式 配熱 (Liquid Flow Distribution)

輻射板을 使用하는 方法 (Forced radiant floor or ceiling-liquid) : 작은 물배관을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여 作動시키는 방법으로 低溫集熱에서도 잘 作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열기 (Baseboard Radiators) : 튜브를 순환하고 있는 高溫의 물로부터의 대류와 복사열로 暖房을 하는 것으로 보통 55℃ 이상의 高溫의 熱이 있어야 作動한다.

3. 액티브시스템의 作動方式

액티브시스템이 作動하기 위해서는 構成要素들을 여러 가지로 組合하는 것이며 可能한 方法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집열기와 축열조와 배열의 조합

實際로 액티브시스템을 住宅의 暖房에 利用하는 경우 히리고 비오는 날의 건축을 고려하여 原則적으로 補助熱源設備가 필요하다. 特別한 機械設備없이 비교적 低溫에서 作動하는 代表的인 액티브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① 溫風型 平板集熱器 시스템 (Warm-air Flat-Plate System)

空氣式 平板集熱器를 使用하고, 蓄熱構는 자갈, 콘크리트구조물 등 固体蓄熱物質을 이용하고 있다. 보통 집

열기는 축열조의 온도를 $30^{\circ}\sim 50^{\circ}\text{C}$ 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송풍기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부식·녹·凍破 등의 문제는 없으나 温水式에 비해 蓄熱量이 작기 때문에 配管費用이 높아진다.

② 温水式 平板集熱器 시스템(Warm-water Flat-plate System)

液体平板集熱器를 사용한 温水直接加熱式 액티브 시스템으로 太陽에너지는 집열기로 부터 물이나 혹은 부동액에 의해 축열기까지 운반된다. 作動이 좋고 순환 매체로 물을 사용하므로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에너지가 적게 들고 축열조가 차지하는 面積이 공기의 경우보다 작게 차지하는 長点이 있는 반면에 부식이나 凍破·누수 등이 생기는 短点이 있다.

③ 温水式 集中集熱器 시스템(Warm-water Concentrating System)

集中集熱器를 이용한 温水間接加熱式 액티브시스템으로 平板集熱器보다 면적은 작으나 2 배이상의 열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비용이 많이들고 투과체의 내구성이나 겨울철의 보수유지의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代表的인 액티브시스템의에 集熱器에 의해 얻어지는 비교적 낮은 熱量을 갖고 效率인 전체 난방을 계획하기 보다는 特殊한 機械設備를 갖춘 暖房이나 冷房裝置에 太陽熱을 利用하는 方法이 있다.

④ 太陽熱 히이트펌프 시스템(Solar heat-pump System)

히이트펌프는 壓縮이나 吸收作用에 의하여 小量의 電氣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低温의 空氣나 물을 高温으로 바꾸어 效率性을 높혀 사용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겨울철에는 集熱器로 집열한 $10^{\circ}\sim 20^{\circ}\text{C}$ 의 비교적 적은 低温의 太陽熱을 전동히이트펌프로 $30^{\circ}\sim 40^{\circ}\text{C}$ 로 승온하여 暖房 및 給湯의 熱源으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같은 히이트펌프를 冷凍機로 사용하여 태양열과는 관계없이 냉동을 하는 것이다.

⑤ 太陽熱利用 冷暖房시스템(Solar-powered Air Conditioning)

太陽熱을 이용하여 겨울에는 暖房을 하고 여름에는 太陽熱을 利用하여 냉동기를 가동시킨다. 集熱器가 연간내내 사용될 수 있으며 冷房이외의 發電등도 할 수 있는 利点이 있지만 現在로서는 技術的 經濟的으로 많은 난점이 있다. 이 시스템에는 吸水冷凍機를 사용하는 것과 Rank-

ine cycle機関作動의 壓縮式冷凍機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나 冷凍機를 제외하고는 양자의 큰 차이는 없다.

4. 結 語

지금까지 액티브시스템의 構造와 作動方式에 대하여 간단한 說明을 하였으나, 가장 重要한 시스템全體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部品에 대한 技術的인 研究와 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太陽熱을 利用한 에너지節約은 經濟性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敷設된 建築環境造成이 前提條件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太陽熱에 대한 많은 실험연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日照問題 日射量등의 太陽熱利用條件이 비교적 좋은 편이므로 우리의 氣候·習慣에 맞는 시스템의 技術的인 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는 시스템 自体에 대한 研究뿐만이 아니라 住宅의 設計나 專門建築技術面에 대한 開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① Watson, D. *Designing and Building a Solar House* The Village press, 1977.
- ② Davis, N. D. and Lindsey L. *At Home in the Sun*. Charlotte, Vermont: Garden way publishing, 1979.
- ③ Franta, G. E. and Olson K. R. *Solar Architecture*. Aspen, Colorado: Roaring Fork Resource Center, 1978.
- ④ Shurcliff, W. A. *Solar Heated Buildings*. New Hampshire: Brick house publishing, 1978.
- ⑤ Bainbridge, D. A. et al. *Village Homes' Solar House Designs*. Pennsylvania: Rodale press, 1979.
- ⑥ Foster, W. L. *Solar Heating Projects*. Blue Ridge Summit, Pa.: Tab books, 1977.
- ⑦ Beckman, W. A. et al. *Solar Heating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7.
- ⑧ *Solar Energy Handbook-Theory and Applications*. Published by Chilton Book Company, Radnor, Pennsylvania, 1979.
- ⑨ Ackerman, A. D. et al. *Energy Saving Home improvements*. New York: Grosset & Dunlap, Inc. 1977
- ⑩ 魏龍浩 訳編. 太陽熱冷暖房시스템. 兄弟社, 1978.
- ⑪ 文聖皓 編著. 太陽熱의 理論과 實例. 建設理工學社, 1979.
- ⑫ 魏龍浩 訳編. 太陽에너지의 基礎와 應用. 兄弟社, 1979.

Alvar Aalto의 작품에 대한 小考

潘 好 鎔

(清州大 建築工学科 副教授)

Aalto의 建築은 特異한 點이 있으며 分析하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이 要因은 Aalto가 著作이나講演 그리고 討論에 關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의 作品에 關하여 물으면 眞理는 建物內에 있다는 內容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Aalto의 作品을 理解하려면 그의 作品을 直接 體驗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특히 Aalto의 作品은 大部分 Finland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Aalto의 建築에 理論的 근거가 결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다. Aalto는 1898年 Finland의 中西部에서 出生하였고 1940年 美國 MIT에 建築科 教授로 초빙되었으며, Aalto의 活動은 始終一貫하여 그 나라의 가장 騷亂한 시기과 一致된다. 金屬類와 木材와 물, 이것이 主要資源으로 많은 地域이 湖水로서 各 湖水는 4~5 계통으로 연하여 바다로 흐른다. 이러한 國家의 형편과 民族性과 大自然이 Aalto 建築의 뿌리로 되고 있다. Finland의 두 大戰은 철저한 打擊을 주었고, 때문에 파괴된 生産施設의 再建을 위한 資金이 거의 없어 住宅建設은 국도로 감축되었으며 公會堂과 博物館, 都市中心 기타 多少라도 財政上 變영을 가져올 수 있는 建設에 쓸 수 있는 資金이 막연한 狀態였다. 따라서 Aalto의 建築은 그 當時에는 큰 建築을 발전할 수 없었지만 傳統的 材料인 木材의 獨創的인 創作力이 豊富한 新構造法의 代當한 使用으로 적은 規模의 建物이라 하더라도 詩情과 浪漫이 흐르는 建築을 많이 내어놓았다. 그리고 傳統的 木材의 使用과 自由스러운 曲線의 使用, 傳統的 形態의 表現 等 初期의 作品에서도 앞으로 大成할 소지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懸賞設計에서 當選한 作品으로서 1930年 前後에는 Turun-Sanomat 新聞社 事務所 그리고 Viipuri圖書館과 Paimio Sanatorium 등이 있는데 이것은 Aalto의 天才性을 證明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Finland의 상황을 아는 그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Aalto가 만일 他國家에서 자라났다면 Paimio Sanatorium 設計에서 1929年 즉, Aalto의 나이 30세에 一等的 榮光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Undulating Surface가 Aalto의 作品에 나타난것은 天障, 壁, Building Form, Glass Vase, Door Handle, Wood Sculptur, 家具等이다. Aalto가 Undulating Surface를 추구하려 했던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여기

에 對하여는 Giedion의 論文으로부터 最近 諸論文 가운데 다루고 있다. 이 Undulating Surface는 먼저 Paimio Sanatorium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人口의 케노피와 中央管理部의 책상에 서이고 viipuri圖書館의 集合 홀의 天障(그림 1)의 경우 이 Undulating Surface는주요한 要素로 되어 있다. 이 天障의 主要性은 Aalto가 Hall의 音響效果研究의 機能的 근거와 음이 空間을 伝



□ 알바 알토

播해가는 流動的 性質을 詩的으로 表現한 點이다. 이와 같은 機能的 또는 詩的 理由로서의 Undulating Surface의 天障을 採用한 예는 他의 建物에도 쓰여지고 있다. 即, Central Finnish Museum(그림 2)과 Wolfsburg Parish의 教會이다. Lapua의 農業博覽會의 森林館의 경우 이 Undulating Surface는 展示場을 둘러싼 壁을 波狀으로 處理하고 있다. 巨大한 뱀모양의 壁으로된 Baker House Dormitory(그림 3), Finlandia Hall會議場의 가리비 접질과 같은 壁들은 Aalto가 이 波動的 表面을 建物의 壁面에 또는 建物全体에 採用한 실예이다. 이 壁體나 建物全体에 보여지는 Undulating Surface의 變種은 Fan-Plan 또는 Fan-Shaped form 이라고 말해도 좋을것이다. Otaniemi에 있는 工科大学의 寄宿舍는 Fan-Form이 採用되고 상황에 의하여 稜線이 쓰여지고 있다. Seinajoki(그림 4)나 Mount Angel과 같은 圖書館에서는 Fan-Plan내에 얼마간의 房이 포용된 다. 여기서 是 Fan-Plan과 結合된 矩形平面으로 이루어진다.

1938년 New York의 世界博覽會에서 Finland館의 경우 내부에 3層分의 높이를 가진 傾斜진 木製 Screen이 内部空間을 흐르는듯한 자유스러운 曲線으로 둘러쌓여 있다. 各層은 아래층부터 傾斜지워 突出되어 있기 때문에 連續된 움직임이 強調된 우수한 展示效果를 내고 있다. 세로불인 Rib의 列과 그 변화하는 陰影의 리듬이 巨大한 화면에 生動感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은 曲面의 展示壁面이 내부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림1 : 미팅·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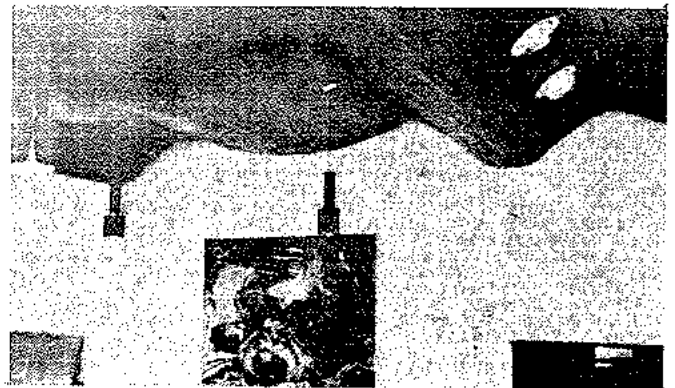


그림2 : Lecture Hall

Vuoksennika 教会의 境遇 Finland 館의 空間造形이 Undulating Surface로서 極點에 達했다고 한다. Aalto가 設計한 콘크리트홀의 内部는 大部分 空間으로서의 Undulating Surface의 發達이나 變化인 것이다. 이와 같이 Aalto가 建築에 採用한 여러가지는 他人의 追從을 不許할만큼 유일한 것이다. 이 Undulating Surface는 建物에만 限하지 않고 유리花瓶과 나무를 使用한 形態 Door Handle, Plywood Furniture, Light Fixture (그림 5) 들에서도 볼수 있다. 꾸불꾸불한 線을 Plan, Elevation Section 및 Detail에 여러 Scale에 걸쳐 使用된 것은 Aalto의 才能에 의한것이라 본다.

Aalto의 作品에서 많이 볼수 있는 Undulating Surface에 대하여는 많은 起源이 있다고 보고 있다. 直接的 源泉으로서 또는 隱喩로서는 Finland의 風景을 들수 있다. 이것은 많은 著者들로부터 받아드려지고 있고 支持되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意見은 오랫동안 많은 著者들로부터 無批判의으로 받아드려져 왔다고 한다. Finland의 建築에 나무가 材料로 쓰여진 것은 우리가 잘 알수 있는것이고, 本國의 土着的인 建築에도 波動的 形態를 가진 例가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風景이나 自國의 土着的 建築이나 機能과의 관련이 어찌되었건 Aalto는 Undulating Surface를 使用하여 分明하게 願하는 形態를 이루고 있다. Aalto의 作品集이나 스케치를 보면 抒情的이며, 波狀의이고 흐르는 듯한 線을 볼수있다. 이와같이 素描에 의해 Aalto가 形을 探究하고 또 선택한 것을 볼수 있고 Aalto의 事務所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와같은 波動的 表面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Aalto 自身の 素描手法, 設計方法으로 부터 強하게 나타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波動的 表面의 可能性이 建物에 이루어진 것은 Aalto가 그 可能性을 여러 媒体에 의해 精妙하게 試圖하고 여러 scale로 검토한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있다.

또한 Aalto의 作品에서 平面圖를 보면 左右 非對稱의 Auditorium이나 意味를 잘 모를 平面形의 凹凸, 軸線의 어긋남이라든가 그가 Design한 硝子器에서 볼수 있는 曲線等, Elevation에서도 어떤 作品은 처마線이 지



그림3 :
Baker House
Dorm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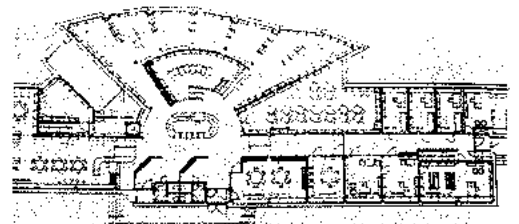


그림4 :
Seinajok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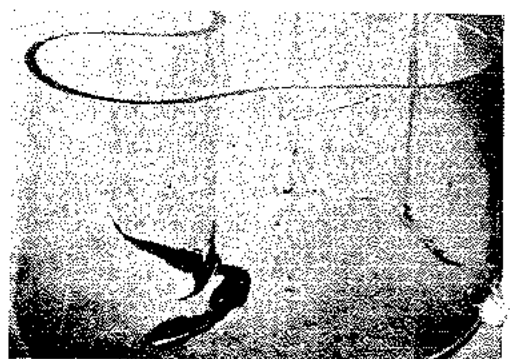


그림5 :
유리花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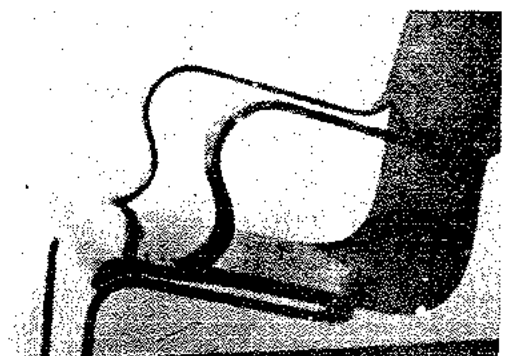


그림5 :
유리 의자

그재그가 되든가 曲面이 되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 實際로 그가 設計한 建築을 보지않고서는 적어도 平面圖만으로서 判斷되는 建築은 일론보아 矛盾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생각된다. 그러므로 建築에 있어서 理論을 내세우는 傾向의 사람들은 平面圖와 機能과의 사이에 統一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矛盾이 있는 建築처럼 보이겠으나 실제 그가 建築을 設計한 實物을 보면 뜻밖에도 좋은 점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Aalto의 建築은 秩序와 無秩序와의 사이에 平衡을 유지하고 있다. 即, Aalto는 아주 不調和 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 要素등에서 秩序를 만들려고 하고있다. Otanemi 工科大学의 講義廳(그림6)은 教室棟의 規則的 直角架構로부터 分化하여 있다고 말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개의 도서관에서 보여지는 扇狀部分과 直角部分의 斷絶 方法의 가운데서도 같은 手法를 볼수있다. 入口의 位置, 連結의 位置 또는 向의 變化 같은 것은 Aalto에 의해 그의 獨特한 分節方法으로 되어있다. Seinajoki Town Hall의 경우 箱子 Type은 會議室 있는곳에서 箱子 Type을 벗어나 지붕에서 突出되고 있다.

Amos Chang은 “成長하는것은 계속 살아 成長 해간다는 것이 基本的 機能이라 한다면 完全한것, 完成된것, 말을 바꾸면 成長도 變化도 안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했다. Aalto의 材料 取扱 方法을 보면 거기에는 永久的인 것과 永久的이 아닌것과의 對立이다. 永久的인 것으로는 壁紙, 타일, 돌 등이고 永久的이 아닌것으로는 나무 유리를 생각할 수 있다. 前者는 長期間 存續하고 後者는 파괴되기 쉽다. Aalto의 建物이 톱니 모양으로된 그리고 不規則한 配置의 建物 등 어떤 것도 不完全, 未完成的의 개념으로 맺어진다. 한다면 이런 이미지는 그의 圖面에서 보여진다. 사실 平面圖에서 前側과 後側의 壁面이 엇갈려 있어도 실제 建築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것으로 視覺적으로 말하면 平面圖는 思考 가운데 存在하고 있는것으로 壁이 Space Divider로서 建築空間으로서 役割을 할때는 空間은 Magic에 의하여 前側과 後側과에는 視覺的인 關係는 없이 各各 獨立해서 變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더욱 適合한 Door Handle이라든가 階段의 Handrail이라든가 照明器具나 家具등으로 그 空間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Aalto는 前側의 空間과 後側의 공간과는 矛盾이 있어도 個人에 對하여는 同時에 2개의 空間을 느낄수 없는것을 計算에 넣고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平面 Grid System이라는것 즉, Module이라든가, Standardization이라는 것은 空間의 魔術을 모르는 建築家로서 그는 꼭 하고싶은 것과 가려운 곳을 손으로 긁어주는 方法으로 생각되는 것을 한것에 不遇하다는 것이다. 다른 建築家가 별로 신경을 쓰지않는 것을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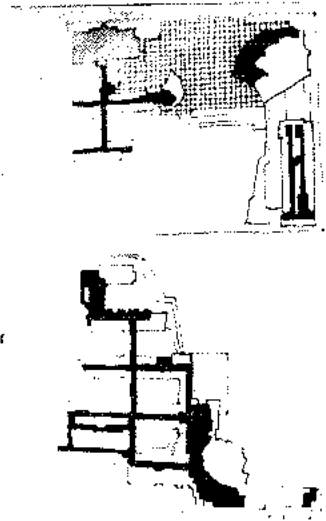


그림 6 : Cultural Center

실행하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Le-Corbusier의 建築은 Positive한 空間으로 自己完成的으로 内部機能의 變更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 Aalto의 作品은 内側으로부터 秩序를 가지런히 해가는 方法으로 充分한 注意가 있고 自然増殖的으로서 뒤에 増築한 것이 最初로부터 있었는지 알수 없을만큼 内部機能의 變更에 잘 対応한다고 볼수 있겠다. Aalto에 대해서는 그의 作品集을 보는것 보다 Finland라는 環境 가운데서 실제로의 建築을 보는 것이 더욱 感銘깊은 建築을 設計한 建築家인 것이다.

Aalto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자라난 Finland의 땅과 사회와 民族에서 한결음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바탕 위에서 모든 創造活動을 進行시켜 다른 外部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이라 할수 있다. 조형적으로는 Finland特有的 木材, 壁紙로 그나라의 굴곡진 湖水의 自然을 상징하는 것과같은 부드러운 曲線을 썼다는 점등 Aalto는 建物을 실제로 세운다는데에 注意를 한 建築家라는 것으로 Aalto의 建物은 결코 우둔하거나 魅力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建築家の 役割과 目的을 결코 잊지는 않았다. Aalto의 作品에 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고 또 잘못된 곳이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書籍을 통하여 느낀바를 썼을 따름이다. (*)

(參考文獻)

- (1) 鄭寅國, 近代建築論, 文運堂, 1972.
- (2) 太田實訳, (S. Giedion著), 空間時間建築, 丸善株式会社, 1961.
- (3) 現代建築家 (Series中에서 Alvar Aalto편)
- (4) 建築と都市(a+u), 79:10 (No.109), a+u社
- (5) Karl Fleig, Alvar Aalto, 1974~1975 Masters of World Architecture.
- (6) 猫野勇一, 小池新二編, 世界の現代建築3巻, Sweden, Finland篇; 彰国社, 1954.
- (7) 浜口隆一, 神代雄一郎監修, 現代建築事典, 鹿島出版社, 1977.

“傳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다”



/出生地/평북 의주군 고성면 용산리 806번지/現住所/서울시 東大門區 典農洞698-3号/學歷/中央普通學校·京城高等工業學校建築科(서울工大)/主要經歷/文敎部科學用語制定分科委員·建設部建築士資格審査委員·大韓建築士協會長·建設研究所審査委員·高大東國大出講·現三星建築設計事務所代表/主要著書/建築用語集·建築構造學·建築施工學·建築概算學·建築製圖·建築工事監理要領·한국건축대제·회감기념논문집 등 다수/主要作品/韓國은행본관 복구설계 감리·한양불산사숙·탑골공원 삼일문·공주감영보수공사·칠백의총보수정화공사·법주사원통보전보수공사·경주사적지중합조경공사·광화문보수공사·호암미술관설계 등 다수.

◆ 對談 洪 淳 寅 (本誌 편집위원)

□ 丹青의 화려함 보다는 지녀온 歷史와 전통이...

수표동 지전(紙廳) 골목을 들어서면 예나지금이나 분주하기가 변함없다. 제가끔 복잡한 골목을 누비며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골목 중간쯤에 張起仁씨는 살고있다.

그리 넓지않은 房舍 책상 두어개와 작은 응접세트외에는 온통 책과 각종도면투성으로 공간을 메우고 있어 흔히 생각하는 그럴듯한 設計事務所라기 보다는 어느 大學의 교수연구실을 연상케한다. 아니, 이 房의 主人도 그쪽이 더 가깝지만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문득 人生의 한 기술에서 저토록 골몰히 진정 꾸준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가 연구해온 으리으리한 高樓巨閣의 찬란한 丹青의 화려함 보다는 지녀온 歷史와 傳統으로해서 느끼는內在된 무게가 그의 房에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알게된다.

수표동 그 골목을 벗어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문득 張起仁선생의 房을 메운 손때묻은 낡은 책과 자료들이 그들과 한데 어울려 연상됨은 무슨 까닭일까?

□ 우리建築은 우리손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出發.

□ 洪 韓國建築 또는 傳統建築하면 으레 張先生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모시고 이야기들 듣고자합니다. 반평생을 오직 우리建築에 큰 뜻을 두시고 -愈해오신데에는 어떤 특별한 動機나 目的같은 것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張 제가 건축전문학교를 나온것이 1938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建築관계도 주로 日本人이들 관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건축이라는 말도없었고 또는 문화재급의 古建築도 日本人들이 관장했죠. 다만 우리나라 住宅에 대해서는 日本人들이 學問的으로 연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거생활에 어떤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이나 건축, 즉 한국의 建築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알고 또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 연구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發出한겁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傳統이다. 또는 韓國的이다. 하지만 저는 북고적으로 생각해서 과거의 건물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住生活의 좋은점은 무엇이고 나쁜점은 무엇인가 또는 개량할 점은 어떤것인가를 생각하고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人間生活의 모순된점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것이 있는가등을 생각해서, 過去에 살던집에서 찾아보려는 力이 韓國建築을 專念하게된 動機라고 하겠습니다.

□ 洪 今世紀 初부터 現代建築의 機能至上主義가 世界구석구석까지 범람했고, 우리도 西洋文物이 들어와서 부터 예외없이 소위 洋式建築이라는 이름으로 現代건축을 無批判하게 답습한 부분이 적지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래에와서 우리 傳統建築에도 많은 관심이 일고 있으며 傳統繼承이라는 問題로 많은 연구와 論難도 있었읍니다. 때늦은감이 있지만 張先生님께서 建築에 있어서 傳統이라는 問題를 어떻게 理解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 계승方法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

□ “曲線의 흐름은 흡사 악기를 가다듬어서 우리의 가락을 듣는 감성이 느껴집니다.”

각하시는지요.

□장 건축에 있어서 전통이라는것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古來로부터 써오던 건축물의 形式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서 出發해서, 그렇다고 우리 固有것만을 얘기하는것은 아니고 外來文化를 받아들여 自己化해서 대대손손 물려나가면서 그것이 變型되는 과정이 傳統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潮流도 마찬가지죠, 우리주택에서 볼때 순수한 우리의 것만 있는것이 아니죠.

中國사람들은 의자생활을 하고 日本人들은 다다미를 깔고살지만 우리는 온돌방에서 살고 그게 편하잖아요, 바로 그런것이 建築에서의 傳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계승내지 發展은 우리의 傳統建築가운데서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응용해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때 저의 경우는 우선 받아들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건축의 妙味는 어떠한 것이다하고 밝혀지겠는데 그다음에 發展시키는 방법은 제 代에서는 완성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다만 그 냄새만 풍길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홍 그러니까 그 傳統이라는 것은 오랜생활과 관계되었기때문에 하루아침에 傳統을 만들자고해서 만들어지는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努力이 있은후에 그 努力이반복이돼서 나중에 어떤 歷史가 하나의 傳統이 되는거겠죠. 요즘 간혹 뭔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전통건축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하고 主張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 그런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이관계 時代的조류도 있고 편면히 내려오는 흐름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시대 어느것 하나만을 내세워 이것이 傳統이다 하고 단정하는것은 사실 어려운 과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傳統建築을 論하는데는 여러가지 理論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傳統건축이라고 해서 순전히 우리나라에서 始發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속에는 中國의 것도 있겠고 서구라와, 日本의 영향도 받아들였을테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同化시켰죠, 文化의 조류가 그런것 아닙니까.

하나못해 事務室건물등도 역시 그래요, 미국사람이 짓고 사는것은 그들의 냄새가 나고 아무리 現代式건물을 우리가 지었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의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런것이 바로 傳統의 繼承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것을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게 아니니까요.

□한국건축은 건축계획적인 면에서 開放的이고 集中的인 것이 특징.

□홍 선생님께서 傳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自己의 것 즉 우리의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러면 우리 建築, 즉 韓國建築의 特徵을 지적하신다면...

□장 우선 건축計劃的인 면에서 平面을 살펴보면 상당히 開放的이고 集中的인 것을 볼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봐도 방 하나에도 사면에 어디든 낼수 있으면 다 났다는것을 봐도 특징이되겠죠. 다음에 옛건축이 모두 木造건축이기 때문에 耐久年限은 짧지만 그 架構性이라든가 創意性은 나름대로 하나의 長點을 가지고 있죠. 또 그 曲線이라든가 建築에 나타난 美感등은 너무나 韓國의인 감정이나 습관과 유사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平和로운것이 지어떤것에 집착해서강인한 면은 없죠. 外型의인 면에서 볼때도 지붕같은것은 그 曲線의 흐름이 樂器를 다듬어서 한국음악을 듣는 감성이 느껴집니다. 또 位置라든가 하는것도 당시로서는 科學的이었읍니다. 양치바르다든가 하는것 말입니다. 또 위생상으로도 좋은거죠. 이런것이 한국 건축의 특징이되고, 또하나 재미있고 중요한것은 우리건축은 自然과 完全히 同化시켜서 人工을 加하지 않은 人工美있는 집을 지었다 하겠읍니다. 즉 自然속에 人工을 造化시켰지 人工으로 自然을 造化시키려는것은 안했읍니다. 이런점이 다른 건축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런개념을 가지고 집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建築家들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좀더 이런 방향으로, 즉 自然과 어울리는 그런집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건축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네, 共感이 됩니다. 이런것은 建築敎育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겠는데 예를들어 大學에서는 社會와 직결되는 建築技術이나 工學的인 면으로 치우친것도 사실이고 時間배려도 우리 傳統建築에 대하여 인식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韓國建築에 대한 敎育的 側面에서 效果的인 方法이 있으시다면...

□장 한국건축에 대한 敎育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게 바로 제 생각인데 한가지 아쉬운것은 한국건축에 관한 資料가 너무 不足해요 자료가 많으면 학생들이 자연히 공부할 하게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가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자료수집과 刊에 힘써야 하는데 個人의 힘으로는 어렵고 國家나 團體에서 주관하는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와있는 資料라고 하는것이 겨우 사진이나 찍어 내놓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建築工學的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죠. 樣式같은것은 고고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視覺的美學, 審美學的으로 분석해야죠. 한때 이런자료들이 不足하니가 학생들로서는 공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멀어져 가는것 같아요. 敎育 자체가 뭐 시간이 모자란다 그밖에 불편한게 많다고는 하지만 敎材自体가 없으니가 그것부터 출판을 해주는 作業부터 서둘러야죠. 또 用語도 꼭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것을 알기쉽게 펴내는 方法도 중요합니다. 대대적으로 支援해서 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걸 안하면 안됩니다.

□ 丹青의 아름다움을 키워 現代建築에 이용하는것도 단청을 계승발전 시키는 방법이다.

□홍 지난번 5월20일에 韓國建築세미나가 있었는데 張先生님께서 發表하신 丹青에 관한 글을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고 많은 분들의 理解에 큰 도움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機會에 丹青의 紋樣과 그 계승·전승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어떻게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가 丹青의 연구과제

□장 丹青을 꼭 건물에 칠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것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칠(색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古墳속의 벽화의 칠이나 女人들이 가지고 있는 寶石의 장식이나 색깔도 일종의 단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체는 모두 나름대로 아름다운 색채를 띄고 잘만 들여야 藝術性을 인정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丹青의 칠을 어떻게 하느냐, 칠을 하려면 現代의인 것과 古代的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丹青을 理解하기가 쉬울겁니다.

또 外國의 경우, 프랑스같은데에 가보면 건물의 색상이 펍 조화있고 세련되게 칠해져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다소 투박하고 오히려 칠을 함으로서 보기좋해진 예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 丹青의 연구과제 혹은 目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集大成해 보니까 방대하고, 책으로 낼려고 하니깐 내힘으로는 어렵고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해보니까 時代的으로도 紋樣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최근에 와서는 밝은색, 단색이 많이 쓰이고 있고, 丹青 技術人의 創意性이 現代건축에 어떻게 쓰여질수 있는가 하는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丹青의 色相을 보다 研究하고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서 現代건축에도 이것을 이용하면 친밀감이 드는 그런 건축을 만들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도 단청을 계승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 建築用語는 他分野보다 많이 정리된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 바로잡아야.

□홍 丹青에 대해서는 張先生님 말씀을 몇시간씩 강의를 들어도 모자라겠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은 주로 大學 건축교육에 관계하시면서 建築施工, 構造, 材料등 건축 전반에 걸쳐 用語의 整理, 統一등 많은 업적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더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장 나름대로 建築用語의 整理내지 정작에 힘을 써왔는데, 생활화가 잘 안되고있어요. 제 생각은 일반가정 주부도 쉽게 알수있는 건축용어를 써야한다는 것이죠. 그

래서 學生들에게도 外來語 특히 日本말은 되도록 쓰지 말고 좋은 우리말을 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용어를 수집하기 위해 근래에 나온 저서등에서 用語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用語는 그 뜻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는 日本現場인지 우리나라인지 도무지 모를 정도로 日本말 투성이었죠. 그런것이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他分野에 비하면 건축분야는 아주양호한 편입니다. 또 건축과 토목이 또 다르죠 토목은 건축에 비해 用語의 現代化面에서 훨씬 떨어졌어요.

□홍 用語문제는 國語淳化 運動과도 관련된 것이잖아요.

□장 그렇죠, 관계된 것입니다.

□홍 지금 建築界의 共同관심사는 大型工事 設計施工一括入札을 규정한 特別규정施行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건축설계라는 固有의 업무와 建築文化창달이라는 觀點에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장 이전 여러가지 뜻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時機尚早라고 봐요. 아직은 설계와 시공을 좀더 分類해서 고도화해지 向上시켜야 될줄 압니다. 그후에 일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해야 할겁니다. 또 이것을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발전이 아니라 저해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야 될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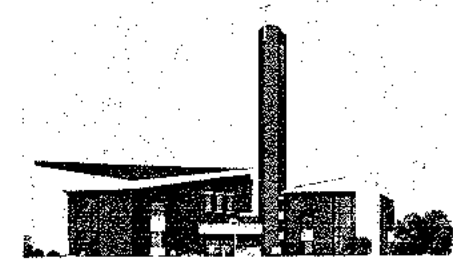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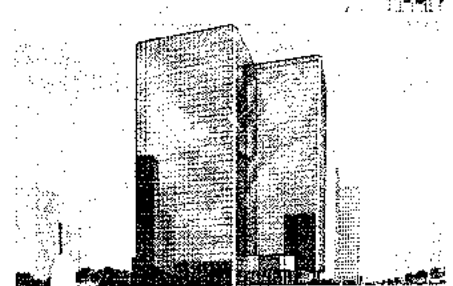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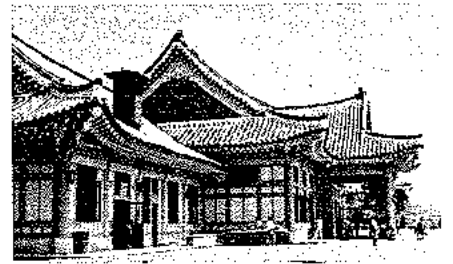
□홍 마지막으로 張先生님께서 초창기에 本協會를 發起하셨고 또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날 建築士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지위향상 또는 資質문제에 대해 후배건축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장 協會가 초창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發展했죠, 규모나 會員數를 봐도... 한가지 바라고 싶은것은 서울에 건축사가 근 천여명이 되는데 서울支部에서 이것을 모두 다루자니 도저히 어렵거든요 회원이 많은 적들간에 하나의 지부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서울지부처럼 커지면 이것을 聯合會라든가 하는 式으로 묶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資質은 펍 나아졌죠. 공부도 많이하고 우선 資料가 많으니까 그만큼 우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년도 못되서 設計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정도 가지고는 주택이든 뭐든 그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역시 예전과는 달리 자료라든가 그밖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대로 되어가지만 간혹 보조원들에게만 맡기는 경우도 있는 데 그런점은 곤란하죠. 고쳐야지요.

□홍 오랜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후진들을 계속 돌봐주십시오.

會員作品



驛舍
慎武敏

顧忠紹
姜奉辰

빌딩
李起範

會館
安鍾煥

亨豐
金伸宰

病院
嚴泰佑

住宅
曹元植

教會
安日成





全州 駅舎

愼 武 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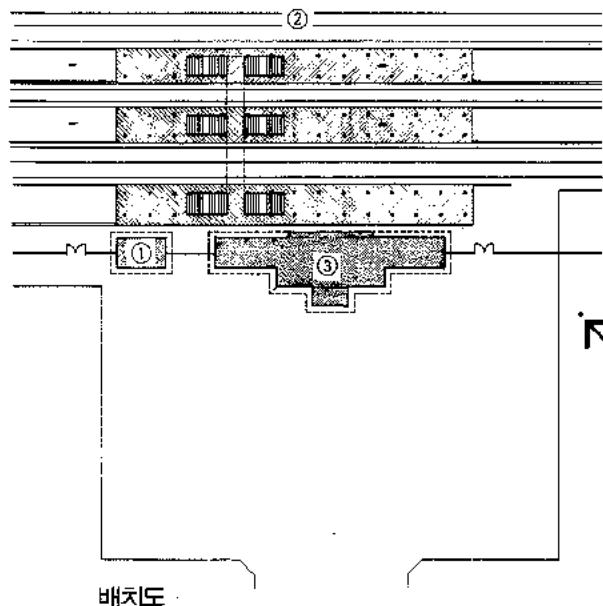
((주) 서한건축기술연구소)

소재지/전북 전주시 우아동 3가. 대지면적/역구내, 건축면적/1,164㎡. 연면적/1,404㎡. 지상층수/1층. 지하층수/1층. 중높이/처마높이 - 6.80m 최고높이 - 13.20m 건축물 높이 - 콘코스부분 6.30m 기타 각실 - 2.70m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단층 한식기와지붕 설비/중앙공급식난방, 위생 소화 전력 조명 설비 기타. 설계담당/이규찬, 구조담당/이수원. 시공자/남광토건(주)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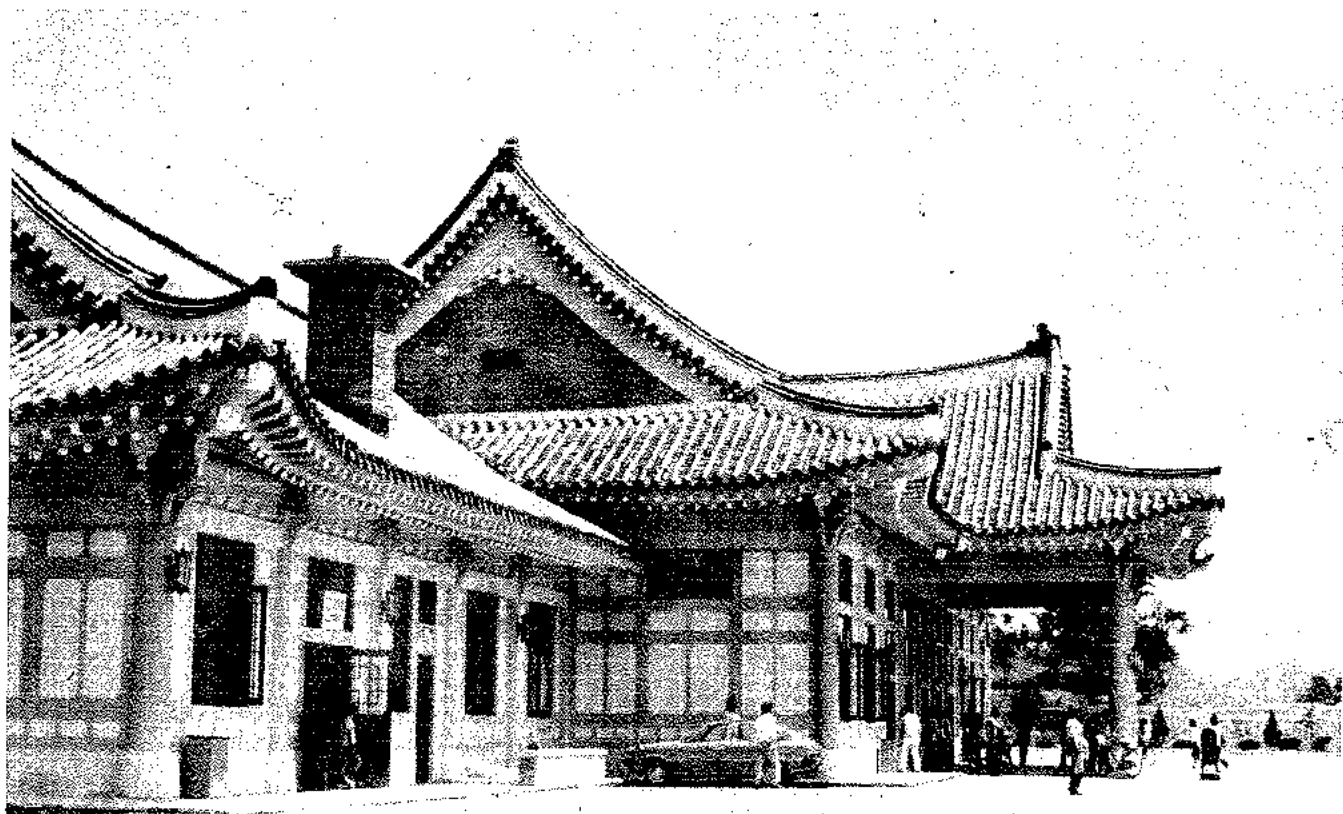
전주시는 옛부터 호남의 고도(古都)로서 민가로부터 관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가 풍기는 풍류한 도시였다. 이에 50년전 현 역사를 건축함에도 고유의 품위를 간직한 한식역사로서 건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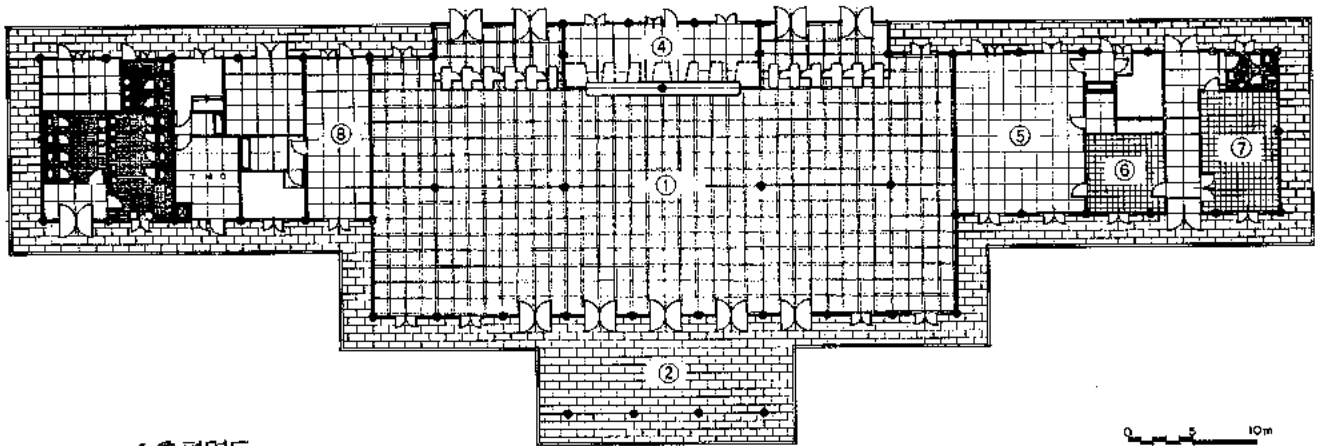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호남의 공업도시로서 중심지가 형성되어 감에따라 구 역사가 전주시 중앙에 틀게됨에 도시발전의 도모키 위해 신 시가지 계획에 따른 도시형성에 따라 구 역사 위치에서 동북방으로 3km 떨어진 곳에 신 역사를 우리 고유의 한식으로 신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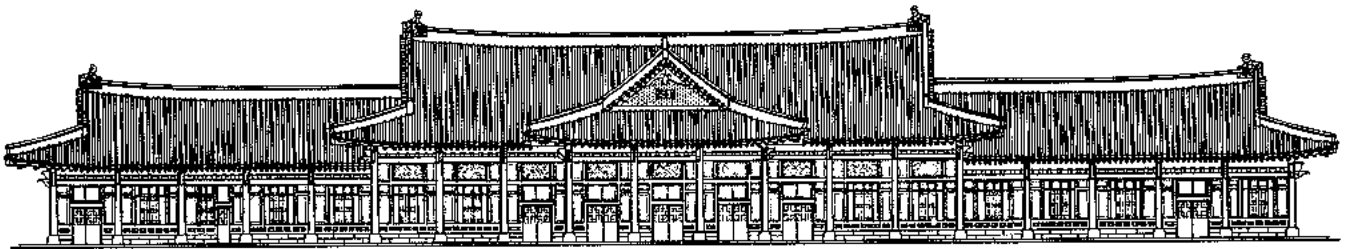
배치도

① 플랫폼 ② 집표소 ③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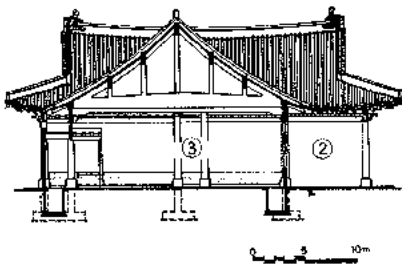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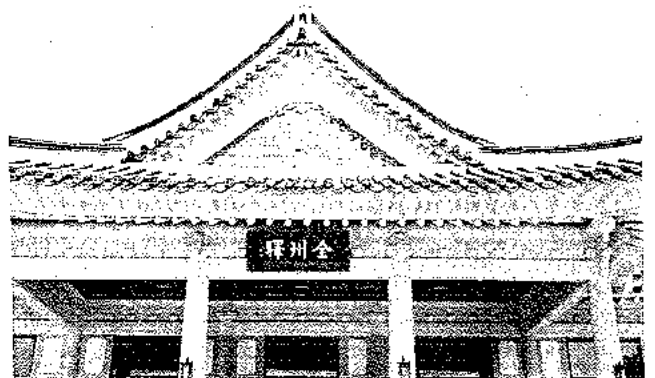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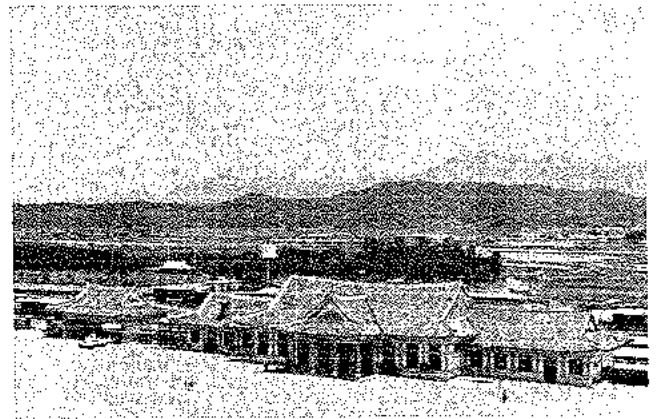


정면도

주단면도



- ① 콘크리트 및 대합실
- ② 포지
- ③ 콘크리트 및 대합실
- ④ 매표실
- ⑤ 역무실
- ⑥ 역장실
- ⑦ 귀빈실
- ⑧ 구내원처소





서울国立墓地顯忠館

姜 奉 辰
(国宝建設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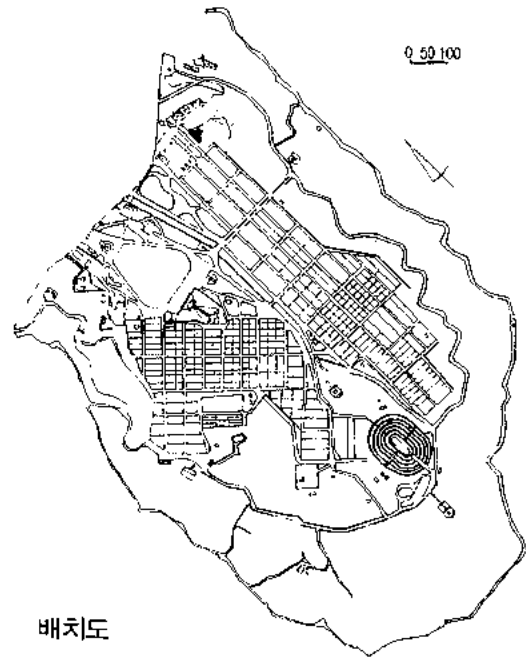
소재지/서울 관악구 동작동 국립묘지경내. 면적/1.2층 지하
층 1,467.19㎡. 높이/층고 7.02m 처마높이 14.42m 최고
높이 18.90m. 양식/2층 팔작기와지붕 절충식 고전양식.
설비/전기 위생난방 공기조화.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시공
/현대건설(주).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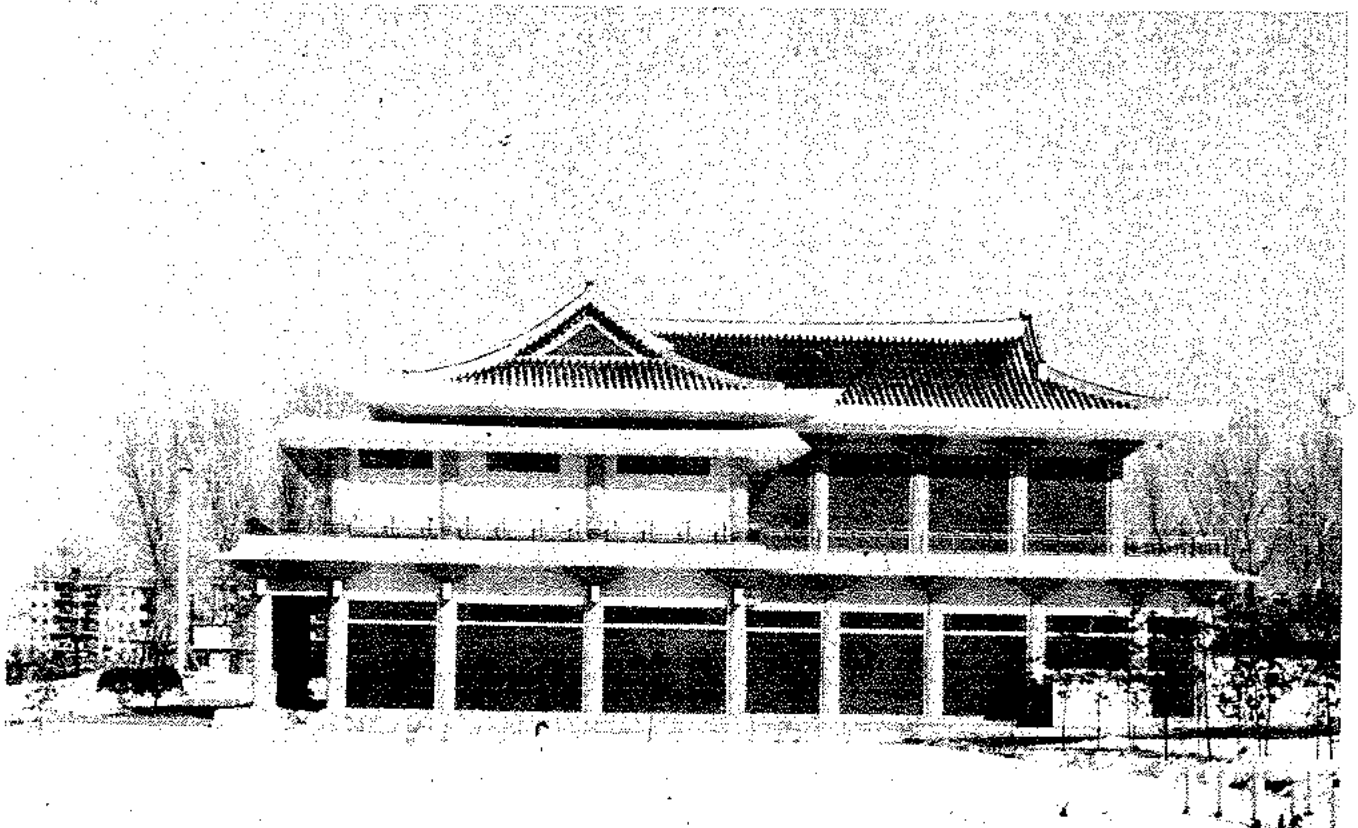
현충관은 영령을 묘지에 안장하기 전에 군의 의전 절차에 따라 유가족과 관계인들이 참석하거는데, 마지막 장례식을 거행하는 곳으로, 서울국립묘지의 기존 현충관은 오래되어 낡아 현대식건물로서 신성한 묘역의 주위환경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절충식 고전양식으로 신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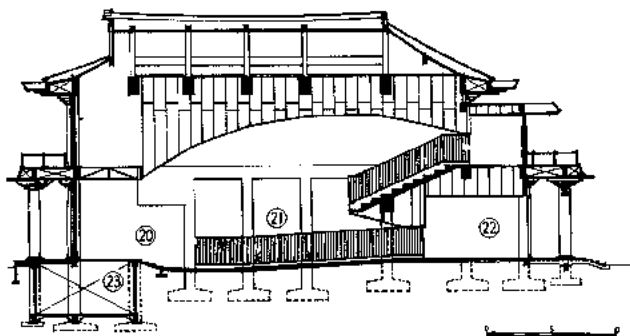
건물은 묘역의 동편 산록에 두고 무대앞 좌측에 합창단실 우측에 군악연주실을 설치하였고 이외에 준비실 앰프실등을 갖추었다.

2층은 발코니식 객석으로 하고 전시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로비를 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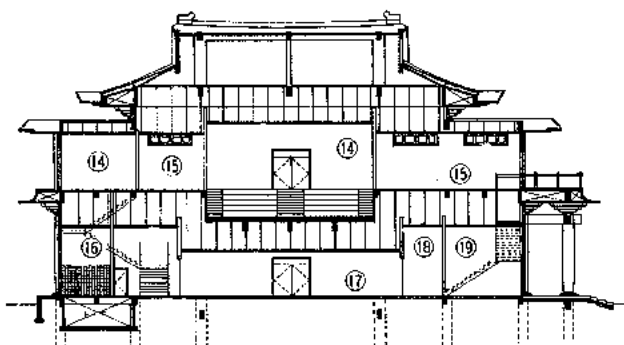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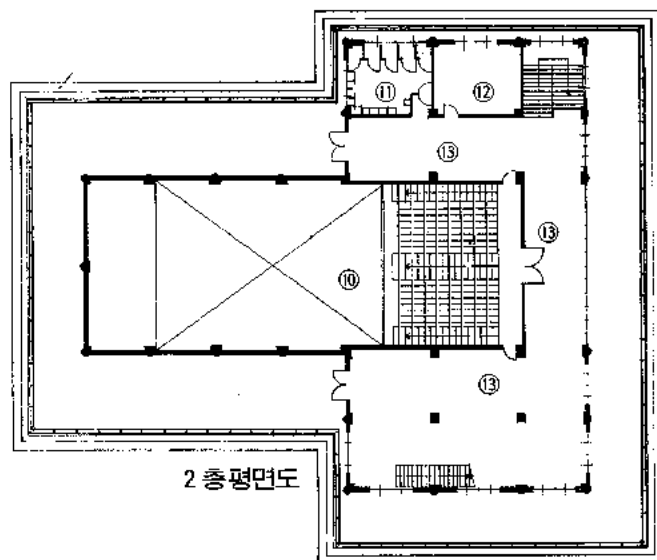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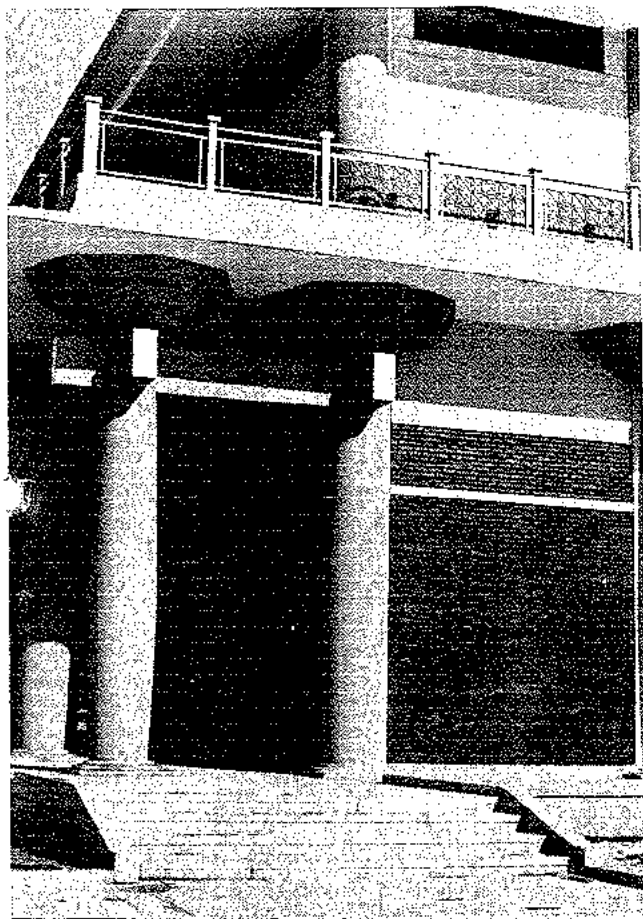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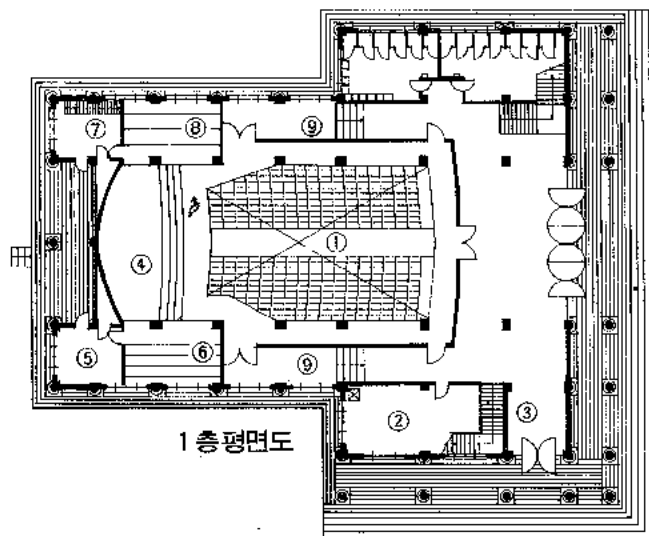


종단면도

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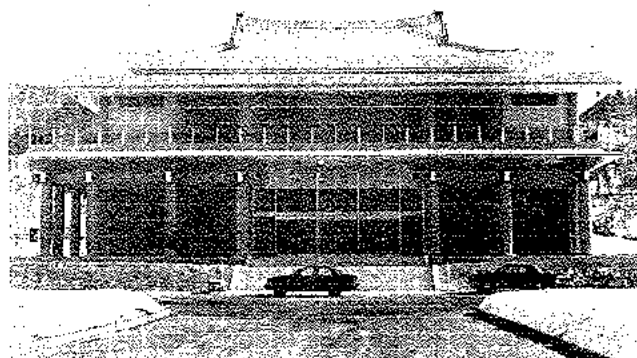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 | | | | |
|---------|---------|---------|--------|
| ① 객 석 | ⑦ 앰프 실 | ⑬ 로 비 | ⑲ 사무 실 |
| ② 사무 실 | ⑧ 군악연주실 | ⑭ 2층사무실 | ⑳ 루 대 |
| ③ 현 관 돌 | ⑨ 복 도 | ⑮ 로 비 | ㉑ 객 석 |
| ④ 무 대 | ⑩ 객 석 | ⑯ 여자화장실 | ㉒ 로 비 |
| ⑤ 영현준비실 | ⑪ 화 장 실 | ⑰ 1층객석 | ㉓ 보일러실 |
| ⑥ 합창단실 | ⑫ 2층사무실 | ⑱ 복 도 | |

정면





남대문 빌딩 계획안

李 起 範

(도시건축공사)

소재지/남대문 재개발 5지구. 건축면적/2,180㎡. 연면적/52,900㎡. 규모/지상 21층, 지하 3층.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設計概要

본 작품은 결코 채택되지도 않았고, 시행자의 사정에 의해서 현재 공지로 남아 있으나, 무더운 여름밤을 지새워가며 마감 날씨를 맞추느라 나눈 열기의 체험이 아쉬워 본지에 실려 본다.

우선 지상 21층, 지하 3층의 연건평 16,000평의 건축물 (백여페이지에 달하는 설계계획서는 고사하고)의 계획도서를 10 일이라는 기간에 완성 납품하라는 건축주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건방짐이 어느때부터 생긴 풍토였는지 못내 석연치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던 기억이 생깁니다.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유의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건축인 남대문을 깊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푸르포션과 텍스처로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건물이 합리적으로 공전하면서 서로의 가치가 상승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일까는 계획 초기부터의 문제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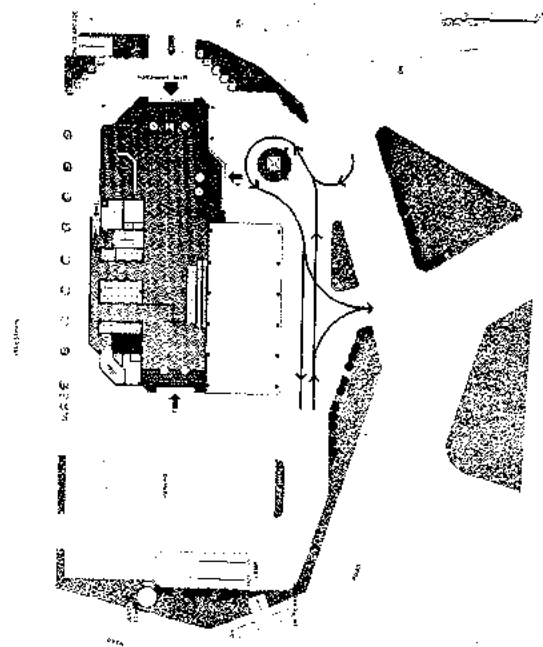
고전건축에 근접해있는 프로젝트가 꼭 Classic하게 디자인되어야만 해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콘크리트의 둔한 면이나 P.C 조립의 암면처리는 두 건물과의 보다 유니크한 조화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Grotesque한 분위기만을 조성할 것은 분명하다.

초 현대적인 재료와 먼의 표현— 그래서 두 Theme의 Contrast를 갖출수 있는 방법, 남대문의 울영을 받아 반사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Reflective Glass의 재료를 선택한 것은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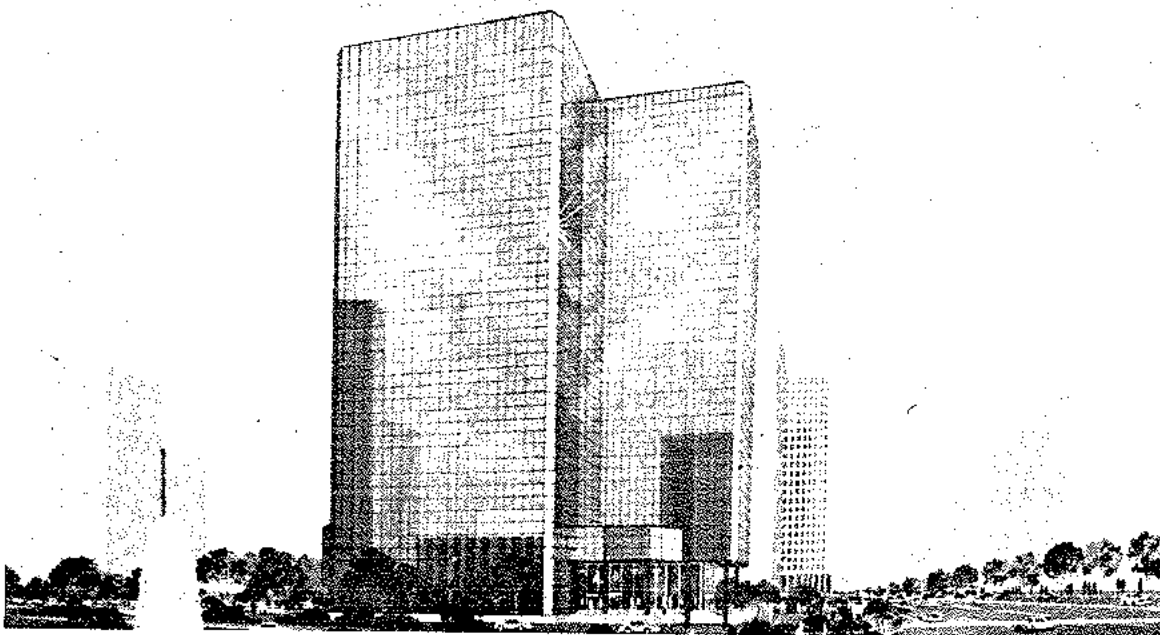
건물과 내지간에 조성되는 외공간의 볼륨감 있는 조경을 이루려면 진입도로 경계선의 녹지, 보도, 주차장, 휴식녹지, 광장화단등의 공간과 건물이 상호간에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므로써 그 전체의 프로젝트가 조화있는 이미지를 던져주는 것이나, 제한된 대지에서 옥외와 법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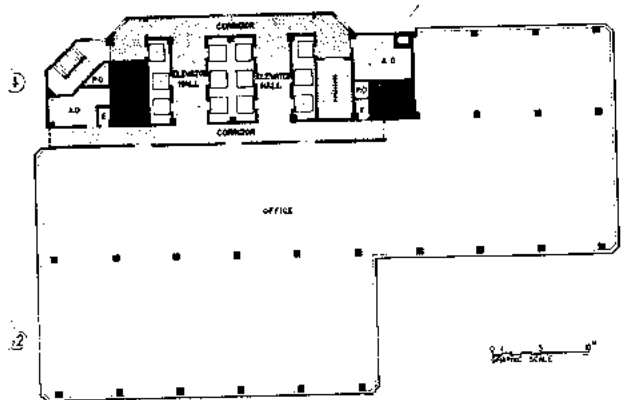
차 면적을 찾아내기엔 바쁘다보니 조경계획은 그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게 하였다.

현행 건축령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옥외공간의 파아킹 스페이스를 지하로 유도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정계획 할수 있는 새로운 법의 개정을 기대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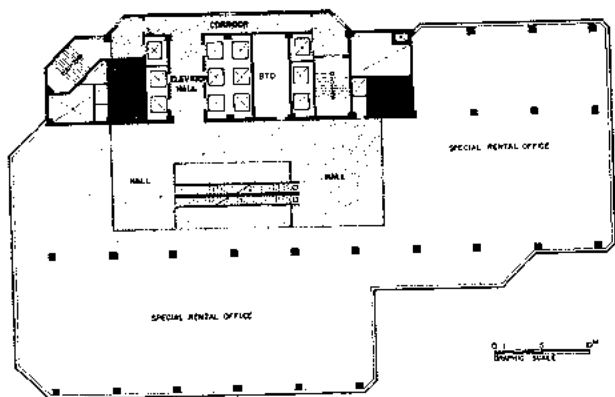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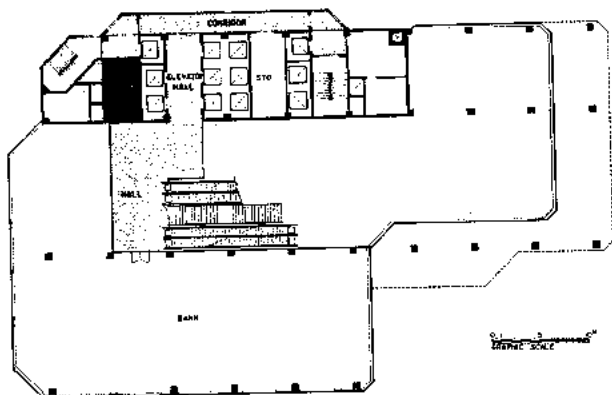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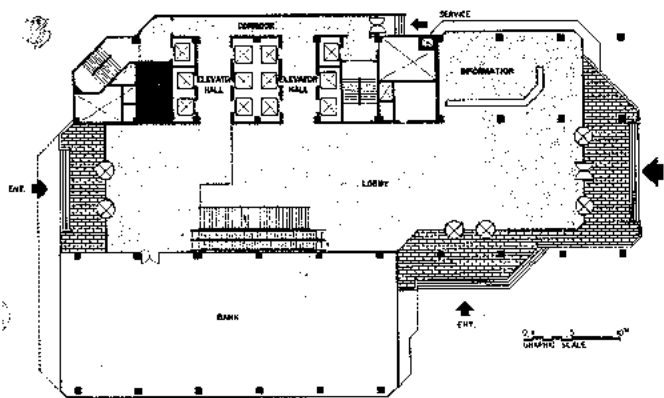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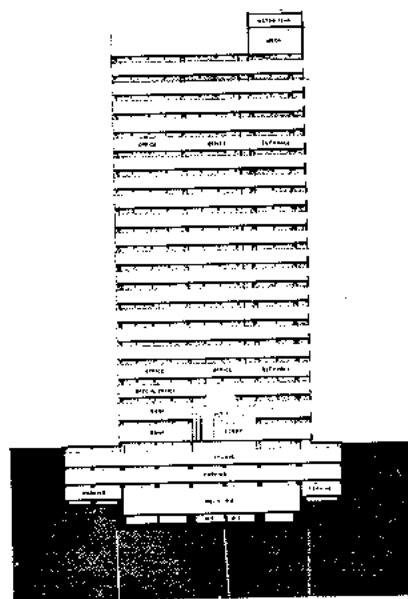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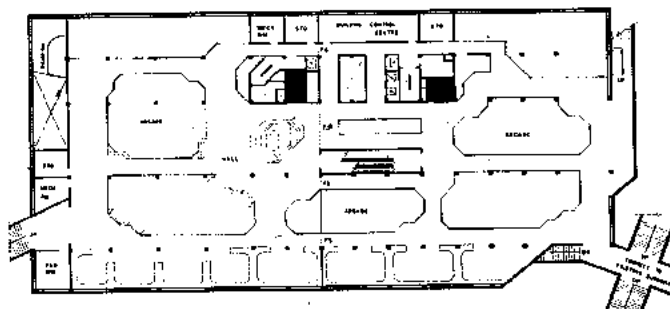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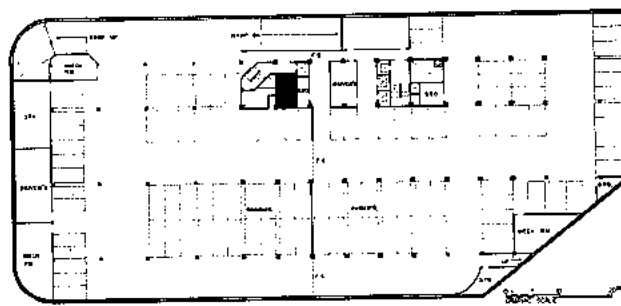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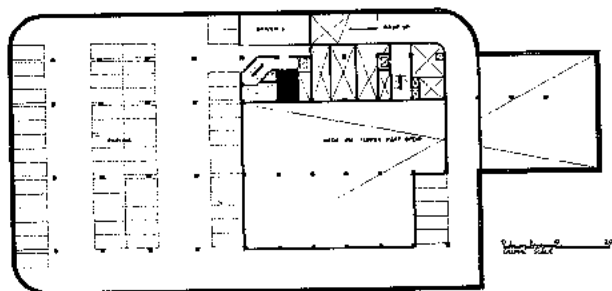
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3층 평면도



부산시 女性會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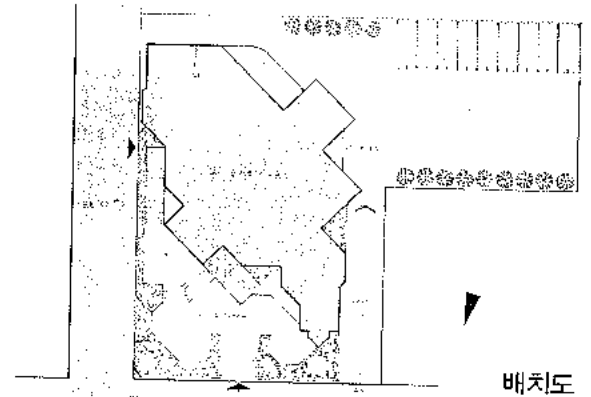
安 鍾 煥
(삼광건축사무소)

소재지/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지면적/1,478.73㎡, 건축면적/956.43㎡, 연면적/4,328.68㎡, 층수/지상 5층, 지하 1층, 층높이/지상 4층 - 3.6m, 5층 - 4m,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붕/철골트라스워 데크 플레이트워 콘크리트, 설비/냉난방 공조설비, 설계담당/박석원.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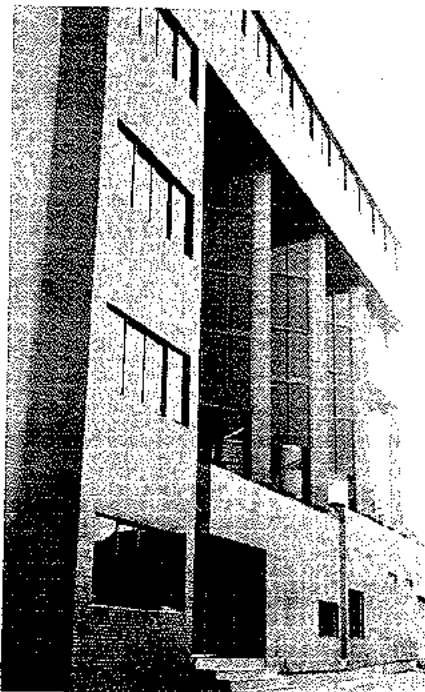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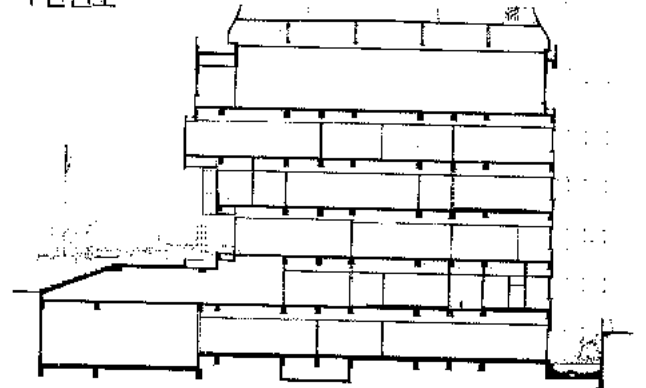
여성회관의 사업내용은 다양하여 요구되는 각 용도별 방들은 서로 분리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로 인하여 큰 용도별에 따라 각층으로 분리시켜 같은 크기의 계단실을 양측에 배치하여 수직 동선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각층에 배치된 방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 하였다. 도로와 부지와의 높여차를 이용하여 주 현관을 2층에 두어 상하 수직동선을 줄이고자 하였다. 현관층의 전면에는 작은 광장을 만들어 분수 및 화단으로 입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관, 로비와 유리벽으로 연결 실내외를 하나로 처리 하였다.

평면의 모듈은 2.415의 정사각형 그리드로 하여 다시 그 대각선을 연결하여 수직, 수평, 대각선으로 모든 평면을 처리하여 변화있는 공간을 조성하되 최종의 공간인 각실은 평범하고 익숙된 사각형의 평면을 채택하였다. 모든 부분의 디자인은 기본 모듈인 기준선에 최대한 맞추었고 외벽은 유리로 하여 그 면에 비주어진 그림으로 된 한쪽의 병풍이 되게 구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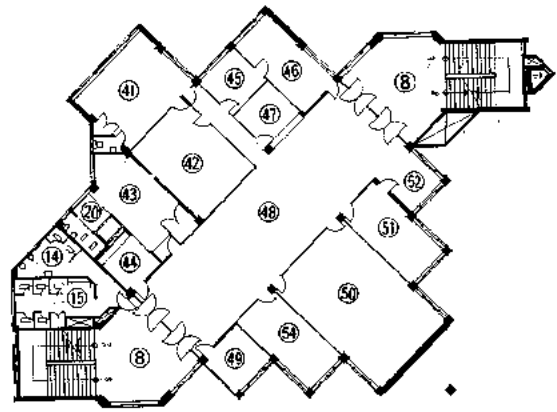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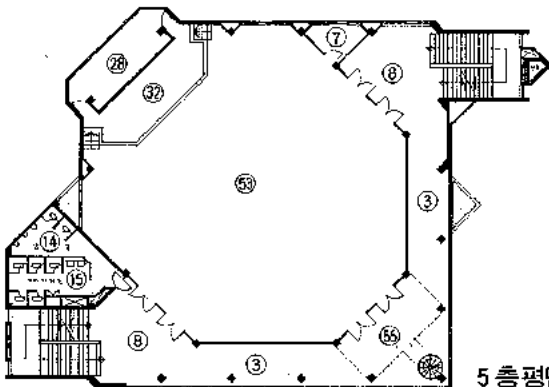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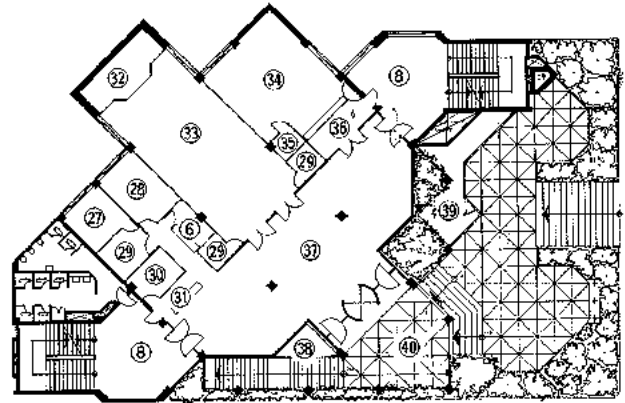
- | | | | |
|-----------|-------------|----------|------------|
| ① 식당, 휴게실 | ①⑥ DRY AREA | ③① 인 내 | ④⑥ 도서실 |
| ② 부엌 | ①⑦ 가 사 실 | ③② 강 단 | ④⑦ 승계코너실 |
| ③ 복도 | ①⑧ 침 실 | ③③ 집 회 실 | ④⑧ 로비, 전시장 |
| ④ 미용강의실 | ①⑨ 화 장 실 | ③④ 사 무 실 | ④⑨ 의 무 실 |
| ⑤ 요리강의실 | ①⑩ 욕 실 | ③⑤ 경 의 실 | ④⑩ 전 시 실 |
| ⑥ 관 리 실 | ①⑪ 사 감 실 | ③⑥ 민 원 실 | ④⑪ 여성단체사무실 |
| ⑦ 창고 | ①⑫ 휴게, 오락실 | ③⑦ 로 비 | ④⑫ 담 화 실 |
| ⑧ 홀 | ①⑬ 주차장 관리실 | ③⑧ 광 정 | ④⑬ 다목적홀 |
| ⑨ 기계실 | ①⑭ 기계실상부 | ③⑨ 분 수 대 | ④⑭ 강 의 실 |
| ⑩ 연 돌 | ①⑮ 주차장 | ③⑩ 포 치 | ④⑮ 상부영사실 |
| ⑪ 전기실 | ①⑯ 전기실 | ③⑪ 관장 실 | |
| ⑫ 요리실습실 | ①⑰ 상 담 실 | ③⑫ 회 의 실 | |
| ⑬ 미용실습실 | ①⑱ 애 바, 실 | ③⑬ 미아보호실 | |
| ⑭ 남자화장실 | ①⑲ 대 기 실 | ③⑭ 보모 실 | |
| ⑮ 여자화장실 | ①⑳ 숙 직 실 | ③⑮ 강 사 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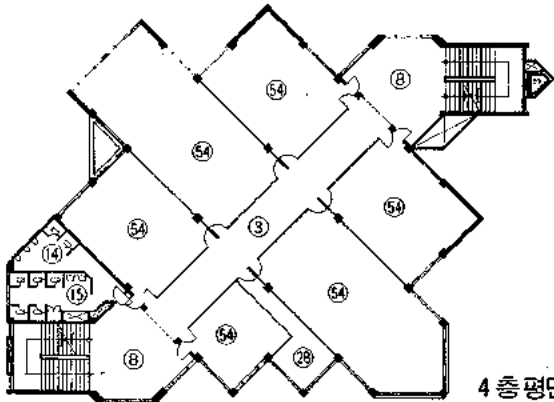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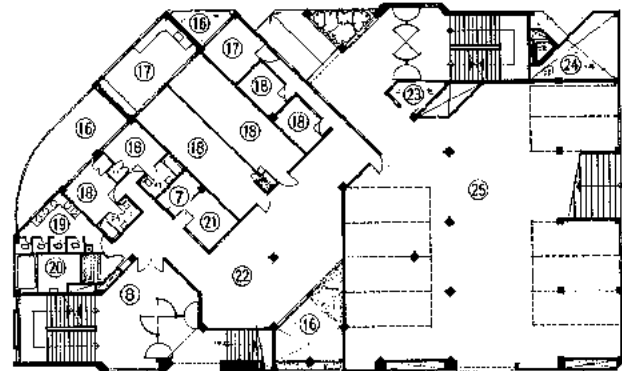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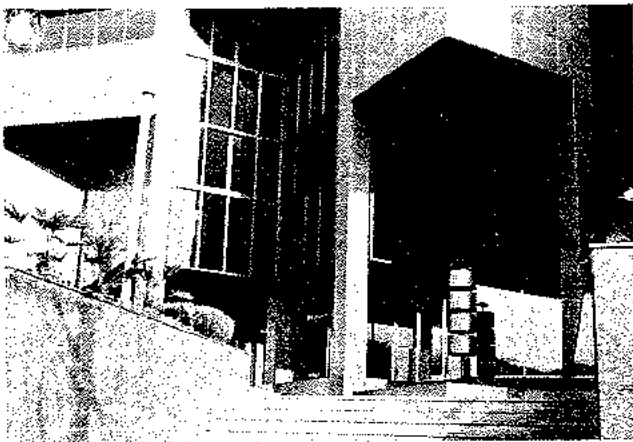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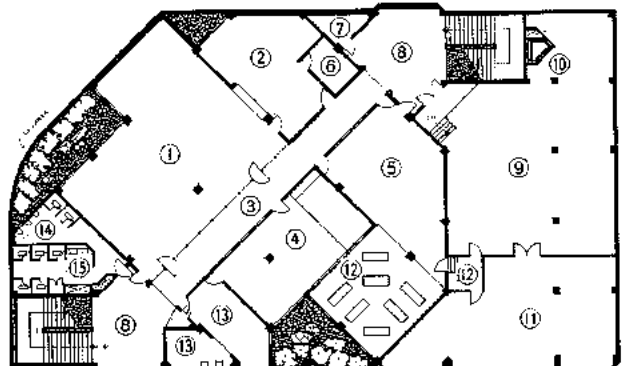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층 평면도





부산 國際 호텔

金 伸 宰
(서강건축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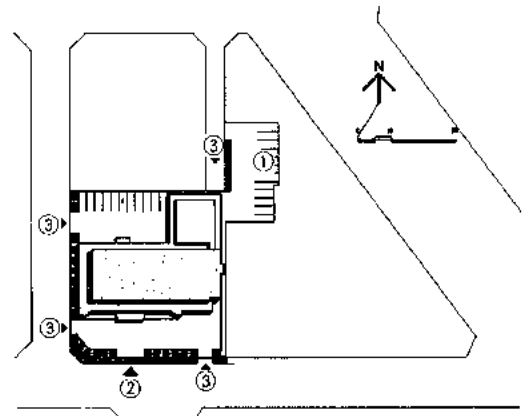
소재지/부산시 동구 범일동, 대지면적/2,914.40㎡, 건축면적/1,190.80㎡, 연면적/9,879.14㎡, 층수/지하 1층, 지상 12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객실수/140실, 시공자/신창기업(주)

■ 設計概要

본 건물은 항구도시인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한 관광 호텔로 관광객의 이용이 용이토록 기능 및 동선을 합리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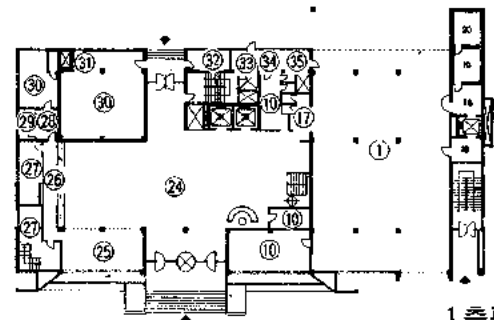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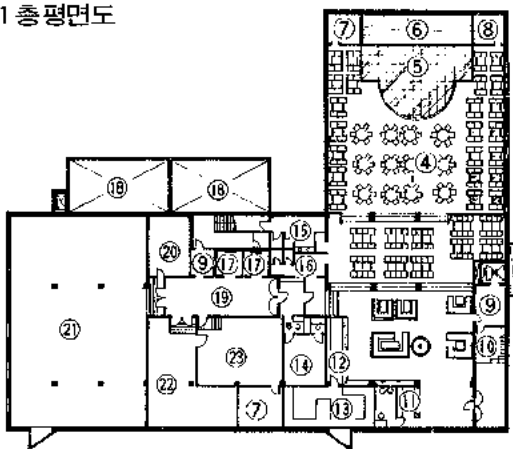
특히 저층부 부대시설부분은 평면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 16.0M의 장스팬을 채택하였으며 지역적 입지조건이 고도의 상업지역에 위치하므로 자동차의 어프로치와 파킹스페이스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12층의 스카이라운지는 옛 고성과 바다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의 역할도 겸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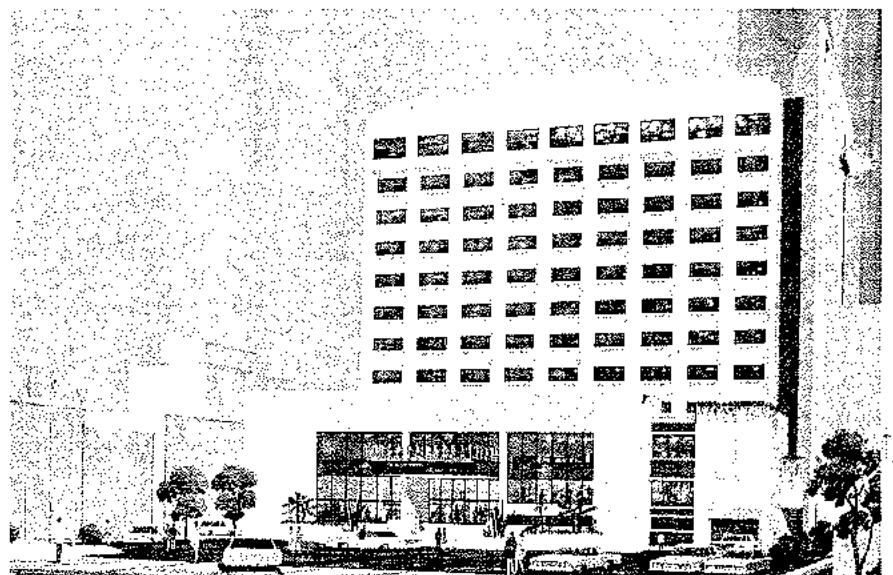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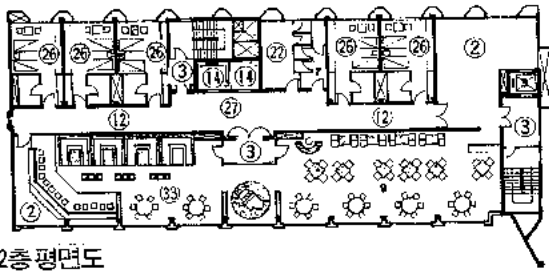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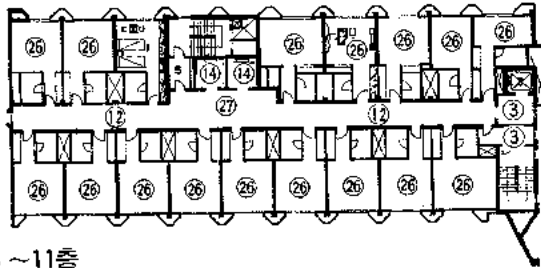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① 주차장 | ⑭ 엘리베이터홀 |
| ② 출입구 | ⑮ 발전기실 |
| ③ 부출입구 | ⑯ 보일러실, 기계실 |
| ④ 나이트클럽 | ⑰ 변전실 |
| ⑤ 댄스홀 | ⑱ 로비 |
| ⑥ 무대 | ⑲ 라운지 |
| ⑦ 기계실 | ⑳ 후문트레스크 |
| ⑧ 중입원실 | ㉑ 사무실 |
| ⑨ 전실 | ㉒ 교환실 |
| ⑩ 창고 | ㉓ 휴게실 |
| ⑪ 안내실 | ㉔ 오락실 |
| ⑫ 스탠드바 | ㉕ 화장실 |
| ⑬ 주방 | ㉖ 경비실 |
| ⑭ 대기실 | ㉗ D.C저장고 |
| ⑮ 신사화장실 | ㉘ 세탁장 |
| ⑯ 숙녀화장실 | ㉙ 운전사대기실 |
| ⑰ 엘리베이터 | ㉚ 냉장실 |
| ⑱ 지하수조 | ㉛ 냉동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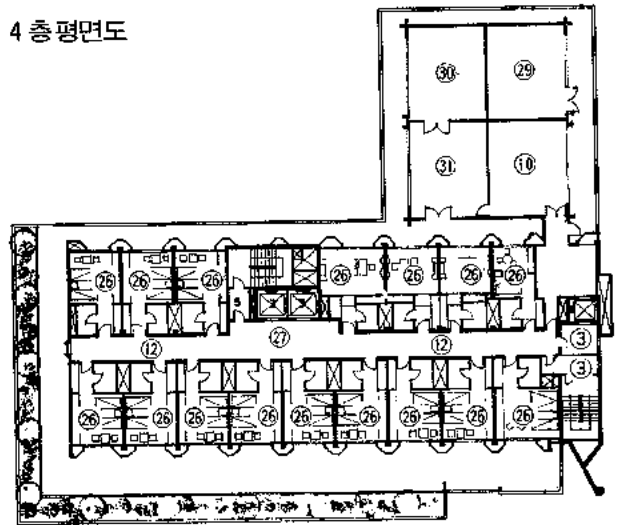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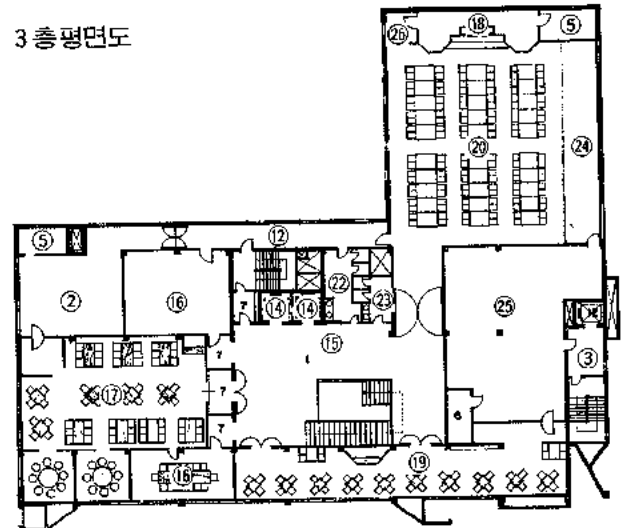
5 ~ 11층

- | | |
|---------|----------|
| ① 커피숍 | ⑲ 식당 |
| ② 주방 | ⑳ 대연회실 |
| ③ 전실 | ㉑ 메인주방 |
| ④ 이용원 | ㉒ 인사화상실 |
| ⑤ 기계실 | ㉓ 숙녀화장실 |
| ⑥ 회의실 | ㉔ 준비실 |
| ⑦ 화장실 | ㉕ 전기조장실 |
| ⑧ 사우나탕 | ㉖ 객실 |
| ⑨ 휴게실 | ㉗ 엘리베이터홀 |
| ⑩ 창고 | ㉘ 메이드룸 |
| ⑪ 스낵 | ㉙ 종업원실 |
| ⑫ 복도 | ㉚ 세탁실 |
| ⑬ 사무실 | ㉛ 건조실 |
| ⑭ 엘리베이터 | ㉜ 스카이라운지 |
| ⑮ 로비 | ㉝ 키텐알바 |
| ⑯ 소연회실 | ㉞ 대회의실 |
| ⑰ 중연회실 | ㉟ 주차장 |
| ⑱ 강연단 | ㊱ 나이트클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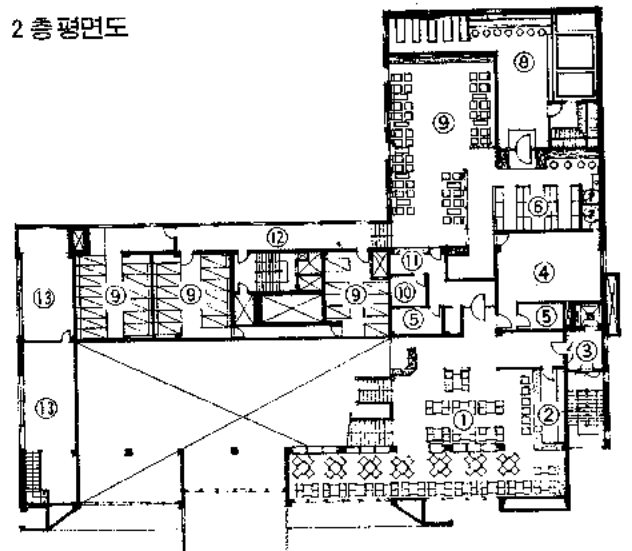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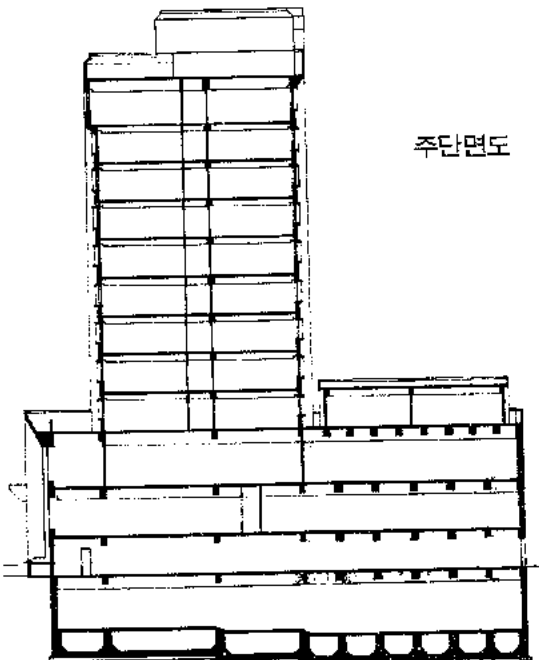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주단면도





부산 성 분도 치과병원 및 보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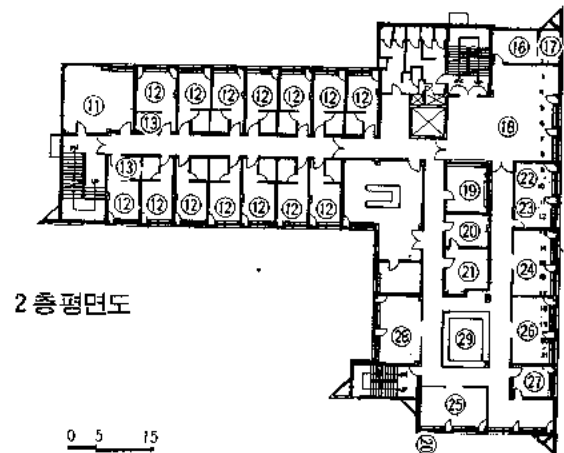
嚴 泰 伯
(嚴泰佑金東會設計)

소재지/부산시 남구 광안동319의 6. 대지면적/2,027㎡. 건축면적/970㎡. 연면적/2,876㎡.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 1층, 지상 2층.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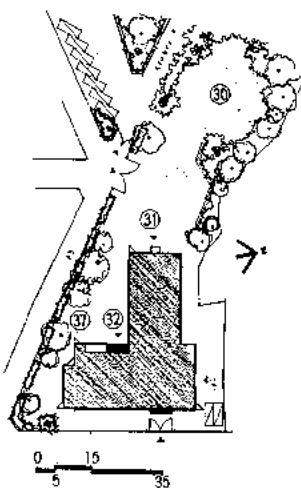
본 건물은 수녀원의 부속시설로서 보육원과 치과병원, 수녀원숙소 등의 복합용도로써 몇년간 사용된 후 장래에는 종합병원으로 증개축될것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일층의 보육실은 장래 병원의 각과 진료소로 이층의 숙소는 입원실로 개조될것이며 현재 2층건물은 5층까지 증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3가지 서로 독립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치과병원의 입구는 도로쪽에, 보육원 입구는 정원쪽에 그리고 숙소의 입구는 안쪽 수녀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별도로 배치하였고 장래에는 도로쪽 주입구로 로비를 통합할 수 있게 하였다. 외관 역시 장래증축에도 영향이 없도록 흰색타일로 재료를 통일하였으며 가능한대로 단순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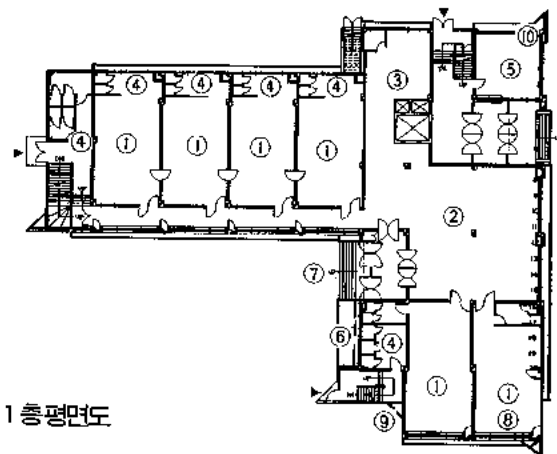


2층평면도

배치도



- | | |
|----------|------------|
| ① 보 육 실 | ⑩ 대합대기실 |
| ② 홀 | ⑪ 수무수납실 |
| ③ 원 장 실 | ⑫ 재료창고 |
| ④ 화 장 실 | ⑬ 외사후계실 |
| ⑤ 대 기 실 | ⑭ 응접상담실 |
| ⑥ 보 육 원 | ⑮ 의 국 |
| ⑦ 화 단 | ⑯ 치주 과 |
| ⑧ 드라이에리어 | ⑰ 보존보철 |
| ⑨ 배기용 핏트 | ⑱ 구강외과 |
| ⑩ 배수용 핏트 | ⑲ 특 진 실 |
| ⑪ 식당, 주방 | ⑳ 소아치과 |
| ⑫ 객 실 | ㉑ 소독재료 공급장 |
| ⑬ 욕 실 | ㉒ 놀이터 |
| ⑭ 간호원실 | ㉓ 숙소입구 |
| ⑮ 세 면 장 | ㉔ 보육원입구 |
| ⑯ XRAY실 | ㉕ 식당입구 |
| ⑰ 입 실 | |



1층평면도





창원 한빛교회

安日成
(극동설계사)

소재지/경남 창원시 토월지구 44블록. 대지면적/885.34㎡
건축면적/501.01㎡. 연면적/1,798.59㎡. 구조/R C 조적벽
돌쌓기 경량철골 트러스지붕 착공/1981.5. 준공예정/198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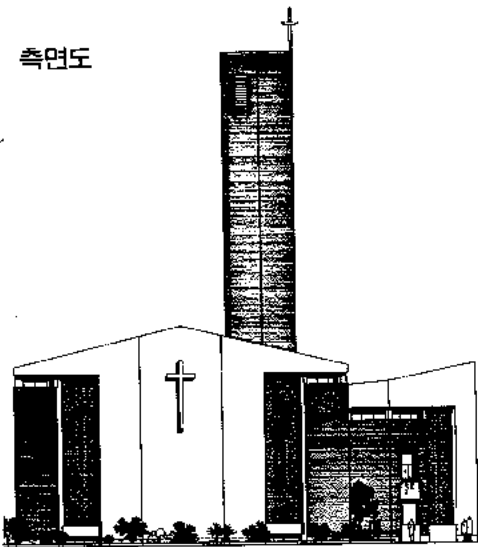
■ 設計概要

창원 신 시가지(新市街地)도시설계에 의해 교회부지로 지정된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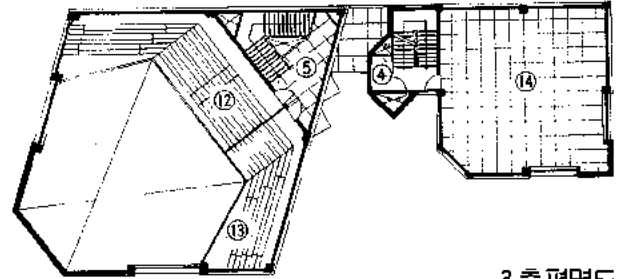
건축주의 요구하는 건축면적엔 부족한 느낌의 대지규모이나 이웃해 있는 시영 어린이놀이터와 3면이 접해 있는 도로를 교회의 여유허간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강대상을 향한 扇형 평면과 고창의 Stained Glass를 통해 비쳐오는 신비로운 광선과 후면 발코니 성가대의 찬양음악은 예배당의 분위기를 돋보이도록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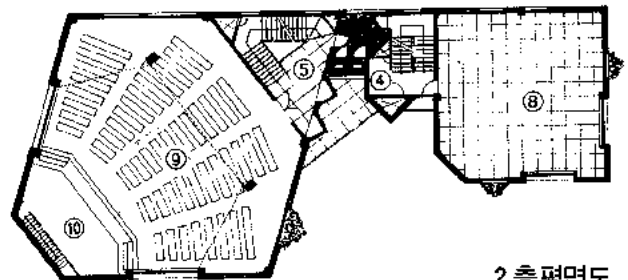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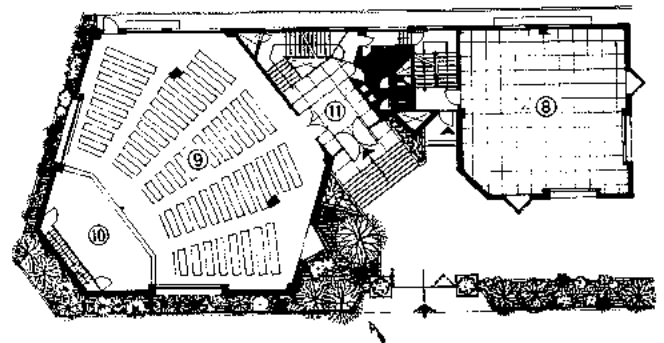
- ① 본 당
- ② 강 대
- ③ 회 의 실
- ④ 장 고
- ⑤ 돌
- ⑥ 보일러실
- ⑦ 연 돌
- ⑧ 다목적실
- ⑨ 예배실
- ⑩ 강 대
- ⑪ 로 비
- ⑫ 성 가 대
- ⑬ 모 자 실
- ⑭ 전 무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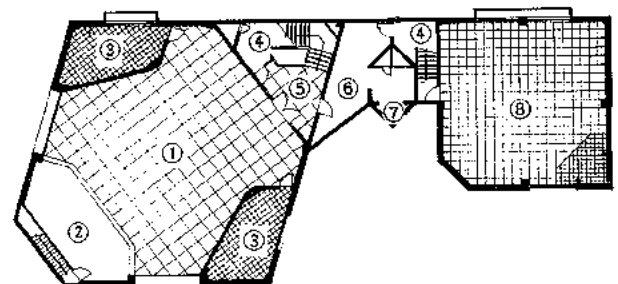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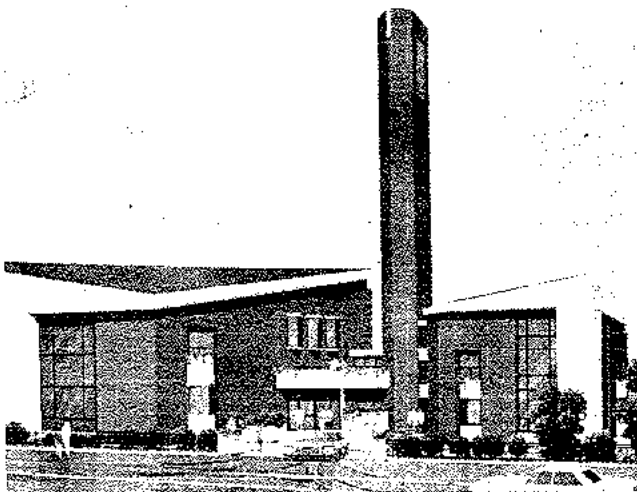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김 씨 주택

曹元植

(력키 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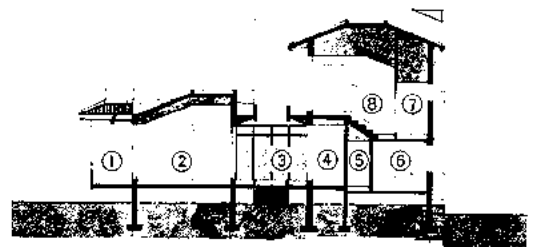
소재지/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97의44, 대지면적/208.65㎡, 연면적/167.94㎡, 건축면적/94.29㎡, 건폐율/45.19%, 용적율/76.23% 구조/벽돌조적조 외장/일부적벽돌, 치장마감-일부틀탈상 수성페인팅, 설비/오일보일러시설, 시공자/직영.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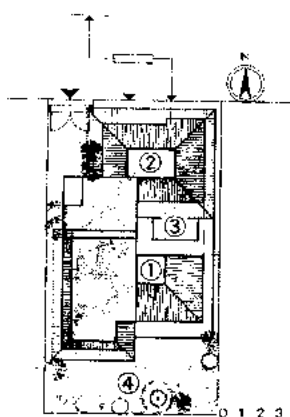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긴 대지라서 일조통풍상 계획에 무척고심했다. 거기다 북쪽도로라서 우선 현관 및 대문은 북으로 고정시켜놓고 계획할려니 고심은 더했다. 건축주의 취미가 분재 및 화초가꾸기, 매듭수를 좋아한다기에 중정(中庭)을 거실과 식당, 방의 중심에 두고 취미를 마음껏 살리고 동시에 일조 및 통풍을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에서 분수가있는 중정(中庭)과 앞뜰의 녹지를 함께 즐길수 있다는것은 조금 특이하다고 할까.....

외관은 주위와 조화있게 기와지붕과 평소리브로 했으며 넓은 옥상베란다는 두어 일광욕 또는 아침운동 장소로 활용하도록 계획해 보았다.



주단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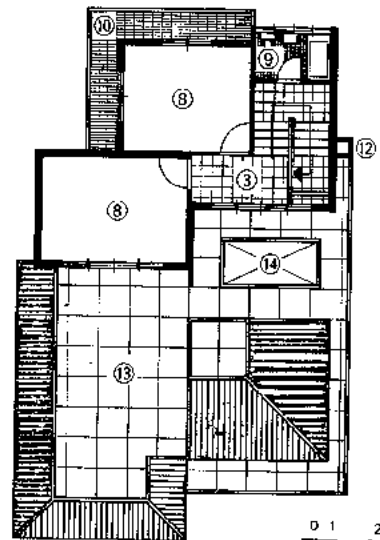
주단면도

- ① 베란다
- ② 거실
- ③ 분수대 및 중정
- ④ 복도
- ⑤ 광
- ⑥ 가사실
- ⑦ 욕실
- ⑧ 계단실

- ① 포지
- ② 현관
- ③ 복도
- ④ 거실
- ⑤ 분수대 및 중정
- ⑥ 식당, 부엌
- ⑦ 안방
- ⑧ 방
- ⑨ 욕실
- ⑩ 베란다
- ⑪ 광
- ⑫ 글독
- ⑬ 옥상베란다
- ⑭ 중정상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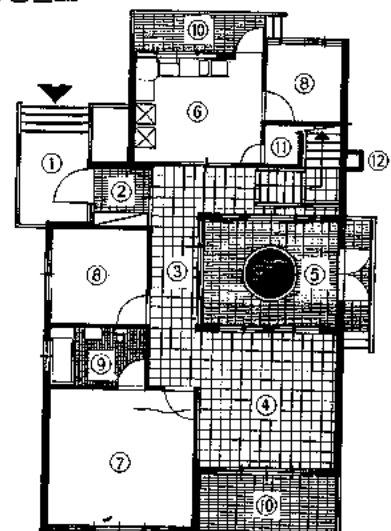
배치도

- ① 1층부분
- ② 2층부분
- ③ 중정부분
- ④ 마당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부산직할시 지부편

■ 다음은 부산직할시 市政과 長期綜合建設計劃을 都市計劃局 建築課長 朴致權氏와 對談 內容이다.

1. 지역사회 개발 촉진 방향

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

현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은 1972년도에 결정한 것으로 1986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270만 수용을 기준으로 384.692km²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경제의 급성장과 급변하는 도시화 경향으로 1980년도에 300만 인구를 돌파하고 김해 지역 일부가 편입되므로써 2,000년대의 장기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나) 장기종합계획(안)

(1) 목표년도 2001년

(2) 인 구 580만

(3) 도시계획구역 467.59KM²

(4) 주요관련 계획 촉진

- . 국토종합 개발 기본 계획 확정
- . 부산항 종합 개발 계획 확정
- . 부산역 이전계획 확정
- . 경부고속 전철계획 확정
- . 경부선 북부선 계획 확정
- . 낙동강 하구 개발계획 확정

(5) 기타 검토중인 사항

- . 인구수용을 위한 위성신도시 건설 계획
- . 고속 교통망 건설 계획
- . 공해공장 이전 및 용지 활용 계획
- . 공업단지 조성 계획
- . 도시기반 시설 확충 계획

2.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집단개발 방침

가. 아파트 지구 개발

(1) 지구지정 : 16개 지구 - 865,531 평

(2) 기 개발 : 8개 지구 - 434,486 평

(3) 개발예정지 : 8개 지구 - 431,063 평

(5개 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1) 사업완료지구

34개 지구 - 12,437,098평

(1개 지구 296,674평 시행중)

(2) 사업시행예정

2개 지구 - 423,000 평

다. 재개발 사업

(1)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결정

○. 대상지 - 도심부 상업지역

○. 면 적 - 40.96km²

(2) 재개발 구역 결정

부산역전 - 5,236평

봉래구역 - 52,861평

라. 개발방향

○. 도시발전에 따른 지역의 기능변화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집단 거점 개발.

○. 기존시설과의 관계 검토 - 조화유지

○.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유도

3.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정방책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 및 규칙의 제정 시행으로 행정재량의 범위를 좁히고 직무교육과 지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각허가 신청자와 건축규정의 통일을 기하며, 주택건설 촉진법 관계 규정의 개정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 강구와 허가 과정상의 사무처리 방법을 개선, 업무의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건축사 대행업무 제도는 명확한 책임한계를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4. 건축심의 대상물 심의 및 절차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시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건축허가 신청전에 별도로 시 본청에 심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처분에 있어서 예비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건축허가에서도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기타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설계 이전에 건축계획의 개요와 입지에 대하여 허가처분청에 건축가능여부를 문의하는 형식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건축사 업무와 시행령 전반에 대한 의견

건축사의 업무와 도시행정 특히 건축행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도시조형 대부분이 건축사에 의하여 계획, 실현되고 있을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 또한 막중한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지역을 위주로 행정업무 일부를 건축사에게 위임 대행케 하고 있어 건축사의 업무는 준 공적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대행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전연없는바도 아니며 특히 건축사의 처벌에 대한 기준이 가혹하고 현실적으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제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며 언젠가는 주택건축에 대하여 사전 건축허가 없이 준공후 건축사의 확인 신고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제 1570호 1981. 7. 10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 조 (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 영제1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기재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시내버스 터미널을 제외한다)
4. 교정시설
5. 영 부표 제 4항(근린 생활시설) 중 제 7호 내지 제 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공동주택(단, 2층 이하의 벽체만을 공유하는 연립 주택은 제외한다)

제 4 조 (전폐율 등) (1)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2)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영 제158조의 3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 6 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 7 조 (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 시설과 교육 및 연구시설(사설 강습소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 8 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 7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전시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9 조 (정의) 이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 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 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 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 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 1호 내지 제 4호에 제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 10 조 (건축심의) (1) 부산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의 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용도제한) (1) 제 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청과, 어물시장 기타 시장으로서 옥외판매장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전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임항지구 내의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5. 교정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묘지 관련시설
9. 동물 관련시설
10. 정육점, 세탁소(옥외에 세탁장과 건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장외사
11. 단독주택(공간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2) 제 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0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제 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0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제 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7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과 기숙사, 공동주택(벽채만을 공유하는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2. 제 2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3. 제 3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4. 제 4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5. 제 5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제13조 (대지의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 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에의 증축과 담장 및 10평방미터 미만의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종 및 제 2종 미관지구 : 3미터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제 3종 미관지구 : 2미터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3. 제 4종 미관지구 : 3미터 (안락미관지구 내 제31호 광장과 대로 2류 8호선 및 대로 3류 31호선의 연변에 한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 4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1)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의 구조상 또는 인접하는 기존 건축물·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종 미관지구	10	8
제 2종 미관지구	8	6
제 3종 미관지구	8	6
제 4종 미관지구	-	-
제 5종 미관지구	8	6

(2) 제 1종 내지 제 3종 및 제 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이하	50
4 - 10층	100
11 - 15층	300
15층이상	500

(3) 이 조례 제37조 내지 제42조 및 부칙 제 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높이, 색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1)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미관유지를 위한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미관유지를 위한 도로측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과 일체로 시설되어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8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1) 최저 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1. 전폐율 : 상업지역 $\frac{5}{10}$
기타지역 $\frac{3}{10}$
2. 용적율 : 상업지역 200퍼센트
기타지역 100퍼센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200평방미터

제19조 (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로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폐율 : 10분의 6
2. 용적율 : 800퍼센트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영제147조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운수시설(시내버스 터미널을 제외한다)
3. 고정시설
4. 영 부표 제 4항(근민생활시설) 중 제 7호 내지 제 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아이스크림 및 빙과 제조업과 식빵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의복 제조업 방앗간,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탁구장, 예능교습소, 독서실을 제외 한다.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1조 (용도제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영제148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종교시설

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4. 운동시설
5. 교정시설
6.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7. 동물 관련시설

제22조 (특정업무지구 내의 용도제한) 영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 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21조에 규정한 건축물과 기타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7 장 임항지구 내의 건축 제한

제23조 (용도제한) 임항지구내에서는 영제 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어항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어항시설과 그 부속 건축물 및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 또는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2. 소방시설, 보안시설, 급유시설
3. 조선소, 선박 또는 기관수리 공장 및 선가대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4. 해사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합숙소, 급식소, 공중욕장)
5. 보세창고 및 임항창고(냉동창고, 싸이로 등을 포함한다)
6. 여객시설
7.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제 8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4조 (전폐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종 공지지구 : 10분의 2
2. 제2종 공지지구 : 10분의 3
3. 제3종 공지지구 : 10분의 4

제2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공지지구 : 300평방미터
2. 제2종 공지지구 : 200평방미터
3. 제3종 공지지구 : 150평방미터

제26조 (대지안의 공지) 제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 9 장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7조 (용도제한) 공항지구내에서는 영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화학공장

4. 전파방해를 초래하는 전자공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제28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장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의 건축 제한

제29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전시시설
6. 근린 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간이음식점·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8. 교육 및 연구시설과 의료시설(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11장 재해위험 구역내의 건축제한

제30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 관련시설
3. 운동시설
4.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준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건축물

제12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31조 (벽면의 위치) (1) 영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하되 그 부분의 유효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통행인의 통행에 공할 부분의 바닥은 건축선에 접하는 부분의 도로면 높이보다 0.15 내지 0.2미터 높게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마감이나 포장을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환기 또는 채광을 위한 시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담장의 구조) (1)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담장의 높이와 구조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장 대지 내의 조경

제35조 (대지내의 조경) (1) 영제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평방미터당)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 60 낙엽수 : 4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낮은 나무)	0.4본 이상	

(2) 수종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1) 영제168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2) 공사비의 예치시기 · 방법 · 환율 · 가격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7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당해지역 ·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전폐율) 전폐율의 최대한도는 10분의 9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통지 지구 및 공인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180조 제 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전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39조 (용적율) (1)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로 한다.

(2)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 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공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 대지면적}}$$

제40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

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제168조의 2 또는 이 조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 실 · 설비 등은 제37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종전 규정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장 건축위원회

제43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171조 제 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4조 (조직)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7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 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3) 소 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5) 소 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전문위원)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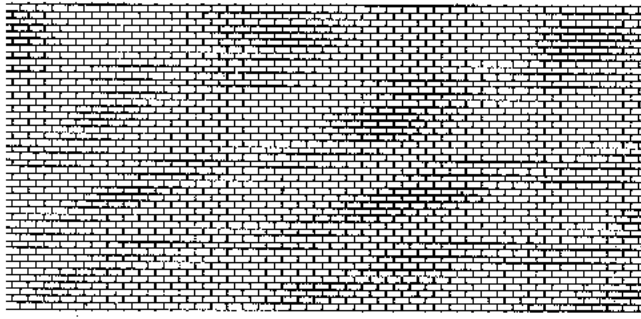
(2)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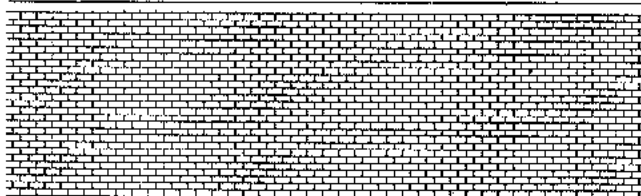
제49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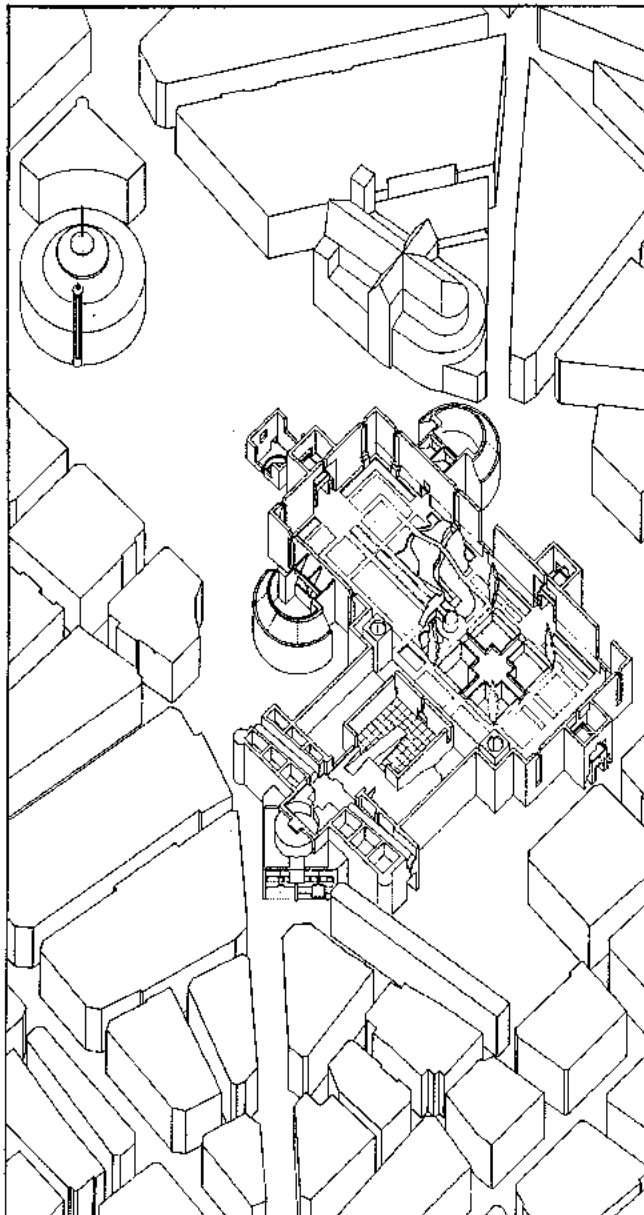
(P. 92로 계속)



月間建築情報



81. 5. 11 ~ 6. 10



再開發사업 83年末 完工예정

事務所빌딩만 建築제한

서울시는 總面積 5,516坪規模의 乙支路 1가区域에 對한 再開發事業을 늦어도 地下鉄 2號線 完工時日인 오는 83년末까지 끝낼 予定이다.

서울시에 依하면 乙支路 1가區域을 效果的으로 開發하기 爲해 지난 78년11월 모두 6개地區로 区分, 三星빌딩이 들어서는 제 3地區와 美大使館빌딩이 들어있는 제 4地區만 그대로 保全하고 나머지 4개地區의 建物은 모두 철어버린다음 1개地區당 1개씩의 大型事務所用빌딩만 세우기로 했다. 다만 서울市庁과 이웃하고있는 제 1地區는 建物을 全部철고 새로운 빌딩을 짓기로 했으나 다동과 境界線에 있는 삼흥빌딩(제일은 행 무교동지점 입주 건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區域의 再開發事業이 끝나면 7개의 事務所用빌딩만 남게된다.

7개의 빌딩가운데 3개빌딩은 既存建物이고 나머지 4개가 新築될 빌딩인데 地域全體의 均衡있는 開發을 위해 삼성빌딩 주변인 1, 2地區는 13층규모로 롯데호텔안쪽인 5, 6地區는 17층규모로 각각 짓기로 했다.

이같은 서울市の 靑写真에 따라 乙支路 1가 區域中에서 現在 工事가 着手된 곳은 제 6지구 1,400평으로 1가지역중에서는 가장 넓으며 울지로압구에 인접해 있다. 제 6지구의 사업시행자인 OB그룹은 1,400평중에서 31%인 430평의 땅에 17층짜리 건물을 짓고 나머지땅은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5년간 自然綠地 집중開發

坪당10만원 이하宅地

택지3,795만평을 개발공급기로 확정했다. 건설부가 確정한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이기간동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택지3,795만평을 개발, 이가운데 1,425만평을 住公동이 짓는 주택용지로 공급하고 나머지 2,370만평은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민간주택 건설업자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연도별 개발계획은 계획초년도인 82년에는 총650만평을 개발 250만평을 공공주택용지로 4백만평은 민간건설업자 등에 분양하며 83년과 84년은 똑같이 715만평씩 개발 공공주택용지로 275만평 민간건설업자등에 440만평을 각각공급기로 했다. 85년에는 780만평을 개발 300만평을 공공주택용지 480만평을 민간건설업자등에 분양하며 86년에는 845만평을 조성해서 공공주택용지로 325만평 민간업자용으로 520만평을 분양하도록 했다.

정부는 도시주변의 자연녹지를 집중개발 택지로 조성할 예정인데 자연녹지를 개발하면 개발비용이 비교적 적게들어 부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수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 당국자는 올해를 기준으로할때 공공주택용지 건설 택지는 평당10만원선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수 있게 된것은 택지조성비용이 적을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익자부담 원칙에따라 입주자들이 부담했던 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기간동안 민간건설업자등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할 택지는 총4,840만평에 이를것으로 추계된다. 건설부는 이민간부문에서 82년 960만평 83년 920만평 84년 1,000만평 85년 960만평 86년 1,000만평등 총4,840만평이 조성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정부는 5차 5개년계획기간동안 공공주택 57만가구 민간부문에서 89만가구등 모두 146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下半期계획工事 물량確保難 殘餘分 대부분 新規로 競合예상

政府는 景氣浮揚과 雇傭増大를 꾀하기 위해 公共部門의 各種施設事業을 1·4分期중 集中的으로 發注함에 따라 建設業界는 余他産業分野보다 比較的 好況을 보였으나 下半期の 物量確保에 적지않은 苦衷을 겪을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政府가 이期間중 早期執行한 建設事業은 大部分이 年次繼續事業으로 展開해온 事業들로서 今年度에 施行計劃한 全体事業量の 約60%에 該當되고 있으며 特別 政府는 繼續事業으로 施工해온 모든事業을 完工爲主로 施行하고 新工事業의 작공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어 하반기의 물량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또 정부가 4월이후에 시행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확량의 40%에 불과한데다가 대부분이 신공사업으로 밝혀지고 있어 건설업체간의 수주전은 더욱 치열한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違法건축물 根絶대책 講究 연대처罰제도 強行키로

서울시는 날로늘어나고있는 違法建築物發生을 予防 根絶하기 위해 앞으로 違法建築物이 發生할 때에는 建築法등 關係法規를 最大限 活用 違法建築關係者인 監理者, 建築主, 施工者에 대한 連帶處罰制을 強行할 方針으로 있어 그 귀추가 注目되고있다.

서울시는 이와 아울러 건축상제도를 新設, 模範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등을 表彰하는 方案도 併行 推進하고 있다.

서울시가 위법건물발생 根絶策으로 이와같은 苦肉之策이나 信賞必罰主義를 채택하지 않을수 없게된 동기는 그동안 계속 實施돼오고 있는 合同点檢에도 不拘하고 위법건물발생 件數가 끈질기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들 事例의 大部分이 건축주나 공사감리자 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등의 故意的인 野蠻 默認등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최근 조사한 위법건물現況에 의하면 合同点檢結果 摘發된 위법건물이 지난 78년에는 450건에서 79년에는 638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644건으로 다시 늘어나 3年間 摘發된 위법건물이 모두 1천732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類型別로 보면 無斷増築이 971건으로 全体의 折半이 넘는 56%에 達하고 있으며 다음은 △無斷用途變更214건(12.4%) △地層規定違反142건(8.2%) △무단구조변경131건(7.6%) △소경기리위반107건(6.2%) △건축설침법32건(1.8%) △其他 135건(7.8%) 등 順으로 나타났다.

毎年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는 위법건축물의 大部分이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등의 故意的인 야합 또는 默認등에 의해 生

行되고 있다는데에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있다.

대형건물 도로변서 6m확보돼야 현행규정으로 空間확보어려워

서울시는 도로변의 공간확보를 위해 현행 그대로 채있는 도로변 대형빌딩의 건축선을 최소6m이상 뒤로 후퇴시킬 방침이다. 20일 서울시에 의하면 현행 건축조례에는 1~5층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기준이 3m로 규정돼 있으나 고층 대형건물의 경우 3m로는 도로변 공간확보등에 문제가 많아 이보다 2배이상 더한쪽으로 후퇴시켜 짓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빌딩을 지을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만 후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본건물은 물론 계단등 부속구조물도 6m이상 뒤로 물러나도록 해야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게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고층 대형건물을 도로변에 바짝 잇대어 짓기때문에 도로변미관을 해치는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도로변에서 3m안쪽에 설치된 화단과 녹지대등을 조경면적에 포함시켜 주었으나 앞으로는 6m이내에 설치된 경우 조경면적에서 제외시켜 건축심의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변건물들이 계단이나 화단등을 건축후퇴경계선지점에 바로 설치 대지와 보도의 분리경계선을 하도록 했으나 그자체가 조경이나 공간확보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보행자에게 통행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았었다.

콘도미니엄건설 活氣 東草에 1천80실 규모착공

지난해 국내처음으로 선보인 분양용호텔(콘도미니엄)에 2번째로 南太平洋레저타운이 참여하는등 콘도미니엄건설이 본격화 되고있다.

韓國 관계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국콘도미니엄에 의해 처음 착공된 분양용호텔은 관광부동산 건설업체의 관심대상이 되고있는데 明報그룹의 南太平洋레저타운이 오는 6월분양 예정으로 1천80실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최근착공했다. 東草 市 章沙洞 雪嶽山부근에 세워진 1천80실규모의 분양용호텔은 南太平洋레저타운이 이곳50만평의 부지에 건립할 종합관광타운에 포함되어 있는데 南太平洋레저타운은 분양호텔이와 객실 129실의 호텔 18홀규모의 골프장, 수영장, 동식물원, 야외극장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편 慶州 雪嶽山에 143실의 분양용호텔 착공실적을 가진韓國콘도미니엄은 오는 6월 濟州의 90실등 연내 500여실을 착공할 예정으로있다. 가족단위의 관광추세에 따라 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있는 분양용호텔용은 1인 1실소유에서 공동 1실형태로 바뀌어지면서 각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체인화 추세에 있다.

86년까지 住宅117만호건설 財政지원확대 住宅基金조성

정부는 올해부터 95년까지 15년동안 5백만호의 주택을 건

설하는 장기주택건설계획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올해부터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 6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65만호 민간부문에서 1백6만호등 1백71만호를 건설하고 6차 5개년 계획기간(87~91년)에 공공부문에서 75만호 민간부문에서 1백1만호등 1백76만호를 짓기로 했다.

또 7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60만호 민간부문에서 93만호등 1백53만호를 건설하여 15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2백만호를 민간부문에서 3백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건설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재정에서의 공공주택자금지원을 현재의 0.5%에서 2%까지 높이고 국민복지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 통화추제에서 제외 모두 주택건설에 투입키로 했다. 이같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억9천만평으로 1억3천만평은 공공부문에 1억6천만평은 민간부문에서 개발키로 했다.

호당 택지규모는 공공주택 25평 민간주택 80평으로 책정했다.

서울도심 30층까지허용 文化財 주변 환경조성도

서울 4대문안 도심지의 건축고도규제가 풀려 주변여건에 따라 최고 30층까지 세울수 있게되었다. 서울시는 22일 「도심건축물의 고도기준조정안」을 발표 79년 4월부터 4대문안의 신축건물 고도를 12~15층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오던것을 지역별로 세분해 건물높이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지역으로 이전 빈터로 남아있는 서울고등 10개학교 부지는 근린공원 사적공원 주차장등으로 개발키로 했다.

서울을 역사적 수도로 보전하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이계획이 마련된 것이라며 「건물높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남산과 북악산의 경관을 차단하지 않게 도심경관을 살리도록 도심부 스카이라인을 조정했으며 특히 고궁과 사적지등 문화재 주변의 건축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기준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별 고도기준

- 롯데호텔주변과 을지로 1가일대는 25층이하
- 3.1빌딩주변과 종로 2가~을지로 2가. 종로 5가지역 20층이하
- 중앙청과 경제계획원주변과 퇴계로 남쪽 10층
- 사적터널에서 비원에 이르는 을곡로 북쪽은 북한산 경관유지를 위해 5층이하
- 종묘, 경복궁, 덕수궁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5층이하
- 세종로 부교동 종로 3~4가동 기타지역은 15층이하.

서울시는 인접기준건물의 높이 교통량처리 상하수도 여건등을 감안해 규제층수의 20%범위안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핵심부인 롯데호텔주변은 최고30층까지 신축이 가능케 되었으며 남산과 북악산의 경관을 위하거나 문화재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지역이 야난곳에서도 융통성있게 조정될 수 있게 했다.

중앙청앞의 세종로와 을지로등 주요간선도로변은 소규모 건물들이 멋대로 들어서 노변건축물의 경관을 차지못하도록 분별로 건물의 높이 규모등을 일정기준에 맞도록 건축계획을

세울방침이다.

4대문안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종전대로 45%, 용적율은 670%로 유지된다.

△문화재 주변고도

국보 보물사적 및 지방문화재등 모두 122점의 문화재의 주변경관에 손상이 없도록하고 특히 4대문안의 남대문(국보 1호) 동대문(보물 1호) 10개소의 고궁등에 조화될 이룰 수 있도록 건물고도가 조정됐다.

고도기준은 문화재의 구역경계담장이 있는 지점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해 양각 27도의 사선으로 건물고도가 규제된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된 남대문과 동대문주변 50m까지 보신각 독립문등은 주변 20m 구역에 대해 건축을 통제하고 이문 화재 높이의 2배지점에서 양각27도의 斜線으로 건축고도를 제한해 높은건물이 주변에 들어섬으로 이문문화재의 경관이 차닫되지 않도록했다.

環境영향평가 아파트에 첫적용 高速道路 옆 防音시설도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가 서울시내에서 아파트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는 한신공영이 강남구 잠원동 59에 건설키로한 17평 및 25평형 아파트 287가구분의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한신공영에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소음부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청부토록 지시했다. 한신공영이 아파트를 건립키로한 강남구 잠원동일대는 경부고속도로 중앙지점에서 70m떨어진 지역으로 평시소음이 70~80 데시벨이다. 한신공영측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첨부자시에 따라 해당지역의 소음을 정확히 측정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소음측정치인 60데시벨이하로 떨어뜨리는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고속도로변의 소음방지책으로는 도로변에 3~3~6m의 방음벽을 설치 또는 수림대를 조성하거나아파트창문을 2중 유리로 시설하는등 여러방안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는 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에 의거 환경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공간조성 도로건설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공항 및 항만건설등 10개분야에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건설중인 지하철 공사등 3월이전에 사업승인이 났기때문에 이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商街빌딩 分讓 賃賃늘어 住宅景氣 장기침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 또는 임대 대행업체는 지난78년 8.8 부동산투기 억제조치 발표이후 판매부진이 심각했던 주택을 대상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주택경기외 장기침체로 전문화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상가 또는 상가겸용사무실빌딩의 신축이 늘어나면서 다시등장하고 있다. 현재서울 西大門구 弘恩동의 뉴시라노상가의 임대대행을 맡은 雄志開發은 분양 임대대행업무외의 시장 상가등의 설계 감리용역까지 맡고있으며 올들어 발족한 주식회사 金山의 경우 이달중에 서울江北지역의 재개발지역에 짓고있는 2개상가의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연립주택등 주택분양의 전문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또 사무실빌딩이 몰린 여의도 상가신축이 많았던 永東 千호 동등지에서도 임대 및 분양을 사업주대신 전문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부동산소개업소가 소개업의 대상을 바꾼데 불과하며 계약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연립주택에도 아직 부동산소개업소들이 분양대행을 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자들이 2중계약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지않으나 외국의 예를 볼때 자금력이 있는 분양대행 전문업체의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부산·제주에 관광호텔 건립

총 1천5백여객실 확보계획

교통부는 국제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外來觀光客의 입국자가 점차증가됨에 따라 관광호텔의 객실수를 크게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월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관광객은 32만7천명으로 작년동기 33만1천명의 92.7%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5월들어 日本의 2차에 연휴와 국내외의 경기회복 추세로 관광객수는 크게 늘어나 지난20일 현재 40만8천명이 입국 지난해 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外來觀光客증가 추세에 따라 한때 손님이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해오던 관광호텔들의 이용률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 다시 중심가의 호텔들은 거의 예약을 못할 정도로 붐비고 있다. 따라서 교통부는 급선급으로 서울 부산 강원도 전북 전남 제주 등 7개지역에 9개의 관광호텔을 신축토록 함으로써 관광호텔의 부족현상을 해소토록했다. 물론 현재 국내관광호텔이 外來觀光客 입국자들의 평균적 이용률을 분석해보면 절대부족한 것은 아니다. 다만 관광성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어 호텔부족현상을 빚고있는 것으로 밝혔다. 교통부의 연도별 관광호텔 확충계획을 보면 우선 금년도에 9개호텔에 1천5백13실을 비롯하여 내년도에는 外來觀光客 1백35만명 유치계획에 1천8백실을 확보하고 83년에도 1백50만명 유치에 2천5백84년 1백65만명유치에 2천5백85년에 1백80만명 유치에 2천5백86년에는 2백만명 유치에 3천5백실을 각각신축 모두 3만3천8백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위해 교통부는 이미 지난4월말경 현재건설중에 있는 20개호텔(3천2백70실)에 대해 관광개발진흥기금 1백79억7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2백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부는 국내관광호텔의 효율적인 이용률제고를 위해 계절별로 관광객유치계획을 세워 겨울철에는 스포츠 및 등산 등 취미관광객유치에 집중 노력할 방침이다.

아파트착공 8개회사에 불과

78년이후 가장低調

주택경기침체에 따라 53개주택건설 지정업체 가운데 올들어 분양용 아파트를 착공한 업체는 8개회사에 지나지않아 78년 이후 가장저조한 실적을 보이고있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착공실적을 가진 업체중에는 삼익주택이 益益工營의 444가구와 釜山の 5백76가구를 합쳐 1천20가구로 유일하게 1천가구선을 돌파했으며 宇成建設 6백69가구 韓信工營 5백76가구 럭키開發이 5백60가구로 5백가구를 넘고있다.

이밖에도 新東亞建設이 4백95가구 파이프住宅이 4백 77가구로 각각 1개아파트를 착공분양한데 불과하며 大林産業이 4백가구 지난해 2천66가구로 민간업체의 랭킹 1위를 차지했던 三湖住宅은 불과 60가구의 실적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大韓綜合建設이 22가구 京南企業이 15가구의 연립주택 착공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지정업체들의 연도별 착공실적은 지정업체 지정첫해인 78년에는 35개사에 달했으나 79년 32개사 지난해에는 27개사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商街분양시 계약자보호대책

先受金으로 工事費충당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등 분양용주택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계약자를 위한 보호제도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주택이 있는 주택건설지정업체의 연대보증 주택사업등록 업체의 건설공정 20%이행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고작이며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등 선수금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마련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분양용건축물이 주택이외 상가 사무실빌딩 호텔등에까지확대되고 있으나 이들 건축물의 분양기준이 없어 분양용 빌딩의 대부분은 착공직후부터 분양을 개시 계약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건축공사비로 충당해 오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로 판매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사업주의 부도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지연등의 사례가 많다. 분양용빌딩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20여개의 분양용빌딩이 몰려있는 여의도지역에서는 새로 5천5백여평의 지상 13층짜리 상가점용 사무실빌딩을 지으려는 0建設등 일부업체가 계약자보호 판매촉진책으로 빌딩분양에 보증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大韓保證保險은 아직 분양용상가나 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주가 정식으로 보험가입의의를 해온적이 없으며 또 1~2개 빌딩만으로는 보험사의 위험도가 높아 문제점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계약자가 납부한 선수금 중도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중도파산에 따른 사회적인 물의를 막기위해 관제당국과 분양용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大韓保證保險과 선수금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에는 光州은행노동조합이 光州시에 건설할 20평형45가구 연립주택인데 주택업체인 松江住宅과 大韓保證保險이 체결한 5억 6천만원의 선수금 반환지급보증이다.

援護대상자 住宅구입 지원

2천家口에 총75억원

정부는 총75억원을 투입 무주택원호대상자 2천가구에게 주택구입을 지원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원호대상자의 자립 자활 사업지원을 위해 총53억원의 예산을 들여 1천 6백60명에게최소 3백50만원까지 농장 및 사업자금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南 국무총리는 援護의달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 「기업인들은 오늘의 국가발전이 있기까지는 國家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國家유공자의 희생이 무엇보다도 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국가유공자의 취업과 자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南총리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받들고 그분들의 가족을 위로하며 보살피는 일은 국민모

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국가유공원호대상자를 돕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안보요원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길인 동시에 국민의 護國 의식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鍾浩원호처장은 6월원호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금년원호의 달은 국가유공자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호처는 특히 원호의 달인 6월중에 모두 8천명의 취업희망대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각기업체와 협조 권장할 예정이며 •영세집단촌 7개소 •주거환경개선대상집단촌 •집단마을 4개소등 총13개소의 집단촌을 중점지원해 주기로했다.

원호처는 오는 9월중에 「韓國원호복지공단」을 새로 발족시켜 국립재활원과 국립원호병원을 흡수 관리하여 상이자에 대한 최상의 의료시혜와 복지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장기복무세대군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특별원호법을 개정 20년이상 복무한후 세대한 장기근무하사관중금년 4월이후 세대한 사람에게는 직업보도와 자녀교육보호 및 주택지원을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새로 제도화할 전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책중 직업보도와 주택지원사업은 오는 7월부터 자녀교육보호사업은 오는 82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알려졌다. 이밖에 원호처는 종교계를 통한 6.25상기 특별집회등을 가져 국민의 원호의식을 선양하고 현충탑 애국지사묘역가꾸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펼 계획이다.

국민주택 2년내 轉賣금지

일반50% 직장조합40% 분양

정부는 저축을 많이한 가구에 국민주택(공공주택)의 분양우선권을 주는것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정 23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시행돼오던 국민주택請約부금제는 이날부터 폐지된다. 22일 건설부가 확정발표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제실시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공주택공급을 일반50% 단체(직장주택조합)40% 특별분양10%로 나누어 일반분양자의 경우 12회이상 불입자를 1순위 12회미만의 납입자를 2순위로 정했다.

기존국민주택청약부금가입자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서울 부산 대구지역은 82년12월말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중장기복지주택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새제도에 가입할수 있도록 했는데 중장기복지주택부금 가입자가 6월말까지 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지금까지 부은 부금금액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것을 막기위해 공공주택 입주자는 입주후 2년이내에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한편 주택은행도 22일오후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제도의새부시행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주택선매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한 융자금액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는데 7평 이하는 3백20만원까지 10평이하는 4백40만원까지 13평이하는 550만원까지 15평이하는 6백만원까지 15~25평 3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15%로 하되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계약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18%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建設用地 2백12만평 매입

보상액 1백21억원

정부가 올해 각종건설사업을 위해 사들일 땅과 보상금은 모두 2백12만3천8백36평에 1백21억6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2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사업용지 및 철거물보상계획에 의하면 올해 건설사업을 위해 사들일 땅은 논67만6천46평 밭69만64평 대지6만5천6백38평 입야57만8천5백9평 기타잡종지1만3천9백7평등 모두 2백12만3천8백36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7만2천평 原州지역 23만4천평 大田 56만4천평 이리 4만8천평 光州 11만8천평 大邱 20만 1천평 부산 1만3천평 제주지역과 작년도이월분 37만3천4백58평 등으로 되어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건설사업은 중화학 관련사업 23건 도로 87건 치수40건 상하수도건설4건 지역사회개발10건 방파제 축조 등 기타76건으로 모두 2백40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1.4분기중 보상금을 지급한 땅은 26만4천31평으로 보상금액은 10억9천8백만원으로 올해계획의 9%가 집행됐다.

住宅事業 업체 資金難심화

규칙개정으로 分讓時期 늦어져

주택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종래 주택분양시기인 공정의 20%를 건축에서 전체공정으로 바꿔 아파트의 경우 전체층 절반이상이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때로 규정하였는데 이에따라 주택사업 등록업체들은 아파트를 착공한 후 2개월이면 가능했던 분양시기가 1~2개월 늦춰지게 되었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시기를 재조정함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조기분양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53개주택건설기업체에 비해 10층이상의 고층아파트에서는 주택사업등록업체의 분양시기와 더욱 격차가 벌어져 등록업체들은 그만큼 자금의 부담이 가중케 되었다.

78년 8월8일 부동산투기억제조치 발표이후 주택분양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특히 주택사업 등록업체의 주택신축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올들어 5월말까지 서울지역에서 분양에 나간 아파트 5천10가구중 주택사업등록업체의 비율은 7백2가구인 14%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업계는 주택사업지정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여 3~4개월이 지나면 총분양가의 50%정도까지 회수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는데 반해 주택사업등록업체는 이때에 비로소 분양시기에 도달해 계약자측으로서도 중도금납부 시기가 좁혀지는데 따라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연속사업을 위한 주택지매입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분양시기조건의 완화를 촉구했다.

무허가건을 대규모양성화

정기國會서 관계법개정

정부와 민정당은 3.25총선거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전국 무허가건물 45만3천여 동 중 38만3천여동을 陽性化할 방침이다.

전국의 무허가건축물은 지난 4월말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14만9천동 도시계획구역이외 30만4천동이 있고 거주주민은 2백70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 이번 9월정기국회에 관련법규등을 개정 대폭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樞樞장은 무허가건물 45만3천여동중 7만여동은 상습침수지구 및 재해위험지구로 移住가 불가피해 이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을 세운다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權총장은 國公有地를 불하할 것이라고 말하고 불하에 따른 수입은 상수도등의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무허가주택에 대한 제한도 해체토록했다.

재개발구역안의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되면 재산권을 인정받아 재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公共 公事 適正 工事費 책정요망

予定 價 減액은 不實 요인

건설업계에 의하면 현재 공공부문 공사발주에 있어 공사비 절감에만 치우쳐 발주기관장이 관례적으로 설계가격의 2~3% 심한 경우 5~8%까지 감액예정가격으로 시정하고있어 부실공사의 요인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저가격낙찰제의 제한 평균낙찰제로의 전환 계약금액조정 선급금 지급확대 기술개발보상제 채택등의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에정가격의 감액사정은 여전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공사의 성실시공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책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非住居用 아파트규제 완화촉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공동주택을 사무실 외상실 술집등 주거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일제단속 오는 7월15일부터는 고발조치토록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업무성격상 갑작스런 이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아파트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한계에 도달한 곳도 없지않아 획일적인 아파트의 비주거용 사용금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실로 아파트가 사용되고 있는곳은 서울지역의 여의도 반포 이촌동과 강북지역의 소규모아파트인데 韓國輸出品 구매업자협회의 경우 30여개업체가 아파트에 입주 아파트를 사무실 상담장소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숙박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텔렉스시설까지 갖춰 갑작스런 이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소를 이전할 때 외국거래업체와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이런 종류의 아파트사용은 무허가요정동

과 같이 단지의 주거환경을 해칠우려가 없고 수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목적의 비주거용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강릉등에 택지지정

건설부는 부산등 22개도시 31개지역의 3백46만6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지정 고시했다. 지난4월 12개지역 4백60만1천평에 이어 모두 8백6만7천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이날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된 예정지구는 86년까지 공공부문 소요택지 4천2백25만평을충당하기 위한 2차분이다. 예정지구를 도시계획구역상 용도지역별로 분류하면 주거지역 1백85만7천평 자연녹지지역 1백60만9천평이며 토지개발이 83년까지 택지로 조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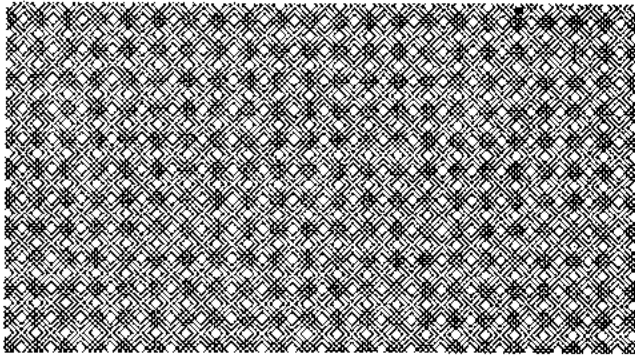
연립주택 20호이상 건축승인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업자가 한번에 50가구이상의 주택을 짓는 경우만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한번에 20가구이상을 지을때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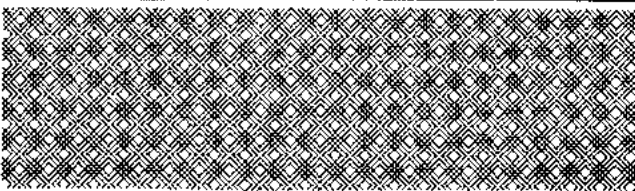
건설부에 의하면 이같은 방침은 군소 건설업자들이 부실한 연립주택을 지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슬한 말썽을 빚어온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주택건설 추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기준을 50가구에서 20가구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20가구이상의 연립주택건설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건설등록업체만이지을 수 있게되며 분양방법 하자보수 입주시기 시공감독등 여러가지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게되어 부실공사나 불법분양등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50가구미만의 주택건설은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군소업자들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을 짓는가 하면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 건설호수를 50가구미만으로 줄여 부실시공을 하는등 많은문제를 일으켜 왔다.

건설부는 이 같은 기준강화를 위해 이달안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建築行政相談



81. 5. 11 ~ 6. 10



- 建築法에 관한 事項 -

문 1 : 여윌공지가 많아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에 어떠한 때 인지요?

답 : 건축법 제39조 규정된 전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의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윌공지가 있을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2 : 주거지역에서 12m도로에 접한 대지는 여관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 : 건축법상에 가능하여 인근 학교와의 30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문 3 : 34평대지에 10평정도 주택을 짓고 별도로 10평을 증축, 세를 줄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 1단의 대지안에 부속건물이 아닌 별도건축물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문 4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지가 걸쳐 있을 때 건축법의 제한은 어떤 곳에 준하여 적용합니까?

답 : 건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의 건축물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建築法施行令에 관한 事項

문 1 : 주거지역에서 수영장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운동시설이므로 1,000㎡ 미만에서 가능합니다.

문 2 : 주택지하실에서 2.4m까지 왔는데 조적도는 되는지요.

답 : 2.5m까지 조적도가 가능합니다.

문 3 : 연면적 산정시 창고부분은 용적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 해석중 연면적은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고 다만 지하의 주차장 대피호 거실 이외의 부분은 제외한다고 하므로 창고부분은 지하실 경우 거실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문 4 : 옥외계단이 바닥면적에 산입됩니까?

답 : 전폐율 계산을 위한 건축면적에는 산입되나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문 5 : 기계실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답 : 예, 연면적에는 포함되나 용적율(령160조) 계산에 있어서 면적에 포함 않습니다.

문 6 : 합숙소 신축시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띄워야 합니까?

답 : 기숙사에 준하여
건축선 : 도로의 반대측 수평거리의 1.5배 높이 이하 인접대지의 경계선 : 령167조 1항 각호규정 참조

문 7 : 주거지역안에서 기존건축물 증축시에 일조권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기존건축물에 수직증축이 가능한지요.

답 : 주거지역안에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할 시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건축물 전체의 1/2 또는 1/4 이 되도록 정북방향의 인접거리까지 더어야 합니다.

문 8 : 공장건축에서 대피소면적 산정

답 : 건축면적의 1/10이상의 지하실이 있는 것으로 물탱크, 보일러실(기름탱크) 배관릿트등은 제외됨.

문 9 : 옥탑 면적이 연면적에 산입 여부

답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배관릿트등의 설비를 구조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10 : 학교 건축에서 천정고는

답 : 천정에 보가 없으면 천정까지며 보가 있을 때는 보밑까지를 높이로 한다.

문11 : 2층집 150m²을 질려고 할때 지하실의 면적을 얼마로

답 : 건축연면적 200m² 이상이면 지상면적의 1/10이상 지하실 면적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m² 이하는 3.3m²~16.5m²을 지하실 면적이거나 무개호, 유개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12 : 주거지역에서 20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지하실용도를 소주장(관람시설)이 가능여부 (1,000m²)

답 : 주거지역에서 1,500m²미만으로서 관람집회시설이 가능한 하나 문화공보실(시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릅니다.

문13 : 주거전용지역에 연립주택 가능여부

답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항에 해당되는 건축만 가능하므로 연립주택은 불가합니다.

문14 : 공공목욕탕 건축시 창호등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답 : 예.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문15 :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니까?

답 :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16 : 주거지역내에서 당구장은 허가되며 몇평까지 가능한지요.

답 : 주거지역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동일 건축물 안에서 60평이내의 당구장용도만이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17 : 주거지역에서 6m 도로변에 업무용 건축물이 가능한지요.

답 : 일반 업무용 건축물은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문18 : 반자높이 1.8m이하인 다락방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반자높이란 평균높이를 말합니까?

답 : 예. 평균높이를 말합니다.

문 2 : 연립주택의 대지최소한도는 얼마인지요.

답 : 연립주택은 1,00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3 : 미관지구내 지하층만 건축하려는데 미관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 네. 미관지구내 건축허가는 사전에 미관심의를 필해야 합니다.

문 4 : 주차장 1대 소요면적은 얼마인지요.

답 : 2.5m×6m 이상입니다.

문 5 : 도심내의 건축물 증축시 주차장을 인근 200M이내에 확보할 수는 없는지요.

답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대지내 있어야 합니다. (기존건축물의 주차시설확보 제외)

문 6 : 아파트의 노안정은 공유면적에 속하는지요.

답 : 편의시설이므로 공유면적입니다.

문 7 : A. P. T건축에 인동간격은?

답 : 건물과 건물(전면) 사이는 1.25배(전불높이) 측면은 0.625배 이상둔다. (대지경계선에서도)

문 8 : 풍치지구내 기존 60m²이상의 주택에 별도 60m 이하의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답 : 규정의 전폐율, 용적률 한도 내에서 증축 가능합니다.

문 9 : 50세대미만의 연립주택의 인동간의 거리는?

답 : 전불높이의 1.25배이고 경계와의 거리는 0.625배 입니다.

문10 : 강북지역의 4대문내(서대문) 주거지역 전폐율이 얼마입니까?

답 : 간선도로변은 40%이며 간선도로변 이외의 지역은 45%로 시행중입니다.

문11 : 미관지구내에서 12m를 벗어난 구역에 건축할 경우 미관지구내 건축기준을 적용 안해도 되지요.

답 : 80. 7. 25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미관지구 도로에서 12m를 벗어난 구역에 건축할 경우의 예외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미관지구내 건축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12 : 주거지역 2종미관지구내에서 예식장을 건축시 제한되는 내용은 어떤것인지요.

답 : 1. 도심반경 5km이내의 신규 예식장은 규제하고 있으며
2.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65m²당 1대씩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3. 예식장별로 예식실 면적의 1/3 이 되는 별도의 대기실을 두어야 합니다.

문13 : 도로에 접한 대지상에 직각주차 배치가 가능여부

답 : 도심지 보행, 차량이 번잡하므로 서울시에서는 직각주차 배치는 불가함.

문14 : 미관지구내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답 : 3m 이상입니다.

문15 : 상업지역, 2종미관지구의 전폐율 높이제한은?

답 : 전폐율 50%이하로 3층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建築條例에 관한 事項 —

문 1 : 25M도로에 연립주택을 시공코자 할 경우 6m 후퇴하여야 하는지요

답 : 연립주택은 6m 후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16 : 아파트 건축시 1단지내의 어린이 공원 경계선으로부터 일조권을 확보하여야 합니까?
- 답 : 1단지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져 배치하여야 합니다.
- 문17 : 2종미관지구내 50m 남측도로변에 접한 대지상의 정북 방향에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하여야 합니까?
- 답 : 20m 이상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만 제외됩니다.
- 문18 : 강남 상업지역내에 전폐율을 50%로 적용하는지요?
- 답 : 한수이남에 한하여 상업지역내의 전폐율은 60%로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19 : 근린생활시설인데 주차장 면적을 250㎡ 당 1 대 비율로 시설하여야 하는지요.
- 답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면적은 150㎡ 당 1 대 비율로 주차장 시설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 문20 : 3, 8 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계산상 소요되는데 몇 대를 확보하여야 합니까?
- 답 : 주차대수 1 대 미만은 산점하지 않으므로 3 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 其他規程에 관한 事項 -

- 문 1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규모가 얼마까지 신고가 가능합니까?
- 답 : 1 층으로서 1,000㎡ 이하 2 층이상 1,0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문 2 : 지방에 빌딩을 건축하는 사람인데 공사감리자의 책임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한지요.
- 답 : 감리자의 날인 후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유효합니다.
- 문 3 : 기존건축물을 헐고 집을 짓고자 하는데 철거는 어떤 절차를 받아 해야 합니까?
- 답 : 철거는 허가없이 가능한데 철거 완료후 구청에 멸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문 4 : 집을 짓고자하여 설계도면까지 나왔는데 사정에 의해 짓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1년간 유효하며 3개월간 연기가 가능한데 그 1년 3개월 후의 주택채권과 설계도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 허가가 취소됩니다.
- 문 5 : 지목이 대지인 현재도로를 적용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 답 : 반드시 도로법등의 규정에 의거 고시가 되지않은 도로라도 기허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문 6 : 기존공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6 층인 건물인데 건축물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답 :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문 7 : 타인소유의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헐고 신축할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후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 답 : 관할 구청에 기존건축물의 멸실 신고후 대지소유자의 대지사용 승락서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문 8 : 주거지역에서 3 층건축하는데 1 층점토 2·3 층을 주택으로 하며 외부계단으로 처리되는지
- 답 : 당 시청방침에서 외부계단은 불가함.
- 문 9 : 기존 4 층건물에 수평증축 하였을 때 2 급건축사 설계 가능여부
- 답 : 불가능합니다.
- 문10 : 여러필지가 있을때 합병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답 : 동일인 소유일 때 합병한 후 건축허가 가능하며 타대지일때 사용승락서로서 여러필지로 가능하나 건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문11 : 산문에 무허가건물 양성화한다고 하였는데 가옥대장 면적보다 초과되는 건물도 구제가 됩니까?
- 답 : 현행규정으로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 문12 : 건축물 유지관리보고를 할 경우 대지내 여러 건물이 있을 경우 건축별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미만이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답 : 전체 연면적이 건축물유지, 관리보고 기준이 되면 보고를 해야합니다.
- 문13 : 연립주택의 인동간격은?
- 답 : 당해 건축물의 추너로부터 높이의 1.25배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문14 : 규칙 제10조 1항 4 조에 따라 석축에서 의무적으로 피워야 하는지요.
- 답 : 예, 경사로 이상으로 석축을 쌓아 대지를 조성한 경우에만 피워야 합니다.
- 문15 : 80. 9. 20 공동주택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감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답 : 80. 10. 1 부터 법이 발효됨에 따라 10월 이후 착공하거나 허가되는 공동주택은 종합사무실에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문16 : 72년 40세대 A. P. T를 지하, 지상 5 층을 건립되었는데 그 때 지하실은 대피소인데 상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답 : 동일건물에 지하실을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불가하므로 용도변경(상가)이 불가함.
- 문17 :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피어야 할 거리, 전폐율, 용적율, 기타사항은?
- 답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건물 높이의 0.625배를 피우고 도로경계선에서는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되고 전폐율 40% 용적율 100% 기타사항의 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준용하면 됨.

質 疑 · 応 答

(건축관계 법령에 대한 각지부 회원의 질의와 본 협회의 답변 요지)

(질의 1) : 개발제한구역에 A동 주택 90.84㎡ B동 우사 및 창고 28.62㎡를 허가받아 시공중이며 G.B 구역에는 주거용면적이 30평을 초과치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B동인 우사 및 창고에 방을 넣으면 B동 전체를 주거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경남지부)

(답변 1)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이외의 용도와 병용되는 건축물로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연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개념을 적용시킬수 있는바, 우사 및 창고(B동)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3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부속건축물의 용도로 적의 처리할수 있습니다.

(질의 2) : 건축물 유지관리 보수요율표중(주) 1에 명시된 “공사비”의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 (주식회사 스매크)

(답변 2) : 건축물 유지관리 보고의 보수산정시 공사비는 유지관리보고 시점에서 환산한 건물공사비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질의 3) : 건축법시행령 제180 조사항 단서 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5/10에 대한 유권해석.

- 1)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대지는 시 조례로 정한 경과조치로 5/10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여부.
- 2) 당대지는 상업지역 제2종 비관리지구이며, 73년 9월 1일 전 기분할되었고 기타 시 조례규정에 적합한 면적 210㎡ 대지임. (제주도지부)

(답변 3)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건축조례준칙: 건설부령 제503

(81. 12. 22) 참조] 부칙 제4조(경과조치)의 적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80조(적용의 특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동 시행령 동조동항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시의 조건을 적의 도입시켜야할줄 사료되오며, 귀 질의 2)의 사항중 기준시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질의 4) : 합동건축사 사무소일 경우 건축사법 시행령 제28조(등록사항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자의 범위가 소속건축사 전원이 서명날인(규칙 제7조의 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신고사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회시요망. (부산시지부)

(답변 4)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에 의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 폐업등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건축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5) : 전설업법 제4조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별동으로 495㎡ 미만이 되는 건물을 증축하는데 전설업 면허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지의 여부
- 2) 495㎡ 이상되는 기존건물에 495㎡ 미만을 이어서 한 건물로 증축할때에는 전설업면허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지의 여부
- 3) 495㎡ 미만의 기존건축물에 495㎡ 미만을 증축함으로서 495㎡ 이상이 될때에는? (전북지부)

(답변 5) : 전설업법 제4조 2항에 관한 시공업자 선정여부에 대하여 일반건축물 661㎡, 특수 건축물 495㎡ 이상이면 기존건축물과 관계없이 신청연면적에 준함을 회시합니다.

(질의 6) : 회원이 “건축(증축, 개축) 신고서”(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도서신고를 요구할때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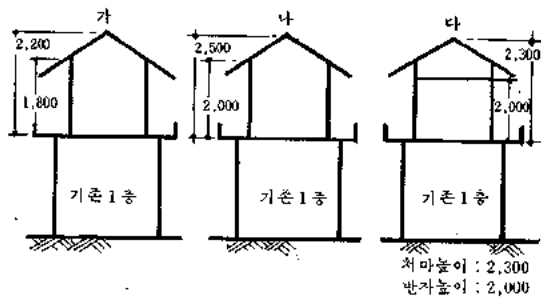
다 음

1. 신고서에 건축사의 날인하는 곳이 없음에도 도서신고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도면에만 건축사의 날인이 되어있다면 도서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도서신고를 한다면 실측시비는 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 30㎡미만은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 및 신고를 할수 있는데 협회에서는 실적회비

를 징수하지 않고 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지부)

(답변 6) :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①항에 의거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30㎡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4조에 의거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 감리를 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질의에 대한 요지는 위와같은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신고서에 건축사의 날인여부를 불구하고 건축사이건 건축사가 아니건 허가 관청에 의한 신고로서 만족할수 있으며 다만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라면 이미 건축주와 본건에 대한 수임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도서신고의 의무를 행하여야 하겠으며 도서신고의 경우 실적회비는 귀질의 3과 같이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7) : 기존 1층위에 아래도표와 같은 층을 건축하고자 하는바 중 2층으로 보는지 2층으로 보는지 그 구분을 회시바람. (경남지부)



(답변 7) : 상기질의에 대한 층수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3호 타목에 관련하여 동항7호(반자높이) 및 8호(층수)에 의거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바,

1. “가”도면 : 평균반자높이가 1.8m 이상이 되며 “나”“다”도면 : 반자높이가 1.8m 이상이 되므로 하나의 층으로 간주되어야 함.
2. 따라서 하나의 층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동령 제14조(거실의 반자높이)의 규정에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8) : 건설부령 제447호 제4조 별표3의 제2항 제2호 건축물의 높이 및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 대지의 인접건물까지의 거리를 위반하여

허가보다 1m이상 초과되었을시 1회에 한하여 6개월로 처벌규정한바, 건물의 위치가 상업지역으로 건축법및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허가보다 1.3m 초과되었을시 상기규정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경상북도지부)

(답변 8) : 상기질의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을 경우일지라도 허가사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건설부 훈령 제447(79.9.6) 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3의 제2항2호 다목에 의거 처벌됩니다.

(질의 9) : 건축법시행령 제23조 5항에 대한 구조계산자의 자격제한(20층이상이거나 경간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처미높이 56m, 최고높이 57m, 스펠 23m) (협화건축)

(답변 9) : 건축법시행령 제23조제5항2호 규정에 의하면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있는바, 질의한 건축물의 높이는 지상에서 최고높이가 57m로 층수구분이 불명확한 건물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8호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으므로 (57m ÷ 4m = 14.25 = 15) 층으로 산정되어 20층에 미달되며 건물 경간은 23m로 30m에 미달되므로 건축법시행령 제23조 제5항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 10) : 건축법 제7조3 (건축물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할사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가 행할수 있는지 여부? (경기지부)

(답변 10) : 건축법 제7조3(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는 사법부칙(77. 12. 31) ③호에 의한 업무범위에 의해 행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24일 공포된 建築士法 시행령 개정령과 6월27일에 바뀐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령제10,370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의한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1. 건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2.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제21조 제1항중 “정면도·평면도·추정공사금액”을 “설계도서”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중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建築士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士의 設計를 要하지 아니하는 特殊工法에 대한 設計圖書の 範圍에 組立式工法으로서 建築物의 工事費節減이나 工事期間의 短縮 또는 大量建設에 기여할 수 있는 工法에 관한 것이라고 建設部長官이 인정하는 設計圖書を 追加하고, 設計圖書申告時의 添附書類를 簡素化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特殊工法에 대한 設計圖書の 範圍에 組立式建築物에 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令第3條第2項)

나. 設計圖書の 申告時 증전에는 正面圖·平面圖와 推定工事金額 및 設計契約書寫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簡素化하여 設計圖書와 設計契約書寫本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令第21條第1項) (법제처 제공)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80. 7. 25 조례 제1446호
1980. 10. 14 조례 제1465호
1981. 6. 27 조례 제1520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및 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구역, 재해위험 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조 (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영의 별표 2 (영 제142조 제2항 관련)에 게기하는 건축물.
2. 공 장 3. 창고시설 4. 운수시설 5. 교정시설
6. 영 부표 제4항 (근린생활시설) 중 제4호 (동물병원예한함)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철물상, 공구상
8. 저탄강, 야적장, 제재소, 목재판매소, 건재상

제4조 (전폐율 및 형질변경능) ①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3 이하로 한다.

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90% 이하로 한다.

제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7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다음표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비 고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양측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1층건축물	2.5	1.5	1.5
2층이상 건축물	2.5	1.5	2.0

제9조 (건축물의 규모등)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80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학교 건축물에 대한 적용특례) ① 풍치지구내에 학교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학교(전문대학 이상은 기존학교

에 함함)로서 주위 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까지, 높이는 5층(20미터 이하로 한다)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3층이상 각종의 바닥면적은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1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 기타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한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 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상업지역등 기타 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제12조 (건축심의)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외장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건축심의전의 협의) ① 미관지구로서 학교정화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어서는 해당 행정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의를 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시장 산하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은 미리 세부기준(지침)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개별적인 협의에 가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심의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지역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외점포가 있는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 취급 고물상, 철물점, 공구상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및 동물병원, 다만, 종합병원에 부속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연탄공장, 저탄장, 야적장
6. 제재소, 목재판매소, 목공소, 전제상
7. 양곡 가공업소(제과점 제외)식품 가공공장, 석재가공공

공장

8. 창 고
9. 세탁소(직접 세탁하지 아니하는 것 제외)
10. 작업소
11. 정육점
12. 공장
13. 단독주택(공관제외), 공동주택

다만,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제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다만, 제4호중 세차장, 영업용 차고, 자동차정류장 및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 이전계획에 따른 자동차부속상은 제외한다.
2. 위락시설
3.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
4. 전애 및 오물처리장
5. 동물 관련시설

⑤ 제5종 미관지구내에서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4호의 경우에 세차장을 제외한다),에 제기하는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1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660평방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330평방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330평방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250평방미터

제16조 (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높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영 제18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 경우 제1종 미관지구에서는 5층 이하, 제2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에서는 3층 이하로 함)와 아파트 건축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5층이상
2. 제2종 미관지구: 3층이상
3. 제3종 미관지구: 1층이상
4. 제4종 미관지구: 2~4층 범위내
5. 제5종 미관지구: 2층이상

②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 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은 위원회의 미관심의

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1 항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④ “ㄱ”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의 높이와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대지안의 공지) 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은 미관도로의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선으로 부터의 거리 (미터)	후면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제 1 종 미관지구	3.0	1.0
제 2 종 미관지구	3.0	1.0
제 3 종 미관지구	3.0	1.5
제 4 종 미관지구	3.0	1.5
제 5 종 미관지구	3.0	1.5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자유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은 그 건축면적을 8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 16조 제 2 항에 규정된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도로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물의 앞면 길이 (미터)	건축물의 옆면 길이 (미터)
제 1 종 미관지구	18	9
제 2 종 미관지구	12	6
제 3 종 미관지구	15	9
제 4 종 미관지구	-	-
제 5 종 미관지구	12	6

③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영 제180조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적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 의 수	건축면적 (평방미터)
3 층	150
4 - 5 층	200
6 - 10 층	330
11 - 15 층	500
16층이 상	800

제19조 (부속 건축물의 규모)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건축물의 모양) ① 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의 내각은 각각 60도 이상 120도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층에는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조할 수 없다.

④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옥상의 외장은 건축물 기타 부분의 외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하여 건축물 전체와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골뿔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 시설을 도로, 광장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미관지구 지정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므로서 도시미관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용도변경수선, 도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적용예외 제외) ① 미관지구내의 기존건축물로서 대수선 및 외장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타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1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 구역내의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미관

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4. 제 7 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치지구내의 높이제한으로 미관지구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경우

제 4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3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전폐율 : 10분의 3 이상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0평방미터 이상

제24조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만, 15층이상 건축물의 전폐율은 당해 용적율 최대치를 층수로 나눈 수치로 하되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상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일 반 건 축 물	학교 이적지내 건축물
전 폐 율	10분의 4.5 이하	3분의 1 이하
용 적 율	670퍼센트 이하	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5조 (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영 제147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제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 장
2.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3. 교정시설
4. 영 부표 제 4 항(근린생활시설)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일반업무시설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6조 (용도제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영 제148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제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 장
2. 교정시설
3.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4. 동물 관련시설

제27조 (특정업무 지구내의 용도제한) 영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 지구내에서는 제26조에 제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노유자시설, 기숙사

2. 관광휴게시설

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8조 (건폐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10분의 2
2. 제 2 종 공지지구 : 10분의 3
3. 제 3 종 공지지구 : 10분의 4

제2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600평방미터
2. 제 2 종 공지지구 : 400평방미터
3. 제 3 종 공지지구 : 330평방미터

제30조 (용적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60%
2. 제 2 종 공지지구 : 90%
3. 제 3 종 공지지구 : 120%

제31조 (대지안의 공지)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다음 표에 제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측면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후면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미터)
제1종공지지구	6	2	4
제2종공지지구	4	1.5	3
제3종공지지구	3	1	2

제 8 장 공한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2조 (용도제한) 공한지구내에서는 영 제1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제련소, 요업공장, 화학공장
2. 묘지 관련시설

제 9 장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3조 (용도제한) 자연환경보전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근린 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 간이음식점, 농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 생활시설

제10장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제한

제34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지역 및 지구 구분
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
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고 수위가 10.5미터일때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보다 1미터이상 높고 재해위험
구역외로 부터 당해 대지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
지안의 건축물
2. 자동차 관련시설
3. 동물 관련시설
4. 운동시설
5.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
도에 사용하는 준치기간 6개월 이내 가설건축물

제35조 (재해위험구역내의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 구역내의
건축물은 목조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와 위해로 부터 안전성
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
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부적합한 기존건물에 대한 조치) 재해위험구역의 지
정당시 기존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건축물의 개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37조 (벽면의 위치) 영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12미터
이상의 주전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기둥포
함)을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후퇴하여 제17조 제2항
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담장의 구조등) 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
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담장의 높이는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및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2장 대지내의 조경

제39조 (대지내의 조경) ① 영 제168조의 3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소요 조경면적에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
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소요수량의 50퍼센트는 높이 3미터 이상 흉고직경 5센티미
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평방미터당)
교	목	0.3 본 이상
(키가 큰 목질성식물)		(낙엽활엽수 50퍼센트이상)
관	목	0.5 본 이상
(키가 낮고 줄기가 가는 목본식물)		

② 시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수종·수량 및 방
법등 제반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공사시기 및 예치) ① 조경공사중 식재공사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8월)나, 동절기(12~2월)를 피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
에게 예치하여야 할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1급이상) 2인이상이 조
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내역서상
의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6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지정
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고경공사가 완
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치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1조 (조경기준 강화) 시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풍치지구내의 학교건축 제한을 완화한 경우 및 양호한 임
상을 훼손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
훼손의 범위를 최소화 하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
기준보다 강화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

제42조 (기준미달 대지내의 건축완화) 법 제53조의 7 제2항
및 영 제1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의 건축 완화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폐율
당해 지역·지구의 전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
하
2. 용적율
가.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
하인 경우 : 당해 용적율의 2배이하
나. 당해지역,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 초
과하는 경우 : 당해 용적율에 당해 대지면적 최소한도
면적율 허가 신청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곱한 비율 이
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
역·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 이상
4.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
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지구 이격 기준의 2분의 1
이상

제43조 (비관지구내의 적용특례)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로 인하여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규모 제한으로 건축제한 완
화가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거리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실, 설비등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가능회복과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
는 개축할 수 있다.

제14장 건축위원회

제45조 (구성) ①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국장이 된
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④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보조는 건축지도과에서 담당한다.

제47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협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 (회의록, 수당)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기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980. 7.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2. 서울특별시 종치지구 건축조례

3. 서울특별시 공치지구 건축조례

4.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례

6. 서울특별시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건축조례

③ [기허가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④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적법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잔임기간에 한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적용 받고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P. 75에서 계속 ·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부 칙

제5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 공치지구 건축조례(조례 제1150호, 77. 6. 17) 부산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조례 제1152호, 77. 6. 17) 부산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42호 72. 5. 15) 부산시 건축대지식수 및 조정조례(조례 제1463호 80. 6. 11) 및 부산시 건축위원회 조례(조례 제793호 74. 7. 8)는 이를 폐지한다.

(3)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기분할된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영제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81년도 下半期

政 府 勞賃單價

(1981. 7. 10부터 適用)

【單價基準適用要領】

- ① 이 勞賃單價는 原價計算에 의한 予定價格作成時 適用할 勞務費의 基準金額을 設定한 것이다.
- ② 이 勞賃單價는 1일 8시간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勤勞基準法 제43 조 및 同法施行令 제26조에 規定된 作業에 従事하는 職種은 1일 6시간을 基準으로 한다.
- ③ 이 勞賃單價는 基本金額을 表示한다. 따라서 契約의 性質上 勤勞基準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諸手当 또는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고는 그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수 없다고 判斷될 때에는 이 勞賃單價를 算出根拠로 한 諸手当 또는 退職積立金を 別途로 計上할 수 있다.
- ④ 國家技術資格法 제 4 조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에 合格한 者로서 同法 제 8 조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部処에 登錄한 技能系 技術資格取扱者를 特別히 使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同法 제10조의 趣旨에 따라 이 勞賃單價의 100분의 10 範圍內에서 一定額을 이 勞賃單價에 加算하여 適用할수 있다.
- ⑤ 이 基準에 明示되지 않은 職種은 이期間중 類似한 職種의 單價에 의할 수 있다.
- ⑥ 이 勞賃基準에 의하기 困難한 경우에는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받아 이를 調整한다.
- ⑦ 이 基準은 1981년 7월10일부터 適用한다.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공 사 부 문		방 수 공	7,710	아 스타 일 공	7,630	송 전 전 공	12,400
		폐 도 공(일반)	5,230	개 와 공	9,400	배 전 전 공	10,860
		보 선 공(철도)	6,150	스 레 트 공	7,460	프 랜 트 전 공	9,460
갱 도 부	6,360	잠 수 부(4인조)	47,450	화 약 취 급 공	9,800	내 전 전 공	8,370
조 선 목	9,630	잡 항 공	10,570	착 압 공	7,880	특고압케이블전공	14,450
진 속 목	8,400	보 량 공(지질조사)	7,890	보 안 공	6,370	고 압케이블전공	10,670
형 틀 목	8,110	우 물 공	7,270	포 장 공	7,130	저 압케이블전공	9,000
창 호 목	7,910	영 립 기 사	9,250	포 설 공	7,300	철 도 신 호 공	9,030
동 발 목 공(터널)	8,200	조 원 공	7,790	폐 도 공(철도)	7,600	계 장 공	9,010
첼 굴	8,860	별 채 지 도 인 부	6,490	통 신 외 선 공	9,670	전기공사기사 1 급	11,680
첼 공	8,060	타 일 공	6,490	통 신 설 비 공	9,460	전기공사기사 2 급	10,990
첼 근	7,330	줄 는 공	7,370	통 신 내 선 공	8,870	기 계 공	7,540
제 관 공	7,820	연 마 공(손갈기)	7,960	통 신 케 이 블 공	11,850	선 반 공	7,060
강 판 공	7,550	연 마 공(지제갈기)	8,400	무 선 안 테 나 공	10,880	정 비 공	7,280
대 장 공	7,110	콘 크 리 트 공	7,020	통 신 기 사 1 급	13,330	벨트콘베어작업공(남)	5,030
샷 다 공	6,200	양 생 공	7,020	통 신 기 사 2 급	10,600	벨트콘베어작업공(여)	3,000
삭 슈 공	8,090	바 이 브 레 타 공	5,820	통 신 기 능 사	9,960	현 도 사	8,970
절 단 공	7,890	보 이 라 공	6,890	도 십 장	10,150	계 도 사	9,170
석 공	7,350	냉 동 공	8,720	벌 목 부	5,590	미 술 사	6,240
할 석 공	9,150	배 관 공	7,540	조 립 인 부	5,940	시 험 사 1 급	10,730
특수배제공(15m이상)	8,830	온 돌 공	8,040	프랜트기계설치공	5,310	시 험 사 2 급	9,700
비 계 공	9,560	위 생 공	8,020	프랜트기계용접공	8,750	시 험 사 3 급	8,120
동 발 공(터널)	8,240	보 온 공	7,370	프랜트기계배관공	7,730	십 장	7,850
제 철 축 로 공	7,440	도 장 공	6,650	프랜트기계제관공	9,080	목 도	9,070
조 적 공	13,260	계 령 공	7,550	시 공 측 량 사	10,290	연 돌 소 제 부	5,530
벽돌(분류)제작공	7,770	내 장 공	5,420	시 공 측 량 사 조수	5,810	숙련공외조공	6,010
연 돌 공	7,950	돛 자 리 공	8,100	측 부	4,450	특 별 인 부	6,530
미 장 공	7,880	도 배 공	7,610	검 조 부	3,810	보 통 인 부	4,820
	8,320		8,010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직 종 명	단 가
여 자 인 부	2,870	철 물 절 단 공	4,040	방 직 기 제 보 전 공	5,380	통 신 기 능 사	5,540
중 기 운 전 기 사	8,750	산 소 절 단 공	4,260	편 직 공	3,040	목 제 포 장 공	3,520
운 전 사(운반차)	8,300	회 전 쇠 틀 공	4,110	형 편 공	4,830	양 목 처 리 공(여)	3,210
운 전 사(기계)	8,080	금 속 쇠 틀 공	4,290	제 화 공	3,520	목 도	4,100
중 기 운 전 조 수	5,720	모 형 절 단 공	3,730	파 혁 공	2,850	드 릴 공	3,870
고 급 선 원	9,700	가 위 절 단 공	2,700	빵 과 자 및 식 품 류	3,560	신 선 공	3,740
보 통 선 원	7,080	단 금 절 단 공	3,440	제 조 공(남)	3,560	연 선 공	2,890
선 부	6,230	초 음 파 절 단 공	3,400	식 자 공	4,640	절 연 공	3,620
준 설 선 선 장	11,200	방 전 절 단 공	4,610	문 선 공	4,580	연 합 공	4,140
준 설 선 기 관 장	10,420	부 품 조 정 공	3,530	필 경 사	6,630	대 연 공	3,590
준 설 선 기 관 사	8,460	제 품 조 정 공	3,940	공 판 타 자 수	5,360	테 이 평 공	4,200
준 설 선 운 전 사	7,810	부 품 검 사 공	3,730	프 린 트 인 쇄 공	4,920	캐 이 블 전 조 공	3,610
준 설 선 전 기 사	7,660	제 품 검 사 공	3,310	교 정 사	6,390	캐 이 블 제 조 공	3,230
사 공(배포함)	9,360	물 품 포 장 공	3,100	지 류 제 단 공	4,460	피 복 공	3,650
기 계 설 치 공	7,630	철 강 포 장 공	4,350	직 물 재 단 사	8,300	권 취 공	3,490
시 험 자 4 급	6,660	도 안 공	7,120	직 물 재 단 공	3,670	함 석 공	4,800
시 험 보 조 수	5,320	제 본 공(남)	4,940	상 침 공	2,740	문 자 조 각 기 공	4,690
바 파 파 시 험 사	8,660	제 본 공(여)	2,970	하 침 공	2,080	구 목 공	3,570
안전관리기사 1급	12,620	공 판 인 쇄 공	5,800	이 본 침 공	3,380	리 벳 공	4,210
안전관리기사 2급	8,300	읍 셋 인 쇄 공	6,200	오 바 로 그 공	2,610	전 기 용 접 공	4,400
마 부(우마차포함)	13,510	환 판 인 쇄 공	5,600	김 검 기 공	2,640	가 스 용 접 공	4,350
제 재 공	7,990	사 진 조 판 공	6,550	컴 퓨 터 운 전 사	5,840	뎀 납 용 접 공	3,940
유 리 공	7,480	인 쇄 동 관 제 조 공	4,570	기 계 기 술 공	5,660	접 접 공	3,600
합 석 공	7,120	인 쇄 연 관 제 조 공	4,730	보 선 공	5,200	권 선 공	3,410
용 접 공	8,120	목 재 전 조 기 계 공	4,410	차 량 정 비 공	5,260	람 평 공	2,870
리 벳 공	9,330	합 판 제 조 공	3,160	기 계 정 비 공	5,280	레이 저 광 선 공	6,250
빠 데 도 포 공	6,790	가 구 공	5,180	안 전 관 리 사	7,860	합 금 공	4,490
루 평 공	7,730	목 공 및 유 리 공	4,540	품 질 관 리 사	9,740	제 금 공	3,600
제 조 부 문		벨트콘베어작업공(남)	4,310	품 질 관 리 공	4,230	연 화 공	4,220
		벨트콘베어작업공(여)	3,190	다 음 질 공	3,930	빠 데 도 포 공	4,250
기 계 설 계 사	7,660	부 품 조 립 공	3,080	중 기 운 전 사	5,480	흙 밍 공	2,760
회 로 설 계 사	8,340	전 자 제 품 조 립 공	2,540	컴 퓨 터 S/W 기 사	13,010	배 선 공	4,490
제 도 사	5,310	약 전 기 계 조 립 공	3,580	컴 퓨 터 H/W 기 사	13,220	전 기 도 금 공	3,700
현 도 사	5,730	강 전 기 계 조 립 공	4,480	통 신 기 계 조 립 공	2,930	침 적 도 금 공	3,630
모 형 조 각 기 공	4,140	경 기 계 조 립 공	4,000	컴 퓨 터 키 편 치 공	4,130	사 출 공(인제선)	3,920
3 본 로 라 공	4,610	중 기 계 조 립 공	4,570	통 신 외 선 공	6,430	성 형 공(물딩)	4,170
벤 딩 머 신 공	3,810	부 품 시 험 공	4,250	통 신 내 선 공	5,660	압출공(인스트루슨)	4,100
절 곡 공	3,670	제 품 시 험 공	4,120	빵, 과 자 및 식 품 류	2,900	요 업 공	4,560
수 동 교 선 공	4,260	인 타 로 그 공	2,530	제 조 공(여)	4,660	유 리 제 품 제 조 공	4,480
바 란 스 머 신 공	4,600	스 냅 공	2,190	조 리 사	5,440	그 라 인 다 공	3,550
요 철 공	3,110	연 단 공	2,300	영 양 사	3,880	지 석 연 마 공	4,060
열 처 리 공	4,330	직 포 공(여)	2,850	남 자 인 부	2,220	사 지 공	3,150
용 해 공	4,350	침 염 공	3,130	여 자 인 부	5,510	세 척 공	3,490
금 형 공	5,020	연 사 공(여)	2,750	심 장	5,920	빠 후 공	3,890
목 형 공	4,940	정 경 공(여)	2,830	양 목 처 리 공(남)	5,850	몸 과 운 드 연 마 공	4,120
주 물 공	4,060	염 직 공(여)	3,400	무 선 안 테 나 공	12,440	전 해 연 마 공	3,500
마 킹 공	3,920	관 전 공(여)	2,930	통 신 기 사 1 급	8,820	화 학 연 마 공	3,480
철 물 재 단 사	5,520	채 봉 거 제 사	4,120	통 신 기 사 2 급		호 닝 공	3,890

작 종 명	단 가	작 종 명	단 가	작 종 명	단 가	작 종 명	단 가
다 이 커 스 트 공	4,500	태 핑 공	3,630	도 장 공(취부)	4,450	제 재 공	5,290
단 조 공	4,930	보 립 공	4,570	도 장 공(붙칠)	3,720	제 재 조 공	2,910
샤 립 공	4,140	자 동 선 반 공	4,600	양 극 처 리 공	2,880	정 칩 공	2,970
프 레 스 공	3,850	수 동 선 반 공	4,500	합성수지피막공	4,510	제 재 기 계 운 전 공	4,600
프 레 스 조 공	2,990	프 레 나 공	4,420	진공침적합침공	3,520	일 반 화 학 조 공	3,720
밀 립 공	4,330	스 롯 타 공	4,520	일 반 화 학 공	4,810	조 성 화 학 공	4,780
쇄 파 공	4,560	볼 반 공	3,880	압 연 공	4,610	조 성 화 학 조 공	3,480
홍 핑 공	4,110	강 판 공	4,240	인 발 공	4,370	고 무 제 품 제 조 공	3,650
로 구 로 공	4,110	판 금 공	4,860	압 출 공	4,650	도 자 기 및 애 자 공	5,340

/ 住宅 / 특집을 위한 會員作品 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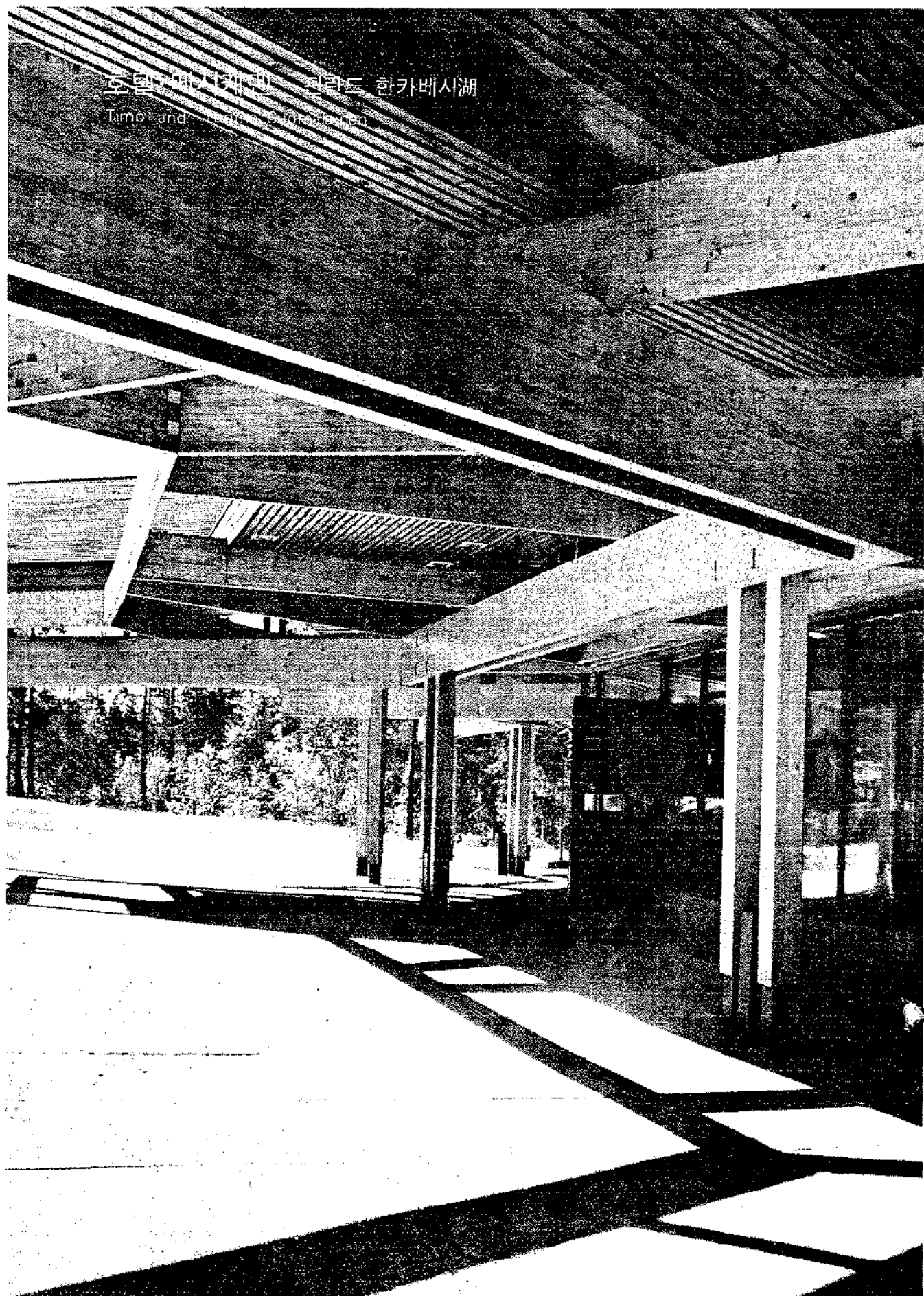
本誌 會員作品편에 住宅작품을 特輯으로 掲載하고자
다음과 같이 作品을 모집합니다.

1. 掲載號數 : 1981年 9月號(第150號)
2. 提出時限 : 1981年 8月10限
本協會 出版事業部
3. 作品內容 :
住宅(單獨)作品으로 3年内(1978年 7月 以後 現在까지)
竣工된 會誌에 掲載되지 않은 1~2作品
4. 具備圖書 :
 - ① 作家사진 (인물스냅형)
 - ② 主要學歷 및 經歷·主要設計作品名
 - ③ 全景(칼라슬라이드) ※ 會誌에 칼라 印刷예정임.
 - ④ 内部사진은 흑백으로 3~4매
 - ⑤ 其他 具備圖書作成 要領은 會員設計作品應募要領
(1981년 4월호 회지 P63)을 參考바람.
5. 其 他 :
 - ① 본 특집은 1作品당 2페이지씩 편집됨.
 - ② 그밖에 住宅作品외의 作品도 수시로 접수되오니 계속
보내 주시기 바람.

〈출판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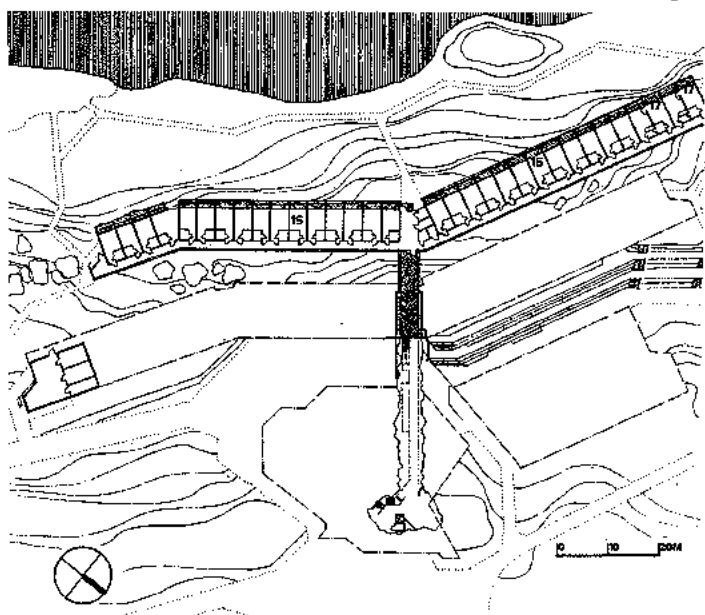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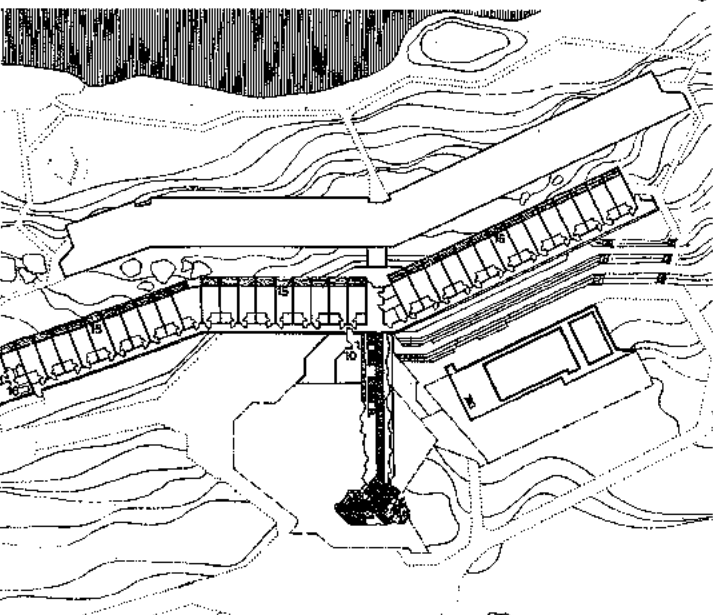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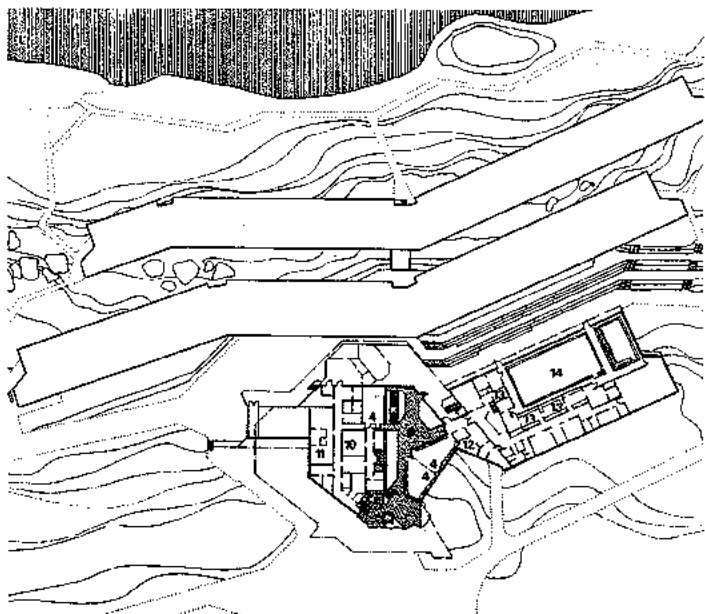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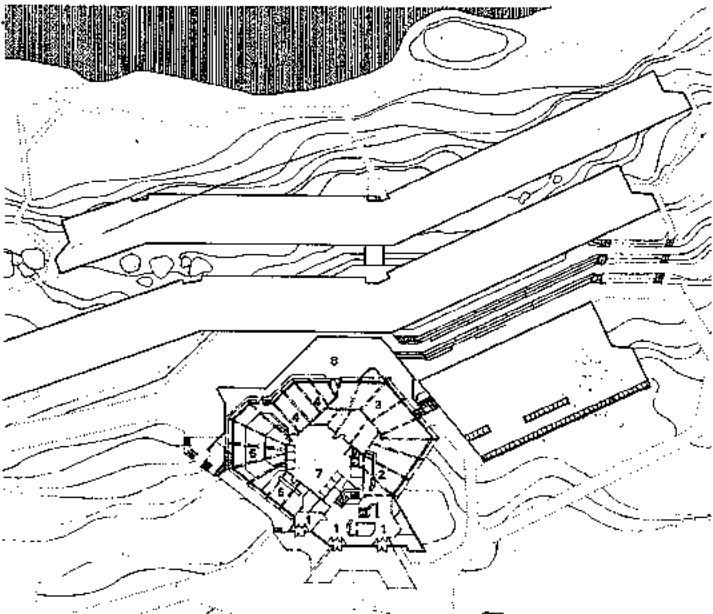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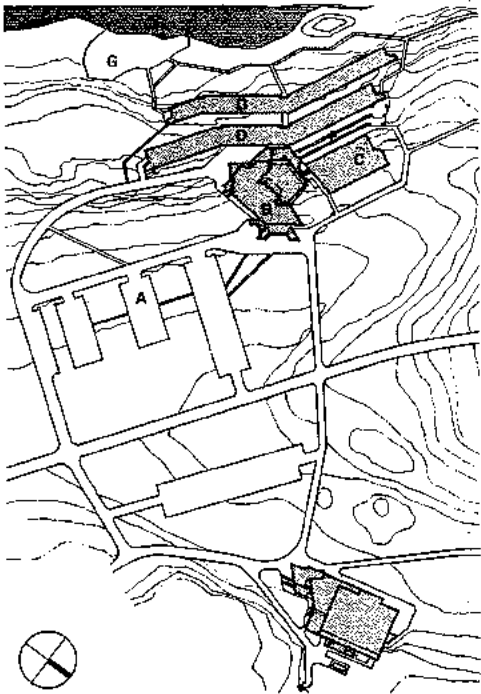
호텔 메사켄 - 핀란드 한카베시호

Timo and Jaakko Pöytäniemi





Timo (above) and
Tuomo Suomalainen



P. 97

① 玄関설터

P. 98

② 配置図

A. 駐車場

B. 레스토랑·캐프eteria

C. 풀장

D. 호텔 客室

E. 日光浴場

F. 屋外테라스

G. 海邊

③ 南東쪽 上空에서 바라본 景致

④ 4 層平面圖

⑤ 3 層平面圖

⑥ 2 層平面圖

⑦ 1 層平面圖

1. 玄關홀

2. 바-

3. 레스토랑

4. 캐비네트室

5. 講 堂

6. 캐프eteria

7. 廚 房

8. 屋外테라스

9. 岩石에 둘러싸인 廊下

10. 收納·서비스홀室

11. 從業員室

12. 理髮室

13. 사우나 16.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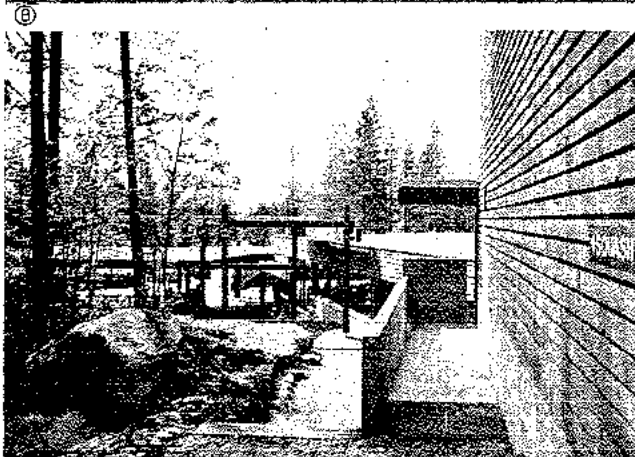
14. 풀장 17. 貨室 (아파트)

15. 客室

⑧ 北西쪽에서 풀장과 客室棟 사이의 안뜰을 바라봄

⑨ ⑬ 玄關壁의 構造

⑩ 階段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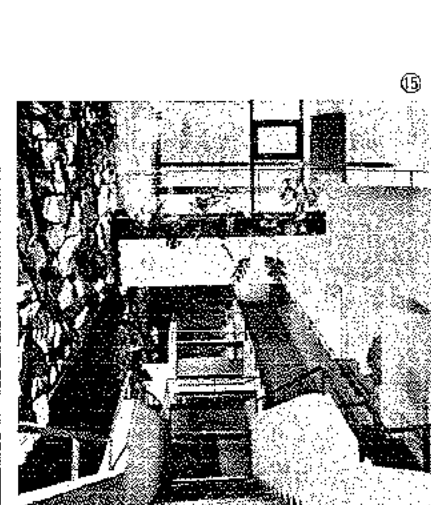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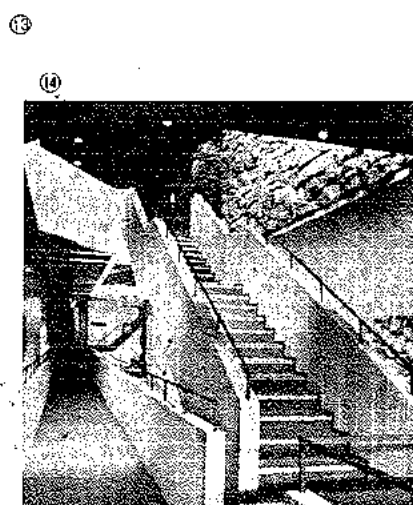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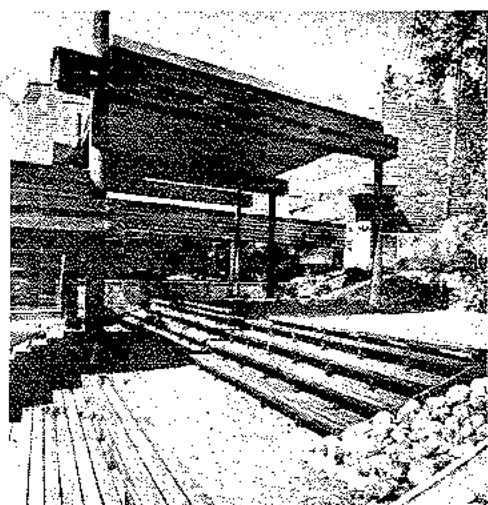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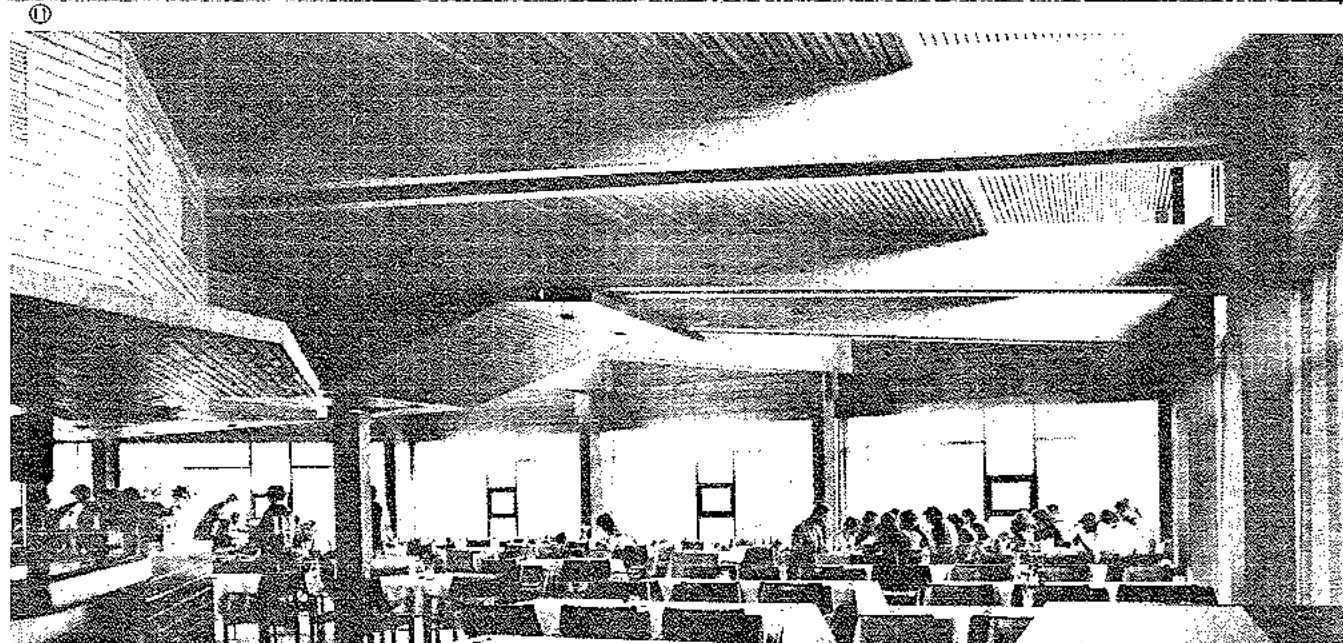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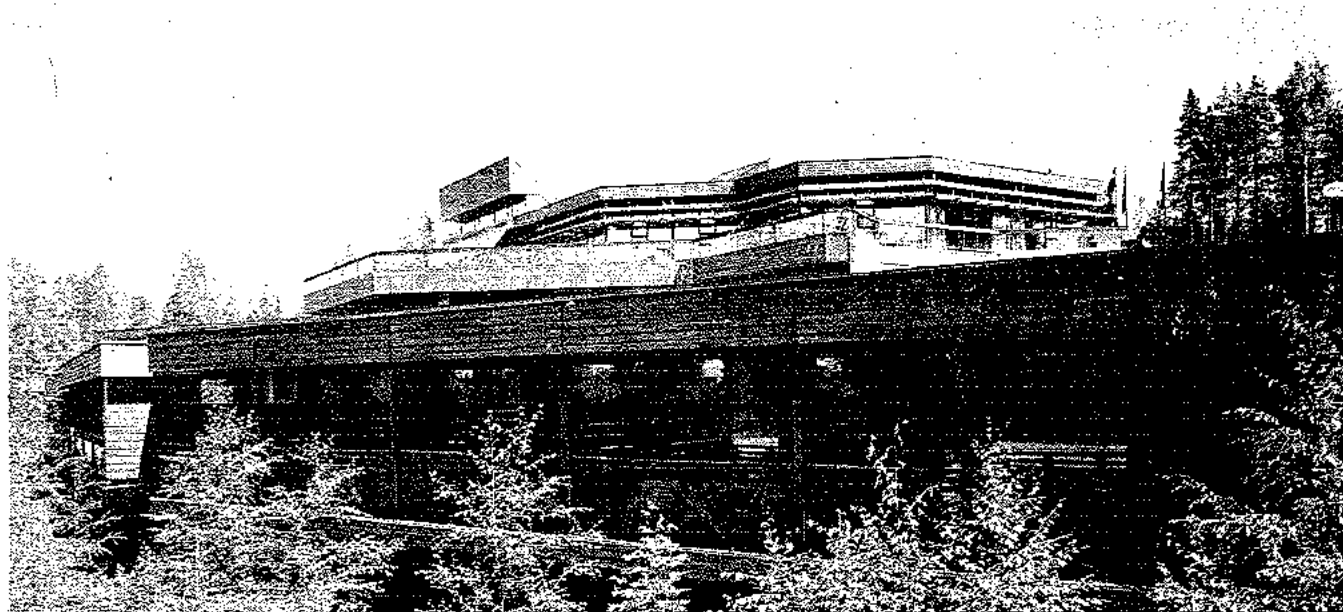


⑪ 客室棟上層部와 레스토랑

⑫ 레스토랑의 内部

⑭ 岩石으로 둘러싸인 廊下中の 階段

⑮ 3層홀에서 岩石으로 둘러싸인 廊下를 내려다 봄



호텔·메시캐멘의 계획

네빌·크라우텐

호텔·메시캐멘(設計: 1973年, 竣工: 1976年)은 小都市 Ahtari로부터 6km 정도되는 곳에 있는 Hankavesi湖畔에 면한丘陵地의 松林속에 있다.

共同으로 사용되는 映画와 스포츠를 위한 建物(設計: 1978年, 竣工: 1979年)은 호텔보다 더위의 斜面에 있다. 이 廣大한 森林의 敷地에는 많은 徒歩 利用의 小道가 있고, 두 建物에서 얼마되지 않는 곳에는 스칸디나비아産 動物을 모아둔 動物公園도 있다.

호텔·메시캐멘計劃의 本質적인 要件을 討議하는 中에, 施工主와 設計者는 이 敷地에 세울 建物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고, 自然의 一部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点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人跡이 드문 場所에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自然 속에 있는 사람같다. 會議用 施設과 個人客用 施設을 具備한 第一級 森林속의 호텔은, 利用者의 大部分에 充分히 安堵感을 주며, 森林이라고 하는 背景이 가져다 주는 制約等을 불러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建物이 自然과 共存하면 그 建物의 形態는 더욱 密着되고, 더 詳細한 自然의 觀察에 依하여 더 深奧한 表現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의 建物은 주로 호텔의 顧客을 위한 스포츠·홀로서 意圖되었다. 施工主는 이 建物이 호텔과 動物公園과의 結合을 強調하고 있음을 바람과 同時に 그것을 念頭에 둔 北國의 動物의 立体映画 製作을 依賴하였다. 1979年 여름, 建物은 두가지 用途-夜間에는 屋內 스포츠場, 晝間에는 立体映画의 上映場-으로서 開館하였다.

以上 두개의 建物에 대한 設計者의 設計方法은, 自然環境 사람들이 모이는 場所 建物의 素材에 있어서 되어지는 詳細한 視覺上의 表現이라고 하는 세가지에 依하여 論해진다.

自然環境에 대한 感性

鐵道나 車에 依한 Ahtari까지의 긴 旅行은 森林과 湖水라고 하는 핀란드가 가진 또 하나의 風景에 사람을 끌어 들인다. 호텔 建物까지의 出入은 사람들이 말하는 目的地到着을 意味한다. 突出한 入口 玄關은 建物의 最上層(第4層)에 있는 乘客到着區域의 셀터 役割을 果하고 있다. 이 到着地点에는 豊富한 木造의 詳細가 사용되고 있다. 호텔의 客室部分(第1層, 第2層)은 湖水가까이에 配置되어 있다.

建設用地的 地形은 주로 호텔의 客室이 그 地形에 沿하여 配置되어, 中央서비스 施設을 會議場과 食堂部分의 아래에 들 수 있다는 두가지 面에서 決定되었다. 敷地 計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비마·스포츠館은 호텔보다 높은 敷地에 配置되어 있다. 더구나 計劃에 臨하여 이 建物用地的 地形만이 考慮된 것은 아니다. 建物의 모양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周圍의 環境이 큰 影響을 주는 것이다.

教会까지 가는 步行者의 出入路는 '굽은' 軸線에 沿해 있다.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入口는 駐車場과 連通하고 있다. 더욱이 거기에는 充分한 部分에, 걸쳐서 直線을 避한다고 하는 設計意圖를 看取할 수 있다. 各記의 空間을 가진 形態는 注意

깊이 他의 空間과 關連하고 있어서, 建物은 全体로서 하얀 壁과 天井을 가진 單純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3) 大小 피라밋形 유리面에 向하여 넓혀진 두 三角形 프리즘을 採用한 것은 스포츠나 社交等의 여러가지 活動에 있어서도 建物内外의 空間을 經驗함에 있어서도 重要하다.

Hamina의 風景은 Ahtari의 風景에 比하여 單調하다. Ristiniemi教会의 敷地의 똑바로된 長大한 樹木과 굽이진 地形은 Hankavemi 湖周邊의 變化에 豊富한, 複雜한 斜面, 굽은가지를 붙이고 있는 樹木, 크고 모양이 多樣한 岩石等과 對照의 이다. 가까이서 觀察하면, 더 一層 詳細한 相違를 찾게된다. 호텔·메시캐멘은 決코 Ristiniemi教会의 境遇와 같이 단한가지 幾何學이 「擴散」된 것이 아니라면 空間과 形態를 體驗할 때의 簡明性을 가진 것도 아니다.

호텔·메시캐멘의 平面圖, 断面圖를 参照하면 호텔의 客室에는 各記 말코니가 付屬되어 있어, 湖水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두개의 下層의 客室棟에서 中央廊下가 床岩을 切斷한 모양으로 貫通하여, 地下의 自然構造를 露呈하고 있다. 階段과 梁 그리고 入口 브릿지가 橫切한 이 劇적인 一連의 小道(그림4.5)가 建物의 四層을 通하여 會議室, 食堂部分에 連해 있다. 이 地表下의 物質의 自然像은, 地表에 나타난 岩石이나 森林의 草木, 地表를 덮고 있는 풀나무에 더하여 敷地에의 興味를 불러 일으킨다. 花崗岩의 強度, 岩石의 自然的인 裂狀이나 地下水의 솟아 오름은 이 建物과 一체가 된 大地의 姿 態를 나타내고 있다. 壁面基部에 있는 單純하고 小型인 숫가락 모양의 排水口가 別途의 排水口 없이 地下水를 排水한다. 敷地 全体와 建物과의 一體化는 成功的이다.

集合場所를 위한 非直線 計劃

Timo와 Tumo Suomalainen을 始發로 하여 핀란드의 建築家들은 從來부터 管理, 서비스 機能을 위한 房과 略式으로 보이는 集會場으로서 더 自由로운 雰囲気을 주는 場所를 提供하기 위한 論理와 經濟學으로서, 이 두가지 幾何學을 그의 境遇에 맞추어 組合 使用하여 왔다. 이 相異한 空間의 幾何學에서 나타난 面白한 것은 그 對比의 妙에 따라 一層 強調되는 것이다. 호텔, 메시캐멘의 計劃에서는 經濟性과 家具 配置의 容易點에서 客室이나 서비스區域, 또한 홀장이나 物理療法室, 사우나에 直線의 幾何學을 使用하고 있다. 廚房을 에워싼 레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토랑 其他 宴會場部分은 計劃上 意圖의으로 一層 自由로와 그 詳細도 複雜한 것이되어 있다. 緊張解消感과 複雜性의 容認이라 하는 非直線의計劃이 가진 두가지 概念은 아무튼 最初로 矛盾의 形으로 나타났다.

Suomalainen兄弟는, 空間의 軸이 建物의 形態보다 緊張解消感을 준다는 것은, 建物의 形態가 適合치 않은 때라고 主張한다. 만일 單純한 四角의 箱子로 周圍를 直接 둘러싸다면, 周圍環境은 決코 緊張解消感을 주기 爲한 措置를 할 수 없다고 믿어진다. 建物의 使用者는 그 建築中에 變化를 나타내기 爲하여 努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Ahtari의 호텔 食堂部分에는 最終의으로 系統을 세운 形態에는 미치지 못하는 넓은 幾何學이 存在한다. 이 空間은 人間活動의 合理化를 示現하는 것은 아니다. 例컨대, 天井梁의 配置는, 確固한 體系에 依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空間을 移動하여 食卓에 앉으며 窓壁의 配置는 周圍의 風景의 間斷없는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木製 構造體의 交錯하는 部分을 縫한 곳들에 있는 天井의 높은 部分에서 하늘이 보인다.

Suomalainen兄弟가 다음으로 生覺한 것은, 사람들이 호텔의 레스토랑에 들어온 때에는 벌써 그들의 「儀式」에의 參加感情이 高潮되어 그들 自身 周圍를 視察도 하고, 現在 自己들이 있는 建築을 그들의 體驗에 立脚하여 불 準備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한걸음 한걸음마다 무엇이든 새로운 發見이 있고, 모서리마다 모두 個人的인 것에서 共通的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規模로서 새로운 體驗이 있다. 緊張을 完全히 解消하기 爲하여 가장 重要한 場所는 또한 한눈으로 보다 区分할수 없고 生覺과 複雜함이 섞인 空間이다.

Suomalainen兄弟는 視覺的으로 複雜하여, 그위에 一種類 내지 二種類의 素材에 依한 一貫된 材質과 마무리 準備에 相當한 時間을 消費하였다. 호텔·메시캐멘의 食堂空間의 素材는 淡色の 木材와 유리이다. (그림 6, 7)

大衆集合場을 分離한 理由는 根本的인 人間의 經驗과 關連되어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場所— 그것은 場所가 갖는 順位中 最高에 位置하는 것이다. 보다 自由로운 幾何學中에 包舍되어 注意 깊이 四角形의 領域에 接屬되어 있다.

호텔·메시캐멘의 中央 복도아래에는 이 두가지 幾何學을 結付한 것으로서 重要하다. 이 中央에 있는 순환구역(Circulation space)의 計劃에서 우리는 一本의 直線廊下(第1層)가 높은 岩壁사이를 通하는 劇的인 小道로(第2層) 自由스러운 平面을 갖는 第3層에 到達하기까지의 變化를 볼 수 있다.

씨비마·스포츠館의 設計에 있어서는, 농구를 비롯한 屋內스포츠用 코트가 長方形이므로, 이 큰 空間의 規則的인 모양이 決定되었다. 이 平面(그림 8)은 여기서는 “Stereo70”을 上映할 때의 配置로 나타나 있다. 휴게실은 이 大 홀과 Squash(일종의 球技)用 코트의 直線의 計劃에서 木造의 기둥과 梁으로 構成된 入口玄關의 斜角으로 構成된 計劃에의 變化에 順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9)

두 채의 建物에 딸린 木造 玄關과 베란다는 外側의 入口空間을 建物에서 대범하게 分離하여, 建物에 出入하는 步行者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課題를 統一하고 있다. 호텔의 玄關에서 二個所 비스듬한 곳에 突出한 部分이 있어서 거기에서 接受部分(Reception area)과 레스토랑의 入口에 達한다. 主玄關과 거기에 따른 副次的인 玄關의 사이의 작은 楨間이 커피·숍의 直接入口을 隔하고 있다(그림 10) 씨비마·

스포츠館의 넓은 베란다部分은 호텔에 通하고 入口地帶를 構成하면서, 더욱이 메인, 홀 部分의 規模縮小의 役割도 하고 있다. 같은 모양으로 하여 스케일상의 理由로 씨비마用 出口 周圍의 튀어나온 部分에는 2層의 木構造가 加味되어 있다.

여기에 보이는 入口, 集會, 小人數의 集團等에의 서비스活動을 爲한 計劃의 原則은 Timo 및 Tuomo Suomalainen의 最近 作品에서도 繼續되고 있다. Espo의 Kivenlahden 教會에서는 휴게실이나 禮拜堂 때문에 自由로히 拡散하는 幾何學이 管理用의 諸室, 小集團이나 클럽의 集會室, 保育室, 暖房機械室等を 爲한 四角形의 計劃과 共히 同一-建物中에 나타나 있다. 이 境遇는 敷地도 制限된 不整形의 것이다. 建物은 海岸에 있는 住宅에서 計劃中의 店舖나 教會에 付屬된 圖書館(그림 11)에의 步行者用 出入路와 關連시켜 設計되었다.

木造玄關과 鍾樓의 規模는 將來 予定되어 있는 이들 大衆의 人 建物과 既存 建物이나 予測된 步行者의 흐름에 相應하는 것이다. 教會의 外壁은 隣接한 建物의 것과 關連코자 흰 콘크리트로 하여, 上部에 銅이 使用되어 있다.

素材의 表現

Timo 및 Tuomo Suomalainen의 作品은 大地의 永遠性과 함에 對하여 그 大地上에 세워진 構造物의 輕快함이 갖는 強烈한 調和를 나타낸다.

호텔·메시캐멘의 中央廊下에 보이는 壁面의 不規則性과 規模는 避難과 安全을 爲한 大地를 切閉하였다고 하는 特殊한

性格을 이곳에 주어진 일에 크게 反映하고 있다. 床岩의 詳細, 龜裂, 새어나오는 물은 이 空間이 自然과 密接하게 結合된 것을 우리에게 想起시킨다. 開削技術의 成果를 新鮮한 感覺을 가진 사람손이 닿지 않은 이곳의 岩石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루어진 作業의 性質을 伝하는 눈에도 分明한 機械 仵공의 痕跡이나 不規則한 斷口에 依해서도 變하지 않는 意味가 그곳에 있다. 그것은 原物이 남아있다고 하는 感覺이 있는 것이다.

岩床 위에 세워진 直線으로 構成된 建物의 輕快함도 亦是 素材에 對하여 이루어진 表現의 原則을 나타내고 있다. 森林의 樹木은 짓고, 벗겨주고, 切斷되어 스페인塗裝된다. 그 作業은 自然의 質을 損傷하지 않도록 配慮하여 行해진다. 그 配慮는 森林의 現場으로 부터 製材所, 建設現場에 引繼된다. 巨大한 기둥은 製材된다. 그것은 建築家가 要求하고 있는 適確한



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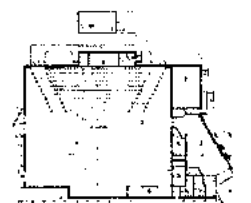


그림 7

性格을 一層 強調한다. 호텔·메시캐멘의 木材의 色彩는 밝은 黃色에 對하여 씨비마·스포츠館의 色彩는 짙은 綠色으로 그 色彩가 外壁의 量感을 背後의 森林으로 減退되어 있다.

設計者는 익히 알고 있는 素材의 性質과 特質을 充分히 알고 있는 핀란드 特有의 建設者의 伝統을 이어 받은 것이다. 새로운 素材나 技術은 細心한 實驗을 거쳐서 처음으로 採用된 것이다.

結 論

Timo 및 Tuomo Suomalainen의 最近作品에는 分明히 自然環境 사람들이 모이는 方法에의 理解, 素材를 豊富하게 表現하는 것에 關한 根本的인 確信이 있다. 호텔·메시캐멘의 分析에 따라, 우리는 그들의 作品을 대충 여섯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即,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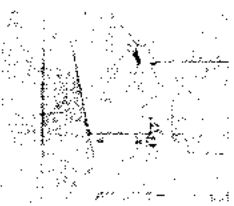


그림 10



그림 9

- 周圍環境의 大部分이 建物形態의 決定에 影響을 준다.
- 環境을 造成하는 關係中에는 敷地의 地下部分도 包含되어 있다. 建築家는 特定 場所로서 相応하는 것을 探究하여 獎勵한다.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地表下의 構造도 場所의 感覺에 關與하는 것으로서 그에 包含되어 있다.
- 付加된 建物形態의 輕快함은, 大地를 조개어 얻은 大地構造의 永達性이라고 하는 空間體驗에 對하여 重要한 調和를 이룬다.
- 岩盤과 木造技術의 視覺體驗에 있어서 Suomalainen 兄弟는 外面의 表現을 爲한 法則을 公式化하였다. 거기에는 限定된 單語의 構造要素를 使用한 作業에의 哲學的配慮가 있다. 素材가 갖는 質感은 地下部分과의 調和가 가장 많이 考慮되고, 거기에 破碎된 岩石의 粗野한 짜임새와 軟木의 組合에 依한 매끄러움이 加해져 있다.
- 非直線의 空間을 모여 活動하는데 쓰이는 理由는, 設計全體를 通해서 他의 要素에는 縫込되어 있다.
- 入口, 集会, 小集團을 爲한 씨비스 活動은 空間의 幾何學的形態의 組合으로 이끈다.

自然風土의 重要性和 自由로운 幾何學的 形態가 集合空間을 計劃할 境遇에 有効하다는 것은, 핀란드 建築家에는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觀察과 조심스러운 取極이라는 獨特한 過程을 通하여 Timo 및 Tuomo Suomalainen은 사람들에 相応하는 空間을 提供한다. 사람들 即 그 建物의 使用者도 또한 觀察力과 考察力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그 힘을 空間에 依하여 보다 發展토록 힘을 주는 것이다.

Neville Clouten建築史家 핀란드大學建築學部 教授

祝

大邱 直轄市 昇格

仁川 直轄市 昇格

월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월별		'80	'81	전년대비
	동 수	연 면 적	동 수 연 면 적	(%)
1	5,998	1,846,698	2,364 843,447	45.7
2	6,344	1,851,785	3,535 1,040,968	56.2
3	13,530	2,883,090	8,123 1,931,949	67.0
4	14,129	2,906,362	9,875 2,481,179	85.4
5	11,595	2,803,050	8,401 2,370,273	34.6
계	51,596	12,290,985	32,299 8,667,816	70.5

구조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m²

구조별	월 별	5 월	1 ~ 5 월
	연면적	'80 '81 대비%	'80 '81 대비 %
철 근	동 수	8,143 2,105 98.2	1 16,790 7,911 73.6
철골조	연면적	1,563,950 1,602,928 102.5	7,209,047 5,873,577 81.5
조적조	동 수	9,096 6,964 65.6	39,123 23,122 59.1
	연면적	1,207,174 726,245 60.6	4,910,372 2,676,384 54.5
목 조	동 수	224 205 91.5	1,023 801 77.9
	연면적	15,258 17,377 113.9	72,634 56,530 77.8
기 타	동 수	132 127 96.2	736 465 63.2
	연면적	16,668 23,723 142.3	989 32 61,845 62.5
계	동 수	11,595 8,401 72.5	51,596 32,299 62.6
	연면적	2,803,050 2,370,273 84.6	12,290,985 8,667,816 70.5

용도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m²

용도별	월 별	5 월	1 ~ 5 월
	연면적	'80 '81 대비%	'80 '81 대비 %
주거용	동 수	9,129 5,787 63.4	40,184 22,653 56.4
	연면적	1,803,772 1,224,313 67.9	7,385,101 4,449,145 60.2
상업용	동 수	1,564 1,720 110.0	7,591 6,238 82.8
	연면적	527,456 587,036 111.3	2,749,132 2,232,679 81.2
공업용	동 수	254 240 94.5	1,004 898 89.4
	연면적	191,923 294,789 153.6	903,220 910,421 100.3
문 교	동 수	221 265 125	812 899 110.7
사회용	연면적	173,656 177,451 102.2	762,286 700,782 91.9
기 타	동 수	436 389 89.2	2,005 1,561 77.9
	연면적	106,243 86,684 81.6	491,246 374,789 76.3
계	동 수	11,595 8,401 72.5	51,596 32,299 62.6
	연면적	2,803,050 2,370,273 84.6	12,290,985 8,667,816 70.5

시·도별 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m²

시·도	월 별	5 월	1 ~ 5 월
		'80 '81 대비%	'80 '81 대비 %
서울	동 수	1,979 1,379 11.5	8,583 5,353 62.4
	연면적	708,717 584,079 82.4	3,175,450 2,404,198 75.7
부산	동 수	857 495 57.8	4,536 2,094 46.2
	연면적	234,294 181,980 77.7	1,234,545 691,283 55.8
경기	동 수	2,594 1,449 57.8	9,640 5,247 54.9
	연면적	686,368 395,779 57.7	2,303,863 1,443,316 62.6
강원	동 수	486 474 97.5	1,772 1,680 94.8
	연면적	184,897 142,900 77.3	381,519 444,062 116.4
충북	동 수	478 449 93.9	2,242 1,713 76.6
	연면적	74,627 67,908 91.0	340,658 286,017 84.0
충남	동 수	1,100 800 72.7	5,066 3,164 62.5
	연면적	180,540 181,992 100.8	913,975 667,211 73.0
전북	동 수	674 502 4.5	3,690 1,661 45.0
	연면적	100,343 86,035 85.7	697,386 258,154 37.0
전남	동 수	853 750 87.9	4,121 3,048 74.0
	연면적	112,133 134,339 119.8	625,611 493,016 78.8
경북	동 수	1,327 1,044 78.7	6,194 4,162 67.2
	연면적	359,210 345,355 96.1	1,462,064 1,022,502 69.9
경남	동 수	1,006 830 82.5	4,480 3,176 70.9
	연면적	210,613 203,694 96.7	938,762 762,956 81.3
제주	동 수	240 179 74.6	1,272 940 74.4
	연면적	343,409 46,232 147.2	167,152 195,101 116.7
계	동 수	11,595 8,401 72.5	51,596 32,299 62.6
	연면적	2,803,050 2,370,273 84.6	12,290,985 8,667,816 70.5

5월지부별 도서등록신고 대비 (연면적)

지부	'80	'81	증 감	비율 (%)
서울지부	(M ²) 789,519	(M ²) 1,016,469	(M ²) 226,950	28.7%
부산	244,705	156,926	△ 87,779	△ 35.8
경기	761,541	504,015	△ 257,526	△ 33.8
강원	124,862	80,849	△ 44,013	△ 35.2
충북	70,605	74,982	4,377	6.1
충남	143,569	97,601	△ 45,968	△ 32.0
전북	97,836	82,302	△ 15,534	△ 15.8
전남	116,415	147,425	31,010	26.6
경북	364,607	291,465	△ 73,142	△ 20.0
경남	204,990	164,600	△ 40,390	△ 19.7
제주	39,882	22,257	△ 17,625	△ 44.1
계	2,958,531	2,638,891	△ 319,640	△ 10.8%

會員動靜

귀국 □ 지난 6.15부터 열흘간 폴란드에서 열렸던 U.I.A 15차 총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단 중 나상기(단장) 최창규(본회소속) 김정식(본회회원) 강석원(본회회원) 조성용·정희승씨 등이 구라과동지를 돌아보고 지난 7일과 8일을 전후해서 각각 귀국했다.

출국 “海外여행” □ 윤승중·전상백·공일근회원(서울지부속)을 비롯한 12명의 건축인들이 지난 6.25일부터 7.8일 스페인·독일등지를 돌아보기위해 출국. 現代建築의 발상지인 구라파의 주요都市들을 직접 답사하고 건축의 傳統과 근원을 확인하고자 현지로 갔다고.

출발 “기대합니다” □ 성일영회원(서울支部소속)은 민주당의 당 중앙위원겸 世黨 禹山·마포地區黨 부위원장에 피선된 후 폭넓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고. □ 안영준회원(서울支部소속)은 平和統一政策자문위원과 民施統一協議會서울처장을 맡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분주한 일과를 보내고 있

다. □ 李浩一회원(서울支部) 民正党中央委員으로 정당활동에 여념이 없는데다가 國韓合同建築設計事務所를 직접 경영하느라 바쁘다고.

□ 朴米男회원(서울支部) 한성전축대표인 동시에 民正党中央委員으로 정당활동에 여념이 없다.

□ 李世男회원(강원支部) 국일건축대표와 民正黨중앙위원직을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朴弘雨회원(충남支部) 民正黨중앙위원과 협창건축연구소 대표로 어느때보다도 바쁘다고.

번갈 서울支部: □ 송관식 회원/삼미종합건축기술공단 / 서울중구다동58/TEL. 777-5410 / 면허번호58/등록번호 종합30/5.26일 □ 안인모회원/삼미종합건축기술공단/서울중구다동58/TEL. 777-3374/면허번호21/등록번호 종합30/5.26일 □ 김관홍회원/삼미종합건축기술공단/서울중구다동58/TEL. 776-5771/면허번호26/등록번호종합30/5.26일 □ 김형인/세한건축종합사무소/서울도봉구수유동191-18/TEL. 988-4442/면허번호1045/단독종합31/6.16일/

위원 “불우이웃돕기” 강원支部: □ 강원지부임직원은 지난달 30일 중상이 용사 신재민(춘천시 후평동 480-1)씨를 방문하고 쌀한가마(5만원)를 전달하고 위문했다.

회견 “오래사세요” 서울支部: □ 임경모회원 모친 6.13

일 12시 30분 돈암동 녹음정에서 □ 오문수회원 모친 6.15일 봉천동 자택에서 □ 이세훈회원 모친 6.26일 신림동 자택에서

부산支部: □ 이병현회원 모친 6.25일 자택에서

경북支部: □ 정태섭회원 부친6월 10일에 □ 김팔섭회원 모친 6월 10일에

병환 “과유를 빌며” 서울支部:

□ 임병태회원 5.17일을 지병원 □ 김수학회원 5.30일세브란스병원

경기支部: □ 황갑선회원 5.18 일 강남성모병원

전북지부: □ 이성근회원 3.25일에 낙성하여 6개월간 가료중임

경북支部: □ 이중섭회원 6.24 일 교통사고로 소원영외과에 입원치료중임 □ 조정부회원 6.26일 간염으로 치료중임

별세 “명복을 빌며” 충북支部:

□ 석종구회원모친께서 지난 6.9일 별세 장지는 대덕군석북리 선영.

결혼 “祝賀합니다” 서울支部:

□ 임광택회원 장녀 결혼 6.4일 2시 강남터미널뉴코아 5층에서 □ 이상기회원 장녀 결혼 6.28일 10시 LCI예식장에서

경기支部: □ 임용수회원 3남 6.27일 진주예식장에서

강원支部: □ 한성일회원 장남 6.17일 12시 속초대한예식장에서